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김상범, 김현미, 이상아, 김태환, 이인정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김상범 전공 : 도덕교육 / ksangbum72@kice.re.kr
김현미 전공 : 지리교육 / hkim@kice.re.kr
이상아 전공 : 국어교육 / esangah@kice.re.kr
김태환 전공 : 일반사회교육 / ador252@kice.re.kr
이인정 전공 : 국민윤리교육 / injeong@unikorea.go.kr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T.043.931.0114 F.043.931.0884 www.kice.re.kr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책임자 | 김상범(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연구자 | 김현미, 이상아, 김태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인정(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조원 | 이수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보고 RRC 2020-4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성기선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소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전화 (043)931-0114
팩스 (043)931-0884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쇄업체 을지출판인쇄사 (043)222-1373
ISBN 979-11-5788-820-7 93370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연구협력진

강보선 (대구대)	김한중 (한국교원대)	이은경 (근남초)
권병조 (해운대여고)	김혜영 (이화중)	이정현 (이화중)
권재은 (인천송의초)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이종남 (근남초)
김경아 (탄현중)	박성춘 (서울대)	이창희 (안동대)
김경희 (창덕중)	방정은 (경기 덕인초)	임정진 (교육부)
김나영 (성사초)	서혜정 (서울신명초)	정경림 (중평중)
김동진 (이화여고)	신지선 (까치울중)	정명섭 (행신고)
김리나 (서울 장안중)	신호재 (공주대)	정지향 (상대초)
김민성 (서울대)	설규주 (경인교대)	정향진 (범어고)
김보인 (범어고)	손수진 (경서중)	정혜경 (한국기술교육대)
김봉제 (서울교대)	송영훈 (강원대)	조정아 (통일부)
김신동 (여명학교)	안대희 (천안쌍용고)	조희정 (효문고)
김영철 (피스모모)	윤원위 (해운대여고)	주은구 (태릉고)
김원예 (서울 덕산중)	윤지영 (통일부)	차승한 (한숲중)
김은희 (범어고)	이동기 (강원대)	최경옥 (인천동방초)
김정아 (경기 덕인초)	이병인 (서울사대부중)	최윤정 (경기 천마초)
김정여 (상대초)	이봉민 (한국방송통신대)	하성용 (경성고)
김정연 (태랑중)	이 선 (통일부)	
김지원 (김포 월곶초)	이성숙 (어린이 어깨동무)	
김진진 (난우중)	이수정 (불곡중)	
김하민 (서울영도초)	이승주 (여명학교)	

(이상 가나다 순)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역량, 목표를 정립하고 통일교육의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국정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되고 분단 극복과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평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명칭도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바뀌었고, 평화와 민주시민 양성에 초점을 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교육은 통일의 추상적인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일상의 삶 속에서 분단과 평화·통일에 대해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주제의 연구임에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연구진과, 본원 연구 과제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 협력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연구요약

◆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립하여 핵심역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교육의 현황 및 요구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며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평화·통일교육이 일부 교과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 탐색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분단 체제에서 평화와 공존의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교육부 등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 개념이 정확하게 학교 현장에 제시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채 다소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학, 평화교육, 통일교육 연구들과 함께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정립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대상은 총 20명으로,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 및 시·도 교육청 장학사,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델파이 조사 패널로 구성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본 연구는 합의도와 가독성이 높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그리고 총괄 및 학교급별 목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현황 분석

본 연구는 앞서 정립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기준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가 부족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 계기 교육 등은 형식적 일회성 교육 및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중·고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분석한 결과, 총 2,530개 성취기준 중 불과 27개 성취기준만이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어 있고, 이 소수의 성취기준마저도 도덕, 사회, 국어 등 일부 교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평화적·민주적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과서와 교과서 집필기준도 과거 통일·안보교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 개선,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 조사는 1, 3차는 온라인 서면 조사, 2차는 화상 면담 방식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연구학교 6개교, 일반학교 4개교의 초·중·고 교사,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유관 단체, NK교사와 같은 평화·통일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교사 전문성,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부문에서 수렴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과 평화·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나 자료집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업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교급 간 차이, 교과 간 연계를 고려한 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에 대한 요구도 존재하였다. 셋째, 교수·학습 및 자료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흥미롭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학생들의 체험이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일상적 삶과 연계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넷째, 교원 전문성에서는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연수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 공동체 각 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고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섯째,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조항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주체들의 활발한 협의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본 연구는 앞서 수행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현황 분석과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현황에 대한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 교육과정 개선 방향으로는 크게 평화·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 확보 및 관련 교과의 확대,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반영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반영을 위해서는 첫째, 남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 공존의 관점을 반영해야 하고, 둘째,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강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추상적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일상적 삶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수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현황 분석,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4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정립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일관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평화·통일교육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되고 있는 연수에 대한 신발적인 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수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각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개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에 있어 연수의 실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과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교육 방향성에 맞도록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차례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 내용	26
3. 연구 방법	29
II.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 탐색	31
1.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	32
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개념	32
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40
2. 평화·통일교육 연구 동향 분석	43
가. 평화학 및 평화교육, 평화교육-통일교육 연계 연구	43
나. 평화·통일교육 연구	51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59
3.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현황 분석	65
가. 통일교육의 정책 현황	65
나. 평화·통일교육 현황과 성과	71
III.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정립	87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도출 과정	88
가. 델파이 조사 방법	88
나. 델파이 조사 결과	93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목표 도출	113
IV.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현황 분석	125
1. 교육과정 총론 현황 분석	126
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26
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33
2.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138
가.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141
나.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170
다.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	211

3. 시사점	286
가.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의 시사점	286
나.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의 시사점	287
다.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의 시사점	288
V.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	293
1.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교 현장 요구 분석	299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301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303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310
라. 교사 전문성	319
마.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	325
2.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요구 분석	328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329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333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337
라. 교사 전문성	341
마. 법적, 제도적 환경	344
3. 시사점	347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348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349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350
라. 교사 전문성	351
마. 법적, 제도적 환경	352
VI.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355
1.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	356
2.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361
가. 평화·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 확보와 교과 확대	361
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반영	362

Ⅶ. 요약 및 정책 제언	365
1. 요약	366
2. 정책 제언	369
· 참고문헌	393
· ABSTRACT	407
부록	411
1. 델파이 조사지	412
2. 면담 조사 질문지(학교 현장 요구 조사용)	419
3. 면담 조사 질문지(사회적 요구 조사용)	422

표 차례

〈표 I-1-1〉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23
〈표 II-1-1〉	평화·통일교육 관련 용례 및 장·단점	37
〈표 II-1-2〉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의 사례	37
〈표 II-2-1〉	평화·통일교육의 역량 설정 사례	52
〈표 II-3-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74
〈표 II-3-2〉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76
〈표 II-3-3〉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78
〈표 II-3-4〉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81
〈표 II-3-5〉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82
〈표 III-1-1〉	1차·2차·3차 델파이 조사 설계	89
〈표 III-1-2〉	연구 내용 구분에 따른 델파이 조사 내용	91
〈표 III-1-3〉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개선된 핵심역량 목록	95
〈표 III-1-4〉	1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초안)	97
〈표 III-1-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의미(초안)	99
〈표 III-1-6〉	1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초안)	100
〈표 III-1-7〉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1
〈표 III-1-8〉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2
〈표 III-1-9〉	2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수정안)	104
〈표 III-1-10〉	2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의미(수정안)	105
〈표 III-1-11〉	2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수정안)	106
〈표 III-1-1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07
〈표 III-1-13〉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최종안 도출 과정	109
〈표 III-1-14〉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의미 최종안 도출 과정	111
〈표 III-1-15〉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최종안 도출 과정	112
〈표 IV-1-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	126
〈표 IV-1-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127
〈표 IV-1-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130
〈표 IV-1-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131
〈표 IV-1-5〉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 목표	132
〈표 IV-1-6〉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33
〈표 IV-2-1〉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및 구성 요소	139
〈표 IV-2-2〉	학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 분류 기준	140
〈표 IV-2-3〉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분석	142

〈표 IV-2-4〉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분석	143
〈표 IV-2-5〉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분석	145
〈표 IV-2-6〉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 분석	148
〈표 IV-2-7〉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분석	150
〈표 IV-2-8〉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 분석	151
〈표 IV-2-9〉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분석	152
〈표 IV-2-10〉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분석	153
〈표 IV-2-11〉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분석	154
〈표 IV-2-12〉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155
〈표 IV-2-13〉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분석	156
〈표 IV-2-14〉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분석	156
〈표 IV-2-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158
〈표 IV-2-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159
〈표 IV-2-17〉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 기준	160
〈표 IV-2-18〉	초·중·고 국·검정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현황	161
〈표 IV-2-19〉	국어과 교과용도서 공통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162
〈표 IV-2-20〉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163
〈표 IV-2-21〉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쟁점 사항	164
〈표 IV-2-22〉	도덕과 교과용도서 공통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165
〈표 IV-2-23〉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 분석	171
〈표 IV-2-24〉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 분석	173
〈표 IV-2-25〉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교육과정 분석	177
〈표 IV-2-26〉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분석	179
〈표 IV-2-27〉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 분석	181
〈표 IV-2-28〉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분석	186
〈표 IV-2-29〉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분석	187
〈표 IV-2-30〉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분석	189
〈표 IV-2-31〉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 분석	191
〈표 IV-2-32〉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체육 교육과정 분석	192
〈표 IV-2-33〉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음악 교육과정 분석	194
〈표 IV-2-34〉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195
〈표 IV-2-35〉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영어 교육과정 분석	195
〈표 IV-2-36〉	중학교 국어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196
〈표 IV-2-37〉	중학교 사회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197

〈표 IV-2-38〉	중학교 도덕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198
〈표 IV-2-39〉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평화·통일 교육 관련 서술 분량	204
〈표 IV-2-40〉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	205
〈표 IV-2-41〉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평화·통일 관련 학습 목표 비교	206
〈표 IV-2-4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분석	212
〈표 IV-2-4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육과정 분석	214
〈표 IV-2-4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독서 교육과정 분석	216
〈표 IV-2-4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 분석	217
〈표 IV-2-4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 분석	218
〈표 IV-2-4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221
〈표 IV-2-4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 분석	224
〈표 IV-2-4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분석	226
〈표 IV-2-5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분석	228
〈표 IV-2-5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분석	230
〈표 IV-2-5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 분석	231
〈표 IV-2-5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육과정 분석	232
〈표 IV-2-5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 분석	233
〈표 IV-2-5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육과정 분석	235
〈표 IV-2-5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분석	236
〈표 IV-2-5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분석	239
〈표 IV-2-5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분석	240
〈표 IV-2-5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수학Ⅰ 교육과정 분석	241
〈표 IV-2-6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수학Ⅱ 교육과정 분석	242
〈표 IV-2-6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미적분 교육과정 분석	242
〈표 IV-2-6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육과정 분석	243
〈표 IV-2-6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과정 분석	244
〈표 IV-2-6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교육과정 분석	244
〈표 IV-2-6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육과정 분석	245
〈표 IV-2-6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화학Ⅰ 교육과정 분석	246
〈표 IV-2-6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교육과정 분석	246
〈표 IV-2-6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지구과학Ⅰ 교육과정 분석	247
〈표 IV-2-6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분석	248
〈표 IV-2-7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정보 교육과정 분석	249
〈표 IV-2-7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분석	250

〈표 IV-2-7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운동과 건강 교육과정 분석	250
〈표 IV-2-7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분석	251
〈표 IV-2-7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252
〈표 IV-2-7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연극 교육과정 분석	253
〈표 IV-2-7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분석	254
〈표 IV-2-7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육과정 분석	255
〈표 IV-2-7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 I 교육과정 분석	256
〈표 IV-2-7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 교육과정 분석	256
〈표 IV-2-8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 II 교육과정 분석	257
〈표 IV-2-8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독일어 I 교육과정 분석	258
〈표 IV-2-8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프랑스어 I 교육과정 분석	259
〈표 IV-2-8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스페인어 I 교육과정 분석	260
〈표 IV-2-8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중국어 I 교육과정 분석	260
〈표 IV-2-8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일본어 I 교육과정 분석	261
〈표 IV-2-8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러시아어 I 교육과정 분석	261
〈표 IV-2-8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아랍어 I 교육과정 분석	262
〈표 IV-2-8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베트남어 I 교육과정 분석	263
〈표 IV-2-8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 분석	264
〈표 IV-2-9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철학 교육과정 분석	264
〈표 IV-2-9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논리학 교육과정 분석	265
〈표 IV-2-9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심리학 교육과정 분석	266
〈표 IV-2-9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교육학 교육과정 분석	268
〈표 IV-2-9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종교학 교육과정 분석	269
〈표 IV-2-9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분석	270
〈표 IV-2-9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보건 교육과정 분석	271
〈표 IV-2-9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환경 교육과정 분석	273
〈표 IV-2-9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실용 경제 교육과정 분석	274
〈표 IV-2-9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논술 교육과정 분석	275
〈표 IV-2-100〉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276
〈표 IV-2-101〉	고등학교 문학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277
〈표 IV-2-10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278
〈표 IV-2-103〉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278
〈표 IV-2-10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279
〈표 IV-3-1〉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총괄	286

〈표 IV-3-2〉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 총괄	287
〈표 IV-3-3〉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총괄	288
〈표 IV-3-4〉	초·중·고 교육과정 분석 총괄	290
〈표 IV-3-5〉	연계 성취기준 보유 과목 현황	291
〈표 V-1〉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요구 조사 대상, 방법, 기간	295
〈표 V-2〉	심층 면담 대상자 상세 정보	296
〈표 V-1-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교 현장 요구	299
〈표 V-2-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요구	328
〈표 V-3-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	347
〈표 VI-1-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현황	356
〈표 VI-1-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단기적 개선(안))	357
〈표 VI-1-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장기적 개선(안))	359
〈표 VII-2-1〉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 조항의 변화 내용 및 본 연구의 수정(안)	383
〈표 VII-2-2〉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의 변화 내용 및 본 연구의 수정(안)	384
〈표 VII-2-3〉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조항의 주요 변화 내역 및 본 연구의 수정(안)	385
〈표 VII-2-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386
〈표 VII-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정(안)	391

그림 차례

[그림 Ⅰ-1-1]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3
[그림 Ⅰ-3-1]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개요	30
[그림 Ⅱ-3-1]	통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 체계	65
[그림 Ⅱ-3-2]	통일부 평화·통일교육 체계도	67
[그림 Ⅱ-3-3]	교육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69
[그림 Ⅱ-3-4]	통통 평화학교 홈페이지(http://tongil.moe.go.kr . 검색일: 2020. 10. 25.)	72
[그림 Ⅲ-1-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최종안 도출 프로세스	90
[그림 Ⅲ-2-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114
[그림 Ⅳ-1-1]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5
[그림 Ⅳ-2-1]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절차	139
[그림 Ⅳ-2-2]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 사례(1)	167
[그림 Ⅳ-2-3]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 사례(2)	167
[그림 Ⅳ-2-4]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사례	169
[그림 Ⅳ-2-5]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사례	170
[그림 Ⅳ-2-6]	중학교 국어 교과서 사례(1)	199
[그림 Ⅳ-2-7]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1)	200
[그림 Ⅳ-2-8]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2)	201
[그림 Ⅳ-2-9]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3)	202
[그림 Ⅳ-2-10]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4)	202
[그림 Ⅳ-2-11]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5)	203
[그림 Ⅳ-2-12]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6)	204
[그림 Ⅳ-2-13]	중학교 역사 교과서 사례	207
[그림 Ⅳ-2-14]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 사례(1)	207
[그림 Ⅳ-2-15]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 사례(2)	208
[그림 Ⅳ-2-16]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 사례(3)	209
[그림 Ⅳ-2-17]	중학교 국어 교과서 사례(2)	210
[그림 Ⅳ-2-18]	중학교 사회 교과서 사례	211
[그림 Ⅳ-2-19]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사례	280
[그림 Ⅳ-2-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례	281
[그림 Ⅳ-2-21]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사례	282
[그림 Ⅳ-2-2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사례	283
[그림 Ⅳ-2-23]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사례	283
[그림 Ⅳ-2-24]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사례	284
[그림 Ⅳ-2-25]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사례	285

[그림 V-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조사 수행 절차	295
[그림 VII-2-1]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개요	370
[그림 VII-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지침(일부)	390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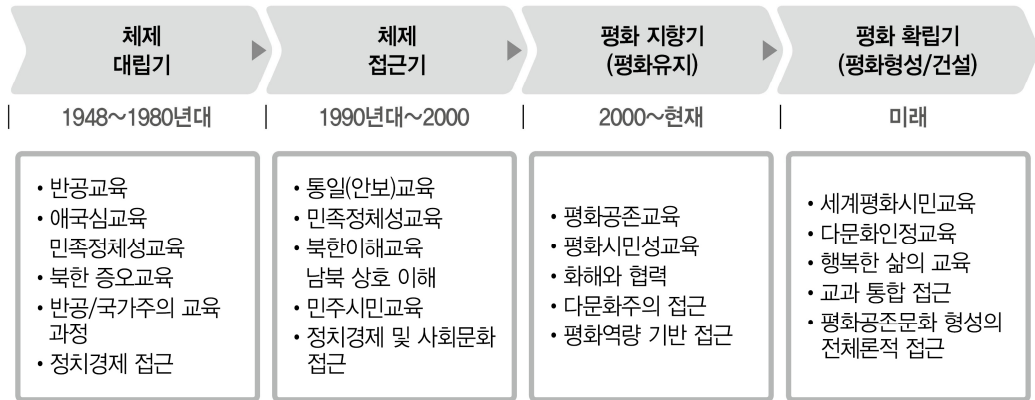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비롯한 한반도의 대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4. 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와 공존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관련 정책 및 연구의 기조도 변화하고 있다.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론 배제, 공존공영의 민족 공동체 회복 강조, 민주적·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국민협약 추진 등이 변화의 예들이다(김진숙 외, 2018: 3). 이러한 시대적 전환에 부응하여 ‘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통일교육의 명칭 및 성격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다. 남북 분단 이후 남북의 적대적 대립이 심화되던 시기에는 ‘반공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안보를 우선적 과제로 강조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안보교육’으로 변화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통일교육’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통일교육은 ‘평화·통일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¹⁾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수식어가 ‘반공’, ‘안보’, ‘민족’, ‘평화’ 등으로 변화해 왔지만 해당 시기에 우세한 입장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랐을 뿐 통일교육 담론 내부에는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는 입장과 개념들이 공존하고 있다(이슬기, 2019: 84).

1) 보수 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통일·안보교육의 관점이 부각되었다가(한만길, 2019), 문재인 정부에 들어 국정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되고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 정책 목표로 설정되면서 평화·통일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여현철, 2019).



출처: 김국현 외(2018, p. 29)의 그림을 인용함.

[그림 1-1-1]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그간의 『통일교육 지침서』를 대체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 ‘평화’를 통일교육의 지향으로 규정하였다(통일교육원, 2018). 교육부도 2018년 11월에 ‘평화’와 ‘민주시민 양성’에 초점을 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c). 특히, 통일부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설정하고, 그 주안점으로 (1)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2)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3)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4) 평화의식 함양, (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제시하였다(통일교육원, 2018: 6-8). 이는 통일을 ‘당위적 목표’로 설정하고 평화를 통일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강조한 과거 『통일교육 지침서』와 달리 ‘평화적 통일이야 의미 있는 통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평화와 공존, 자유, 인권, 복지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1-1〉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 -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통일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처: 통일교육원(2018, pp. 10-18.)의 내용을 인용함.

통일교육의 명칭 변화는 단지 명칭 변화만이 아닌 내용 변화를 동반한 방향 전환을 뜻한다(황인표, 2014: 270). 평화·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 또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재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진숙 외, 2018: 3).²⁾ 남북의 분단 상황이 물리적·심리적 폭력이 존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적 노력을 의미하며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³⁾

과거에는 통일을 남한 중심의 체제 통합으로 인식하거나 남북관계의 최종 목표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경우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평화라는 개념을 온전히 다루기 어렵다. 최근 평화·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을 평화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북한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만길, 2019). 평화를 통일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이해와 공존의 평화·통일교육이 어려우므로, 기존 통일교육과 달리 평화를 지향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선자, 주우철, 2019).

통일에 대한 학생, 교사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도 남북한의 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국민 의식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통일교육원, 2019c).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에는 2000년대 이후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접목을 고민하며 '평화'를 통일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도 반영되어 있다.

3) 평화교육은 국가, 지역, 인종 등을 초월하여 인류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이때의 평화는 전쟁이 중지되거나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는 개념이다(여현철, 2019). 이러한 평화는 물리적, 구조적 형태의 폭력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의미한다(Galtung, 2000; Hicks, 1990; Dencik, 1972; 이인정, 2019: 3-5에서 재인용).

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고, 통일은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확산되어 온 오늘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통일의 과정이라는 접근도 가능해질 것이다.

오늘날 학교 통일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부와 교육부의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응답 결과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55.5%로, 이는 2018년 63% 대비 7.5%p 하락한 것이며, 2017년도 62.2%에 비해서는 6.7%p 하락한 것이다(통일교육원, 2019c: 15). 이와 같이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내외적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학교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민 의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국어, 도덕, 사회 등 일부 교과에만 집중되어 있고(김진숙 외, 2018: 56), 통일교육 내용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교육과정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아 학교급 간 계열성이나 교과 간 연계성이 부족하며(김국현 외, 2018: 203),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 계기 교육으로만 실시되거나(오기성, 2019: 127),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한계가 있다는 점(한만길, 2019: 153)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현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교육의 현황 및 요구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화된 연구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적합하며 명확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현황,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일부 교과들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 탐색을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체계화된 연구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적합한 명확하고 타당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현황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한다.

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 탐색

평화·통일교육은 평화교육에 근거한 평화적 관점에서 재개념화되고 그 외연이 확대된 통일교육이라 볼 수 있다(김진숙 외, 2018: 3).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 관련 개념들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과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화·통일교육의 실천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교육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 이해
-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현황 분석

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정립

평화·통일교육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에 주목한다. 이러한 가치가 학교 현장에 충실히 구현되어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려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 적합한 명확하고 타당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도출·설정하고자 한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도출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설정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설정

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현황 분석

본 연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의 기초 작업으로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
-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
-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집필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분석

라.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복합적 요구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 관련 단위 학교의 요구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함께 분석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쟁점 및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교 현장의 요구 분석
-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요구 분석
- 교육과정 개선 방향 관련 시사점 도출

마.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본 연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교육과정 총론(범교과 학습 주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두 차원은 각각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체계화에 기능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 운영 시 주안점, 각 교과와 평화·통일교육의 연계, 학년급과 교과 특성 및 맥락을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운영 방안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 탐색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학교급 및 교과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운영 방안 탐색

바.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장·단기 계획 구상과 아울러 여러 차원의 지원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 수준, 시·도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구상들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 설정, 평화·통일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공,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 제언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 제언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정책 제언
-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 목적: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 탐색을 통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립
- 내용: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 이해,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평화학,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 동향 분석,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현황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정책 협의회 포함)

- 목적: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립,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현황 및 요구 분석,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교육과정 구현 방안 및 정책 제언 구안 및 타당화
- 대상: 통일부·교육부 담당자, 시·도 교육청 담당자, 학계 전문가, 초·중·고 교사, 통일교육 전문가 등

다. 심층 면담

- 목적: 학교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방향성,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변화, 개선,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및 사회적 요구 파악
- 대상: 초·중·고 교사(연구학교 6개교, 일반학교 4개교), 통일부·교육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 NK교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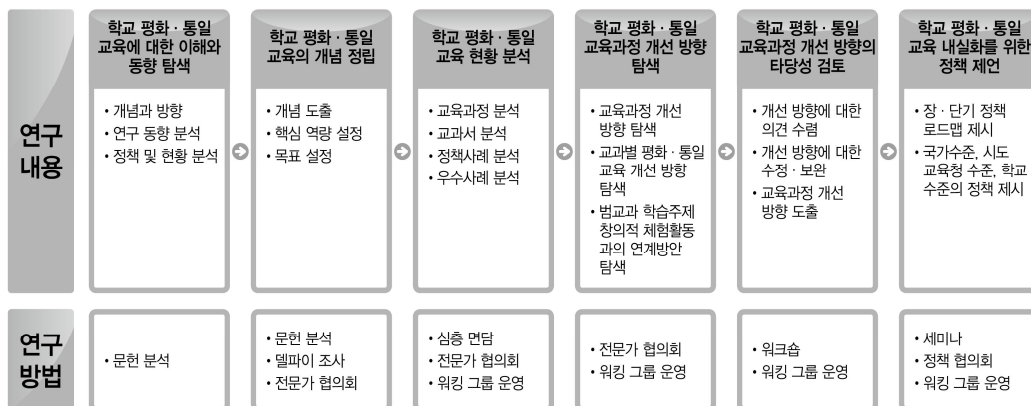
- 절차: 1차(온라인 서면 조사) → 2차(온라인 심층 면담) → 3차(온라인 서면 조사) → 시사점 도출

라. 워킹그룹 운영

- 목적: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분석 및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을 위한 집단 토의, 공동 작업 및 업무 협조
- 대상: 통일교육 관련 연구 및 업무 전문성을 갖춘 초·중·고 교사(초4명, 중5명, 고5명)

마. 세미나

- 목적: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언 방안 타당화
- 참여 대상: 교육과정 전문가, 통일 관련 법제 전문가, 교과 전문가(도덕과, 사회과 등), 워킹그룹(초·중·고) 교사



[그림 1-3-1]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개요

II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 탐색

-
1.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
 2. 평화·통일교육 연구 동향 분석
 3.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현황 분석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을 탐색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장에서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동향 탐색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관련 개념과 방향을 살펴보고, 평화·통일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평화·통일교육의 실천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한다.⁴⁾

1.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

북한과 통일의 방법에 대한 관점이 시대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기존의 통일교육에서도 평화라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명목상으로 평화적인 통일은 늘 강조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도 평화적인 통일은 중점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즉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도 평화와 통일은 중시되어 왔다는 것이다.⁵⁾

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개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 관련 개념들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평화와 통일

평화(平和)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 ‘화합을 이룬 화목한 관계’, ‘전쟁이 없이 평온한 세상’ 등이다. 평화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평화를 뜻하는 여러 나라의 용어들 역시 다양하다(고병헌 외, 2007: 25). 평화에 대한 용어나 표현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것은 ‘전쟁이나 분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단지 전쟁, 분쟁, 테러, 사회적 폭력과

4) II장의 일부 내용은 본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발간한 KICE 이슈 페이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정립’(김상범 외(2020))을 활용하였음을 밝힌.

5)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방안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 방안과 함께,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1994. 8. 15)’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lanStory/> 검색일: 2020. 10. 25).

범죄가 부재한 상태만으로 협소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나 갈등만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 측면 등 우리의 삶 전반에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 및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란 직접적, 개인적 폭력을 극복한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사회 구조와 문화 전반의 평화로운 상태를 광범위하게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일(統一)이라는 개념 역시 그 의미가 다양하다. 통일은 일반적으로는 국토나 정치적 측면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만, 통일의 개념 속에는 그러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통일 이후의 통합을 포함하는 ‘과정’의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 에치오니(A. Etzioni)는 통일(unification)을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통합(integration)에 대해서는 통일의 조건이 성취된 상태이자 결과라고 보았다(Etzioni, 1965: 4). 이처럼 통일 개념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인 통합(統合)에 대해 도이치(K. W. Deutsch)는 국민들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평화적 변화에 대한 신뢰 가능한 기대’가 이루어지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공동의 사회의식과 제도 및 실제의 달성”이라고 설명했다(Deutsch, *et al.*, 1957: 5).

통일의 의미를 남북 분단 문제에 적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일교육원, 2019b: 10-11).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영토나 국토의 통일을 의미한다. 영토나 국토의 통일은 통일 국가의 건설을 위한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정치적·법적’인 면에서의 통일은 체제가 단일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은 오랫동안 분단되어온 남북의 정치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며, 단일 국가, 단일 헌법, 단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의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경제적인 권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 간 경제적 의존성과 통합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경제권의 통합은 미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환경적 토대가 될 것이다. 넷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남북이 새로운 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정서적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된 하나의 평화로운 국가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문화와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종합하면, 한반도 통일은 결과적으로는 분단된 영토를 하나로 회복하면서 하나의 정치 체제를 이루는 것이지만, 남북이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과 상호

이해, 화해와 협력 등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즉, 통일은 남북의 영토적, 정치적, 제도적 통일의 달성 뿐 아니라, 동시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반적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2) 새로운 평화 개념의 요건

평화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통일 지상주의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인 합의와 평화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내포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고,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지향한다.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보편적 의미로서의 평화의 개념을 포괄하는 동시에, 한반도 분단 문제와 관련되는 특수한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평화 개념의 요건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평화 개념은 ‘소극적 평화’만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단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소극적 평화’의 차원을 넘어,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폭력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정영철, 2010: 202).

둘째, 새로운 평화 개념은 ‘보편적 평화’와 ‘특수적 평화’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를 요구한다.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 개념은 민주주의, 인권, 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분단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분단 극복이라는 ‘특수적 가치’의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안승대, 2013: 47).

셋째, 새로운 평화 개념은 ‘분단 극복’의 중요성과 함께 ‘평화 공존’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분단 한반도에서의 평화 논의는 분단 극복을 지향하는 가운데 남북 평화 공존과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냉전적 사고 구조, 즉 타인에 대한 왜곡된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황인표 외, 2007: 163-164).

넷째, 새로운 평화 개념은 평화에 대한 지적 이해만이 아니라 평화 감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감수성은 “평화와 비평화,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인정, 2019: 9-10). 즉, 평화 감수성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남북한 모든 주민이 겪는 분단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민감성이며, 분단의 갈등과 폐해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서적 반응이자, 분단과 비평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관심, 열정, 의지라 할 수 있다.

(3)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은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의 관점에서 재개념화된 통일교육으로 규정될 정도로 평화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화교육은 정치교육이면서 가치교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강순원, 1997: 70). 평화교육은 학습자들이 하여금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하며 평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와 내용으로 삼고, 학습자 스스로 사고와 행위에 대한 성찰의 기회 및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성해야 한다(김상무, 2015).

평화교육은 물리적 폭력의 종식을 위한 ‘소극적 평화교육’과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평화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심성보, 류시관, 2004: 10). 평화교육은 사회 집단 및 국가 간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여 평화를 실현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적극적 평화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은 이념 대립과 이로 인한 권위주의 체제를 성립시켰다.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한 구조적 폭력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남북한 구성원의 일상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왔다.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닌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구조에서의 폭력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정영철, 2010: 202).

또한 한반도의 평화교육은 자신과 세계, 환경, 사회와의 공존을 지향하면서도 민주주의, 환경, 인권과 같은 보편 가치로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보편적 평화교육’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의 구조적 폐해에 대해 비판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며 이를 극복하는 ‘특수적 가치’ 추구의 ‘특수적 평화교육’의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안승대, 2013: 47-50). 또한 분단 극복을 위한 평화교육은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와 남북 주민들에게 감정과 사고 및 행동, 삶 전체를 성찰하고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강순원, 2000: 33).

평화교육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왜곡된 편견 등 냉전적 사고와 분단 문제의 극복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적 사고로써 다양한 가치관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신념과 행동 양식을 지닌 타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에서 강조하는 ‘평화 능력’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과도 관련된다(Burns & Aspeslagh, 2005: 256).

(4) 평화·통일교육의 개념화

본 연구는 제목에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재개념화함으로써 통일교육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 내지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래 <표 II-1-1>에서 보듯이 다양하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통합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평화’의 의미가 통일을 수식하는 도구적, 방법적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김진숙 외, 2018: 26).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로서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을 수식하는 도구적, 방법적 의미로 평화를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이자 지향점으로 사용한다. 사실, ‘평화·통일’이나 ‘평화적 통일’ 등의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의 통일교육에서도 “통일교육은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통일교육원, 2016: 8). 따라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이 과거의 통일교육과 다른 점은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이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있다기보다는 평화를 통일이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1-1〉 평화·통일교육 관련 용례 및 장·단점

용어	출처	의미	장점	단점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학교 평화통일교육	통일교육원(2018)	통일교육의 성격, 목표로 '평화' 용어 포함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통합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됨	'평화'의 의미가 통일을 수식하는 도구적, 통일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동기, 송영훈(2014)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화교육과 결합한 용어		
통일평화(교육) 통일·평화교육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통일과 평화를 우리 민족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 및 평화실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기존에 사용하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개념적으로 결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용어임	평화통일교육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음
평화교육	경기도 '평화교육' 연구원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평화교육 명칭 사용 통일교육과 관계없는 갈등해결방법의 교육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향점을 드러낼 수 있음	'통일'을 빼고 평화교육만 사용할 경우 한반도 문제만이 아닌 개인의 문제해결 방법, 민주시민교육으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됨

출처: 김진숙 외(2018, pp. 26-27.)의 표를 재구성함.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평화가 통일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되고 '평화·통일교육'이 공식 용어로 정착되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II-1-2〉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의들을 정리한 것이다.⁶⁾

〈표 II-1-2〉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의 사례

연구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의
김국현 외(2018)	갈등과 폭력의 일상문화를 버리고 평화를 삶의 원리로 습관화하고 삶의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김선자, 주우철(2019)	평화에 기반을 두어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
오기성(2019)	분단이라는 조건 하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한만길(2019)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의지와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6) 〈표 II-1-2〉의 평화·통일교육 개념 정의 사례는 III장에서 논의할 델파이 조사(1차)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참조 자료로 전문가 패널들에게 제시되었다.

연구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의
함규진 외(2019)	북한과 공동체의 회복 및 확산을 모색하고, 분단 체제 하에서의 비평화적 문화요소와 구조를 인식하고 해소, 제거하려는 실천적 목표를 고려하는 교육

위의 표에 제시된 개념 정의들을 보면 통일의 과정에서 평화적인 절차와 방법을 중시하고, 통일 국가의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평화로운 삶과 평화를 지향하는 성향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 간의 관계, 강조하는 능력이나 역량, 방법이나 시간 등에 따라 평화·통일 개념 정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고 평화 지향의 틀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은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평화까지 고려한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평화는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관점이었다면, 평화·통일교육의 평화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평화를 의미한다. 셋째, 두 번째 특성과 관련하여 평화·통일교육은 남북을 협력적인 관계,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설정한다. 넷째, 분단 상황이 가지고 온 비평화적인 요소들과 폭력적인 구조들을 제거하고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 차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종 문서를 통해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표한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 및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제시한다(통일교육원, 2019a: 18).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평화·통일의 실천의지 함양, 평화의식 함양,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제시한다(통일교육원, 2018: 6-8). 이 과정에서 통일 지상주의를 경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적극적 실천 의지와 역량 신장을 강조한다. 또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여 상호 소통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의식을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당위적 거대 담론 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닌 ‘구체적인 삶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으로 제시한다(교육부, 2018c: 5). 이러한 정부 문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바람직한 태도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과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종합해 보면 평화·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교육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일치된 개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는 평화·통일교육에서 평화라는 개념이 단순히 통일 과정의 방법을 형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학생들이 평화를 지향하고,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주어진 상황에서의 개별적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추상적인 지식과 정보 전달 중심의 기존 통일교육 방법은 평화·통일교육에 적합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지식 중심 교육이 아닌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역량 중심 교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주도성 강조 및 참여 확대와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본 절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 제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남북 평화 공존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민주시민 양성 및 통일 공감대 확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 제시

평화·통일교육에서는 ‘분단의 현실과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을 학생들의 일상과 연관 지어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로서 평화와 통일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분단 극복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모든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여현철, 2019: 162).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미래의 새로운 역사 창조 작업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으로 결합된 더 나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현실적인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통일은 현재와 같은 분단의 상황이 아닌, 누구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국가는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간 존엄성·복지가 보장되는 미래지향적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다른 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루는 열린 민족주의를 포함해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견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와 경제 협력의 선순환 구도를 가능하게 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공동 번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통일교육원, 2018: 16). 평화가 경제 협력을 보장하고, 평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관계 속에서 경제 협력이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주변국 사이의 협력과 호혜 관계는 아시아 전체의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한편, 군사적인 대립 및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평화·통일교육은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논거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균형 있게 사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일차 자료들이나 인터뷰, 증언 등의 자료를 활용할 때 해당 자료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발간되는 공식 문헌이나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들은 체제에서 지향하는 공식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의 일상생활 속의 삶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나 방북자들이 경험한 북한에 대한 인터뷰나 증언 등은 일정한 개인적, 지역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 체제나 사회에 대해 특정한 관점 하에서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식 문서, 언론 보도,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다룬 자료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난 본질적 측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북한 체제의 특수한 현상과 평화·자유·복지·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남북 평화 공존의 중요성 인식

평화·통일교육은 남북 평화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화가 없다면 안보나 경제의 발전 역시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는 최고의 국익이자 번영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다.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화 공존’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 공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그 자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북 간 평화를 제도화하여 서로에게 위협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로운 통일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공존공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할 상대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호혜 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경험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서로 대립과 갈등, 불신과 적대시해 온 오랜 기간을 생각할 때, 한반도 통일에 앞서 평화 정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민주시민 양성 및 통일 공감대 확산

평화·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민주시민 양성과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8c). 학습자가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 폐해를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평화와 통일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가운데 각자의 통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과 관심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평화·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소통 및 대화 능력,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능력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주는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 마음의 통일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능력,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통일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비롯한 국제 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의 측면을 연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여 번영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정서와 실천 능력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평화·통일교육이 중요하다.

2. 평화·통일교육 연구 동향 분석

본 절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연구 동향을 평화학 및 평화교육, 평화교육-통일교육 연계에 관한 연구,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화학 및 평화교육, 평화교육-통일교육 연계 연구

평화·통일교육에서 강조하는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평화에 대한 학문인 평화학 연구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으로 이해되기도 하므로 평화교육, 평화교육-통일교육 연계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의 내포와 외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평화학 연구

평화학의 대표적 학자인 요한 갈통(J. Galtung)은 ‘폭력’ 개념과 연계해 평화를 이해하였다. 그는 인간의 기본 욕구의 4가지 범주를 생존, 복지, 정체성, 자유의 욕구로 구분하면서, 폭력이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침해”이자, “욕구 충족의 수준을 잠재적으로 가능한 어떤 수준 이하에로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Galtung, 2000: 414-418). 갈통에 의하면 폭력은 ‘구조적 폭력(간접적 폭력)’과 ‘개인적 폭력(직접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명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살인, 상해, 곤궁, 그리고 자국어 사용 금지 등의 탈사회화나 재사회화 및 이류 시민화, 억압, 구금, 추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구조적 폭력’은 피해자는 분명하지만 가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 사회구조, 생활상의 조건 등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착취, 약자들의 분열 조장 및 주변인화 등이다(Gugel, 2008: 67).

갈통은 평화를 ‘폭력의 부재’로 규정하면서 평화 개념을 인간에 의한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와 사회구조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갈통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는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상태이다. 적극적 평화는 인종, 차별, 기근, 빈곤 등의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갈통이 의미하는 평화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최민수, 2012: 51).

갈통에 의하면, 평화 연구는 인간에 의한 폭력 문제와 구조적 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인간에 의한 폭력이 부재하는 소극적 평화만을 강조하게 되면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고,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조에 대한 변혁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에 의한 폭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문화적 폭력’을 언급하면서, 만일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데 기여하거나, 혹은 최소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즉 종교,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경험과학, 형식과학(수학, 논리학), 교육, 언론 등을 들고 있다(Galtung, 2000: 412-13). 이와 같은 갈통의 입장은 폭력과 대비하여 평화를 이해하는 평화학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히스(D. Hicks)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자 “전쟁이나 테러 등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Hicks, 1990: 6). 이에 비해 ‘적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갈등의 근원인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안승대, 2013: 45). 폭력에 대해 허친슨(F. P. Hutchinson)은 ① 직접적·물리적 폭력, ② 사회 구조에 의한 억압이나 착취에 해당하는 구조적 폭력, ③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적 폭력, 그리고 ④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합리화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상세하게 구분한다. 허친슨은 폭력이 개인적, 사회적,

민족(국가)적, 지구·생태적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평화 역시 개인적, 사회적, 민족적, 생태적 차원에서 요청된다고 보았다(Hutchinson, 1996). 진스버그(A. Ginsberg)는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으로 폭력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구조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했다. 그는 거시적 수준의 물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지역 간·집단 간 분쟁을 제시하고, 거시적 수준의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문맹, 빈곤 등을 영속화하는 정책 및 제도를 거론하였다. 반면 미시적 수준의 물리적 폭력은 가정 내 폭력이나 학교와 일터에서의 체벌을 들었고, 미시적 수준의 구조적 폭력은 타인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말과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다(Ginsberg, 2001).

평화 개념을 ‘폭력’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갈등’의 측면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갈등 연구들마다 갈등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갈등은 개인, 집단, 국가 등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 또는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대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의 종류에는 잠재적 갈등과 명시적 갈등, 완전히 해소된 듯 보이지만 해소되지 않은 유사 갈등, 완전히 해소된 갈등 등이 있다(Bonacker, T. & Imbusch, P., 2006: 76-77).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갈등은 ‘정보 문제’, 즉 정보 부족이나 오류, 해석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관계 문제’, 즉 편견이나 소통 부재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이념이나 세계관의 차이 같은 ‘가치관 차이 문제’나 권력 및 자원의 불평등 분배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갈등의 발생 수준 역시 개인 내부, 개인 간, 사회 세력·조직·집단 간, 국제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Barosa, 2007: 7).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갈등 단계별로 대안을 제시하여 폭력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하며 협상과 협력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Gugel, G. & Jager, U., 2007: 53). 평화 문제를 다룰 때 ‘폭력의 유무’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갈등’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더 정확하며 기능적이다(Dencik, 1972: 258). 갈등이 강조하는 ‘구조적 폭력’ 개념에는 ‘사회적 갈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갈등에는 명시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잠재되고 억압된 갈등도 있다. 따라서 평화를 명시적인 갈등이 부재한 상태로만 바라보려는 것은 ‘평화’와 ‘평온’은 혼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에 내재하는 모순과 대립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갈등에 대한 태도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식민 지배로 인한 수탈 체제나 혹은 대중 매체를 통한 여론 조작으로 인해 갈등의 구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구조적 갈등과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체제에 순응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들 중 고병헌 등은 ‘평화’의 모습이 정치·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르며, 또한 사상, 언어, 종교 및 개인적 환경에 따라 평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고 보았다(고병헌 외, 2007: 25). 정현백·김정수는 ‘평화’를 전쟁의 부재와 일상생활 속의 군사주의 문화의 제거로 한정지어 이해할 경우, 갈등의 ‘적극적 평화’의 전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정현백, 김정수, 2007: 18-19). 즉, 한반도의 분단 구조에 기인하는 군사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남북 간 그리고 남한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 간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관용의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황인표 등은 남북의 상호 적대감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황인표 외, 2007: 164). 박보영은 평화란 자신, 타인, 공동체, 자연이라는 삶의 층층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평화교육이라고 보았다(박보영, 2009: 84).

(2) 평화교육 연구

평화교육은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국제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환경교육 등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평화교육의 고유한 영역이나 특수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추명완, 2007: 25). 현대적 의미의 평화교육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정착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Hicks, 1990: 20-21). 평화교육은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갈등과 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이며, 보다 정의로운 미래를 건설하려는 교육이다(김상무, 2015: 106). 평화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미시적 차원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사실상 거시적 수준의 비평화 구조가 사회 내부적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평화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 구조적 조건이나 거대한 세계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비평화의 구조가 위협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Wulf, 1994: 676).

다음으로 정영수(1993)는 평화교육을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평화적 요인’을 제거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했다(정영수, 1993: 190). 황인표 등에 따르면 평화교육이란 평화와 비폭력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책임감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다(황인표 외, 2007: 159). 즉 평화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갖춘 시민을 기르기 위한 총체적인 교육 활동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민적 책임과 연대, 비판적 사고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교육에 대한 분류로는 히스(D. Hicks)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Hicks, 1993: 23). 첫째,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힘을 통한 평화’로서의 평화교육, 둘째, 개인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는 ‘개인적 평화’로서의 평화교육, 셋째, 개인에서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갈등의 중재와 해소’로서의 평화교육, 넷째, 구조적 폭력을 평화의 중요한 장애요소로 바라보면서 세계적 질서 속에서 평화가 출발한다는 ‘세계 질서의 성찰’로서의 평화교육, 마지막으로 구조적 변수의 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에 동참하도록 하는 ‘억압적 권력관계 폐지’로서의 평화교육이다.

히스가 바라보는 평화교육의 과제는 평화 개념, 모든 차원에서의 평화의 장애물, 평화가 부재한 원인, 갈등 해소, 덜 폭력적이고 더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지식·태도·기술의 습득이 된다(Hicks, 1993: 20-24). 이러한 관점에서 히스는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를 ‘지식, 기술, 태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가 평화의 가치와 태도, 평화를 만드는 기술, 평화에 대한 지식의 세 가지 영역이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평화교육이 탐구해야 하는 ‘지식’, 평화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태도’, 평화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식에는 생태, 미래, 정의, 인종, 성, 권력, 전쟁, 핵, 평화, 갈등이 포함되며, 태도에는 정의에 대한 헌신,

열린 마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생태학적 관심, 기술에는 정치 문해, 공감, 비판적 사고, 협력, 갈등해결, 단호함 등이 포함된다(Hicks ed., 1988).

다음으로 평화교육에서 ‘정서’ 혹은 ‘감수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몬테소리(M. Montessori)는 평화교육을 통해 문화와 환경, 자신과 타인 등에 대한 깊은 존중과 애정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평화교육을 위해 ‘평화의 꽃’ 모형을 제안했다. ‘평화의 꽃’ 모형은 ‘자기 인식’, ‘사회 인식’, ‘문화 인식’, ‘환경 인식’으로 구성된다(Montessori, 1966). 첫째, ‘자기 인식’은 인격교육의 관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 존중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표현을 강조한다. 둘째, ‘사회 인식’은 일상생활에서 형성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예의와 관용의 덕목을 체득하며,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도록 협동 학습과 사회 봉사 학습을 강조한다. 셋째, ‘문화 인식’은 다문화적 접근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강조한다. 끝으로 ‘환경 인식’은 생태학적 관심을 바탕으로 생태적 조화와 균형에 대한 민감성을 증시한다.

감수성에 주목하는 러셀(B. Russell) 역시 인간은 ‘의식적 목적’과 ‘충동’이 창조적으로 작동될 때 선해진다고 주장했다(이항재, 2002).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유적 충동’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소유적 충동’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창조적 충동’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셀은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과학적, 민주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명력, 용기, 감수성, 지성 등을 평화교육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 중에서 ‘감수성’은 “외부적 자극에 대한 감정의 반응 속도 및 질량”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다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구체적 자극’과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추상적 자극’으로 구분된다. 그는 인류가 겪는 수많은 재난이 감수성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추상적 자극’에 대한 감수성 계발을 위해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뇌과학’ 연구 역시 정서나 감수성 발달과 긴밀히 관련된다. ‘뇌과학’의 연구 성과에 기반한 학습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뇌로 정보를 숙고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보면서 인간의 뇌가 세상에 적용하는 기제에 주목한다. 뇌과학 학습 이론은 표면적 인지 과정으로부터 심층적 인지 과정으로까지 이루어지는

‘다중지능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개인 내 지능’은 개인의 지식, 정서, 감정, 바람, 욕구를 파악하는 반면, ‘대인 간 지능’은 타인과의 집단 활동을 통해 공유된 기억을 형성한다(Gardner, 1993). 이에 따르면 인간은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통해 평화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메이어와 셀로버(Mayer & Salover)의 관점에 따르면 ‘정서지능’은 4수준으로 구분되는데, 1수준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평가·표현하는 능력, 2수준은 정서를 생성하거나 접근함으로써 사고를 촉진하는 능력, 3수준은 정서의 이해·분석 및 정서적 지식의 활용 능력, 4수준은 정서의 의식적인 반영과 조절 능력이다(최민수, 2012: 55).

정서를 중시하는 평화교육 학자로서 발라수리야(A. S. Balasooriya)는 ‘정서수준’에 기초해 4수준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설정했다(Balasooriya, 2001). 1수준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자신에 대한 확신, 감정 이입에 의한 듣기 및 의사소통, 결단력 있는 의사 결정 및 행동,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의 발달을 통해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수준에서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평화 의식을 자연스럽게 함양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로운 태도 및 행동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3수준에서는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시민성 함양이 중요하다. 4수준에서는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문화 다양성, 빈곤, 테러 등 전 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적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발라수리야는 자연적, 사회적, 내면적 측면의 평화를 통합하여 총체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총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적 인간상’을 위한 덕목으로 긍정적 사고, 동정심과 타인을 해치지 않음, 내면적 평화, 공동의 삶의 학습, 인간성 존중, 자기 진정성, 비판적 사고 계발,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 사회 평화의 구축, 그리고 세계와 지구 환경 보호 등 10가지를 제시하였다(Balasooriya, 2001).

(3) 평화교육-통일교육 연계 연구

안승대(2013)는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을 남북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비평화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마음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안승대, 2013: 45-46). 그는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비판적 평화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평화교육은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다(안승대, 2013: 46). 안승대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안승대, 2013: 48-49). 첫째,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내면과 인간관계에서의 평화를 추구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억압과 착취의 사회적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 둘째, 분단이라는 비평화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특수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분단으로 인한 정치 구조의 왜곡, 분단 의식과 분단 이데올로기, 일상에 내재한 냉전적 분단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분단으로 인해 손상된 민주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분단이 초래한 군사주의, 개발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고 생태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생태주의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황인표 등(2007)은 ‘평화교육적’이라는 의미와 ‘평화 지향적’이라는 의미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평화교육’의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평화’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접목하는 입장에서, ‘평화교육적’이라는 말을 ‘평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로 규정했다. 한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지향하는 목적을 지닌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제 질서로서의 평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과정에서 내면화하여 실천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길러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황인표 외, 2007: 6-7).

추병완(2007)에 의하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기존 통일교육의 내포와 외연을 심화·확대시키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긍정적 요소들을 통일교육에 비판적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려는 시도”로 정의된다. 즉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질적 개선 방안 중 하나로서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결합시킨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평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와 태도를 함양하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추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또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남과 북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세 및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반은 평화주의, 다문화주의, 열린 민족주의 등이라고 볼 수 있다(추병완, 2007: 24-26).

오기성(2017)에 의하면, 평화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공격성, 배타성,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생각, 가치, 목적들 간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지만, 그러한 불일치는 해당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해주며 또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일상적 삶 속에서의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평화교육의 핵심으로, 이러한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평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남북한 통일을 위해 강화해야 할 평화 역량은 통일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겪게 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오기성, 2017: 32-36).

나. 평화·통일교육 연구

평화·통일교육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1절에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관한 연구 동향을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목표, 내용 체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관련 연구

평화·통일교육은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 및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역량(competency)’ 개념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고 및 행동 방식이다(Spencer, L. & Spencer, S., 1998: 19). ‘핵심역량(key competency)’은 각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능력과 자질을 뜻한다(김국현 외, 2018: 45).⁷⁾

7) OECD에서 제시한 DeSeCo(Defining &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따르면, 핵심역량으로 자율적 행동 역량, 여러 도구의 상호 활용 역량, 이질적 사회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역량 등 세 범주와 세 가지 능력을 제시했다. 첫째, 자율적 행동 역량은 넓은 시각으로 행동하는 능력, 인생 계획의 설정과 개인적 과제 실행 능력, 자신의 권리, 관심, 한계, 요구에 대해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여러 도구의 상호 활용 역량에서는 언어, 문자, 상징, 텍스트를 상호 활용하는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 활용하는 능력, 기술을 상호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이질적 사회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역량은 관계 형성 능력, 협동 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을 포함한다(김국현 외, 2018: 45).

먼저 ‘평화교육’ 또는 ‘평화’를 역량개념과 연계하여 다룬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구겔(G. Gugel)은 평화교육이란 ‘평화 역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화 역량은 개인, 집단, 사회,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갈등과 공격성을 야기하거나 지원하는 구조 및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한다(Gugel, 2008: 65). 윈드뮐러 등(E. Windmueller, K. Wayne & J. Botes)은 평화 역량의 핵심 구성요소를 연구하여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한다. 갈등 이해와 분석 능력, 갈등 관리와 해결 능력, 관련 분야 지식을 탐색·평가·사용·기여하는 능력, 갈등 관리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Windmueller, Wayne & Botes, 2009). 김국현 외(2018)는 ‘평화 역량’이란 “일상생활에서 개인 내부, 개인 간 관계, 국가공동체와의 관계, 생태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실현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고,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김국현 외, 2018: 37).

한편 평화·통일교육의 역량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주요 국내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II-2-1>과 같다.⁸⁾

<표 II-2-1> 평화·통일교육의 역량 설정 사례

연구	평화·통일교육 역량	역량의 의미
오기성 (2019)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민감함과 평화에 반하는 구조와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는 예민함, 그리고 폭력의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평화문화 형성 역량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실천하는 한편, 사회 내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삶의 양식을 만드는 능력
	북한·통일 탐구 역량	분단 이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의지와 당연하다고 여겨온 사실에 대한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읽기 능력
	통일평화 구축 역량	통일이 평화적으로 성취되고, 그 결과가 대립과 갈등, 폭력을 종식하고 협력과 화합을 가져오는 ‘통일평화’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대훈 (2019)	비판적 사고력	삶과 세계에서 해침과 해치지 않음, 나와 타자와 공동체의 상호작용 및 불의와 억압에 관한 소통과 분석 및 대안 추구와 비전 형성 능력
	상호의존능력	대화와 공감, 자기조절을 통해 다양한 당사자의 니즈와 이슈 및 정체성들을 알아차리면서 이에 대한 민주적이고 평화적 관점과 태도를 갖는 것

8) <표 II-2-1>의 평화·통일교육의 역량 설정 사례는 III장에서 논의할 델파이 조사(1차)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역량에 대한 개방형 문항의 참조 자료로 전문가 패널들에게 제시되었다.

연구	평화·통일교육 역량	역량의 의미
	관계 맺기 능력	평화적 대화, 평화감수성, 긍정적 사고, 자기조절과 공감, 갈등전환, 팀워크 형성, 팀 실천을 수행하는 능력
	민주적·평화적 소통 능력	인권, 다양성, 상호존중, 서로 힘주기(mutual empowerment)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갈등 분석과 조정 능력	구체적 갈등의 분석과 평화적 전환, 갈등 속 불의와 억압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의 포용과 참여를 높이고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능력
	평화구축 능력	한반도에서 분단과 대립이 야기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갈등 분석, 평화적 변화의 기획, 갈등 전환, 평화를 위한 실천, 모니터링과 평가, 제도와 가치에서 평화 지향성을 높이는 실천 능력
함규진 외 (2019)	평화 지향 역량	일상에 존재하는 비평화적 요소와 폭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불편해하며, 관용이나 인정, 공감, 연민 등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지향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려는 역량
	시민적 소통 역량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문제를 대화, 토론, 타협, 협력 등으로 해결하려 하며, 갈등의 편재성은 인정하면서 관리와 전환을 모색하여 공동체의 회복과 확장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 탐구 역량	분단 과정과 상황, 남북한의 현황, 통일국가의 사회상 등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글로벌적 차원에서, 또한 인문·사회·자연·예술 등 전학문적 차원에서 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역량에 대한 강조는 기존 통일교육이 ‘답이 정해진 교육’이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있다. 통일교육에서 역량 기반 접근은 통일에 대한 지식과 관점을 자율적·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료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삶에서 평화와 통일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핵심역량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조정아 외, 2019: xi-xii).

(2)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관련 연구

리어든(B. A. Reardon)은 아동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평화교육을 바라본 학자로서, 인권과 책임의식, 공정한 규칙의 존중, 정의 추구, ‘악’의 교정 등을 평화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Reardon, 1995). 해리스(I. M. Harris)는 평화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생각을 ‘매력적인 평화의 이미지’로 채워나감으로써 학습자들이 비폭력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Harris, 1988). 해리스가 정리한 평화교육의 목표 10가지는 평화 개념의 올바른 인식, 두려움을

다루기, 방어 기제, 전쟁의 이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미래 지향성, 과정으로서의 평화, 사회 정의와 평화 증진, 생명 존중, 폭력의 종식 등이다(Harris, 2007).

다음으로 강순원(2000)은 평화교육의 목표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지식, 기술, 자세·가치·태도로 나뉘어진다. 지식 영역에는 평화, 계급, 제국주의 전쟁, 핵, 이데올로기, 인종 차별, 지역 차별, 관용, 성, 인권, 민주주의, 환경, 정의, 발전, 문화, 민족, 분단 등이 포함된다. 기술 영역에는 대화, 토론, 조정·중재, 타협, 명상,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가 포함되며, 자세·가치·태도 영역에는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상호 이해, 수용, 양보, 비폭력, 자율, 공동체의식, 상생(相生), 생태적 관심, 미래에 대한 전망, 진리에의 헌신이 포함된다(강순원, 2000: 90).

고병헌 외(2007)는 평화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비폭력적인 세계를 위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평화교육의 목적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개념 탐구: ‘존재 상태로서의 평화’와 ‘적극적 과정으로서의 평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② 문제 제기: 개인과 사회 영역에서 평화를 이루는 데 문제가 되는 장애물과 비평화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 ③ 갈등 해결 및 실현 방법 구상: 더욱 정의롭고 덜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갈등 해결과 대안적 미래, 또한 더욱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 ④ 능력 향상: 탐구 정신, 이성적 문제 제기, 논쟁, 과제수행, 신체활동 능력 향상, ⑤ 내면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존중, 다른 인종과 종교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관용의 내면화, ⑥ 상호 의존성 이해: 개인, 집단,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병헌 외는 지식, 기술, 태도의 영역별로 평화교육의 주제별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지식 영역’의 학습 목표로 갈등, 평화, 전쟁, 핵문제, 정의, 권력,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 미래에 대한 이해, 둘째, ‘기술 영역’의 학습 목표로 비판적인 사고, 협력과 공감, 단호함, 갈등해결, 정치 문해, 셋째, ‘태도 영역’의 학습 목표로 자기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생태적 관심, 개방성, 전망, 정의를 위한 참여 등이 그것이다(고병헌 외, 2007: 38-42).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계하여 목표를 수립한 연구들도 있다. 황인표(2006)는 평화교육의 목표를 평화에 대한 지식 습득, 평화에 대한 가치와 태도 함양,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의 발달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평화에 대해 알고, 평화를 느끼고 믿으며, 평화를 위하여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합적 교육 목표를 지향한다. 또한, 그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를 구분하여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 영역’으로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인식, 평화 개념 인식,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 인식, 평화 문화의 중요성 인식,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민족 공동체의 중요성 이해, 통일 환경에 대한 이해, 남북한의 평화 현실에 대한 이해, 인간 안보에 대한 지식, 비폭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 남북한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능 영역’으로는 통일 문제 판단 능력과 비판적·반성적 사고 기능, 그리고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집단적 상호 작용 및 사회 참여 능력, 대화·토론·타협 기능, 공감, 평화적 상상력, 역할 채택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가치·태도 영역’으로는 협동·개방성·관용, 민족 공동체 의식, 생명·비폭력 존중, 지구적 관심, 평화·통일 비전, 존중과 책임 등을 들 수 있다(황인표, 2006: 228).

추병완(2007)은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목표를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주의, 평화주의,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력을 제고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균형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을 추구하기 위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 태도와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을 둘러싼 통일 환경과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 문화를 형성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갖추는 것이다. 넷째,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숙고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 문화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기르는 것이다(추병완, 2007: 156).

이인정(2019)은 평화·통일의 감수성 함양 교육을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련된 학습자의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양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의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이인정, 2019: 10-12). 각 측면은 지식·이해, 기능·역량, 태도·의지로 구성된다. ‘지식·이해 영역’의 목표로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의 환경에 대한 이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 평화와 통일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를 설정하였고, ‘기능·역량 영역’의 목표로 집단 간 평화로운 상호작용과 참여하는 능력,

대화·토론·타협의 능력,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설정하였으며, ‘태도·의지 영역’의 목표로 공감·존중·관용의 태도, 다양성 및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평화로운 통일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제시하였다.

(3)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체계 관련 연구

빈터슈타이너(W. Wintersteiner)가 정리한 유럽연합(EU)의 유레드(European Network for Peace Education, EURED)에서 교육자 대상 평화교육 과정의 내용은 ‘정치, 종교, 인종, 성, 문화, 국제, 생태, 문화, 갈등, 폭력, 인권’ 등이다(Wintersteiner, 2002). 김영주는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로서 ‘타인의 입장 존중, 협동, 갈등 해결, 의사소통’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김영주, 1996: 37). 고병헌은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들로 ‘인권, 민주주의, 성(gender), 생태·지속 가능한 발전, 인종 차별 거부와 문화의 상호 이해, 세계에 대한 학습’ 등을 제시했다(고병헌 외, 2007: 61-64). 이경태는 평화교육의 구체적 내용들로서 ‘전쟁 억지, 인류의 복지 증대, 기본적인 인권 옹호, 생태계 보존, 기술의 인간화’ 등을 들었다(이경태, 2005: 79).

평화교육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서는 ‘일상의 평화, 남북 사이의 평화, 지구촌의 평화, 생태 평화’ 등 네 가지를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로 제안했다. 첫째, ‘일상의 평화’는 너와 나, 가족과 학교, 이웃과 사회, 언론, 생명 존중 영역이 포함되고, 둘째, ‘남북 사이의 평화’에는 전쟁과 평화, 북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해외 동포와 관련된 영역이 포함됐으며, 셋째, ‘지구촌의 평화’에는 지구촌 의식, 지구촌 언어와 종교 그리고 나눔이 포함되었고, 넷째, ‘생태 평화’에는 공생, 생태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정현백, 김정수, 2007: 63).

심성보, 류시관(2004)은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로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① 자아 개념의 발달, ② 대인 관계 기술의 발달, ③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 ④ 정체성의 발달, ⑤ 통일 능력의 발달, ⑥ 생태에 대한 관심의 발달’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자아 개념의 발달’은 자아 존중 및 타인 존중, 자아 권리의 개념에 대한 성찰, 자아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자율과 행복한 자아를 포함한다. 둘째, ‘대인 관계 기술의 발달’은 타인의 존중,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술, 상호 이해 및 양보와 대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은

각기 지적인 영역과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지적인 영역’에는 도덕적인 지식, 객관적인 판단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 진리에 대한 헌신, 다름의 인정이 포함되고, ‘정의적 영역’에는 공감, 배려, 관용이 포함되며, ‘행동적 영역’에는 평화적 문제 해결 능력과 민주주의의 실천이 포함된다. 이중 특히, ‘공감’에는 감정, 이해·절제, 공정성이 포함된다. 넷째, ‘정체성의 발달’에는 성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 및 계급과 더불어,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인종 차별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통일 능력의 발달’은 분단과 통일, 민족, 전쟁, 공동체 의식, 관용과 포용, 다름의 인정 등을 포함된다. 끝으로, ‘생태에 대한 관심의 발달’에는 생태학적 관심, 공존과 상생, 유기체적 관점, 지구적 관점 등이 포함된다(심성보, 류시관, 2004: 31).

추병완(2007)은 평화교육을 ‘개인적 평화를 위한 내용, 대인 관계적 평화를 위한 내용,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내용, 지구촌 평화를 위한 내용’이라는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내용 체계를 제시했다. ‘개인적 평화’의 범주에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 및 존중, 자율성, 자기 인식 및 자기 존중, 감정 조절 및 관리,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 등이 포함된다. ‘대인 관계적 평화’에는 개방성 및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관용, 공감,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 그리고 배려, 다양성 존중과 양성 평등 및 공정한 절차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 평화’의 범주에는 분단의 상황에 대한 인식, 민족공동체 의식, 남남 갈등 및 남북 갈등, 평화와 통일이 포함된다. 넷째, ‘지구촌 평화’의 범주에는 비폭력, 정의, 세계 평화, 간문화 이해, 생명에 대한 경외심, 생태적 양심 및 정체성, 지구 공동체 윤리와 지구적 공동선이 포함된다(추병완, 2007: 63-64).

정현백, 김정수(2007)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으로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비폭력적·생태 지향적이고,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실현하는 보편적 가치의 기반 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지구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 통합의 논리가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남북 사이의 평화공존이 우리에게 평화와 경제 번영, 신뢰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통일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사회의 가치 체계와 생활 규범 속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북 상호 간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 실현 과정과 통일 국가 형성에 있어 안보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지니고, 개인의 안보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체제와 국가적 노력을 탐색하는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의 저해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신념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공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평화 및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갖출 수 있는 '평화 능력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북한 주민을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와 통일을 공동선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갖춘 '민족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정현백, 김정수, 2007: 86-88).

안승대(2013)는 평화교육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 생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개인적 차원의 평화교육'은 개인적인 평화, 일상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자아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평화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분단인'을 '통일민주시민'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시민, 평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민족적 차원의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민족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분단 민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분단 민족을 통일 민족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생태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생태적 차원의 생태적 평화교육'을 통해 통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안승대, 2013: 47-50).

이인정(2019)은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위한 내용 체계를 학습자 중심의 생활 영역 확대법 원리에 근거하여 네 개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네 영역은 ① 개인 영역, ② 구체적인 사회공동체 영역(가족·이웃·학교·일터·지역사회 등), ③ 추상적 공동체 영역(국가, 민족 등), ④ 보편적 공동체 영역(세계, 생태계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개인 영역의 내용 요소로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권, 자율성, 자아 인식과 자기 존중, 감정 관리,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있다. 둘째, 사회공동체 영역의 내용 요소로는 의사소통, 공정, 개방성, 존중, 관용, 배려, 공감, 다양성의 인정, 평화적인 갈등 해결 등이 있다. 셋째, 국가·민족공동체 등 추상적 공동체 영역의 내용 요소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 남남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남북관계의 인식, 민족공동체 의식,

북한의 체제와 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 평화·통일의 중요성 인식,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통일 비전 등이 있다. 넷째, 보편적 공동체 영역의 내용 요소로는 세계적 정의, 평화 및 번영, 문화의 이해, 생명 존중 및 생명 윤리, 생태계 이해와 생태 윤리 등이 있다(이인정, 2019: 15-16).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주요 연구로는 김병연(2018b, 2019), 김국현 외(2018), 김진숙 외(2018) 등을 들 수 있다. 김병연(2018b, 2019)의 연구는 도덕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통일교육 연구의 대표적인 예이며, 김국현 외(2018)와 김진숙 외(2018)는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등 일부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연구의 대표적인 예이다.

(1)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우선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한 김병연(2018b)의 연구는 도덕과의 내용과 방법, 평가 차원에서의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2015 개정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교육과정에서의 비중 자체가 매우 적어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병연, 2018b: 21). 고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통일 문제 접근 기회 확대, 학생들의 관점 존중과 수업 참여 확대, 수행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수업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김병연, 2018b: 13-20).

또한 김병연(2019)의 연구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의 쟁점을 북한 이해 측면과 통일 필요성 측면에서 다루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기준, 도덕과 초·중·고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 이해와 관련한 쟁점을 ‘균형 있는 북한 이해가 가능한가?’, 객관적인 북한 이해가 가능한가?, 거시적 관점의 북한 이해가 적절한가?’의 측면에서, 통일 필요성 논의와 관련한 쟁점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해야 하는가?(당위성을 전제한 통일관), 나라 사랑은 통일 의지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가?(나라 사랑 교육), 북한이탈주민 관련 내용은 적절한가?’의 측면에서 논하였다. 그리고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 개선 방향으로, 첫째, 북한 이해 교육의 내용 개선 측면에서 북한 이해에 앞서 남북관계의 상호 의존성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영역, 다양한 교과에서 북한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학생들이 접촉할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일상생활 중심으로 북한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병연, 2019: 50-51). 둘째, 당위적인 통일 논의를 벗어나 분단 폭력에 대한 성찰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통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교실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을 지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병연, 2019: 51-52). 김병연(2019)의 논의는 실제 통일교육 내용상의 쟁점과 개선 방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2015 교육과정 개정 시 지침이 된 『2014 통일교육지침서』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시기 이후에 발표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반영하여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을 통해 어떻게 평화·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 일부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김국현 외(2018)의 연구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와 2015 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포함된 통일교육 내용 요소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국현 외(2018)의 연구는 평화 지향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분석하고, 2015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을 평화·통일교육에 부합하는 성취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를 통한 통일교육과 함께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등 일부 교과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체계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이 학교 통일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김국현 외(2018)의 연구는 2015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통일 관련 내용 체계의 (교과 간, 학교급 간) 논리적 정합성 부족, 통일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적시성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국현 외, 2018: 202). 학교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이 특정 교과, 특히 도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도덕과를 중심으로, 일부 사회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되, 다른 교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덕과에서도 1학년과 4학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등 통일교육의 단절이 나타났으며, 이는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2, 3학년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국현 외, 2018: 202-203).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분석한 김국현 외(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통일' 관련 내용 요소가 서술된 교과는 통합교과,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이다. 그러나 국어과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 '통일'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내용 요소는 없고 중학교에서는 문법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과에서는 정치, 정치·문화사의 2개 영역에서 '통일'이 언급되지만 다른 내용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국현 외, 2018: 131). 따라서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의미 있는 내용 요소로 '통일'이 제시된 교과는 '통합'과 '도덕' 뿐이라 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이 여러 교과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당 수업 시수가 1시간에 불과한 도덕과만 중점을 두고 있어 보다 충실하고도 내실 있는 통일교육이 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김국현 외, 2018: 135).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분리된 교육과정 개발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 요소의 계열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5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은 통일 의지와 태도 함양,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적 이해,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미래,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 등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도덕과와 사회과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김국현 외, 2018: 166-167). 김국현 외(2018)의 연구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분석을 통해, 통일 관련 내용 요소를 배열함에 있어 교과 간, 교과 내, 학교급 간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이라는 교육 이념과 통일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내용 요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통일 관련 교육내용의 내용선정 및 조직의 기준이 되는 평화지향의 통일역량 설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일 관련 교육내용이 구성된 점을 지적하였다(김국현 외, 2018: 74). 향후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필수적인 지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 선정 및 조직의 기준으로서 평화 지향의 통일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를 설정하고 교과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던 내용 요소를 관성적으로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의 통일 관련 교육내용 구성 방식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김국현 외, 2018: 75). 김국현 외(2018)의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제작과 내용 요소 선정 및 조직에서는 학생들의 현재 관심과 느끼는 흥미에 적합하고, 미래 통일시대의 시민으로서 삶에 적용하게 될 지식과 정보, 갖추어야 할 인성, 도덕성, 민주시민성의 실천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관련 내용 요소를 성취기준에 더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국현 외, 2018: 84).

그 외에도 현재 교과 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비하를 담은 반공교육 요소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요소가 모순적으로 뒤섞여 있는 점을 지적하며(예: 고등학교 한국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통일교육의 양이 늘어나지만, 북한을 혐오하는 태도가 강화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점을 우려하며(김국현 외, 2018: 178),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에 관한 내용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 요소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발생시키는 북한 사회의 독재와 가난만을 부각하기보다는 북한의 교육, 문화, 복지, 생활세계 등을 다루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김국현 외, 2018: 180).

김국현 외(2018)의 연구는 평화·통일교육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도덕, 사회, 역사 교과에 한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진 점, 국어, 음악에 한정하여 일부 다루긴 하였으나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은 점, 따라서 각 교과 교육을 통해 어떻게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분석에 있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분석 틀에 의거하기보다는 개별 교과목별, 학교급별로 다른 방식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 초등학교는

통합, 도덕, 국어, 사회를 다루되 도덕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도덕, 사회, 역사 과목에 대해서만, 고등학교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통합사회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 아울러 기타 과목으로 음악, 국어를 간략히 다루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2015 개정 성취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평화·통일교육의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제시한 대안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충분한 검토 과정 및 합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김진숙 외(2018)의 ‘통일·평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통일·평화교육’의 구현 방향 정립, 그리고 이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의 문제점, 개선 방향, ‘통일·평화교육’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외에도 이를 토대로 개발된 교과서, 그리고 현행 통일교육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문제점과 현황, 통일·평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진숙 외(2018)의 연구는 ‘통일·평화교육(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과서, 교수·학습, 평가와 관련해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도덕, 사회, 국어 등 일부 교과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통일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을 뿐, 전 교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워크숍 등 제한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로서, 평화·통일교육이 왜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학교 안팎에서 어떤 문제의식과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시한 개선 방안 및 적용 방향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며, 어떤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이고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김진숙 외(2018)의 연구에서 탐색한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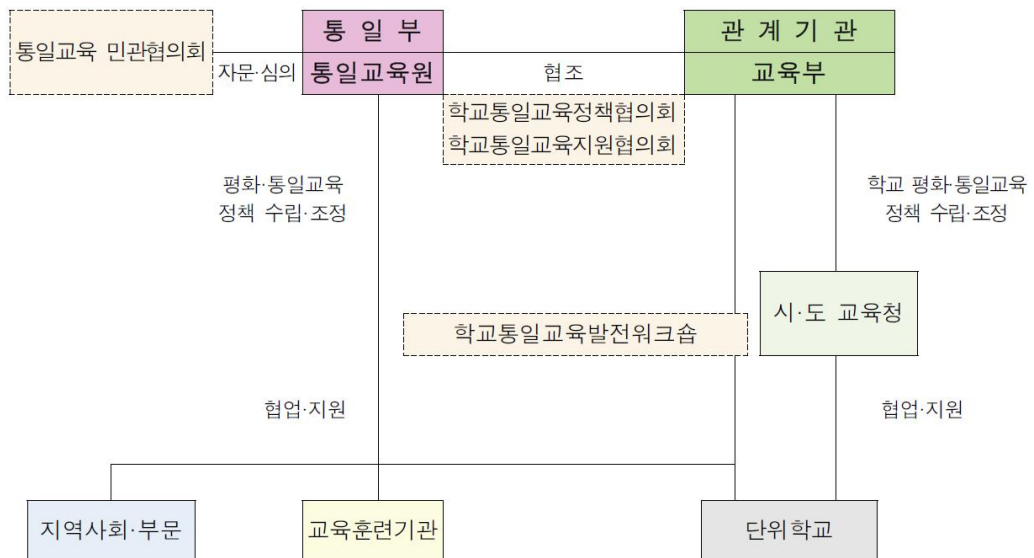
평화·통일교육은 기존의 ‘정치적 관점’을 넘어 ‘교육적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박성춘, 이슬기, 2016: 145).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평화·통일교육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학습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평화 감수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 또한 학습자들의 자율적인 성찰과 토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인정은 평화·통일교육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 및 역량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바람직한 평화·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증대될 수 있는 참여·소통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인정, 2019).

3.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현황을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주요 주체의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의 실천적·제도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통일교육의 정책 현황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그림 II-3-1]과 같이 통일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및 그리고 통일교육 민간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 통일교육원(2019a), p. 25.

[그림 II-3-1] 통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 체계

통일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한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역할과 협력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인정, 2020: 147-148).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비롯해 청소년 대상 각종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통일교육원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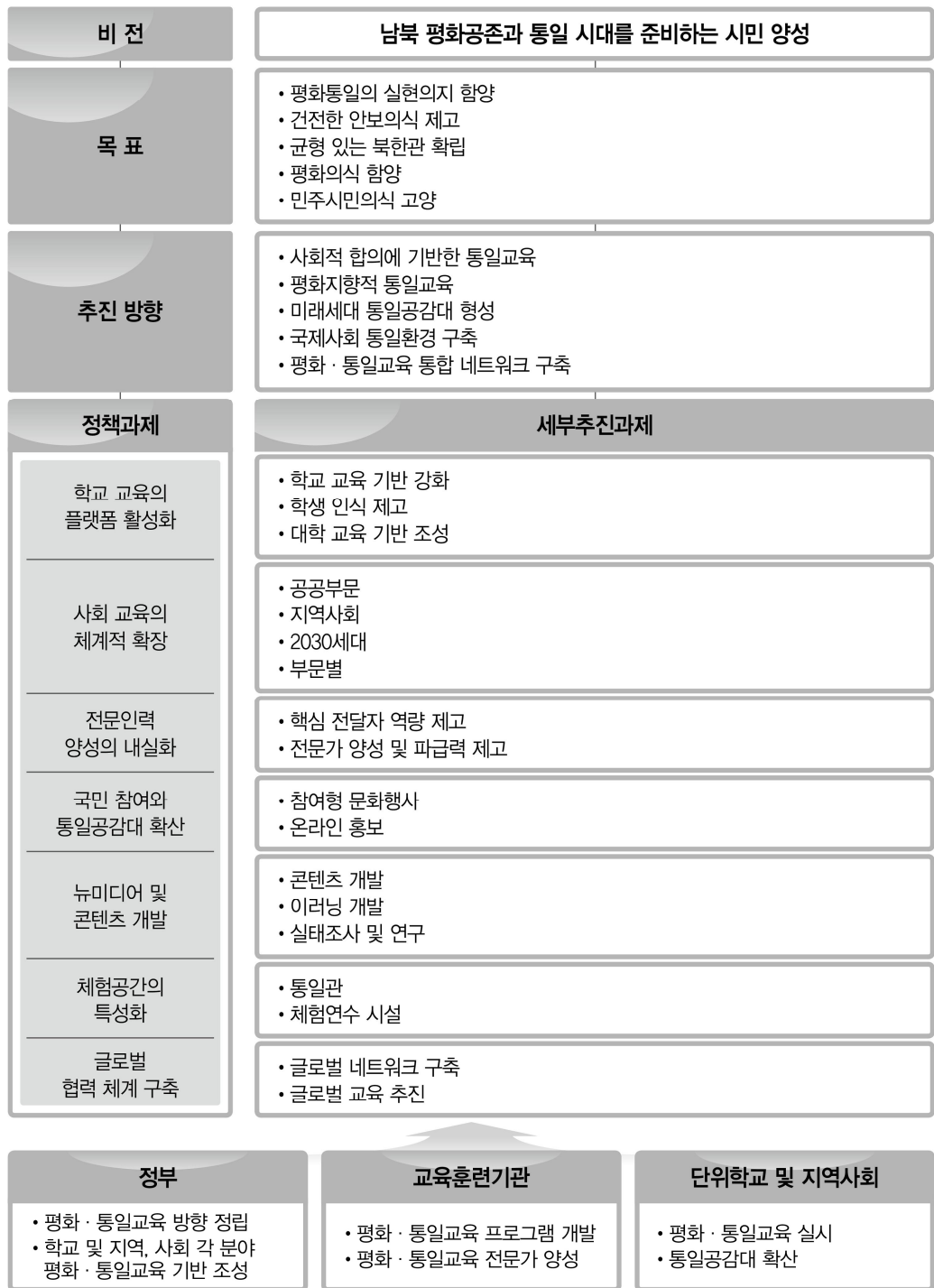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및 통일교육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을 전달하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도 협력하고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교통일교육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2회 상·하반기에 ‘학교 통일교육 정책 협의회’ 및 ‘학교 통일교육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학교통일교육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에 실시되는 ‘통일교육주간’ 활성화,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교원 사이버 연수 콘텐츠 활용, 통일교육 비중 및 시수 확대,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도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통일교육 및 교원 대상 통일 연수 참가자 모집 및 추천, 다양한 통일 현장체험교육 실시, 학교별 통일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통한 통일교육 지원, 해당 시·도의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통일교육 교과연구회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민관 발전협의회(민발협)를 운영하고 연2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장-통일부차관 공동의장 체제이며, 학교·사회통일교육 관계자 및 유관부처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1) 통일부의 통일교육 정책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의 체계’를 [그림 II-3-2]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9a: 17).



출처: 통일교육원(2019a),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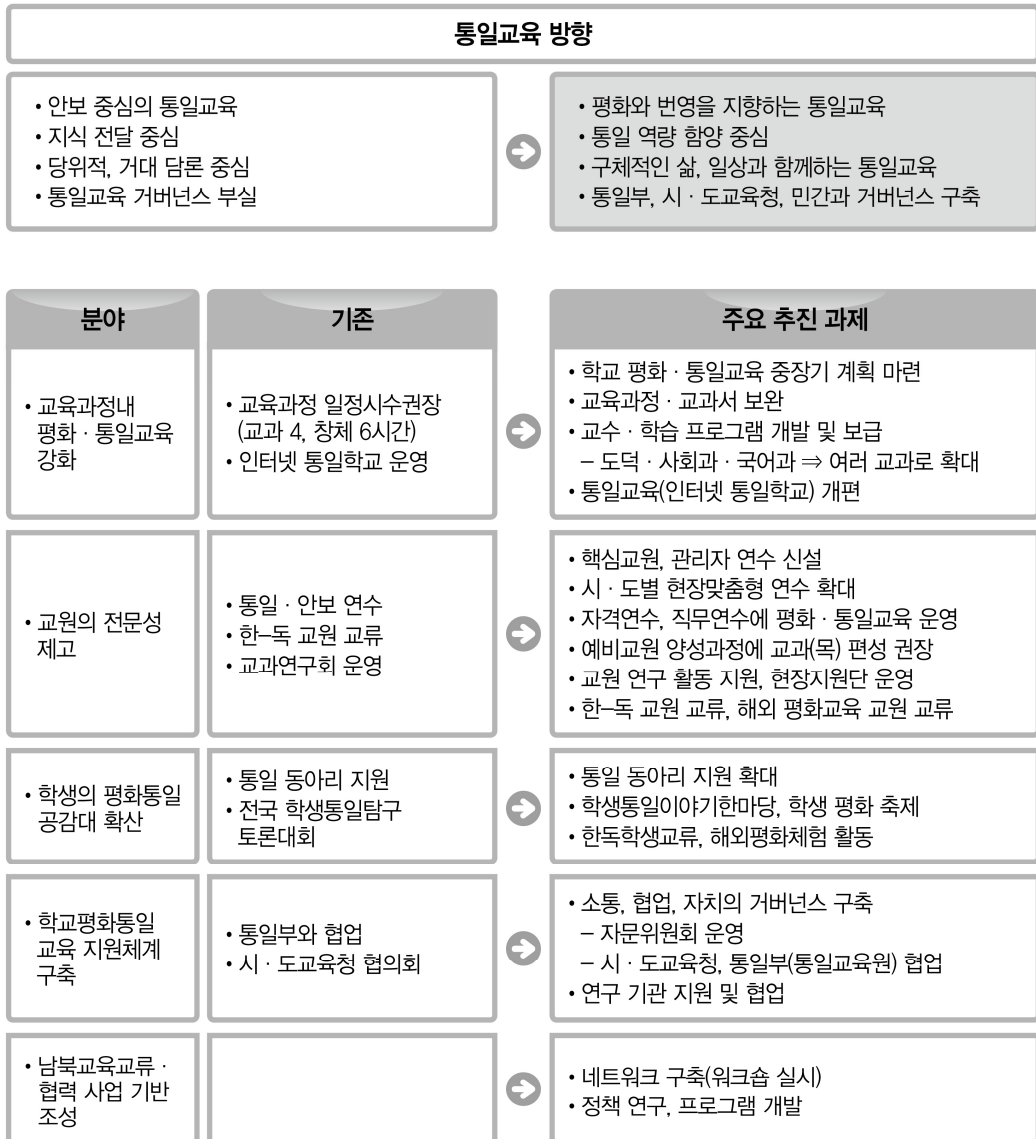
[그림 II-3-2] 통일부 평화·통일교육 체계도

통일부는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과제별 세부 계획은 매년 「통일교육 시행계획」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통일교육원, 2019a: 4). 또한 통일부는 위 계획에서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평화 감수성, 다양성 존중과 민주적 소통, 대화를 통한 갈등의 조정·해결이라는 개념을 추가했음을 밝혔다(통일부, 2019).

통일부는 위의 [그림 II-3-2]과 같이 평화·통일교육 부문의 7개 정책 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국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수행하는 정책 과제는 ‘학교 교육의 플랫폼 활성화’, ‘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학생 인식 제고를 위한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 사업’의 교원연수, ‘국민참여와 통일공감대 확산’ 사업의 통일교육주간 행사 등의 세부 과제를 포함한다.

(2) 교육부의 통일교육 정책

교육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와 공존의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을 키우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2018.11.28.)을 발표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그림 II-3-3]과 같다.



출처: 교육부(2018c) 보도자료(2018.11.28.).

[그림 II-3-3] 교육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8c). 첫째,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교육부, 2018c: 1-2). 통일교육 관련 교과(목)별 성취기준 현황 분석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체계로 재구성하고, 교과서의 서술 현황을 분석하여 평화·공존의 관점으로 보완한다.

평화·통일교육 수업을 도덕, 사회과 교과(목)를 비롯하여 예술·체육, 가정, 과학 등 여러 교과 수업 확대를 권장하고, 프로젝트 수업, 교과 융합 수업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평화통일 교실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콘텐츠 발굴·확산을 위해 수업사례 공모 방식(bottom-up)으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 웹툰 등 미디어 자료 중심으로 개발한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한다(교육부, 2018c: 2-3). 우선 평화·통일교육 교원 집중연수를 통해 양성된 핵심교원(170명)으로 시·도 교육청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컨설팅과 시·도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맞춤형 평화통일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우수 연수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한국과 독일 교원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 사례를 공유하던 경험을 북아일랜드, 발칸 등으로 확대하여 갈등과 분쟁 지역의 평화 교육과정, 사회통합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 포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학생 통일 동아리 활동을 확대·지원하고, 한국-독일 학생교류, 동북아 평화체험 등 학생 해외체험 활동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으로 차세대 통일 리더 양성에 힘쓴다.

셋째, 소통·협업·자치의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시·도 교육청, 통일부(통일교육원),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교육부, 2018c: 3)..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 통일부 등과 워크숍 및 협의회를 통해 시·도별 프로그램 성과 공유, 협업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모색한다.

넷째, 시·도 교육청이 교원 및 학생 대상 남북 교류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체계적·협력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교육부, 2018c: 4). 시·도 교육청, 통일부,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교류·협력 성과, 기관별 추진 과제, 역할 등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한다. 남·북한 교육실태, 교육과정, 교원양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교육적 환경 변화 연구로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를 준비한다. 또한, 교수·학습방법 및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북한 지역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 개발 등으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나. 평화·통일교육 현황과 성과

(1) 통일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2019년의 7개 정책과제별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반 강화(학교 평화·통일교육 협업체계 강화,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학생 평화·통일 인식 제고(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생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대학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학생 체험활동 및 통일 논의 활성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둘째,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분야별 맞춤형 통일역량 강화),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지역사회 평화·기반 구축, 지역사회 평화·추진), 2030세대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부문별 평화·통일교육(평화·부문별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다. 셋째,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핵심 전달자 역량 제고(교원 연수, 공직자 통일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 및 파급력 제고(전문가 양성, 사회지도층을 통한 파급력 제고)를 목표로 했다. 넷째, ‘평화·통일교육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통일 공감 참여형 문화행사(통일교육주간, 지역별 통일공감대 행사), 통일 공감 온라인 홍보(온라인 매체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평화·통일교육 플랫폼 마련)를 목표로 했다. 다섯째, ‘평화·통일교육 플랫폼 마련’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출판물, 영상자료, 강의안 등 기타자료, 교수·학습 콘텐츠), 이러닝 개발(사이버강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평화·통일교육 학술 연구 지원)을 목표로 했다. 여섯째, ‘평화·통일교육 체험 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통일관(오두산 통일전망대, 지역 통일관), 통일 체험연수 시설(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선을 목표로 했다. 일곱째, ‘글로벌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해외 전문가 초청, 평화·통일 글로벌 교류),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추진(해외 신진학자 대상 평화·통일교육, 재외동포·외국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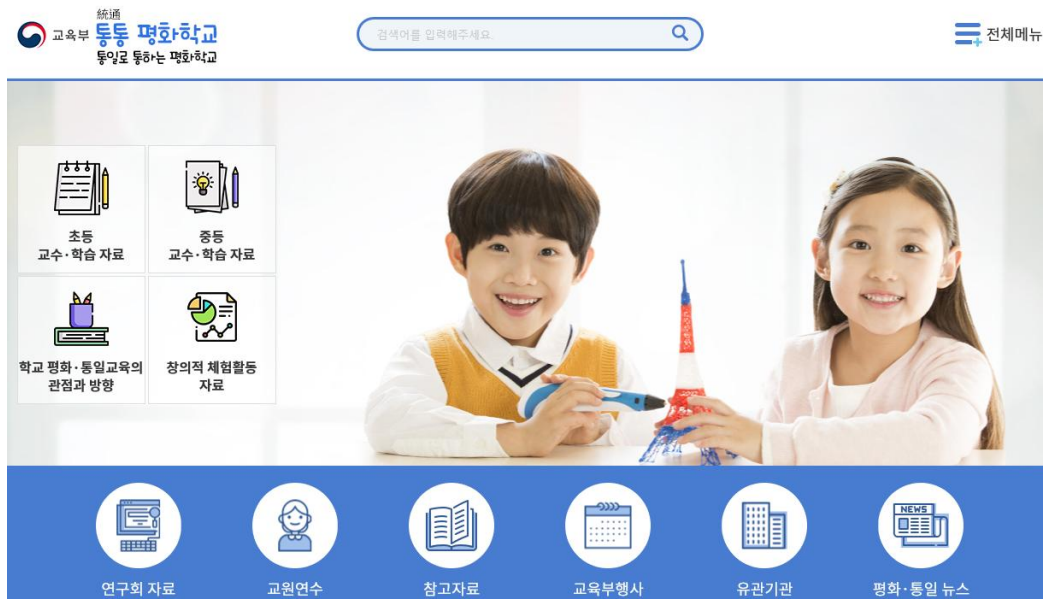
9) 이하의 내용은 이인정(2020), pp.149-150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평화·통일교육)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2) 교육부

교육부의 통일교육 관련 성과는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학생 통일공감대 확산, 지원체제 구축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의 2019년 통일교육 관련 성과는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통일부와 함께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덕, 사회, 지리, 역사,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 내용을 보완한 초·중·고 범교과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그밖에도 평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은 평화·통일교육 누리집 '통통 평화학교'(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에 탑재되어 있다.



[그림 11-3-4] 통통 평화학교 홈페이지(<http://tongil.moe.go.kr>. 검색일: 2020. 10. 25.)

10) 이하의 내용은 교육부(2019), p.2의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한 것임.

둘째,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교사 연구회(55개)를 운영하고 핵심교원 연수(45시간, 94명)를 진행하였다. 또한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 등 효과적인 연수 모델도 개발하였다. 향후 다양한 교원 연수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목표 공유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연수 모델 및 평화·통일교육 우수사례 성과가 시·도 교육청 단위 연수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는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 운영(319개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동북아 평화·통일체험(45명), 수능 후 사제동행 평화캠프(고3 대상, 190명) 등을 추진하였다.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은 현재 교육부 사업 중심에서 시·도 자체 사업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조정아 외, 2019: 134).

넷째, 교육부는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부, 통일부, 국가교육회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일연구원,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3회, '19. 1.~9.), 시·도 교육청 교사연구회(학습공동체), 현장지원단 워크숍('19. 8~9.),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감한마당('20. 1.) 등을 개최하였다.

(3)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사업은 통일부와 교육부의 계획에 의거하면서도 각 시·도의 특색을 반영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본 항목에서는 시·도 교육청 차원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②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③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④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⑤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0학년도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은 <표 II-3-1>과 같다.

<표 II-3-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교육청	주요 사업
서울	- 학생 체험 참여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활동 중심 통일 교육을 위한 통통평화학교, 청소년 통일 배움터 활용
부산	- 논쟁, 토론, 참여,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초·중·고교에 통일교육 강사진과 놀이 프로그램 지원
대구	- 자유학년제 활동과 연계한 운영, '평화'와 접목한 다양한 주제 선택 활동 권장 -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 교재 보급
인천	- 교육부 콘텐츠 보급 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우수 자료 공모전 및 참여자 나눔 워크숍, 평화·통일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
광주	- 평화·통일교육 주관을 활용한 계기 교육 실시 - 찾아가는 평화·통일 수업 운영 지원 - 통일부 주관,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등을 통한 학교 수업 지원 확대
대전	- 통일교육원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실시 - 연구학교를 통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실천모델 개발 및 일반 학교 확산
울산	- 통통 평화학교에 탑재된 교수·학습자료, 창의적 체험 활동 자료 활용 - 학교 평화·통일 교육의 실천모델 개발 및 일반 학교 확산
세종	- 통통평화학교를 활용한 수업자료 공유 안내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평화·통일교육 지원 학교 운영을 통한 내실화
경기	- 『통일시민』교과서 활용: 도덕, 윤리, 사회, 역사 등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동아리 활동 등 연계 활용 - 성장단계별『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용 도서 개발 -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 학교급별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강원	- 통일 강원도 초등 교재『같이 가자, 통일 강원 여행』보급 -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교과서 보급 - 학교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지원 - 강원 청소년 평화 이야기 한마당 운영, 평화지역 체험학습 운영
충북	- 학교 통일 이야기 한마당, 토론대회, 통일 골든벨, 체험 및 문화 행사 -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자료 안내 - 평화·통일교육 지원단 중심의 필요 자료 개발

교육청	주요 사업
충남	-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 역사, 독도 교육 관련 기타운영비 모든 학교에 지원 - 평화·통일 교육 주간 홍보 및 안내 현수막 제작, 등굣길 홍보 캠페인 운영 - 충남 교육청 통일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연구회 및 통일 동아리 운영
전북	- 평화·통일 교육 주간을 자율적으로 운영, 계기 수업 2시간 이상 실시 - 평화·통일교육 교사지원단 운영
전남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와의 협력 교육 - 평화·통일 현장체험 운영·지원 - 전남평화통일희망학교 운영
경북	- 가족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공감캠프 지원 - 평화열차와 함께하는 공감 캠프 운영 및 학생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 경비 비원 - 연구학교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실천모델 개발
경남	- 경남 학생 평화·통일 탐구토론 대회 - 경남 학생 평화·통일교육 한마당 개최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
제주	- 평화사진전 '평안이 온다' 순회 전시

출처: 강원도교육청(2020); 경기도교육청(2020);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상북도교육청(2020);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전라남도교육청(2020); 전라북도교육청(2020);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북도교육청(2020)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계획을 분석한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 교육부 기본 계획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10시간 이상(교과 4시간, 체험 활동 6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도덕, 사회과 교과(군)을 비롯하여 과학, 예술, 가정 등 다양한 교과(군)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주간(매년 5월 넷째 주)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통일교육 강사진, 지역사회 단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통통평화학교, 통일교육원의 교수·학습 자료와 콘텐츠, 보조 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화를 추구하면서도 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시·도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 강원도 교육청은 공동으로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 교과서를 개발하여 활동 중심의 워크북을 보급하였다. 해당 교과서는 평화 시대를 여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 ‘통일 핵심 역량(화해 역량, 평화 역량, 통합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 순회 전시 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북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 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 탐구 토론타운회를 개최하고, 경북 교육청은 학생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은 <표 II-3-2>와 같다.

<표 II-3-2>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교육청	주요 사업
서울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서울통일관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 · 사제동행 평화캠프 ·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감 한마당
부산	- 학생 체험학습활동 지원 - 참여 중심의 평화·통일 학생 축제 개최
대구	- 통일 동아리 선도학교 운영 - 학생 참여 체험 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천	-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지원 - 학생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교 운영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실시
광주	- 자율적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다양한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외체험활동 실시
대전	- 학생 통일 축제 - 평화·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울산	- 평화공존 통일 동아리 선도학교 운영 지원 - 평화공존 통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평화·통일 학생 축제 개최

교육청	주요 사업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 운영 내실화 - 학생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 활성화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 학교통일교육 사업 운영함 - 지역별 평화·통일 체험 인프라 구축 및 단위학교 지원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지원 - 강원 청소년 평화 이야기 마당 운영 - 평화 지역 체험 학습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운영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평화·통일체험학습 - 평화·통일 학생 동아리 자율 운영 -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및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참여 평화·통일체험 캠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평화·통일체험 캠프 · 사제동행 캠프 · 교육가족 평화·통일 역사 캠핑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 통일 농구대회 · 평화·통일 공감한마당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청소년통일문화 마당 운영 - 초중고 학생 평화·통일 공감 캠프 - 학생 평화·통일영화제 운영 - 호국보훈 행사 지원 - 교원 평화통일캠프 운영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지원 - 전남 평화·통일 희망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통일캠프 · 통일 희망서포터즈 · 통일자체학교(통일의회)운영 · 평화·통일희망대장정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공감캠프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경비 지원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주도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탐구토론대회 · 경남학생 평화·통일 교육한마당 · 통일교육 동아리 지원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제동행 통일 동아리 지원 - 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 운영 - 사제동행 평화통일 현장 체험

출처: 강원도교육청(2020); 경기도교육청(2020);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상북도교육청(2020);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전라남도교육청(2020); 전라북도교육청(2020);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북도교육청(2020)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체험 위주의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평화·통일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 체험학습은 평화·통일 공감 한마당이나 학생 축제, 평화·통일 캠프, 현장체험학교 운영 지원, 지역별 평화·통일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평화·통일 동아리는 동아리 선도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 사제 동행 평화·통일 동아리 운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인천)하거나 평화·통일 탐구 토론 대회(경남)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은 <표 II-3-3>과 같다.

<표 II-3-3>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 지원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교육청	주요 사업
서울	- 현장체험 중심의 교원 연수 운영 -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수업 실천 지원
부산	- 전문성을 키우는 교원 연수 강화 및 확대 - 자율적 연구 활동 및 현장연수 지원
대구	- 통일교육 역량함양 연수 실시 - 자율적 연구 활동 및 컨설팅 지원
인천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광주	-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 교원 직무연수 실시 - 평화·통일교육 연구 활동 지원 확대 - 교육부 및 통일부(통일교육원) 연계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주요 사업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평화·통일교육 교사 워크숍 - 평화·통일교육 교원 현장 맞춤형 연수 활성화 - 자율적 연구 활동 및 컨설팅 지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현장체험 연수 - 교원 연수 지원 강화 - 권역별 평화·통일교육 교사 워크숍 지원 - 자율적 연구활동 및 컨설팅 지원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함양 연수 운영 내실화 - 연구활동 및 컨설팅 지원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교사 워크숍 운영 - 원격 연수 및 특수분야 직무연수 운영 - 교원 평화·통일교육 연구 활동 지원 - 강원도형 평화·통일연수 프로그램 개발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키우는 교원 연수 강화 - 통일교육 연구학교 및 통일공감 학교 운영 - 교원 연찬회 및 교사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교원 대상 연수 확대 - 현장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평화·통일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 교원 대상 연구대회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평화·통일 이해 과정 연수 - 평화·통일 공감토론 및 특강 -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국외현장체험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 핵심교원 지원단 운영 - 평화·통일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평화·통일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수업자료 및 콘텐츠 개발 지원·활용 안내 -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평화·통일연수 전문성 함양 연수 지원 - 교원 국외현장체험 연수 - 교원 평화·통일 인식 제고 · 자녀와 함께 하는 평화·통일 공감캠프 · 권역별 평화·통일교육 교사 워크숍 · 학교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 평화·통일 공감 토론 및 특강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활동 지원 · 현장지원단 운영 · 교원 평화 감성 기행 · 학교 관리자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연수 ·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교육청	주요 사업
제주	-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 평화·통일 담당교사 연찬회 - 교원 현장체험 연수 및 평화·통일 워크숍 추진 - 평화·통일교육 교과연구회 운영 -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원 연수 운영

출처: 강원도교육청(2020); 경기도교육청(2020);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상북도교육청(2020);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전라남도교육청(2020); 전라북도교육청(2020);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북도교육청(2020)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 계획을 분석한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둘째,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평화·통일교육을 주제로 조직한 연구회(대전, 대구, 제주)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인천, 충남, 전남)를 지원하고 교사 워크숍(대전, 울산, 강원, 경북, 제주)을 마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 국내외 현장체험을 실시(대구, 울산, 전북, 경북, 경남)하여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원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원의 통일교육 의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넷째, 수업 컨설팅 및 지원단(서울,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을 운영하고 연구대회(충남, 경남), 수업 사례 공유(충북, 전남) 기회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평화·통일수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라)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은 <표 II-3-4>와 같다.

〈표 11-3-4〉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교육청	주요 사업
서울	-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단 구성운영 - 유관기관 연계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
부산	- 소통·협업·자치의 거버넌스 운영
대구	- 유관기관(단체)·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인천	-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 교육
광주	-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대전	- 관내 유관기관과 소통·협업의 거버넌스 구축 - 학교 평화통일교육 연구 지원 및 활성화
울산	-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계 사업 추진 - 통일교육 관련 유관부처 사업 협력
세종	-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 운영 - 사업선택제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지원학교 운영
경기	- 지역별 평화·통일 체험 인프라 구축 단위학교 지원
강원	- 평화·통일교육 협의체 및 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 추진
충북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충남	- 민주평화교육센터 활성화 -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전북	- 평화·통일교육교사지원단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강사단
전남	- 평화·통일 관련 위원회 운영 -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업 강화
경북	- 교육지원청 협업 강화 -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경남	- 교육부 주관사업 업무 협력 강화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 설치 운영 - 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 평화·통일 교육 협력체제 강화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부와 협업 강화
제주	-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

출처: 강원도교육청(2020); 경기도교육청(2020);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상북도교육청(2020);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전라남도교육청(2020); 전라북도교육청(2020);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북도교육청(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관련 시·도 교육청 계획을 분석한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 시·도 교육청 내의 인적자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교육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평화·통일교육 지원체제라는 명시적 과제가 설정되지 않았지만, 세부 과제 내역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충북 교육청은 교류·협력 기반 조성이라는 대영역의 하위 과제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별도의 위원회·기구를 설치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인천, 강원 등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민주평화교육센터를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마)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은 <표 II-3-5>와 같다.

<표 II-3-5>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관련 시·도 교육청별 주요 사업

교육청	주요 사업
서울	- 남북교육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 남북교육교류 기금 조성 - 교원·학생 남북교육교류 기반 사업 추진
부산	- 통일미래를 연구하는 교사교류사업 · 남북 교육 교류를 위한 추진 조직 확충 - 사할린 동포 청소년 초청 교류사업 -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구	해당 내용 없음
인천	- '남북 교육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성 - 남북한 교육 실태, 교육과정 등 연구 활동 ※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별도 시행 계획에 의거 추진

교육청	주요 사업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육교류협력기획단 및 사업별 추진단 구성·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재정 기반 조성: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 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협력 소위원회' 운영 주관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운영: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대전	해당 내용 없음
울산	해당 내용 없음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교원 대상 남북 교육교류 협력 사업 추진 ※ 대북제재 해소 및 남북 교육교류 협력 승인 후 추진 - 평화·통일교육 지원체제 구축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개최(연중 2회) 및 사업 계획 수립 - 남북교육교류 단계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간 상호이해를 위한 남북교육교류 단계적 추진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업무협약을 통한 남북교육교류 기반 조성
강원	해당 내용 없음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교육 분야 교류협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체계 구축, 교류 체험학습 권장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육 교류·협력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학생 교류, 교육 교류 준비 ※ 남·북, 북·미간 관계 개선 상황과 병행하여 추진 · 충남 학생 통일농구대회 개최(남북 통일농구 교류 충남 예선대회) · 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진학 지원
전북	- 남북교육교류추진단 운영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관련 위원회 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경북	- 남북교원교류 및 남북교육협력사업 준비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협업을 통한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 민간단체 보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제주	- 평화사진전 “평양이 온다” 순회 전시

출처: 강원도교육청(2020); 경기도교육청(2020); 경상남도교육청(2020); 경상북도교육청(2020);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전라남도교육청(2020); 전라북도교육청(2020);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북도교육청(2020)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시·도 교육청 계획을 분석한 결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시·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계획 수립 시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더라도 관련 사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통일교육 기반 조성’ 영역 혹은 ‘통일교육 지원 체제 구축’ 영역 등 여타 영역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사업을 계획한 경우도 있다.¹¹⁾ 그리고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교육청의 경우 통일교육 계획 수립 시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통일교육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둘째,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별도 시행 계획에 의거 추진’(인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운영: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광주) 등 통일교육 계획 외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유보 조항을 추가하거나, ‘대북제재 해소 및 남북 교육교류 협력 승인 후 추진, 중·고 학생 금강산, 개성공단, 평양 등 방문 및 교류 운영’(세종), ‘남북관계의 호전 및 여건변경에 따라 남북교육교류 추진’(경기), ‘남·북, 북·미간 관계 개선 상황과 병행하여 추진’(충남) 등 사업이 추진의 전제가 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일정 요건이 성립될 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관련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업에서 ‘여건에 따른 단계별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거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닌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남북 교육 교류·협력 기반 조성 관련 사업은 대체로 중앙 정부와 연관된 사업이 많다. 예를 들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서울, 광주, 전남, 경북), ‘남북교육교류소위원회’(광주, 전북), ‘북한지역 체험활동 길라잡이 개발 보급’(전남, 경북)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업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시·도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1)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기, 충북, 경남의 경우 ‘남북 교류’와 관련된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영역을 대개 네 개의 영역으로 사업 과제를 분류한 타 시·도와 달리 세 개의 영역으로 과제를 분류하였음에도 ‘남북 교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광주,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의 경우 ‘남북 교류’ 영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반 조성’ 혹은 ‘지원 체제 구축’ 등 지원 영역에 남북 교류 관련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산 교육청에서는 ‘사할린 동포 청소년 초청 교류사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경기도 교육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업무협약을 통한 남북교육교류 기반 조성’ 제안하고 있으며, 경남 교육청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정책을 분석 및 성과를 다섯 가지 범주로 분석해 보았다. 시·도 교육청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되 지역의 특색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는 형태가 다르고,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도와 방식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도 교육청은 학교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체험 중심 교원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과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II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정립

-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도출
과정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목표 도출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그 개념이 정확하게 학교 현장에 제시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에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과연 무엇이고, 학교 교육을 통해 무엇을 목표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 및 합의를 위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III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합의도와 가독성이 높은 학교 평화·통일 개념을 도출하고, 우리 학생들이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며¹²⁾, 총괄 및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하여 교과 교육 및 비교과 교육을 통해 총체적으로 내실 있는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도출 과정

가. 델파이 조사 방법

(1) 델파이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도출을 위한 주요 연구 방법으로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내용 타당성과 전문가 의견 수렴도가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고자 했다. 델파이 조사 대상, 방법, 일정은 <표 III-1-1>과 같다. 델파이 조사 대상은 총 20명으로, 평화·통일 연구학교 담당자이거나 평화·통일 관련 교과서 또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참여한 초·중·고 교사,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 및 시·도 교육청 장학사,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평화·통일교육이나 교육과정, 교과 교육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델파이 조사 패널로 구성했다. 1차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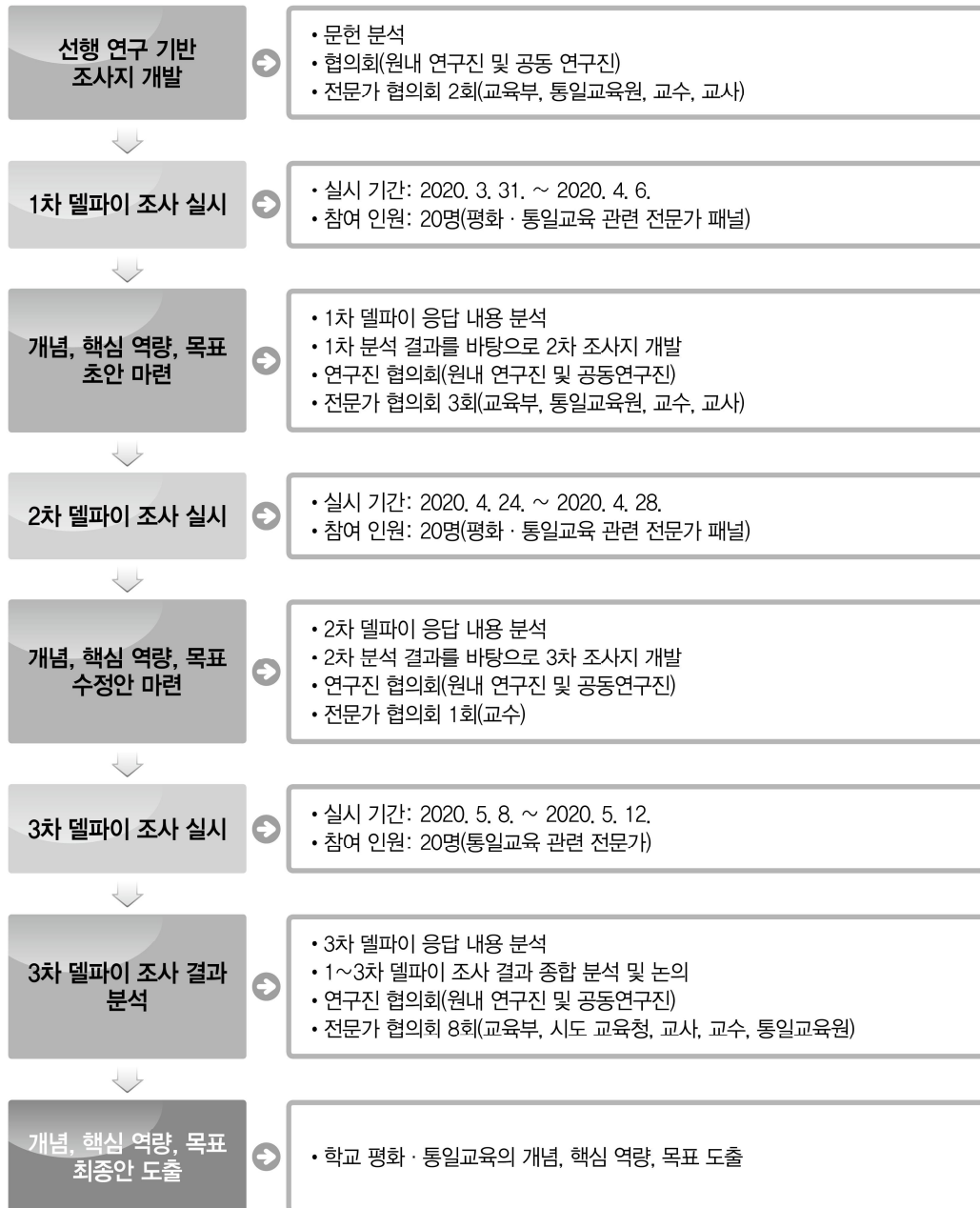
12) 본 연구가, 평화·통일교육이 교과가 아니라 범교과 학습 주제임에도, 통상적으로 교과에 적용하는 ‘핵심역량’을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주제에 적용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이 있고, 평화·통일교육이 교과는 아니지만 도덕, 사회, 국어 등 교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며,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구체화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 개념의 속성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역량, 목표를 개방형으로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했고, 2차 조사에서는 이를 종합한 안에 대한 선호도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수집된 반응 결과를 제공하여 2차에서 제시한 본인의 의견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표 III-1-1〉 1차·2차·3차 델파이 조사 설계

구분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
조사 대상 (총 20명)	교사(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담당자 •평화·통일교육 교과서 또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경험이 있는 초, 중, 고 교사 	
	교과 교육 전문가(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과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한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교육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담당자 •통일교육 관련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조사 방법	개방형 설문	구조화된 설문	
유효 표본	총 20표본	총 20표본	총 20표본
조사 기간	2020년 3월 31일 ~ 4월 6일	2020년 4월 24일 ~ 4월 28일	2020년 5월 8일 ~ 5월 12일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는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 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조사 결과 해석 및 수정·보완 방향 논의를 진행했다.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최종안이 도출된 프로세스는 [그림 III-1-1]과 같다.



[그림 III-1-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최종안 도출 프로세스

(2) 델파이 조사지 구성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는 학교 현장과의 충실한 연계를 통한 운영을 통해 실현된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개념, 핵심역량, 목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전문가 협의회, 2020. 2. 14.).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교육적 지향과 관련되며, 핵심역량과 목표는 각 교과 및 학교급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로서 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델파이 조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시기별, 주체별(연구자 및 기관별)로 관점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역량, 목표를 합의를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일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고, <표 III-1-2>와 같이 하위 질문을 제시했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조 자료로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념의 경우 선행연구 중 5개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핵심역량의 경우 선행연구 중 3개의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들과 그 의미를 참조 자료로 수록하였고 목표의 경우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목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교급별 목표를 참조 자료로 수록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념, 핵심역량, 목표의 안을 도출, 이에 대한 적절성을 묻고 수정 및 기타 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도출된 통계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적절성을 묻고 수정 및 기타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II-1-2> 연구 내용 구분에 따른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델파이 조사 내용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설정 학교 평화·통일교육 각 핵심역량의 의미

구분	델파이 조사 내용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총괄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초등학교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중학교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고등학교 목표

(3) 델파이 결과 분석 방법

1차 델파이는 개방형 조사이므로, 2차 델파이는 1차에서 개선된 의견을 종합한 안을 연구진이 개발하여 이에 대한 선호도(개념) 및 적절성(핵심역량, 목표)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2차(핵심역량, 목표) 및 3차 델파이(개념, 핵심역량, 목표) 조사 결과는 응답 비율, 척도 평균, 표준편차와 함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Degree of Consensus),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전체 응답자 수 대비 긍정적 의견(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을 개진한 응답자 수의 비율로, 1에 가까울수록 내용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타당도 최댓값은 1.00이고, 긍정 응답자가 절반일 경우 0.00, 절반 미만이면 음수 값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이 20명이므로 내용타당도 비율(CVR) 값이 0.42 이상이어야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합의도(Degree of Consensus)는 델파이 조사 전문가 패널의 합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높은 합의도를 의미하며, 의견의 편차가 클수록 수치가 감소함에 따라 0에 가깝게 된다. 변동계수(CV)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전문가 패널의 응답이 일치하여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계수(CV) 값이 0.5 이하인 경우 높은 수준의 합의로 안정도가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 설문이 필요하지 않다. 변동계수(CV) 값이 0.5~0.8이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0.8 이상인 경우는 낮은 수준의 합의로 추가 설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델파이 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가) 1차 델파이 조사지 내용

1차 델파이에서는 각 영역별 질문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화·통일교육의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전문가가 생각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및 각 역량의 의미, 총괄 목표 및 학교급별 목표를 작성하도록 개방형 문항을 구성하였다.

(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개념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관련한 개방형 문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수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이 기존 통일교육과 차별화되는 점으로서, 분단으로 인한 문제 파악, 일상에서의 갈등과 폭력 인식, 평화의식과 역량, 북한과의 공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났다.

우선,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응답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는 평화와 관련된 ‘의식’, ‘역량’, ‘신념’ 등이다. ‘평화에 대한 이해와 신념’, ‘평화를 일상에서 실천’, ‘평화의식 내면화’, ‘평화를 삶의 원리로 습관화’,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 등과 같이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는 평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단의 역사와 현실, 분단 체제 하에서의 비평화와 폭력,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 증오와 불신, 그리고 구조화된 폭력과 혐오 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 요소라고 본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평화를 지향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평화 달성은

곧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나 평화·통일은 북한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 모색’, ‘상호 이해’, ‘화해와 연대’, ‘상호 인정과 공존’ 등이 개념 요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가치 및 태도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 ‘평화 시민’을 기르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가 차원의 거시적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통일교육을 학생들의 일상과 삶의 문제로 가져와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평화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비평화와 폭력의 일상문화 인식’, ‘일상생활 및 사회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 성찰’ 등과 같이 일상의 삶과 문화에 스며든 분단 폭력의 문제를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개념의 요소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서 ‘통일’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통일에 의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가 우선하고 통일은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통일은 평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대전제 하에 선택 가능한 문제인지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통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 ‘통일 한국’, ‘통일 이후의 삶’ 등과 같이 개념에 ‘통일’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경우도 있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모색’, ‘평화로운 공존’,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평화를 지향’ 등과 같이 ‘통일’을 명시하지 않고 평화의 개념에 포함시킨 응답도 있었다.

○ 핵심역량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다양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명칭이 제시됐으며, 핵심역량을 3가지로 구성한 경우부터 7가지로 구성한 경우까지 구성 방식도 다양했다. 제안된 핵심역량을 유사한 의미군으로 유형화하고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표 III-1-3>과 같다. 전문가 패널이 가장 많이 제시한 5개의 역량 의미군을 추출하면 소통 관련 역량(12개), 감수성 관련 역량(11개), 평화·통일 실천 관련 역량(10개), 비판적 사고력/탐구력 관련 역량(10개), 북한·통일 이해/탐구 관련 역량(9개)이다.

다음으로 갈등 관련 역량(5개), 평화 지향 관련 역량(5개), 공동체 관련 역량(3개)이 제시되었는데, 갈등 관련 역량은 소통이나 감수성 관련 역량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평화 지향의 경우는 감수성이나 평화·통일 실천 관련 역량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공동체 관련 역량은 평화·통일 실천 관련 역량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표 III-1-3〉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개선된 핵심역량 목록

구분(빈도)	제안된 핵심역량 용어		
소통 관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소통 역량 • 민주적·평화적 소통 능력 • 소통 및 공감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적 소통 및 실천역량 • 시민적 소통 역량 • 의사소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소통 역량 • 비폭력적 의사소통, 협동과 공동의 문제해결 역량
감수성 관련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감수성 역량 • 평화 감수성 • 평화 감수성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인권 감수성 •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 평화적 감수성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감수성
평화·통일 실천 관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평화 구축 역량 • 평화 구축 능력 • 평화 구축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형성 역량 • 평화·통일 실천 역량 • 평화문화 형성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 시민성 훈련 • 평화통일 구축 역량 • 평화통일 구축 역량
비판적 사고력/ 탐구력 관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리더십 역량 • 비판적 문해 역량 • 비판적 사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사고 역량 • 비판적 사고력 • 비판적 탐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비판적 탐구역량
북한·통일 이해/ 탐구 관련(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해 역량 • 북한·통일 탐구 역량 •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인식역량 • 통일 미래 한국 잠재능력 • 통일 환경 이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 탐구 역량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해(literacy) 능력
갈등 관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분석과 조정 능력 • 갈등 해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 갈등 해결 역량 • 협업/갈등 조정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와 협력
평화 지향 관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지향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지향의 전망 탐색 역량 	
공동체 관련(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과 타협의 공동체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공동체 의식 역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문화 역량 • 대내적 관계 맺기 • 대외적 관계 맺기 • 민주시민역량 • 북한이탈주민과의 공존 역량 • 상호 존중 역량 • 세계시민의식 함양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심의 역량 • 신뢰와 연대 • 심미적 감성 역량 • 의사결정/문제해결 역량 • 자기관리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 참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 평화 가치 내면화 역량 • 평화적 공존 능력 • 합리적 인지 능력

이를 다시 지식·이해와 관련한 역량, 가치·태도와 관련한 역량, 기능 및 실천과 관련한 역량으로 구분하고 유사한 영역끼리 통합하여 분류하는 과정을 수행했다. 핵심역량은 기본적으로 지식, 가치·태도, 기능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배타적으로 어느

것은 지식, 어느 것은 가치·태도로만 분류할 성격의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현되는 국면의 관련성에 따라 분류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력/ 탐구력 관련 역량과 북한·통일 이해/탐구 관련 역량은 지식과 이해와 관련한 범주로서 탐구 역량의 동일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4가지로 압축하여 선정하였다.

핵심역량 명칭만으로도 직접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의 강조점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각각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 감수성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으로 설정했다. 각 핵심역량의 의미 진술문도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높게 제시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자 했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진된 각 핵심역량의 의미 진술문을 종합하여 핵심역량 의미 초안을 개발했다. 핵심역량 용어와 함께 핵심역량의 의미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선택하여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의미 진술문이 추상적·학문적 표현이 많아 어렵고 가독성이 다소 낮은 경향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역량의 의미 초안을 개발하였다.

○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총괄 목표는 각 학교급별 목표를 포함하면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응답들이 수합되었고, 각 학교급별 목표는 해당 학교급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평화·통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응답들이 수합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개방형 설문의 응답으로 서술된 내용들을 코딩한 뒤 분석하여 범주화했다.

총괄 및 학교급별 목표로 응답된 내용들의 상위 범주 요인으로는 ‘통일, 분단, 북한 이해’, ‘평화의식의 내면화와 실천’, ‘평화·통일 실천을 위한 능력’,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태도, 의식, 의지’, ‘민주시민의식 고양’, ‘안보의식 제고’가 도출되었다. 이들 중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안보의식 제고’는 1차 델파이 설문지에 참조 자료로 제시한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수록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교급별 교육 목표의 내용이었다.

(다) 1차 델파이 결과 분석 및 초안 도출

○ 개념

1차 델파이 응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6가지의 개념(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2020. 4. 17.)를 거쳐 두 개의 안을 삭제하고 다른 개념들을 수정하여 도출한 개념(초안)은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1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초안)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초안)
•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평화적 상황(구조적 폭력, 불신, 갈등 등)을 인식하고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지식, 실천, 가치관 및 태도를 기르는 교육
• 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비평화적인 사회적 관계 및 일상의 문화를 성찰하고 남북한 상호 인정과 존중,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 평화 의식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분단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 평화를 삶의 원리로 습관화하여 평화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 및 태도,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
• 평화 의식을 내면화한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첫 번째로 제시된 개념은 많은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로 인한 폭력과 갈등 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도록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이 개념은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비평화적 상황의 인식과 평화적 통일의 강조라는 특징을 제외하면 기존 통일교육 개념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제시된 개념은 국가 중심의 거시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경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도출된 안이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제시한 개념과 유사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이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문화'라는 측면과 그러한 상황의 개인적인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남북한의 상호 인정과 존중,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분단과 통일, 평화의 문제를 개인의 일상 차원에서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능력들은 시민교육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제시된 개념은 평화교육의 관점이 대폭 반영된 관점으로서, 분단 상황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평화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를 최우선시하며, 나아가 일상적 삶의 원리로서 평화를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이 관점에서는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므로, 통일이 목적 그 자체로서 제시되지 않는다.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통일’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개념은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전 지구적 관점으로 확장한 것으로, 세계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본다. 평화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최종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거시적 관점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평화교육의 관점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 번째 안과 유사하지만, 델파이 조사 결과와 전문가 협의회(전문가 협의회, 2020. 4. 22a.)를 거쳐 네 번째 개념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를 명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2차 델파이 조사지에서는 제시된 4가지 개념(초안)에 대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으로 전문가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각 개념(초안)에 대한 수정 및 기타 의견이 있으면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핵심역량

1차 델파이 결과와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설정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 각 핵심역량의 의미(초안)는 <표 III-1-5>와 같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통상 지식, 가치·태도, 기능 영역 관련 순으로 제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 지식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핵심역량으로 북한·통일 탐구 역량(북한, 분단, 평화와 통일 탐색)을 제시하고, 가치·태도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핵심역량으로 평화 감수성 역량(분단에 따른 비평화, 평화 지향)을 제시했으며, 기능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핵심역량으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대화, 토론, 타협, 협력, 갈등 해결)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일상생활 속의 실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참여와 기여)을 제시하였다.

〈표 III-1-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의미(초안)

관련 영역	핵심역량	의미(초안)
지식·이해	북한·통일 탐구 역량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남북한 분단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미래의 대안을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가치·태도	평화 감수성 역량	한반도 분단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을 인식하며, 이를 극복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기능 (행동)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평화·통일 실천 역량	일상생활에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능력

○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6가지 상위 범주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요인들은 총괄 목표 및 각 학교급 목표로서 응답된 내용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기에 이들을 각 목표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 중에서 ‘안보’, ‘민족’과 같은 표현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의(전문가 협의회, 2020.4.22b.)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목표로서 의의가 있고 각 학교급의 특성이 반영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수립을 지향한다. 따라서 총괄 목표 및 각 학교급 목표로 수합된 전체 응답들과 상위 범주 요인에 따라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해 온 각 학교급 경력 교사들의 참여를 통해 〈표 III-1-6〉과 같이 목표(초안)를 도출하였다. 총괄 목표에는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 평화 감수성의 함양, 이를 바탕으로 통일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초등학교 목표에는 분단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심 및 평화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능력 함양을, 중학교 목표에는 통일 문제와 나의 삶의 관련성 인식을, 고등학교 목표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실천에 주안점을 두어 학교 평화·통일교육 목표(초안)를 도출하였다(전문가 협의회, 2020.4.22b.).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초안)는 총괄 목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목표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처럼 역량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역량의 위계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독립된 교과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는 각 역량의 단계별 성취 지점을 제시하기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각 학교급에서 어떤 정도로 운영될 수 있고 총괄적으로 어떤 도달점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제시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중·고 목표는 학교교육에서의 실행을 고려하여 초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협의회(2020. 5. 15.)의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1-6〉 1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초안)

구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초안)
총괄 목표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초등학교 목표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르며, 상호 존중을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중학교 목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남북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한다.
고등학교 목표	남북 관계를 동북아 및 세계적 평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능력을 기른다.

(2) 2차 델파이 조사

(가) 2차 델파이 조사지 내용

2차 델파이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안의 적절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2차 델파이에서는 개방형으로 진행한 1차 델파이 결과를 종합한 후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수행했다. 목표에 대해서는 추출된 대표적 4개의 개념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제시하도록 했다. 핵심역량과 목표에 대해서는 1차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도출된 초안의 적절성 정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1차 조사에서 종합한 개념안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두 번째 개념안에 1위(7명)와 2위(7명)를 부여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두 번째 안(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비평화적인 사회적 관계 및 일상의 문화를 성찰하고 남북한 상호 인정과 존중,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다른 세 가지 안에 비해 적절성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적절한 정도에 대한 개인적 순위라는 측면에서 순위와 통계치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안에 대해 낮은 순위를 부여한 응답자와 다른 안에 대해서 높은 순위를 부여한 응답자들도 있으므로 이들이 해당 안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모두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개념안에 대한 순위의 비율과 제시된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을 종합하여 유목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치면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III-1-7〉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안)		비율(%)		
		1위	2위	합계
①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평화적 상황(구조적 폭력, 불신, 갈등 등)을 인식하고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지식, 실천, 가치관 및 태도를 기르는 교육	20	35	55
②	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비평화적인 사회적 관계 및 일상의 문화를 성찰하고 남북한 상호 인정과 존중,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35	35	70
③	평화 의식 함양을 위한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분단 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 평화를 삶의 원리로 습관화하여 평화를 지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 및 태도,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	25	20	45
④	평화 의식을 내면화한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0	10	30

다음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목표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III-1-8〉과 같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4가지에 대해서 모두 CVR 값이 0.42 이상이고 CV 값도 0.5 이하로 나타나 내용 타당성이 확보되고 수렴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어 더 이상 설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핵심역량의 의미 설정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4개의 핵심역량 중 2개, 즉 북한·통일 탐구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의미에 대한 CVR 값이

0.40으로 나와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설정의 적절성 조사 결과 총괄 목표와 초등학교 목표의 경우에도 CVR 값이 0.30으로 나와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사례수: 20명)

문항	적절성(%)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CV	
	전혀 적절하지 않음	거의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I_1. 개념 정의	-	-	-	-	-	-	-	-	-	-	
II_1. 역량 선정의 적절성	탐구	0.00	20.00	5.00	45.00	30.00	3.85	1.09	0.50	0.56	0.28
	감수성	0.00	0.00	5.00	50.00	45.00	4.40	0.60	0.90	0.75	0.14
	소통	0.00	0.00	25.00	35.00	40.00	4.15	0.81	0.50	0.56	0.20
	실천	10.00	0.00	10.00	35.00	45.00	4.05	1.23	0.60	0.75	0.30
II_2. 역량 의미의 적절성	탐구	0.00	20.00	10.00	55.00	15.00	3.65	0.99	0.40	0.75	0.27
	감수성	0.00	5.00	10.00	55.00	30.00	4.10	0.79	0.70	0.75	0.19
	소통	0.00	5.00	25.00	30.00	40.00	4.05	0.95	0.40	0.50	0.23
	실천	10.00	0.00	5.00	50.00	35.00	4.00	1.17	0.70	0.75	0.29
III_3. 목표 설정의 적절성	총괄	5.00	10.00	20.00	50.00	15.00	3.60	1.05	0.30	0.75	0.29
	초	0.00	10.00	25.00	40.00	25.00	3.80	0.95	0.30	0.56	0.25
	중	0.00	0.00	25.00	45.00	30.00	4.05	0.76	0.50	0.56	0.19
	고	0.00	0.00	15.00	45.00	40.00	4.25	0.72	0.70	0.75	0.17

※ 내용 타당도(CVR) 값이 0.42 미만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함.

(다) 2차 델파이 결과 분석 및 수정안 도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개선된 의견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개념, 핵심역량, 목표 진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남북한 분단’, ‘한반도 분단’ 등 분단을 표현할 경우는 ‘남북한 분단’으로, 평화와 통일, 미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반도의 미래’ 등으로 남북이 공존하는 상황과 통일된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한반도’로 표현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개념

2차 델파이 조사의 개념(초안)에 대해 제시된 델파이 응답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으로 1, 2순위가 가장 많은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평화·통일교육의 목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가 첫 문장에 제시되어 이후의 내용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였기 때문이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은 교육의 보편적 목적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적과 인간상 등이 잘 드러나도록 목표를 한정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비평화적 상황’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합의된 개념인지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통일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비평화적 상황’은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갈등, 불신 등을 일컫는 용어로 상용하고 있다(김국현 외, 2018; 함규진 외, 2019; 김선자, 주우철, 2019 등). 또한 두 번째 개념안에 ‘통일’이 명시되지 않아 목표가 불분명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상호 인정과 존중,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 명시되지 않은 세 번째 안에 대해서도 평화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에 종속되거나 통일이 경시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도 ‘통일’이나 ‘x평화·통일’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연구진 협의를 거쳐 ‘통일’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역량 함양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방향을 같이 한다는 측면과, 본 연구에서도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제시되고 학교급별 목표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역량을 참고하고 있기에 역량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및 연구진 협의를 토대로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수정안은 <표 III-1-9>와 같다.

〈표 III-1-9〉 2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수정안)

개념(초안)	개념(수정안)
다양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비평화적인 사회적 관계 및 일상의 문화를 성찰하고 남북한 상호 인정과 존중,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비평화적인 일상의 문화를 성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남북한 상호인정과 존중, 공존의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교육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 핵심역량

델파이 조사에서 4개의 핵심역량 중 2개, 즉 ‘북한·통일 탐구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의미는 내용 타당성 확보를 위해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델파이에서 추가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역량의 의미를 수정·보완하였다.

북한·통일 탐구 역량의 경우 ‘미래의 대안을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모호하고 어색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했다. 평화 감수성 역량의 경우 ‘폭력’이라는 강한 부정적 단어가 포함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인지’나 ‘인식’이라는 용어도 가치 영역보다 지식 영역의 표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내면화’하는 국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구문을 수정·보완했다. 또한 ‘내적인 힘’이라는 표현도 역량에 대한 정의로 다소 어색하고 다른 역량과 다른 형식으로 제시됐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하였다.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경우 다른 역량과 달리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의미가 제시되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나 다른 역량(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평화·통일교육만의 구별된 역량으로 인식되지 않아 역량의 내용을 좀 더 통일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을 ‘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으로 수정하였다. 평화·통일 실천 역량의 경우 특별히 제시된 의견이 없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및 연구진 협의를 토대로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의미(수정안)는 〈표 III-1-10〉과 같다.

〈표 III-1-10〉 2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의미(수정안)

핵심역량	의미(초안)	의미(수정안)
북한·통일 탐구 역량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남북한 분단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미래의 대안을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남북한 분단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평화 감수성 역량	한반도 분단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을 인식하며, 이를 극복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남북한 분단 상황과 관련된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 상호 인정과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등을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평화·통일 실천 역량	일상생활에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능력	일상생활에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능력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총괄 목표와 초등학교 목표에 대한 수정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괄 목표에서는 기존 통일교육과의 차별점이 드러났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초등학교 목표에서는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이 수정 및 기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중학교 목표와 고등학교 목표에서는 주로 표현 수정과 내용의 보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추가나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총괄 목표의 수정 및 기타 의견에 나온 “시민교육적 맥락이 보완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은 기존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시민성을 기른다’로 반영하였다. 이 외에는 개념 및 역량 부분과 서술에서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남북한 분단’과 ‘한반도 평화’로 표현을 수정했고, 초등학교급의 목표로서 위계가 맞도록 ‘상호 존중’을 ‘서로 존중’으로 수정하였다. 내용 전달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를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 해결'로 수정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수정안)는 <표 III-1-11>과 같다.

<표 III-1-11> 2차 델파이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수정안)

구분	목표(초안)	목표(수정안)
총괄 목표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남북한 분단 현실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시민성을 기른다.
초등학교 목표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르며, 상호 존중을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남북한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서로 존중하여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중학교 목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남북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한다.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한다.
고등학교 목표	남북 관계를 동북아 및 세계적 평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능력을 기른다.	남북 관계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를 기른다.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3) 3차 델파이 조사

(가) 3차 델파이 조사지 내용

3차 델파이 조사지는 2차 델파이 조사지처럼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했다. 개념의 경우 수정안의 적절성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핵심역량 및 목표의 경우에는 2차 델파이 결과 및 각 전문가의 응답 결과를 제시한 후 적절성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3차 델파이 조사지는 전문가 패널별로 개별화된 조사지로 개발하여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표 III-1-12>와 같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선정 및 의미, 총괄 및 학교급별 목표 수정안(2차)의 적절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CVR 값이 모든 항목에 대해 모두 0.42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합의도도 1에 가깝고

수렴도는 0에 가까움에 따라 내용 타당도, 합의도, 수렴도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더 이상 델파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사례수: 20명)

문항	적절성(%)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CV	
	전혀 적절하지 않음	거의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I_1. 개념 정의의 적절성	0.00	0.00	15.00	55.00	30.00	4.15	0.67	0.70	0.75	0.16	
II_1. 역량 선정의 적절성	탐구	0.00	10.00	5.00	45.00	40.00	4.15	0.93	0.70	0.75	0.22
	감수성	0.00	0.00	10.00	35.00	55.00	4.45	0.69	0.80	0.80	0.15
	소통	0.00	0.00	5.00	45.00	50.00	4.45	0.61	0.90	0.78	0.14
	실천	5.00	0.00	5.00	20.00	70.00	4.50	1.00	0.80	0.80	0.22
II_2. 역량 의미의 적절성	탐구	0.00	10.00	5.00	70.00	15.00	3.90	0.79	0.70	1.00	0.20
	감수성	0.00	0.00	10.00	55.00	35.00	4.25	0.64	0.80	0.75	0.15
	소통	0.00	0.00	10.00	45.00	45.00	4.35	0.67	0.80	0.75	0.15
	실천	5.00	0.00	0.00	40.00	55.00	4.40	0.94	0.90	0.80	0.21
III_3. 목표 설정의 적절성	총괄	0.00	0.00	15.00	50.00	35.00	4.20	0.70	0.70	0.75	0.17
	초	0.00	5.00	10.00	50.00	35.00	4.15	0.81	0.70	0.75	0.20
	중	0.00	0.00	10.00	40.00	50.00	4.40	0.68	0.80	0.78	0.15
	고	0.00	0.00	0.00	60.00	40.00	4.40	0.50	1.00	0.75	0.11

(다) 3차 델파이 결과 분석 및 최종안 도출

델파이 통계 분석 결과 개념, 핵심역량 선정 및 의미, 목표 수정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델파이 조사에 개진된 전문가 패널의 의견과 이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용어나 표현을 정교화하고 개념, 핵심역량, 목표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개념, 핵심역량,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분단’, ‘남북한 분단’은 ‘남북 분단’으로 통일하여 제시했으며, ‘남북한 상호인정’은 ‘남북한 상호 이해’로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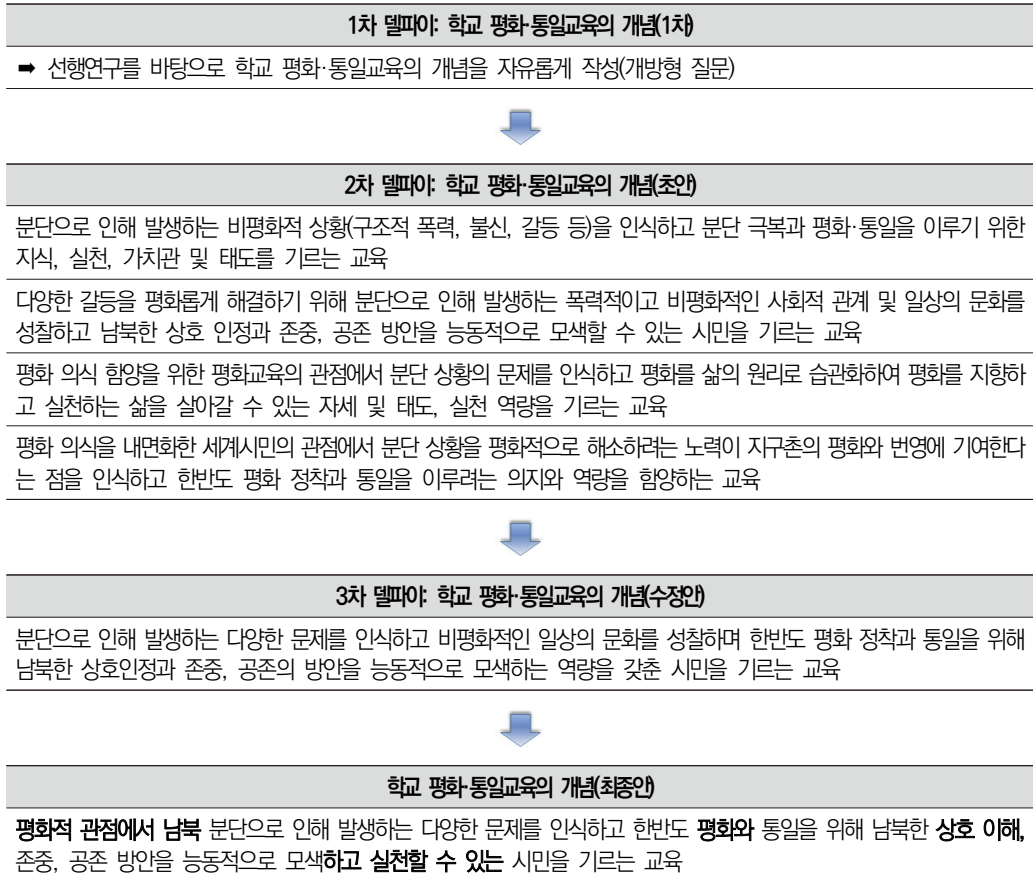
○ 개념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최종안 도출 과정은 <표 III-1-13>과 같다.

우선 델파이 2차 조사지에서 추가되었던 ‘역량’이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개념 진술에 있는 ‘문제 인식’, ‘비평화적인 일상의 문화 성찰’, ‘방안의 능동적 모색’이 평화·통일교육의 주요 역량으로 간주되거나 한정되는 것으로 보여서 두 번째 항목인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문맥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거나 핵심역량 항목에서 역량이 상세히 다루지므로 삭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전문가 협의회(2020. 5. 15.)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기에 ‘역량’이라는 표현을 최종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비평화’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3차 델파이 조사의 기타 의견에서 ‘비평화’라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비평화’를 ‘평화가 아닌 것’으로 이해할 경우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어 일관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행연구를 보면 통일교육 연구에서는 ‘비평화’가 평화적이지 않은, 또는 평화와 반대되는 현상인 폭력, 갈등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학에서 ‘비평화’는 한반도 분단 자체가 거대하고 장기적인 유·무형의 폭력 체제라는 인식 하에 사용하는 어렵고 복잡한 용어이므로 굳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진술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협의회, 2020. 5. 15.).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비평화적 상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평화적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표 III-1-13〉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최종안 도출 과정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 핵심역량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최종안 도출 과정은 〈표 III-1-14〉와 같다. 핵심역량에 대해서도 델파이 조사에 개진된 의견과 이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종안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의 용어와 제시 순서를 변경하고 의미 진술을 수정·보완했다. 핵심역량의 용어 명칭과 의미 진술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북한·통일 탐구 역량의 경우 최종적으로 ‘통일 탐구 역량’으로 수정했다. 통일 탐구 맥락 하에서 북한, 분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미래상 탐구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북한 탐구와 통일 탐구의 위계가 맞지 않거나 용어와 의미의 연계가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점, ‘북한’이라는 용어가 두드러지는 것의 부담스러움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역량의 용어를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역량의 의미 진술 또한 수정되었다. 다른 역량에 비해 해당 역량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이 있어 가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남북한 분단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남북 분단의 영향에 대한 이해’로 수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 및 미래상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을 ‘세계적 차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평화 감수성 역량의 경우 ‘남북한 분단’을 ‘남북 분단’으로, ‘상호 인정’을 ‘상호 이해’로 수정했다. 한편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이라는 표현이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 개선됐는데, 학교폭력 관련 교육이나 평화·통일교육 일환으로 비폭력 대화 등 평화교육이 이미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어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 의미 진술 표현으로 무리가 없다는 전문가 협의회 결과를 수용하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전문가 협의회, 2020. 5. 22.). 또한 ‘내면화’라는 표현이 자칫 ‘교화’의 의미로 읽힐 위험성에 대한 의견이 개선되었는데,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경우 ‘남북한 분단’을 ‘남북 분단’으로 수정하고, 다른 역량 진술과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해결하는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했다. 남북 분단 상황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을 ‘남북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으로 수정하였다.

평화·통일 실천 역량의 경우 ‘평화적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라는 표현이 어색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로 수정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라는 표현도 ‘통일 문제’라는 부정적 어감을 피하고 다소 어색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로 수정했다. 또 역량 진술의 일관성 차원에서 ‘기여하는 능력’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핵심역량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순서도 학교 현장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는 만큼 평화·통일에 대해 “가슴으로 느끼고 내면화한 다음,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몸으로 소통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종합 반영하여(전문가 협의회, 2020. 5. 22.) ‘평화 감수성 역량’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통일 탐구 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두 역량의 제시 순서를 바꾸었다. 나머지 두 역량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여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순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1-14〉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의미 최종안 도출 과정

핵심역량	2차 델피야: 의미(초안)	3차 델피야: 의미(수정안)	의미(최종안)
북한·통일 탐구 역량 ↓ 통일 탐구 역량 (최종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남북한 분단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미래의 대안을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남북한 분단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와 남북 분단의 영향 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 및 미래상을 탐색 할 수 있는 능력
평화 감수성 역량	한반도 분단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을 인식하며, 이를 극복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남북한 분단 상황과 관련된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상호 인정과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등을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된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 와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등을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남북 분단 상황과 통일 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화·통일 실천 역량	일상생활에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능력	일상생활에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능력	일상생활에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 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합된 수정 및 기타 의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표현의 수정에 대한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총괄 목표에서의 ‘시민성’ 개념의 삭제, 초등학교 목표 수준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시민성 개념의 삭제에 대한 의견은 초안에 없었던 시민성 개념의 추가가 의미하는 바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서 학교 현장에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주된 내용이었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추가나 내용의 전면 수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므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총괄 목표에서는 ‘시민성’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총괄 목표와 초등학교 목표에서 개념 및 역량 부분 서술과의 일관성을 위해 ‘남북한 분단 현실’을 ‘남북 분단 상황’으로 수정했다. 중학교 목표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로, 고등학교 목표에서도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화적 관계 형성 능력’으로 표현을 수정하여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고등학교 목표에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동북아’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될 수 있게 했고, ‘능력을 갖추어’를 ‘능력을 갖추며’로 어미를 교체하여 문장 간 의미 관계가 구분되도록 했다. 또한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해결의 대상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하였다(전문가 협의회, 2020. 5. 15.).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최종안은 <표 III-1-15>와 같다.

<표 III-1-15>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최종안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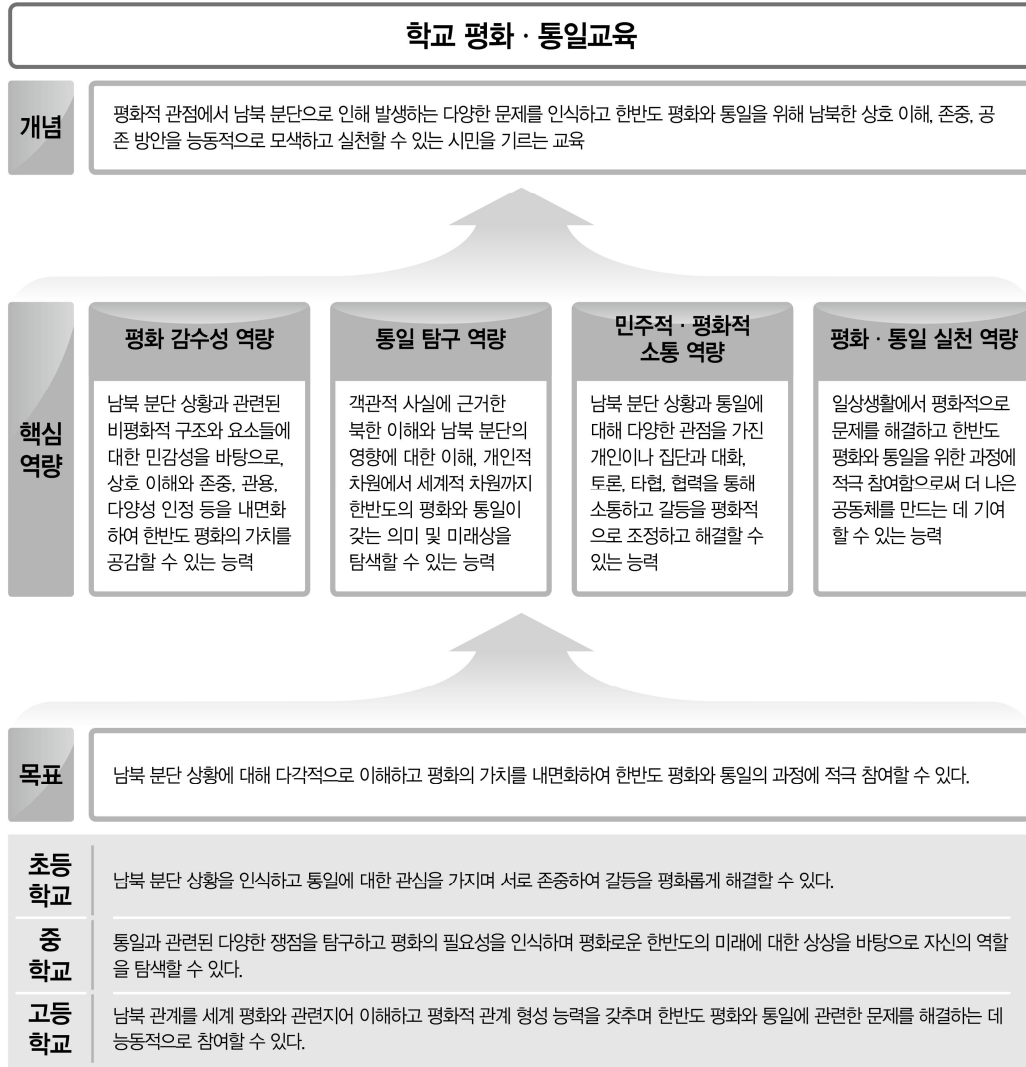
구분	2차 델파이: 목표(초안)	3차 델파이: 목표(수정안)	목표(최종안)
총괄 목표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기른다.	남북한 분단 현실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시민성을 기른다.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구분	2차 델파이: 목표(초안)	3차 델파이: 목표(수정안)	목표(최종안)
초등학교 목표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르며, 상호 존중을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남북한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서로 존중하여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남북 분단 상황 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서로 존중하여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
중학교 목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남북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한다.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한다.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 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
고등학교 목표	남북 관계를 동북아 및 세계적 평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능력을 기른다.	남북 관계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남북 관계를 세계 평화 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평화적 관계 형성 능력을 갖추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목표 도출

세 차례의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목표는 [그림 III-2-1]과 같다.



[그림 III-2-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 개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평화적 관점에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 상호 이해, 존중,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개념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통일을 설정할 수도 있다.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통일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관점도 있다.¹³⁾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정한다기보다 기존 통일교육에 비해 평화의 관점이 강조, 추가되었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을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진술에 명시하기로 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기존 연구와 이론에 근거해 연구자 개인이 정의내린 개념이거나(한만길, 2019; 김선자, 주우철, 2019 등), 평화·통일교육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개념 요소들을 제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함규진 외, 2019).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및 협의를 반복하여 얻은 높은 수준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개념화하였다. 이 과정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고 정련하는 절차를 거쳤다.

평화·통일교육이 무엇이며,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 이론적 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한 문장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어떤 개념 요소들이 제안되고 검토되었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최종안이 도출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은 교육과정 분석과 향후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이 구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과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하였으며,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과정에서도 학교 교육에 적합한 개념 요소들로 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3) 가령, 탈분단 담론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통일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조정아 외, 2019: xi).

○ 핵심역량

본 연구는 통일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할 학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으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설정하였다. 각 역량의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 II장의 선행 연구 내용과 더불어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협의회(2020. 4. 22a.; 2020. 5. 7; 2020. 5. 15; 2020. 5. 22.; 2020.5. 27a.; 2020. 6. 2.; 2020. 6. 16.)에서 개진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논의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 감수성 역량**은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된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등을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존 통일교육이 통일 의지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는 감수성 요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 감수성이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일상의 삶에서 습관화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라는 가치가 학생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화 감수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논의를 지양하고 학생 개인이 체험하고 성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된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 기존 교육과정은 일상의 갈등이나 폭력적 문화가 분단과 맞물려 있음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미흡했다. 평화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분단의 상황도 사실은 폭력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사와 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은 학생 개인 삶의 관점에서 분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자신, 가족, 학교, 사회,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에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이 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상호 이해와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등의 내면화: 우리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며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은 분단 갈등과 폭력을 원인 규명·책임 규명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대결 의식을 키우게 된 측면이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다른 체제와 사회, 문화 속에서 자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 능력 또한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다름에 대한 배타성과 무지에 따른 혐오를 줄여나가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반도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 기존의 안보교육을 넘어 평화의 실현이 가장 적극적인 안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평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탐구 역량**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와 남북 분단의 영향에 대한 이해, 개인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 및 미래상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지식 전달과 통일 의지 함양 중심의 기존 통일교육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통일교육이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출발점으로 학생들에게 분단, 북한, 통일, 평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 ‘위로부터의 접근’ 방법이었던다면, 앞으로의 평화·통일교육은 학생 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찾고 분석, 종합하면서 합리적 논거와 성찰을 통해 스스로 지식과 이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법으로서 ‘탐구’ 역량을 강조하였다. 당위성적 목표로서의 통일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미래 기획으로 분단 극복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실현의 중요성을 자신의 삶과 연결 짓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첫째, 고착화된 이분법적 북한 이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육에서는 북한에 대해 고정적이고 이원화된 접근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북한 체제는 문제점이 있고 낙후되었으며 북한 주민은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식의 부정적이며 이분법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인 체제 경쟁적 시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최신의, 정확한, 객관적 정보에 기반하여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평화·통일교육에서는 최신의 정확한 북한 관련 자료를 활용한 흥미 유발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은 자칫 사상 논쟁에 휘말릴까 하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형의 북한을 학생들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스스로 관심을 갖고 탐구함으로써 북한을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보의 편협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북한에서 생산된 1차 자료를 기초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부(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아닌 학습자 관점에서의 북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정부의 관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는데 학생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를 수업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2차 델파이 조사 의견). 또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체제 이해 중심에서 벗어나 북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존 통일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등 북한 체제를 주로 전달하는 데 치우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와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양식과 문화, 전통 등에 대한 풍부한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습자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경험과 참여를 통한 북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 이해 교육 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북한, 분단, 평화 등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관련자를 만나 보는 등과 같은 학습자의 경험과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남북 분단의 영향에 대한 이해: 남북 분단의 과정이나 국가와 민족 수준의 분단 폐해에 대해 다루는 것을 넘어 남북 분단 상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의 폐해를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통일교육은 분단 현실을 개인(학생)의 삶과 연결 지어 사고하도록 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나와는 다소 거리가 먼, ‘분단으로 인한 고통 = 이산가족의 고통’으로만 이해되는 상투적 교육 내용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또한 분단 체제가 낳은 남한 사회의 문제점(남남갈등, 군사주의 문화 등)을 심층 탐구하고 관련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도 평화·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분단 체제가 초래한 다양한 갈등과 폭력 등 비평화적 구조 및 요소들을 인식하고 남북 분단이 나의 일상적 삶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 개인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 탐색: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국한되는 의미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나의 삶과 우리 일상에도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탐구의 스케일, 인식의 차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론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미 탐색이 필요하다. 통일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접근보다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학습자 스스로 탐구함으로써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이익 담론에서 벗어나 나의 삶에도 분단과 평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통일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추상적 이익보다는 구체적 이익을 언급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평화·통일은 국가 차원과 남북 관계를 넘어 주변국과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평화에 관계된 국제 관계(주요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 탐색: 기존 통일교육은 분단 극복의 길이 ‘통일’로만 제시되어 있어 다양한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적극적인 토론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었다. 분단으로 인한 비평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대 담론 중심의 대안 제시보다는 학생 개인이 체험하고 성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결과로서의 통일에 대한 교육이 아닌 과정으로서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은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존 통일교육에서 소통의 중요성과 갈등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전달식 교육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면, 평화·통일교육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생들이 남북 분단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는 실질적 경험을 풍부하게 갖는 것이 요구된다. 민주적 소통과 평화적 갈등 해결을 통해 개인적으로 일상의 갈등에서부터 사회적 차원의 남남 갈등이나 남북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한 소통: 학교 통일교육은 정답을 제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유하고 토론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교육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토론하고 합의하는 경험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지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열린 자세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안을 함께 찾아나가는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을 아예 말하지 않거나 듣지 않고 비난과 혐오의 태도를 보이거나 대화와 관계를 단절하는 등 소통하지 않는 태도를 지양하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존중, 타협, 협력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길러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한 사례들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평화를 지향하는 성향을 기르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사실, 지역이나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이에 대해 상당한 분량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반면, 평화를 위한 노력이나 지역, 국가 간 협력이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례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민족, 국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를 통해 통합을 통한 평화 구축의 노력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와 기능을 길러줌과 동시에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를 기르는 데 학습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평화·통일 실천 역량**은 “일상생활에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존 통일교육은 통일의 선형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기반으로 통일 의지와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다. 기존처럼 통일 문제에 대한 미래의 주체 또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의 학생상을 설정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일상생활에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평화·통일교육은 느끼고 아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고자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주제가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평화·통일이라는 큰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평화·통일교육은 자신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함양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자기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학교, 지역 사회, 국가, 동북아시아, 세계적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자신이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실천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¹⁴⁾는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운영하는 의도이자 평화·통일교육의 운영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발달과 성장의 지점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런데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등장했기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개념, 핵심역량, 목표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핵심역량이 함께 구명되어야 하므로 동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과의 연계와 함께 교육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괄 목표와 학교급별 목표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각 학교급의 교과 및 비교과를 통해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목표와 각 학교급별 목표가 구분되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분, 설정함으로써 각 학교급에서 중점을 둘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총괄 목표 및 각 학교급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괄 목표는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단 상황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복합적 이해 및 분단 상황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을 알고 나의 삶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은 비평화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타인과의 상호 이해 및 상호 존중의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일상에서의 평화에서부터 공동체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화 감수성을

14) 목표(objective)는 행위가 지향하는 바와 목적을 뜻한다(Hauenstein, 2004: 22). 일정한 기간 동안 성장이 누적되는 활동에서 ‘목적(aim)’이란 발생할 결과를 예견하는 것을 뜻한다. 목적은 활동에 방향을 부여한다(Dewey, 2008: 116). 교육 목표는 교육 활동이라는 행위가 의도하는 바와 이 행위의 결과를 말해 줌으로써 교육 활동의 방향을 보여준다.

내면화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종결이 아닌 과정적 성격을 띠며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초등학교 목표는 “남북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서로 존중하여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단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분단 상황 인식과 통일에 관심을 갖는 과정에서 갈등과 그 해결에 대한 내용도 다룰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급에서 갈등 해결은 일상의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협력이나 공감 등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중학교 목표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고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이다.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탐구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을 살피고 통일과 관련되어 토론이 필요한 문제들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평화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와 역할을 탐색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나와 나를 둘러싼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역할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등학교 목표는 “남북 관계를 세계 평화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평화적 관계 형성 능력을 갖추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다. 남북 관계를 세계 평화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분단 상황 및 통일과 관련한 문제들을 포함하는 남북 관계의 제반 요인들을 확장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평화적 관계 형성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일상적으로 겪는 갈등 상황에서부터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한 문제 해결에의 능동적 참여라는 목표를 통해 학교 평화 교육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 도출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토대로 IV장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황(교육과정, 교과서 등)을 분석하여 학교 통일교육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V장에서는 본 연구가 추구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VI장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IV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현황 분석

-
1. 교육과정 총론 현황 분석
 2.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3.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의 평화·통일교육 방향 및 관점을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여 이를 기준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총론 현황 분석

이 절에서는 III장에서 도출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표 IV-1-1>과 같이 크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5a) 중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

-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1. 기본 사항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1. 기본 사항 2. 교수·학습 3. 평가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 1. 국가 수준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

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으며,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포함해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I-1절 ‘추구하는 인간상’은 <표 IV-1-2>와 같이 교육 이념, 교육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의 4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된다(교육부, 2015a: 1-2).

<표 IV-1-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세부 항목	내용
교육 이념	홍익인간의 이념
교육 목적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추구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핵심역량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출처: 교육부(2015a, pp. 1-2.)

(가) 교육 이념

교육 이념 항목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弘益人間)임을 밝히고 있다. 홍익인간은 한민족 최초의 건국 설화라 할 수 있는 단군 신화에 담긴 사상이다. 단군 신화 속에서 홍익인간의 이념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으로 내려졌는데, 여기서 ‘인간’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의미한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가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세상의 삶을 긍정하는 현세 지향적 가치관을 보여 주며, 홍익인간의 이념은 인간의 행복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이자, 인류의 공동 번영의 이상을 구현하는 평화주의이다(서보근, 2014: 214-215).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사상적 이념에 대한 탐색이 필수적인데, 홍익인간의 이념이야말로 이러한 대표적인 평화·통일 이념 중 하나이다. 홍익인간 사상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건국조인 단군의 사상으로 남과 북이 공유하는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등을 담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의 조화, 그리고 보편적 평화주의 사상이기 때문이다(김광린, 2006: 76). 특히 홍익인간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가치인 ‘자유’(개인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개인의 권리)와 사회주의의 중심 가치인 ‘평등’(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념이다. 나아가 통일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홍익인간이 표방하는 보편적 평화주의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사상적 이념으로서 적합하다(김광린, 2006: 66; 박금해, 2016: 24-26).

(나) 교육 목적

교육 목적 항목에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다. 우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상호 이해, 존중, 공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부합하며, 학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중 평화감수성 역량의 ‘상호 이해와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과 연관성을 갖는다. 다음으로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은 평화·통일 실천 역량의 ‘적극적 참여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측면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적 항목은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과 긴밀한 논리적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교육 목적 진술 중 ‘민주 국가’가 ‘남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통일된 민주 국가’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인류 공영’의 ‘공영(공동 번영)’에 ‘평화 공존’의 의미가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점은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다) 추구하는 인간상

총론 I-1절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위 항목으로서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4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주적인 사람’의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특징은 통일 탐구 역량의 ‘한반도의 미래상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과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중학교) 중 ‘한반도 미래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창의적인 사람의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특징은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중 ‘남북한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것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교양 있는 사람의 경우, ‘다원적 가치의 이해’는 평화 감수성 역량의 ‘관용, 다양성 인정’이나 평화·통일교육 총괄 목표의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 등과 관련되며,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는’ 측면은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관련된다. 넷째, 더불어 사는 사람의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측면은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추구하는 인간상’ 항목의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에 부합하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하지만 자주적인 사람의 ‘진로 및 삶의 개척’이 통일 한반도라는 맥락이 없고, 창의적인 사람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남북한 평화 공존 방안이나 평화·통일 과정에의 기여라는 맥락이 없으며, 교양 있는 사람의 ‘다원적 가치의 이해’가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등과 관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의 ‘공동체 의식’에서 ‘공동체’가 ‘남한’인지 ‘통일 국가’인지 불분명하며, ‘세계와의 소통’이 민주적·평화적 소통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 등은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다.

(라) 핵심역량

총론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 역량으로 제시되어 있다. 총론의

핵심역량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총론의 핵심역량	관련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통일 탐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평화 감수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평화 감수성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첫째, 자기관리 역량의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은 ‘미래상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관리 역량은 통일 탐구 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측면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와 연관성이 있으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의적 사고 역량의 ‘폭넓은 기초 지식’,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와 연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측면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 역량은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심미적 감성 역량의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은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심미적 감성 역량은 평화 감수성 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의사소통 역량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측면은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역량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공동체 역량의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는 ‘상호 이해와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등을 내면화’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으며,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측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 역량은 평화 감수성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총론의 핵심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총론 해설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이외에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역량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이 바로 그러한 역량일 것이다(교육부, 2016: 40). '추구하는 인간상'과 마찬가지로 총론의 핵심역량의 경우에도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만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직결되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a: 3).

〈표 IV-1-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 나.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 라.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 마.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출처: 교육부(2015a), p. 3.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들 중에는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찾기 어렵다. '가'항의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이나 '나'항의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이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 다소 간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는 있고,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항의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합한다고는 할 수 있는 정도이다.

(3) 학교급별 교육 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각각 총괄 목표 및 하위 목표로 이루어진다. 하위 목표 4가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각 학교급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급별 목표의 차별성 및 위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급별 교육 목적에 중점을 두되, 앞에서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과 일관되도록 설정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표 IV-1-5>와 같다(교육부, 2015a: 4-6).

<표 IV-1-5>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출처: 교육부(2015a), pp. 4-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 중에서도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찾기 어렵다. 초등학교 교육 목표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 중학교 교육 목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고등학교 교육 목표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평화 감수성 역량과 관련되고, 중학교 교육 목표의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 고등학교 교육 목표의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등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관련되며, 중학교 교육 목표의 ‘공동체 의식’, 고등학교 교육 목표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등이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다만, 본 연구의 III장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급별 목표를 참조하였으므로, 총론의 학교급별 목표의 위계성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학교급별 목표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은 기본 사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통일 교육’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a: 7-8).

〈표 IV-1-6〉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 다.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 마.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며,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 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출처: 교육부(2015a), pp. 7-8.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의 기본 사항 중 ‘가’~‘바’의 항목들은 평화·통일교육과는 대체로 무관한 사항들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사’항의 ‘창의적 체험활동’, ‘아’항의 ‘범교과 학습 주제’, 그리고 ‘자’항의 ‘계기 교육’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통일 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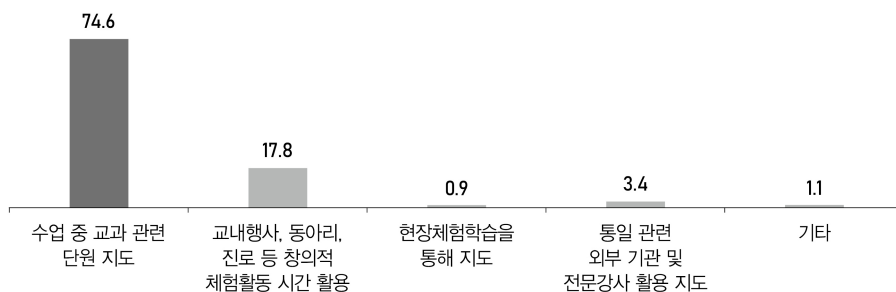
(1)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양대 영역 중 하나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인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표 IV-1-6>의 ‘사’항의 진술만 놓고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으로 귀결되는지, ‘공동체 의식’의 ‘공동체’가 통일 한반도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그럼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거론되는 것은 교육부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권장 시간은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이다(교육부, 2018c: 5).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자율·봉사·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활동 중심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그 예시로 ▶(자율) 금강산, 백두산 수학여행 프로그램 짜보기, ▶(동아리) 평화통일 체험부스 만들기, 통일콘서트

등 행사 운영, 평화체험활동 등, ▶(봉사) 지역 통일체험관, 통일교육센터, 탈북민 및 탈북청소년 돕기 등 봉사 활동을 제시했다(교육부, 2018c: 2).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평화·통일교육 요소를 반영하고, 통일 동아리반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내 통일 주제 활동, 학교 행사 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b: 9-10).

한편,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은 ‘수업 중 교과 관련 단원 지도’가 74.6%인 반면, ‘교내행사, 동아리, 진로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1-1 참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영역 중 통일교육을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8.8%,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5.0%로 많았으며, ‘실시안함(0시간)’도 1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교육원, 2019c: 44). 즉 학교 통일교육은 상당 부분이 교과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교육부 및 교육청 권장 시간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통일교육원(2019c), p. 37.

[그림 IV-1-1]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또한 자율 활동 시간에 통일교육 관련 각종 학교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다루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가 많은데다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선호하지도 않아 그마저도 행사명에만 ‘통일’이 붙은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조정아 외, 2019: 49-50). 동아리 활동은 초·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무관심과 동아리 조직 및 운영 역량 부족,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와의 연계성이 낮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조정아 외, 2019: 47-48).

(2) 범교과 학습 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도 적극 권장되고 있다. 다만, <표 IV-1-6>의 ‘아’항만 놓고 보면 ‘통일 교육’은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일 뿐이다.¹⁵⁾

사실,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평화·통일교육과 모두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다. 그중에서도 ‘민주 시민 교육’의 경우 본 연구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핵심역량(특히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주제이다. ‘평화·통일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의 긴밀한 연관성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제시하고 있는 점(통일교육원, 2018: 8), 교육부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서도 평화시민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을 키우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8c).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설정된 ‘통일 교육’은 용어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 “통일 교육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게 하고, 범교과적으로 국가 상징, 한국문화사 교육, 호국보훈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라는 설명에서도 드러난다(교육부, 2016: 61). ‘국가 상징, 한국문화사 교육, 호국보훈’ 학습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교육 내지 나라사랑 교육은 평화·통일교육보다는 과거의 통일·안보교육이나 민족·통일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5)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명칭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사용하게 되었으며, 통일 교육을 포함하여 범교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학습 주제의 수는 5차 교육과정 이후 8개→8개→16개→35개→39개→10개에 이르고 있다(김진숙 외, 2018: 33).

(3) 계기 교육

계기 교육은 시기 및 계절별로 교육적 의미가 있는 주제 및 사회 현안들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계기 교육은 교과 협의회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내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과 자료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한다. 또한 계기 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 조건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의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르며, 사회적 논란이나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계기 교육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2016: 61-62). 그러나 정치 중립성 지침의 엄격한 적용은 학교 및 교사들이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 교육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계기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는 ‘통일교육주간’에 이루어지는 계기 수업이다.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로 통일교육주간을 법정화하고 있다.¹⁶⁾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주간 지정을 통해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운영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 확산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통일교육원, 2019a: 47).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마찬가지로 계기 교육의 경우에도 통일교육주간 등 특정 시기에 평소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지만 담당 교사의 역량에 많이 의존하며, 각종 대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오기성, 2019: 127).

16) 통일교육지원법(제3조 제3항)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3호, 2018. 3. 13., 일부개정),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 10. 25.).

2.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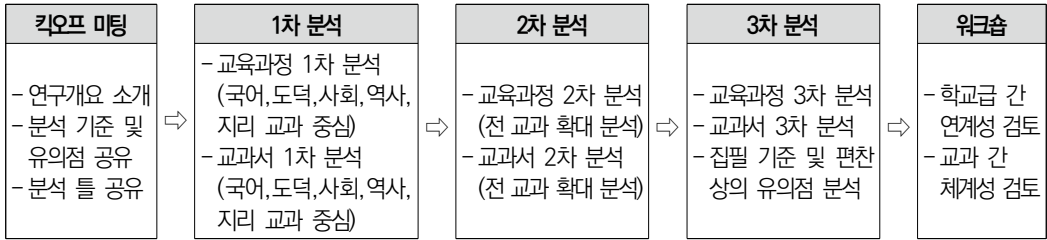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III장에서 도출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도덕, 사회, 국어 등 일부 교과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교과서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이 학교급 간 계열성 및 교과 간 연계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을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들과 같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김국현 외, 2018; 함규진 외, 2019). 핵심역량을 주요 분석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핵심역량을 강조한다는 점 이외에도 핵심역량이 개념, 목표에 비해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요소나 교과서 자료에 관한 분석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산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취기준이나 교과서 자료가 3~4개의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타당성 검증 없이 연구자가 확정하는 식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4개의 핵심역량을 다시 3개의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여 총 12개의 구성 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삼아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고,¹⁷⁾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학교급 및 교과별로 분석한 후 학교급 내 상호 교차 검토를 거쳐, 학교급 간 연계성 및 교과 간 체계성 검토를 위한 워크숍 등을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과 교육과정 분석은 연구진과 워킹그룹 14명¹⁸⁾이 협력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7) 12개의 구성 요소들은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도출된 핵심역량 최종안에 근거하여 연구진이 세분화하고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였다. 12개 구성 요소들은 해당 교육과정 요소나 교과서 자료가 어느 핵심역량과 연계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보조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18) 워킹그룹은 초등학교 4명, 중학교 5명(국어, 역사, 지리, 일반사회, 도덕 담당 교사), 고등학교 5명(국어, 역사, 지리, 사회, 윤리 담당 교사)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V-2-1]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과 교육과정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및 그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표 IV-2-1〉 참조).

〈표 IV-2-1〉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및 구성 요소

핵심역량	역량 구성 요소	내용
A. 평화 감수성 역량	1. 비평화 민감성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된) 비평화적 구조와 요소들에 대한 민감성
	2. 평화 성향 내면화	(남북한) 상호 이해, 존중, 관용, 다양성 인정 등 비폭력적, 평화적 성향의 내면화
	3. 평화의 가치 공감	(한반도) 평화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B. 통일 탐구 역량	1. 북한·분단 이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남북 분단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2. 평화·통일 의미 탐구	개인 차원에서 세계 차원까지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
	3. 미래 탐구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C.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1. 다양성 이해	(분단 상황 등의)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2. 의사소통	다른 사람들과 대화, 토론, 타협, 협력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3. 갈등 해결	민주적·평화적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D. 평화·통일 실천 역량	1. 일상적 실천	일상생활에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2. 사회적 참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3. 공동체 기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사실, 위의 〈표 IV-2-1〉의 12개 구성 요소들 중에는 ‘의사소통’, ‘갈등 해결’, ‘일상적 실천’, ‘공동체 기여’ 등과 같이 그 자체 단독으로는 분단이나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들도 있다. 만약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을 분석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들로만 분석한다면 결국 도덕, 사회 등

일부 교과에서만 핵심역량 구성 요소가 기준으로 유효할 것이고 전 교과를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의 가능성 영역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분단 및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성 요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구성 요소들도 분석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성취기준 및 교과서 자료 분석에 있어 <표 IV-2-2>와 같은 연계 분류 및 판단 기준에 의해 해당 성취기준, 교과서 자료 등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인지, 간접 연계인지, 비연계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직접 연계/간접 연계/비연계의 분류는 해당 성취기준 등이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연계’로,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평화·통일교육 역량 구성 요소의 주요 개념이나 키워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연계’로, 그리고 직접 연계도 간접 연계도 아닌 경우에는 ‘비연계’로 분류하였다.

<표 IV-2-2> 학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 분류 기준

구분	연계 분류 및 판단 기준	사 례
직접 연계	해당 성취기준, 교과서 자료 등이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4도03-03]남북 분단 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간접 연계	해당 성취기준, 교과서 자료 등이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평화·통일교육 역량 구성 요소의 주요 개념이나 키워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10국01-04]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u>의사 결정</u> 을 한다.
비연계	해당 성취기준, 교과서 자료 등이 직접 연계로 분류되지도 간접 연계로 분류되지도 않는 경우	[6사02-03]인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출처: 교육부(2015c), p. 13; 교육부(2015b), p. 5; 교육부(2018a), p. 37.

위의 표에 제시된 사례에서 성취기준 [4도03-03]은 ‘남북 분단’, ‘통일’ 등의 표현을 통해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계로 분류할 수 있다. 성취기준 [10국01-04]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협상’, ‘의사 결정’ 등의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여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 요소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어, 영어, 제2외국어 등의 관련 교과의 사실상 모든 성취기준이 의사소통을 위한 성취기준이기에, 단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넘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명시되거나 적어도 성취기준 자체에 ‘의사소통’ 요소의 주요 키워드인 ‘대화’, ‘토론’, ‘타협’, ‘협력’, ‘소통’이 등장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연계의 과다’를 피하고자 하였다.

연계의 과다 문제와 관련해서, 성취기준 [6사02-03]은 ‘인권’이라는 표현을 매개로 ‘북한 인권’을 연상한 후 통일 탐구 역량과의 간접 연계로 분류되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권’에서 ‘인권’을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인권’에서 ‘북한 인권’을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는 관점에서 연상에 의한 연계를 피하였다. ‘인권’에서 ‘북한 인권’으로 나아가는 식의 연계를 허용하면, 가령 ‘문화’에서 ‘북한 문화’로 나아가는 식의 연계도 허용되어 결국 ‘문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모든 성취기준도 간접 연계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분석에 있어 성취기준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 및 태도의 총체로서 학년(군)별 학습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교육부, 2016: 47). 또한 성취기준 진술 자체로는 연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도 참고하였다.¹⁹⁾

가.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본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과목별 교육과정,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분석 대상 교과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있고 해당 교과서도 있는 통합교과,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안전한 생활로 설정하였다.

19) 교육과정 분석 틀의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교·학),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항목에는 연계 분류 및 판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제시하였다.

(1) 과목별 교육과정 분석

(가)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표 IV-2-3〉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바른 생활 · 슬기로운 생활 · 즐거운 생활	가족	[2바03-02]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가족 문화, 가족 형태, 다문화					1			1	
	나라	[2바07-01]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같은 민족, 통일 의지	[교·학]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을 알고 그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	1	1		1				
	나라	[2바07-02]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반 편견, 타문화 존중, 공감						1			
	나라	[2슬07-02]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남북한의 생활 모습				1					
	나라	[2즐07-02]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남북한의 놀이	[해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1		1				
계					1	3	0	2	2	0	1	0

출처: 교육부(2015k), p. 6, 10, 24, 3.

초등학교 ‘통합교과(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가족’, ‘나라’)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과목의 총 81개 성취기준 중 5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3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3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2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2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이 0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2바03-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2바07-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2바07-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통일 의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을 알고 그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2슬07-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2즐07-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첫째, [2바07-01]의 ‘통일 의지’, [2즐07-02]의 ‘통일을 바라는 마음’ 등과 같이 통일의 당위성을 전제하는 성취기준, [2바07-01]의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 등 같이 민족 중심 거대 담론 관점이 반영된 성취기준들이 있으며, 둘째,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평화·통일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성취기준을 수정하고,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국어

〈표 IV-2-4〉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국어	듣기·말하기	[2국01-06]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1	
	듣기·말하기	[4국01-02]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회의하기(의견 교환)	[해설] 이 성취기준은 의견을 조율하고 타당한 합의안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의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듣기·말하기	[4국01-06]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대화 예절 지키기									1	
	듣기·말하기	[6국01-02]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토의하기 (의견조정)									1	
	듣기·말하기	[6국01-03]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토론하기(절차와 규칙, 근거와 주장)	[해설] 이 성취기준은 토론의 일반적 절차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1	
계					0	0	0	0	0	0	0	5	0

출처: 교육부(2015b), p. 11, 20, 30.

초등학교 ‘국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듣기·말하기’)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 과목의 총 82개 성취기준 중 5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없으며,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5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모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2국01-06]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4국01-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타당한 합의안을 선택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4국01-06]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국01-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국01-03]은 ‘절차와 규칙을 지켜 토론하는 것’으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국어’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하나도 없으며,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모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국어에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성취기준을 적어도 하나는 확보하고, 간접 연계되는 핵심역량이 민주적· 평화적 소통 역량 이외에 다양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사회

〈표 IV-2-5〉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사회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4사02-06]현대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조사하여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 가 족 구성원의 역할	[해설] 다양한 삶의 모습 탐색 [교·학] 다양성 존중						1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4사03-06]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지역 문제, 주 민 참여	[해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 법을 탐색 [교·학]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평가] 탐구 및 토의 활동 전반 을 평가						1	1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4사04-06]우리 사회에 다양 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문화 다양성의 확산과 그에 따른 문제, 타 문화 존중	[해설]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 도를 함양 [평가] 서술형 평가나 토의법을 활용				1			1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6사04-06]6.25 전쟁의 원 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그 피 해상과 영향을 탐구한다.	6.25 전쟁	[해설] 6.25 전쟁의 원인과 과 정 및 그 영향을 탐구		1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6사05-03]일상생활에서 경 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탐구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생활 속에 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를 기른다.	민주주의의 의 미와 중요성	[해설]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교·학]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을 경험 [평가]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를 토의 과정에 적용							1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6사05-04]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다수결, 대화와 타협, 소 수 의견 존중 등)의 의미와 필 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자닌다.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	[해설] 소수 의견 존중 등 민주 적 가치나 원리를 내면화, 일상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 [평가]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를 토의 과정에 적용				1			1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6사08-02]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 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	남북통일을 위 한 노력, 통일 한국의 미래상	[해설]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 했던 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통	1	1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상을 그려 본다.		일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 한국 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6사08-03]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지구촌의 갈등 과 해결 방안. 지구촌의 평화 와 발전을 위 한 노력	[교·학]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							1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6사08-04]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개인, 국가, 국제기 구, 비정부 기구 등)의 활동 사례를 조사한다.	지구촌의 갈등 과 해결 방안. 지구촌의 평화 와 발전을 위 한 노력	[해설] 지구촌 평화와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								1
계					1	2	0	1	3	0	6	3

출처: 교육부(2018a), p. 21, 26, 31, 42, 45, 56, 57.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7개 단원(‘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 참여’,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과목의 총 72개 성취기준 중 9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7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2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2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6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3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4사02-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 탐색’, ‘다양성 존중’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4사03-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탐색’,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4사04-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 ‘서술형 평가나 토의법을 활용’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사05-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사05-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소수 의견 존중 등 민주적 가치나 원리를 내면화’,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실천’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사08-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사08-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지구촌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사04-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영향을 탐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사08-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했던 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통일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사회’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성취기준 [6사08-02]의 ‘통일 한국’이 남한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표현이라는 점, ‘통일’이 ‘지구촌 평화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6사08-02]의 ‘통일 한국’을 ‘통일 국가’나 ‘통일 한반도’로 수정하고, ‘통일’을 ‘평화·통일’로 수정하며,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을 하나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 도덕

〈표 IV-2-6〉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실천		
도덕	사회공동체 와의 관계	[4도03-02]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 를 탐구하고, 올바른 의사 결 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를 지닌다.							1		1	
	사회공동체 와의 관계	[4도03-03]남북 분단 과정과 민족의 이념을 통해 통일의 필 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 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①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 이며,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하 면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 를 기를 수 있을까?			1	1		1				
	타인과의 관계	[6도02-01]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 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 을 알고 습관화한다.	사이버 예절, 사이버 공간에 서 발생하는 문 제점(저작권 침 해, 사이버 폭 력, 온라인 중 독 등)과 해결 방안 등	[해설] 이 성취기준은 사이버 공 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하여 학생 스 스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과 법을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사 이버 공간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예절을 생활 화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설 정하였다.					1		1	
	타인과의 관계	[6도02-02]다양한 갈등을 평 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 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 른다. ① 다양한 갈등이 발생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감 능력을 어 떻게 기를 수 있을까?							1		1	
	사회·공동체 와의 관계	[6도03-03]도덕적 상상하기 를 통해 바람직한 통일의 올바 른 과정을 탐구하고 통일을 이 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진다.	민족 분단, 통 일, 통일 의지, 통일 비용, 통 일 편익 등	[해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공 감하고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나라 사랑의 올바른 방법을 익혀 통 일 의지를 갖도록 성취기준을 설정하였다.	1	1		1				
	사회공동체 와의 관계	[6도03-04]세계화 시대에 인 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 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1		1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①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지구촌 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지구촌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을까?											
계					2	2	0	2	4	0	4	4	1

출처: 교육부(2015c), p. 11, 13, 14.

초등학교 ‘도덕’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덕’ 과목의 총 24개 성취기준 중 6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4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2개, 통일 탐구 역량이 2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2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4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4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4도03-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는데, ‘다양성을 수용 ...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성향을 내면화하는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고,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4도03-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는데, ‘남북 분단의 과정과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고, ‘민족의 아픔’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통일 의지’,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도02-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는데, 사이버 공간의 비평화적 요소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도02-02]는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감 능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도03-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공감’, ‘통일의 올바른 과정을 탐구’,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6도03-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지구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 결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지구촌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도덕’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4도03-03]의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의지’, [6도03-03]의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 등에 통일의 당위성이 전제되어 있는 점, [6도03-03]의 ‘바람직한 통일’이 ‘평화·통일’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4도03-03]과 [6도03-03]의 ‘나라 사랑’에 대한 강조에 남한 중심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평화·통일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성취기준을 수정하고, ‘나라 사랑’은 평화·통일 관련 성취기준이 아닌 별도의 성취기준에 반영하며,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 수학

〈표 IV-2-7〉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수학	수와 연산												
	측정												
	도형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계					0	0	0	0	0	0	0	0	0

초등학교 ‘수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128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교과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d: 3).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4수05-03]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6수05-04]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제재를 활용한다면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d: 20, 27).

(바) 과학

〈표 IV-2-8〉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과학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												
	물질의 구조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												
	생명 과학과 인간의 생활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항상성과 몸의 조절												
	생명의 연속성												
	환경과 생태계												
	고체 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계					0	0	0	0	0	0	0	0	0

초등학교 ‘과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5개 영역의 총 113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과학과 사회의 올바른 상호 관계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e: 3).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4과08-03] 여러 가지 물체를 통하여 소리가 전달되거나 반사됨을 관찰하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22). 과학과에서 관찰을 통해 객관적으로 연계 된 지식을 근거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근거로 평화·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 실과

〈표 IV-2-9〉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실과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자원관리와 자립											
	기술시스템											
	기술활용											
계					0	0	0	0	0	0	0	0

초등학교 ‘실과’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40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교과 역량으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려고 한 점은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교육부, 2015f: 4). 또한 교과 역량의 ‘관계 형성 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화 감수성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6실05-02]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진로 계획을 세워 보는 활동을 통해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f: 14).

(아) 체육

〈표 IV-2-10〉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분석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체육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계					0	0	0	0	0	0	0	

초등학교 ‘체육’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7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경기수행능력에는 주로 경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 움직임 능력, 전략 구안과 적용에 관련된 문제 해결력과 상황 판단력, 경기 수행 상황에서 겪게 되는 행동, 책임감, 공정성, 배려 등의 태도가 경기 수행 능력에 포함된다. 특히, 경기 수행 능력의 학습은 경기 수행 중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을 고려하는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의 발달과 대인 관계 능력의 함양으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g: 4-5).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6체04-01]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민속 표현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한다.’, ‘[6체04-04]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마음으로 참여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이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에 북한의 민속 표현과 문화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예시한다면 평화·통일 실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15g: 25).

(자) 음악

〈표 IV-2-11〉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음악	표현											
	감상											
	생활화											
계					0	0	0	0	0	0	0	0

초등학교 ‘음악’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2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음악 교과가 기르고자 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h: 3).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제재로 하는 악곡을 활용하여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남과 북의 음악을 비교해 보거나 북한 동요를 배워보는 활동을 통해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성취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차) 미술

〈표 IV-2-12〉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미술	체험												
	표현												
	감상												
계					0	0	0	0	0	0	0	0	0

초등학교 ‘미술’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29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직접적 및 간접적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i: 4).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성취기준 ‘[6미03-01]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을 현대 미술과 비교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 남한과 북한의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6미03-02] 미술 작품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 분단, 평화·통일에 관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면 통일 탐구 역량, 평화 감수성 역량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i: 13).

(카) 영어

〈표 IV-2-13〉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					0	0	0	0	0	0	0	0

초등학교 ‘영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45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미래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계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포용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평화 감수성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j: 4). 또한 영어과 교과 역량 중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으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교육부, 2015j: 3-4). 초등학교 ‘영어’ 과목의 성취기준은 모두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어서 연계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을 강화한다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타) 안전한 생활

〈표 IV-2-14〉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안 전	신변안전	[2인103-04]학교폭력의 유형을 알고 대처한다.	학교폭력유형	[교·학] 학교폭력 예방은 서로가 다르지만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한 생 활				는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평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지,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평가한다.									
	신변안전	[2안03-06]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가정폭력	[교·학] 잘못된 통념으로 가정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정폭력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을 지도한다.									1
계					0	0	0	0	0	0	0	0	2

출처: 교육부(2015p), p. 33.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신변안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한 생활’ 과목의 총 25개 성취기준 중 2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없으며,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2개 모두 평화·통일 실천 역량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2안03-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의 유형을 알고 대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2안03-06]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과목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 없이 폭력의 유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한 성취기준들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평화의 가치에 공감 등 평화 감수성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분석

(가) 공통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본 항목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집필 기준’은 교과서의 집필, 검토, 심의, 검정 시에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확인하기 위한 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을 말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과서의 구성 체제와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수준과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교육부, 2015r: 45). 요컨대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육과정이 교과서의 형태로 구현되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황 분석과 교과서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뿐만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은 학교급과 과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집필 기준과 달리 편찬상의 유의점은 총론격의 공통 사항으로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및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기준’이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분석한 후, 학교급 및 과목별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r: 1-2).

〈표 IV-2-15〉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항목	주요 내용
1 목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 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 의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
2 기본 방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 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 의 교과용도서 개발
3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나. 바른 인성 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 다. 일상생활과 연계 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편찬

출처: 교육부(2015r), pp. 1-2.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중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되는 사항은 ‘핵심역량 함양’, ‘실생활 중심’ 또는 ‘일상생활과 연계’, 그리고 ‘바른 인성’ 등이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평화적 소통, 평화·통일 실천 등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당위적, 거대 담론’보다는 ‘구체적인 삶, 일상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이라는 점에서 ‘핵심역량 함양’과 ‘실생활 중심’ 또는 ‘일상생활과 연계’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은 ‘바른 인성’의 요소로 ‘존중, 공감, 소통, 협력, 참여, 정의, 배려 등’을 강조하는데(교육부, 2015r: 2) 이러한 인성 요소들은 평화 감수성, 민주적·평화적 소통, 평화·통일 실천 등의 역량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r: 3-5).

〈표 IV-2-16〉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항목	주요 내용
1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교육 내용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3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표시와 같은 최신의 관련 법령을 따른다.
4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 방침, 교육 목표 및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5 내용의 선정 및 조직	-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한다. - 일상생활과 연계되거나 실생활에 적용하기 용이한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한다.
6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 주요 개념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근의 것으로서 보편화된 것이어야 한다. -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교과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할 때는 ‘울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고, ‘동해 용어 표기가 바르게 기술된 지도를 사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의 그림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범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관련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포함되도록 한다.
8 기타 사항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있는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은 집필 기준을 참고하여 내용 수준을 정하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출처: 교육부(2015r), pp.3-5.

교과용도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중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첫째,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그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되든 교과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든 헌법 및 관련 법령,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거나 교사의 적극적인 평화·통일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연, 2018a; 소성규, 2019). 둘째,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서의 유의점 중 ‘일상생활과 연계되거나 실생활에 적용하기 용이한 주제, 제재, 소재 등을 선정’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평화·통일교육이 ‘구체적인 삶, 일상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이라는 점과 관련된다(교육부, 2015r: 4).

셋째,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관련 유의점 중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교과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는 것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를 위해 최신의 정확한 북한 관련 자료를 활용한 흥미 유발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된다(교육부, 2015r: 4).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유의점이 있다(교육부, 2015r: 5). 이와 같이 분단선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분단의 현실이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기보다 국토의 통일을 지향하는 바람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교육 접근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함규진 외, 2019: 73-74). 넷째, 범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과 관련된 유의점은 앞 절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범교과 학습 주제’ 관련 항목에서 이미 논의하였다. 문제는 범교과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에 범교과 학습 내용인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관련 교과목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하고 있는 교과 및 과목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끝으로,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r: 3-5).

〈표 IV-2-17〉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 기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1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5.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6.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7.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3 지식 재산권 존중	8.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출처: 교육부(2015r), pp.3-5.

‘교과용도서 공통 검정 기준’에는 정확히 ‘평화·통일’은 아니지만 ‘평화’와 ‘통일’이 결합된 ‘평화 통일’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통 검정 기준’이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반영해서라기보다 헌법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두 항목에 비해 ‘헌법 정신과의 일치’ 항목에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되는 몇몇 사항들이 있다. 첫째, Ⅱ-2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쟁점이 있다. 즉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 제11조 고발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김병연, 2018a: 116-117). 둘째, Ⅱ-2의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나 남북 간 합의 등의 현실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의 중요 요소인 ‘남북한 상호 이해, 존중, 공존’과 모순된다.

이제 학교급 및 교과목별로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모든 교과목에 집필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집필 기준은 중등 국어(중·고), 도덕(중·고), 경제(중·고), 역사(고) 4개 교과목에만 있으며, 편찬상의 유의점의 경우 초등학교는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이상 국정), 그리고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이상 검정)에만 있고, 중학교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영어에만 있고, 고등학교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영어에만 있다. 2015 개정 초·중·고 국정 및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현황은 <표 IV-2-18>과 같다.

<표 IV-2-18> 초·중·고 국·검정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현황

구분	집필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초등학교		통합교과(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 안전한 생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경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영어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경제, 세계사, 동아시아사	국어과(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사회과(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지리 부도), 역사과(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 부도), 도덕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수학과(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과학과(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영어과(영어,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Ⅰ, 영어Ⅱ)

(나) 초등학교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분석

〈표 IV-2-18〉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국정 및 검정 교과서의 경우 통합교과(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워 생활), 안전한 생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에 대해 ‘집필 기준’은 없고 ‘편찬상의 유의점’만 개발·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어, 사회, 도덕 이외의 다른 과목 교과서에 대한 ‘편찬상의 유의점’은 앞에서 분석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및 공통 검정 기준)’의 관련 항목들 이외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별도로 논의할만한 항목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어, 사회, 도덕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국·검정 교과서의 ‘편찬상의 유의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초등학교 국어과

국어과는 초등학교는 국정, 중·고등학교는 검·인정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국어과는 별도의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이 없지만, ‘국어과 과목 공통 집필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15q: 4-9). 국어과 ‘공통 집필 기준’ 중에서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 IV-2-19〉 국어과 교과용도서 공통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1. 교과서 개발 방향
 - 가. 국어 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집필의 방향
 - 1) 통일·다문화·글로벌 사회의 대비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의 함양 등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며, 비판적·창의적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 교과의 연구 성과를 적용한다.
3. 제재 선정 기준
 - 다. 사회적 요구
 - ① 미래 사회 대비 : 통일, 국제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는 제재를 선정한다.

출처: 교육부(2015q), pp. 4-5, 8-9.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어 교과서가 수용해야 할 국가·사회적 요구와 관련하여 ‘통일’이 언급되고 있다. ‘통일’이 국제화, 정보화, 다문화 등에 비해 앞서 등장하여 국어과 교과서 제재 선정 시 통일 관련 제재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유의점으로 (특히 북한 사회문화 및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지역, 계층, 국가 등 다양한 언어 배경과 문화 배경을 가진 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제재나 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잠재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5q: 6).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항목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20〉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항목	주요 내용
1. 교과서의 개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실제 삶의 맥락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이 일어나도록 개발한다. - 학습자들이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이 일어나도록 개발한다. - 국어 교과 내, 국어 교과와 다른 교과 간, 국어 교과와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 지역, 계층 등에 따라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제재나 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제재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학습자가 인성을 함양하도록 개발한다. - 다양한 삶의 가치를 담은 제재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성찰하고 학습자 간에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인성을 함양하도록 개발한다. -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고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습 자료 및 제재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2. 교과서의 구성 체제	<p>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의 과정을 명료화하여 구성한다.</p>
3. 내용의 선정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며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되,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을 고려하여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 속에서 주제, 소재, 제재 등을 선정한다. - 학습 내용은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왜곡, 비방, 옹호하거나 집필자 개인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정한다. -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제재는 특정 시대, 지역, 분야, 작가(특정 성 포함)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선정한다.

출처: 교육부(2015q), pp.4-9.

위의 표에서 보듯이, 초등 국어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은 다른 교과목도 공통 사항이지만 ‘개발 방향’, ‘구성 체제’, ‘내용의 선정 및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개발 방향’ 항목 중에는 ‘다양한 실제 삶의 맥락과 관련’, ‘학습자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고 공감’, ‘학습자들이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학습자 간에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인성을 함양’ 등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유의점들이 많다(교육부, 2015q: 6). ‘국어 교과와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과의 통합’과 같이 범교과 학습 주제인 통일교육과의 연계를 권장하는 사항도 있으며,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명시하여 ‘평화’의 가치를 담은 제재나 학습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 2015q: 6). 또한 ‘구성 체제’ 항목과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항목에서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문학 작품의 제재를 균형 있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남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있다.

2) 초등학교 사회과

사회과도 초등학교는 국정, 중·고등학교는 검·인정 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 역시 교과서 ‘집필 기준’은 없고 ‘편찬상의 유의점’만 있다. 초등 사회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도 국어과와 마찬가지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여러 유의점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 중 쟁점이 될 만한 사항만 살펴보고자 하겠다.

〈표 IV-2-21〉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쟁점 사항

4. 기타

(6) 북한 지역에 관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지리적 정보의 변화 상황은 가능한 한 현재의 북한 실정에 맞도록 수록하며, 북한 지역에 관한 일반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내용을 적용한다. 단,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행정 구역도는 ‘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시·군 구역’이란 제목 하에 시·도계, 시·군계까지 표시하여 별도로 수록한다. 이는 주제도로 간주되며, 지명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의거한다. 그 예로 ‘량강도’는 ‘양강도’로 표기한다. 또 우상화, 혁명화 된 지명은 바뀌기 전 지명을 괄호 안에 삽입한다. 그 예로 ‘김책(성진)’과 같이 표기한다.

출처: 교육부(2015r), p.46.

위의 표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은 북한을 정치적 실체가 아닌 하나의 지역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 관한 일반도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내용을 적용하면서 현재의 북한 행정 구역의 실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통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의 북한 행정 구역의 명칭이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함규진 외 2019:

73). 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평화·통일교육 접근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3) 초등학교 도덕과

초등학교 도덕과도 별도의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이 없지만, ‘일반 공통 집필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15q: 46-51). 도덕과 ‘공통 집필 기준’ 중에서 국어과, 사회과의 편찬상의 유의점 논의와 유사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 IV-2-22〉 도덕과 교과용도서 공통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 도덕과의 성격, 목표 반영 기준
학생들이 도덕과 수업을 통해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득하여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의 과정이 일상의 삶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사례, 활동 등을 구성한다.
- 진술의 공정성 기준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이 특정 집단의 관점 혹은 입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술되지 않도록 기술한다.
- 도덕적 정당화, 도덕적 사례 제시 기준
도덕적 사례를 제시할 때는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 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사례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 학습자 중심의 양질의 교과서 기준
 - 학생들의 생활 속 경험과 사례들을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덕 교과에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예화들, 학습자들이 일상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도덕 문제들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도덕 교과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사진·삽화·만화자료, 동영상 등)을 알맞게 제공한다.

출처: 교육부(2015q), pp.46-51에서 발췌함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도덕 교과서 ‘일반 공통 집필 기준’에는 ‘평화’나 ‘통일’이 직접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여러 지침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도덕과의 성격, 목표 반영 기준’은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의 과정이 일상의 삶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의 공정성 기준’에는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며, ‘학습자 중심의 양질의 교과서 기준’에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도덕 교과서가 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15q: 46, 50). 이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민족 중심의

추상적·당위적 거대 담론 차원을 벗어나 학습자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과 함께하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방향성과 일치한다.

또 ‘도덕적 사례 제시 기준’은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사례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체제는 심각한 결함이 있고 낙후되었으며 북한 주민은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식의 부정적이며 이분법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중심으로 접근할 여지를 마련해 준다(교육부, 2015q: 47). 아울러 ‘학습자 중심의 양질의 교과서 기준’은 ‘도덕적 민감성과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어 평화 감수성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가 도덕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15q: 50).

(3) 교과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서의 사례와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서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된 경우는 교과서 서술 및 자료 등이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지를 주로 분석한다.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서의 사례는 성취기준이 간접 연계나 비연계이더라도 교과서에서 평화·통일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사례

초등학교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서는 통합교과, 사회, 도덕이다.

통합교과의 1학년 2학기 ‘겨울’ 교과서 ‘1. 여기는 우리나라’ 단원은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는 단원이다. 특히, 남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이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 이후의 한반도 미래상 탐구, 통일을 기원하는 놀이 활동 등으로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다만 [그림 IV-2-2]와 같이 교과서 자료 중 남한과 북한의 생활 모습을 이분법적으로 대조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접근을 유도하거나, [그림 IV-2-3]과 같이 남한 중심의 관점에서 통일된 한반도 지도의 경계를 무궁화로 그린 자료 등은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그림 IV-2-2, 3] 참고).



출처: 교육부(2020a) 『겨울①-2』, pp.54-55.

[그림 IV-2-2]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 사례(1)



출처: 교육부(2020a), 『겨울①-2』, pp.64-65.

[그림 IV-2-3]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 사례(2)

‘사회’ 교과서의 5학년 2학기 ‘2-3.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단원, 6학년 2학기 ‘2-1.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단원도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는 단원이다. ‘사회’ 5학년 2학기 ‘2-3.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단원은 광복 이후부터 남북의 분단 과정까지를 다룬 역사 단원으로서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단원으로 학생들이 토론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사회’ 6학년 2학기 ‘2-1.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단원은 독도 교육 및 통일 교육 단원으로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는 단원이다. 특히 교과서 106쪽에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 사례를 비교하며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제시하는 등, 통일의 목적이 단순한 영토 병합에 있지 않고 평화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교육부, 2020c: 106).

‘도덕’ 교과서의 4학년 ‘5. 하나 되는 우리’ 단원은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는 단원이다. ‘통일은 왜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통일 의지와 애국심의 가치 덕목을 익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통일을 당위적 목표로 설정하는 점, 평화의 가치보다 애국심의 가치와 연결시켜 통일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은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6학년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단원도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는 단원이다. 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 사례

초등학교의 경우,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는 사회, 음악 교과 등이다.

‘사회’ 교과서의 5학년 1학기 ‘1.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은 지리 단원으로서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16쪽에 제시된 비무장 지대 관련 신문 기사와 67쪽에 제시된 북한 지역이 짙은 야경 위성사진을 학습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통일 탐구 역량(북한·분단 이해)과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부, 2020b: 16, 67). 다만, 위성사진 자료는 북한은 낙후되어 있으며,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부정적 시각을 조장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V-2-4) 참고).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이런 시간에는

지연이는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해야 할 우리 국토에 대한 신문 기사를 찾아왔다.

비무장 지대

비무장 지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이다. 비무장 지대 부근에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다. 비무장 지대 주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최근 도라 전방대, 제3방굴, 두타면 계곡 등을 보려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독도

우리 국토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는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다. 독도는 수산 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국토방위에 중요한 장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에 직접 방문하거나 독도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이런 시간에는

수혁이는 밤에 우리나라를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서 지역에 따라 불빛이 고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혁이는 그 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 위성 사진에서 불빛이 밝은 곳은 어디인가요?
- 위성 사진에서 불빛이 어두운 곳은 어디인가요?
- 우리나라의 도시 분포 지도와 밤에 우리나라를 찍은 위성 사진 속의 불빛을 비교해 봅시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는 불빛으로 밝게 빛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게 사는 혼외 지역은 어둡게 나타난다.

출처: 교육부(2020b), 『사회⑤-1』, p.16, 67.

[그림 IV-2-4]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사례

‘음악’ 4학년 교과서의 ‘II.침병침병 음악과 놀아요 2.지켜요 독도, 이뤄요 통일’ 단원은 성취기준은 비연계이지만 교과서 단원상으로는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통통통’(강인봉 작사/작곡) 곡의 특징은 ‘통통통’이라는 가사를 반복 사용하여, 서로 말과 뜻이 통한다는 내용과 통일에 관한 즐겁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그림 IV-2-5] 참고).

(1) 과목별 교육과정 분석

(가) 국어과: 국어

〈표 IV-2-23〉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국어	듣기·말하기	[9국01-04]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토의하기(문제 해결)								1	
	듣기·말하기	[9국01-05]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토론하기(논박)	[해설] 이 성취기준은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토론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주장과 논박을 중심으로 한 토론의 일 반적 절차에 따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 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듣기·말하기	[9국01-12]언어폭력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 며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1			1	
	읽기	[9국02-06]동일한 화제를 다 른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동일한 화제의 글 비교하며 읽기	[해설] 이 성취기준은 여러 편의 글을 비교하며 읽으면서 관점이 나 형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글 을 폭넓고 깊게 읽는 경험을 하 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교·학] 어떤 쟁점에 대해 찬성 의 입장에서 쓰인 글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입장에서 쓰인 글 이 있다.								1
	문법	[9국04-09]통일 시대의 국어 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 다.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 갖기	[해설] 이 성취기준은 남북 언어 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고,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태도를 기르기 위 해 설정하였다.		1		1				
계					0	1	0	1	1	0	4	0

출처: 교육부(2015b), p. 41, 43, 50.

중학교 ‘국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듣기·말하기’, ‘읽기’, ‘문법’)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 과목의 총 51개 성취기준 중 5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4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1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4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0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9국01-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국01-05]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주장과 논박을 중심으로 한 토론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국01-1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국02-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관점이나 입장, 형식 등을 고려하여 서로 관련성 있는 글을 폭넓게 읽음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국04-09]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통일 시대의 국어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현재의 남북 언어는 무엇이 다른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지 등을 비롯하여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국어’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1개로 극히 적다는 점이다.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 4개 역시 국어과 핵심역량으로 제시된 것이지 평화·통일 교육을 고려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과

① 지리

〈표 IV-2-24〉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지리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9사(지리)04-01] 다양한 기준으로 문화지역을 구분해 보고,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의 자연 환경, 경제·사회적 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해설]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문화지역을 구분해봄으로써 문화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1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9사(지리)04-03]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같동이 있는 지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문화 공존	[해설/교·학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문화적 갈등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과 문화 공존을 위한 자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1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9사(지리)07-03]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해설/평가]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해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발표, 토론, 역할 놀이, 공익광고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1	1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9사(지리)08-04]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된 사례를 조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안한다.		[해설/교·학/평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삶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고,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참여 사례 등에 대한 과제 수행 과정과 그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1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9사(지리)10-01]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을 평가한다.		[해설/평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려는 지역적·국제적 노력과 한계를 조사한다.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 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해설/교·학/평가] 환경 이슈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 고,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갖고 그 해결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찬 반 토론, 모의재판, 역할극 등을 통해 비교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과 글, 그림, 영상 등으로 표 현한다. 각종 서적, 방송, 신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최근의 환경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환 경 문제와 관련된 기관 방문, 현 장 모니터링, 캠페인 활동 등 다 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환 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 결 정 과정과 실천력을 체크리스트, 저널 기고문 작성 등을 통해 스 스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1	1
	세계 속의 우리나라	[9사(지리)11-01] 우리나라 의 영역을 지도에서 파악하고, 영역으로서 독도가 지닌 가치 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우리나라의 영역	[해설] 국가 영역이 갖는 중요성 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영토, 영 해, 영공 등 영역을 확인하며, 우리나라 영토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1		
	세계 속의 우리나라	[9사(지리)11-03] 세계 속에 서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 해하고, 통일 이후 우리 생활 의 변화를 예측한다.	우리나라의 위 치, 통일의 필 요성, 통일 이 후의 변화	[해설/교·학] 세계 속에서 통일 한국이 갖는 위치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 하고 통일 이후 국토 공간의 변 화와 생활 모습의 변화를 논리 적으로 추론한다. 우리 국토의 위치적 중요성과 통일의 중요성 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도록 하며, 통일 이후 국토 공간과 생 활의 변화에 대해 글과 그림으 로 표현한다.		1	1					
	더불어 사는 세계	[9사(지리)12-02] 다양한 지 표를 통해 지역별로 발전 수준 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자기발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한다.		[해설] 지역 간 불평등을 해결하 기 위한 여러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불평등 문제 개선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1
계					0	1	1	0	2	1	3	5

출처: 교육부(2018a), p. 64, 68, 70, 73, 74, 76.

중학교 ‘지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6개 단원(‘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세계 속의 우리나라’, ‘더불어 사는 세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리’ 과목의 총 38개 성취기준 중 9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8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0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2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3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5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9사(지리)04-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파악하고, 문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04-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중요성 인식’,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07-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토론, 역할 놀이 등 다양한 소통 방법 활용’,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출’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08-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한 여러 의견 수렴’, ‘지역을 살기 좋은 삶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10-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 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10-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찬반 토론, 모의재판, 역할극 등을 통한 의견 비교’, ‘환경문제 해결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11-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국가 영역이 갖는 중요성 인식’, ‘우리나라의 영역 확인’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12-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지역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인식', '불평등 문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지리)11-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우리 국토의 위치적 중요성과 통일에 대한 토의', '통일의 당위성 설명', '통일 이후의 국토 공간의 변화', '통일 이후의 생활 모습의 변화 추론'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지리' 교육과정에서 직접 연계로 나타난 1개 성취기준을 제외하고 8개의 성취 기준은 간접 연계로 분류되었다. 간접 연계로 분류된 영역들은 주로 평화 통일 교육 역량 구성 요소 중 다양성 이해, 의사소통, 갈등 해결, 실천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관련되었다. 이는 지리 교육과정에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상반된 이슈, 갈등 문제 등에 대해 민주적 소통 및 실천적 요소가 잘 녹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리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직접 연계되는 성취 기준에서 나타난다.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단원의 성취기준 [9사(지리)11-03]에는 우리 국토의 위치적 중요성, 통일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상호 이해와 존중, 다양성 인정 등을 내면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평화 감수성 역량과는 거리가 있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마음 속 깊이 느껴야하는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통일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교육과정 개정 시 통일과 관련된 성취기준 진술 시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현 지리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과 통일 이후에 나타나는 국토 공간 및 일상생활의 변화는 설명하고 있지만, 통일을 이루는 방법적·실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미비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일반사회

〈표 IV-2-25〉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사회	개인 과 사회생활	[9사(일사)01-03]사회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차별과 갈등	[해설]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별 및 갈등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함양한다.							1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9사(일사)04-03]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활동을 조사한다.	지방 자치 제도									1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9사(일사)11-02]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 협력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국제 사회 갈등 및 협력, 외교	[해설]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에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며,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또한 국제 사회의 공존을 위해서는 외교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1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9사(일사)11-03]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를 국제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시민 사회 활동을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간 갈등 문제	[교·학]프로젝트 학습, 조사 학습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정책 및 시민 사회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9사(일사)12-02]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한국 사회의 변동	[해설]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해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적 변화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1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9사(일사)12-03]현대의 주요한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현대 사회문제									1
계					0	0	0	0	0	0	3	3

출처: 교육부(2018a), p. 77, 81, 90, 91.

중학교 ‘사회(일반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단원(‘개인
과 사회생활’,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과목의 총 36개 성취기준 중 6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없었으며,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6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3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3개로 나타났다.

6개의 성취기준 모두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9사(일사)01-03]은 ‘갈등의 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일사)04-03]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을 다루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일사)11-02]는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 협력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일사)11-03]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를 국제 관계 속에서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시민 사회 활동 조사’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일사)12-02]는 ‘한국 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사(일사)12-03]은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사회(일반사회)’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 및 문제점은 성취 기준에서 ‘평화·통일’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 속에서 겪는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나 한국 사회의 변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추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간접적으로 연계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마저도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에 평화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③ 역사

〈표 IV-2-26〉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역사	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9역05-03]세계 대전의 과정 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과 인권 침해 등의 사례를 탐구하고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 해 알아본다.											1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9역06-04]오늘날 인류가 해 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 사례 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해결 방 안에 대해 토론한다.	민선 평화 운동	[해설] 현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 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구체 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 역사 적인 연원을 찾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공동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1
	근·현대 사회의 전개	[9역12-04]통일을 위한 노력 을 파악하고, 평화 통일의 방 안에 대해 탐색한다.	분단, 6·25 전쟁, 7·4 남 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 동 선언	[교·학] 마지막 주제인 '평화 통 일을 위한 노력'은 현재와도 맞 닿아 있는 주제이므로, 표어 제 작이나 포스터 그리기 등의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적 판 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평가] 분단 및 통일에 대한 표 어 만들기나 포스터 그리기 수 업에서는 학생들의 작문, 그림 실력이 아니라 주제 선정의 적 절성 여부, 표어의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1					
계					0	1	0	1	0	0	0	0	2

출처: 교육부(2018a), p. 105, 106, 115.

중학교 '역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단원('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근·현대 사회의 전개')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 과목의 총 45개 성취기준 중 3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직접 연계된 [9역12-04]의 성취 기준의 경우 2개의 역량이 중복 포함되어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2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9역05-03]는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대량 학살과 인권 침해’, ‘평화 유지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역06-04]도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오늘날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탐구와 방안의 모색’, ‘반전 평화 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역12-04]는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통일을 위한 노력’, ‘평화 통일 방안 탐색’, ‘분단’, ‘7·4 남북 공동 성명’, ‘6·15 남북 공동 선언’, ‘평화·통일 관련 표어 및 포스터 그리기’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역사’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중심으로 편제되어 근현대사 분야가 1개 단원으로 축소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분단이라는 상황의 인식과 평화·통일 교육은 사실상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듯 ‘분단과 평화’라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준의 제시로 그칠 수밖에 없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 과목은 학생들이 통일 탐구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적·평화적 소통을 통해 평화 감수성 역량을 함양하여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 이해한다, ~ 탐구한다.’ 등의 역사 사실 이해라는 학습적 기준 제시보다는 ‘~ 실천할 수 있다, ~ 기를 수 있다, ~ 함양할 수 있다’ 등의 실천 역량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의 학습 요소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는 정치사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진정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분단 현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학습 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수·학습 방법도 1970년대식 반공 포스터 그리기 수업처럼 평화·통일을 위한 표어 및 포스터 제작 등 일회적이고 가시적 결과물 전시만으로는 평화 감수성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평화·통일교육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 역량을 함양하고 평화·통일의 실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다) 도덕과: 도덕

〈표 IV-2-27〉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도덕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도덕	자신과의 관계	[9도01-05]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습관과 건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									1	1	
	타인과의 관계	[9도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갈등 상황의 다양한 해결 방법, 평화적 갈등 해결의 중요성, 평화적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익히기.	[해설] 이 영역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자세를 다루고 있는 이 성취기준은 이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1	1	1
		[9도02-06]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다.							1		1	1	
		[9도02-07] 폭력의 결과를 상상해보고 그 속에 내재한 비도덕성을 지적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질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와의 관계	[9도03-02] 보편 규범과 문화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등 다양성을 긍정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1		1	
		[9도03-03]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참여적 태도를 가지는 등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1		1	1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9도03-06]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북한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1							
		[9도03-07]보편적 가치 추구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등 통일 윤리 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			1	1		1					
	자연·초월과의 관계	[9도04-04]고통과 희망의 의미에 근거하여 도덕적 이야기를 구성하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1
계					1	2	0	1	5	0	5	5	

출처: 교육부(2015c), pp. 17-22, p. 24.

중학교 도덕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초월과의 관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덕 과목의 총 23개 성취기준 중 9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7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2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이 1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5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5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5개로 나타났다.

우선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서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9도01-05]이다. 성취기준 [9도01-05]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건강이란 ‘남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즉, 사회적 건강 자체가 타인과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대화, 타협할 수 있는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뜻한다. 또한 사회적 건강을 가꾸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을 제시한다고 하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도 연계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3개이다. 첫째, 성취기준 [9도02-05]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간접 연계에 해당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한다'는 점에서 평화 감수성 역량,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타인 존중의 태도가 곧 평화적 성향을 뜻하며, 평화적 성향을 지닌 채 의사소통한다는 것이 나머지 두 역량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성취기준 [9도02-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명시하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평화의 가치를 공감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성취기준 [9도02-07] 역시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기에 포괄적이고, '폭력에 내재해있는 비도덕성을 지적하고 일상생활 속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명시하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성취기준 [9도02-07]에서 일상 생활 속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한다고 명시하지만 이미 폭력이 일어난 상황에 대처를 하는 상황이므로 평화적인 해결 및 소통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 다른 역량과는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4개이다. 첫째, 성취기준 [9도03-02]는 분단, 북한 이해, 평화·통일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보편 규범과 문화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했다. 보편 규범과 문화 다양성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문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성취기준에서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등 다양성을 긍정하는 자세를 지닌다'고 명시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도 간접 연계된다.

둘째, 성취기준 [9도03-03] 역시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한다'고 명시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간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분류했다. 세계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는 곧 관용, 평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성취기준은 '지구 공동체 내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한다'고 명시하기에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과도 간접 연계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계 시민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도 간접 연계된다. 공동체 일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취기준 [9도03-06]은 분단,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넷째, 성취기준 [9도03-07] 역시 분단, 평화·통일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이 이루어야 함을 안다'는 것과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른다는 점에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자연·초월과의 관계에서 성취기준 [9도04-04]는 분단, 북한이해, 평화·통일과 직접적 관련은 없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로 분류하였다. 일상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도덕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른 교과들에 비해 평화·통일 교육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평화·통일 교육과 직접적 연관성을 보이는 성취기준은 2개이지만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성취기준이 다른 교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도덕 교과의 성격 자체가 타인과 평화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중학교 도덕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기준 자체에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되는 성취기준이 다소 적다.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도덕함'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강조한다. '도덕함'이란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 현상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데서 출발하여 내면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과정 자체는 학생들이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도덕적 민감성은 평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기도, 결국 도덕 과목이 평화감수성 역량과 연계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총 23개의 성취기준에서 평화 감수성 역량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성취기준은 6개에 불과하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 영역 속 단원들은 대부분이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계된 성취기준이 적다. ‘타인과의 관계’ 영역은 학생의 경험세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갈등을 살펴보는 단원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사소한 갈등들이 비평화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는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만을 강조할 뿐, 평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갈등을 ‘갈등’이라고 인지하는 역량에 대한 강조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7개 중 절반의 성취기준만이 평화 감수성 역량과 간접적으로 연계될 뿐 다른 단원들은 평화 감수성 역량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

둘째, 평화통일 교육에서 강조하는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성취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평화통일 교육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성취기준인 [9도03-06]과 [9도03-07] 역시 다른 역량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뿐, 민주적 평화적 의사소통 역량과의 연계성은 부족하다. 특히 성취기준 [9도03-06]에서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토론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한 기회가 성취기준 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취기준 [9도03-07]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단순히 당위적으로 서술했을 뿐 통일이 정말 필요한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여 스스로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연계성 차이가 다소 높다. 성취기준 자체에서는 평화통일 역량들과의 연계성이 많아 보이지 않으나, 교과서에서는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 포함되는 교과서 단원에서는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되는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자체에서는 그것들을 잘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성취기준 [9도03-06]을 구현한 교과서 단원에서는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 활동들이 보이지만 교육과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 역량의 연계성이 부족하면 교과서에서 평화통일 역량 함양의 기회가 구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사들이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들지 의문이다.

따라서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은 우선 평화감수성 역량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성격과 목표에서도 강조하는 ‘도덕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평화 감수성 역량과의 연계성은 보다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비평화 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평화 감수성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그것이 곧 도덕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 속하는 성취기준 [9도01-02]에서도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지닌다.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평화 감수성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통일 교육 역량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성취기준 [9도03-06~07]에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통일의 필요성을 학생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탐구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함께 토론해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라) 수학과: 수학

〈표 IV-2-28〉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수학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계					0	0	0	0	0	0	0	0	0

중학교 ‘수학’ 과목의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의 총 61개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교과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5d: 3). 또한 교육과정의 ‘목표’ 항목에서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설정하고 있어 평화·통일교육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d: 4).

‘확률과 통계’ 단원에 대한 설명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고, 확률을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교육부, 2015d: 35). 이와 관련해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은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한 제시가 없어 평화·통일 교육에 간접 연계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 제시를 남북 문제 등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제시하여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할 수 있게 연결한다면,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성취 기준이 될 수 있다(교육부, 2015d: 35). 예를 들어,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분단 비용 산출 등의 사안을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분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와 관련된 수학적 추론 및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통일 탐구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d: 35).

(마) 과학과: 과학

〈표 IV-2-29〉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과학	지권의 변화												
	여러 가지 힘												
	생물의 다양성												
	기체의 성질												
	물질의 상태 변화												
	빛과 파동												
	과학과 나의 미래												
	물질의 구성												
	전기와 자기												
	태양계												
식물과 에너지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동물과 에너지												
	물질의 특성												
	수권과 해수의 순환												
	열과 우리 생활												
	재해·재난과 안전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기권과 날씨												
	운동과 에너지												
	자극과 반응												
	생식과 유전												
	에너지 전환과 보존												
	별과 우주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계					0	0	0	0	0	0	0	0	0

중학교 ‘과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4개 단원의 총 9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럼에도 과학과 교육과정은 ‘성격’ 항목에서 “과학과 사회의 올바른 상호 관계를 인식하며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과학과 핵심역량으로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e: 3). 또한 ‘목표’ 항목에서는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라고 총괄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볼 수 있다(교육부, 2015e: 4). 예를 들어 한반도에 존재하는 지하자원 그래프나 도표 등을 활용하여 남북을 비교하거나 하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9과07-01]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을 조사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9과14-01] 수권에서 해수, 담수, 빙하의 분포와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과15-01]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하고,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성취기준들은 ‘토의, 토론’을 언급하고 있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63, 72-73, 84).

(바) 기술·가정과: 기술·가정

〈표 IV-2-30〉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기술 가정	인간 발달과 가족	[9기가01-06]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1	
	가정생활 과 안전	[9기가02-05]주거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1
	가정생활 과 안전	[9기가02-08]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한다.		[해설]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숙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방법과 지원 및 대처 방법을 탐색하여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가정생활 과 안전	[9기가02-09]가정 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가정 폭		[해설]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개인, 가정, 사회·문화적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가정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한다.		황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계					0	0	0	0	0	0	0	1	3

교육부(2015f), p. 16, 18.

중학교 ‘기술·가정’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가정’ 과목의 총 54개 성취기준 중 4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4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3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9기가01-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기가02-05]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다양한 생활양식 고려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9기가02-08], [9기가02-09]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성취기준 [9기가02-08]에서 ‘성폭력 문제와 대처 방안의 탐색과 대비’, 성취기준 [9기가02-09]에서 ‘가정 폭력 문제의 대처 방안과 지원 방안 탐색 실천’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했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기술·가정’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가족, 가정생활과 관련된 ‘가정’ 분야에서 특히 평화·통일교육과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의 지향은 평화 감수성 역량을 기초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비평화 요소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 일상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 감수성 역량과 실천 역량의 함양이 성취기준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 정보과: 정보

〈표 IV-2-31〉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정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정보	정보문화	[9정01-03]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법을 실천한다.											1
계					0	0	0	0	0	0	0	0	1

출처: 교육부(2015f), p. 99.

중학교 ‘정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정보문화’)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과목의 총 17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9정01-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사이버 폭력 방지와 예방법의 실천’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정보’의 교육과정은 평화·통일교육과 연계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정보 교과는 지식·정보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보윤리의식, 정보보호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등 정보문화소양을 갖추고 컴퓨터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및 네트워크 컴퓨팅 기반 환경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통일교육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f: 95).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의 성취 기준 경우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f: 102). 이는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한 제시가 없어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정보 처리 과정의 문제 제시를 남북 문제 등과 관련된 특정 문제를 제시하여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성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체육과: 체육

〈표 IV-2-32〉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체육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체육	경쟁	[9체03-04]영역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한다.		[교·핵]영역형 경쟁은 연습과 실제 경기에서 팀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면서 경기 규정과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경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9체03-12]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경기 절차, 상대방, 동료, 심판 및 관중에 대한 예의범절을 지킨다.		[교·핵]네트형 경쟁은 상대방의 기능 수준을 인정하고 경기 시에 상대를 존중하며 운동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표현	[9체04-08]전통 표현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1					
		[9체04-12]현대 표현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표현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한다.										1		
	안전	[9체05-06]스포츠 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 수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1
		[9체05-09]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타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대처한다.												1
계					0	0	0	0	1	0	1		4	

출처: 교육부(2015g), pp. 33-34, p.36, 38.

중학교 '체육'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경쟁', '표현', '안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 과목의 총 54개 성취기준 중 6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이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없었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4개로 나타났다.

우선 '경쟁' 영역에서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2개이다. 성취기준 [9체03-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기에 임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성취기준 [9체03-12]도 평화·통일, 북한 이해, 분단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범절을 지킨다', '존중을 실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에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표현' 영역에서 연계되는 성취기준 역시 2개이다. 우선 성취기준 [9체04-08]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 관련이 되지는 않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한다고 명시하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성취기준 [9체04-12]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진 않지만, '다양한 표현 문화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안전' 영역에서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2개이다. 성취기준 [9체05-06]은 분단 및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관련이 없으나 '안전을 고려하여 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했다. 성취기준 [9체05-09]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다는 점에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중학교 체육 과목의 주요 특징은 평화·통일 교육 핵심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경기 수행 능력'은 경쟁 상황에서 팀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 및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다른 팀원 간의 존중을 요구한다. 또한 경기 수행 능력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궁극 목표이기에 평화 감수성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남북 태권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거나, 남북 체육 교류나 올림픽 등에서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 영역은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익히고 그에 따른 예방 방법을 배우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기에 비평화 민감성 요소와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음악과: 음악

〈표 IV-2-33〉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음악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음악	표현												
	감상												
	생활화												
계					0	0	0	0	0	0	0	0	0

중학교 ‘음악’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11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음악과 교육과정은 ‘성격’ 항목에서 타인과 음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음악적 소통 역량’과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음악 과목은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계로 분류되진 않았으나, 성취기준 [9음02-03]은 통일 탐구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은 음악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에, 통일 탐구 역량 중 북한 이해 요소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성취기준을 직접적으로 교과서나 교수·학습에서 구현할 때 남북 전통 음악이나 악기를 비교하거나 남북 음악 교류 내용을 다룬다면 통일 탐구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취기준 [9음03-03]은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한다’고 명시하므로 남북한의 공통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이질감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차) 미술과: 미술

〈표 IV-2-34〉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미술	체험												
	표현												
	감상												
계					0	0	0	0	0	0	0	0	0

중학교 ‘미술’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15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면 미술 교과가 평화·통일 교육에 기여하는 과목임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미술 교과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을 공감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술 교과는 타인의 감정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연계로 분류되진 않았으나, 성취기준 [9미02-03]은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주안점이므로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취기준을 구현할 때 남북의 미술 작품을 비교하여 이해한다면 통일 탐구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영어과: 영어

〈표 IV-2-35〉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영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					0	0	0	0	0	0	0	0	

중학교 ‘영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34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영어과 핵심역량으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인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j: 3-4). 영어과 성취기준 대부분에서 ‘일상생활 관련 대상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대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이를 ‘분단 상황에 대해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통일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기’ 등 화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통일 탐구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분석

현행 모든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 체제인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집필 기준’은 국어, 도덕, 사회(경제 단원)에만 있고, ‘편찬상의 유의점’은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영어에만 ‘편찬상의 유의점’이 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논의와의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평화·통일교육 관련 지침 및 유의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학, 과학, 영어는 생략하여,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국어, 사회, 도덕 교과로 분석 및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가) 중학교 국어과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36〉 중학교 국어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1. 교과서 내용 선정 기준

나. 영역별 내용 관련 기준

(4) 문법

- ⑧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 갖기에 관해서는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국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 하려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2. 제재 선정 기준

라. 문법

- ③ 지역이나 사회의 다양성 : 남과 북의 언어를 보여 주는 자료, 지역이나 사회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 등 국어생활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여러 지역의 언어 자료를 선정하되, 학습자의 수용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다.

출처: 교육부(2015a), p.15, 18.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의 ‘내용 선정 기준’ 항목의 ‘문법’ 부분과 ‘제재 선정 기준’ 항목의 ‘문법’ 부분에는 ‘통일’, ‘남과 북’ 등의 관련 표현이 직접 등장한다. ‘내용 선정 기준’ 항목에서는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갖기 위해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통일 시대의 국어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며 ‘통일에 대비하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재 선정’ 항목에서도 ‘남과 북의 언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및 제재 선정 기준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적어도 문법 영역에서 객관적 북한 이해를 통해 통일 탐구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다만, ‘통일 시대의 국어’, ‘통일에 대비’ 등의 표현이 혹시 학생들에게 남한 중심의 관점에서 흡수 통일을 가르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조정아 외, 2019: 154).

(나) 중학교 사회과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37〉 중학교 사회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타. 근·현대 사회의 전개

개항 이후 민권 신장과 정치사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이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국민 국가 건설을 지향하였으며, 이러한 지향이 제헌 헌법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서술한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의 시련 속에서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개항 이후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음에 유의한다. 현대 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감을 유지하며 서술한다. 분단 이후 남북 간의 대화 과정을 설명하고, 통일은 평화적·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역사적 근거를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출처: 교육부(2018b), p.4

중학교 ‘사회(역사 영역)’의 교과서 집필 기준 중 ‘근·현대 사회의 전개’ 부분은 평화·통일 교육과 직접 연계된다. 그러나 집필 기준은 분단 이후 남북 간의 대화 과정을 통해 평화적 민주적 절차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대화 과정상 도출된 합의안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분단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 중학교 도덕과

중학교 ‘도덕’ 교과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38〉 중학교 도덕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 북한 이해, 통일윤리의식

-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정권은 군사적·안보적 경계대상이며, 북한 주민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라는 점을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기술한다.
-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 걸쳐 소개하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해볼 수 있도록 기술한다. 이 때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본질적인 인간다운 삶에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로 확장해나갈 수 있다는 평화의 철학에 근거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술한다.
-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남북한 상호 간의 이익이 됨은 물론 민족의 화해나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목표에 부합해야 함을 기술한다.

출처: 교육부(2015q), p.55.

중학교 ‘도덕’의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 평가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라는,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지침도 있으나, “통일의 당위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술한다.”와 같이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지양해야 할 지침도 있다.

(3) 교과서 분석

중학교 교과서 분석도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에서와 같이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목의 사례와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목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사례

중학교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는 국어, 도덕, 역사, 지리 등이다.

1) 중학교 국어

중학교 ‘국어’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은 ‘[9국04-09]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이다. 이 성취기준을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한 것은 금성출판사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4. 세상을 향하는 시선/(1) 통일 시대 국어에 대한 관심’, 동아출판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2. 세상을 비추는 문학과 언어/(2) 통일 시대의 국어’ 단원, 미래엔 3학년 1학기 교과서의 ‘3. 국어와 소통/(2)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단원, 비상교육 3학년 2학기 교과서의 ‘4. 논리로 여는 세상/(2) 주장하는 글 쓰기’ 단원 등이다. 특히, 동아출판 교과서는 ‘겨레말 큰사전’의 사례를 제시하여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 방안에 대한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V-2-6) 참고).

학습 활동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 극복 방안

1. 다음 대화를 보고 제시된 물음에 답해 보자.

이 단락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영어)와 영한 교섭에서 영한어가 영한 글로 다뤄지고 있어, 두 학생의 대화를 보자.

2. 다음 자료를 보고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더 있을지 토의해 보자.

(1) 이 단락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보자.

(2) (1)을 바탕으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3. 1과 2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의 국어를 고려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The composite image contains several parts: a comic strip with two characters discussing language differences; a grid of six informational cards with titles like '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 재개로 남북의 말, 하나로 잇다', '남북한 관공체', '3년 연공단행 및 영가 사업, 영한 어휘 다시 추진한다', '겨레말 큰사전, 은 우리 겨레가 창조고발민사주의 언어의 신화를 창조하여 이를 보전한다', '총 33만여 개의 '영한말'을 수록한다', and '영한말 '겨레말 큰사전' 세 수책본 30여 권이 영한 상하를 완성했다'; and an illustration of four students in a discussion with speech bubbles.

출처: 이은영 외(2020), 『중학교 국어3-2』, 동아출판, pp.102-103.

[그림 IV-2-6] 중학교 국어 교과서 사례(1)

2) 중학교 도덕

중학교 ‘도덕’ 2학년 ‘2-3-1.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단원은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지닐 것을 강조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을 통일로 나아가는 협력의 대상이자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이중적 대상으로 이해할 것을 서술하고 있다. 미래엔 등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그를 통해 북한에 대한 균형적 이해가 필요함을 도출하는 기회를 부여한다(그림 IV-2-7) 참고).

다음 <활동 방법>에 따라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활동 방법

- 1 4~5명이 한 모둠을 이루고, 각자 아래에서 서로 다른 사진을 한 장씩 고른다.
- 2 자신이 고른 사진을 활용하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본다.
- 3 모둠 구성원이 만든 문장을 엮어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본다.



1



2



3



4



5



6

내가 선택한 사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p>번</p>	<p>1번 사진 • 3번 사진 관련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 4번 사진: 북한이 미사일을 쓰는 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 5번 사진: 북한을 자신이 쓰고 있는 색안경의 색깔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 6번 사진: 북한 주민은 누군가의 형제이고 동포이다.</p> <p>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1번 사진 북한이 미사일을 쓰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누군가의 형제이고 우리의 동포이다. 북한을 자신이 쓰고 있는 색안경의 색깔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색깔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p>

출처: 정창우 외(2018), 『중학교 도덕2』, 미래엔, p.111.

[그림 IV-2-7]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1)

중학교 ‘도덕’ 2학년 ‘2-3-2. 북한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단원은 북한 주민의 낙후된 인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문화 및 일상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교과서들이 최근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를 담고자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리베르스쿨(109), 비상교육(100), 미래엔(114), 동아출판(104), 지학사(104) 교과서는 북한의 장마당의 예를 통해 북한의 시장 경제화 현상을 비중 있게 다룬다. 다만, 천재교과서 등은 북한의 최근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며, 북한 주민의 생활을 거의 모두 낙후된 인권 실태와 관련되어 서술하고 있다. 즉, 북한의 문화 및 일상보다 북한의 낙후된 인권을 강조하여 북한 주민이 남한 주민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그림 IV-2-8] 참고).

만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개인주의나 가족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헌법에서는 평등권을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주민들의 출신 성분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다르게 주어진다. | 자료 ● _ 113쪽

문화 북한에서는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에도 당이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 기술과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남녀 문제나 주민 생활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상 교육을 가장 강조하며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한다. | 자료 ● _ 113쪽

단체명

조선소년단


김일성-김정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 사회주의청년동맹(어맹)

조선 농업 청년동맹(농구맹)

조선 직업총동맹(직총)

*주체형의 사제를 유지하는 사회와 인민을 세울 갖춘 혁명



생각
기르기

도덕적
사고 능력

북한에서 휴대 전화 사용하기, 쉽지 않네!

- 다음 글을 읽고 북한 주민들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북한의 비밀경찰은 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의 가족,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주민 등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의 통화를 엿듣는다. 북한 주민들은 비밀경찰에게 휴대 전화 신호를 탐지당하지 않기 위해 통화는 짧게 하고, 만약 비밀경찰이 통화를 엿들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통화 중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이 비밀경찰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오가며 밀거래를 하는 주민들의 통화를 주로 엿듣는다고 한다. - 『해럴드경제』, 2016. 3. 9. -

▲ 북한이 자체 제작하였다고 보도한 스마트폰의 이미지.

출처: 변순용 외(2018), 『중학교 도덕2』, 천재교과서, p.111.

[그림 IV-2-8]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2)

중학교 ‘도덕’ 2학년 ‘2-3-3.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서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 단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강조한다. 동아출판,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먼저 온 통일의 동반자’라고 서술하며, 단순히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아출판 교과서는 명시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역시 동등한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함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그림 IV-2-9] 참고).

다양한 통일
 *가로 세로 붙여져 있는 것을 이어 주는 사람이니 사실 *조각지 도어주는 사람.
 국민 '다-우-공리도'를 '다-우-공리도'로 바꾸어라.
역할 인정 | 셋째, 통일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남한에 잘 적응한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주민에게 민주 사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전달해 주는 **중간자 역할**과 통일된 새로운 사회에 북한 주민이 잘 적응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에게 '먼저 온 통일'이다. 그러므로 동반자인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수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통일부 소속 기관인 아니름에 있는 학생들

출처: 노영준 외(2018), 『중학교 도덕2』, 동아출판, p.110.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해소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때 통일 한국의 미래도 밝아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은 '먼저 온 미래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사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사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사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하면?

다음과 같은 기회가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찾아 보자.
 *통일 학교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 이후 학교 상황을 가정하고, 남북한의 교사와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남한 학생과 북한 이탈 학생이 한 반을 이루고 남한 교사 1명과 북한 이탈 교사 1명이 공동 담임을 맡아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지냈다.
 *통일 학교는 남개라고 생각합니다. 남개 두 개가 하나 되어 날 수 있듯 남과 북 학생들이 함께 모여 날아오르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통일 학교는 지우개입니다. 통일 학교에서 남과 북, 서로에 대한 편견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의 통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느낀 바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한 학생과 북한 이탈 학생의 발표가 이어지자 강당에 웅장 박수가 터졌다.
 - <연말뉴스>, 2015년 11월 28일

출처: 정창우 외(2018), 『중학교 도덕2』, 미래엔, p.120.

[그림 IV-2-9]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3)

중학교 '도덕' 2학년 '2-4-1.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은 왜 필요한가?' 단원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 삶의 질 향상, 세계 평화 등 한반도 통일의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며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다만, 동아출판, 미래엔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회의적인 관점을 다루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이나, 분단으로 인한 고통 등을 설명한 후 통일의 당위성을 바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자체를 성찰할 기회가 없어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탐구할 기회가 적다(그림 IV-2-10) 참고).



생각 내가 '통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대화하기 *나는 통일이러는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통일이러는 말을 들으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무시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피할 수 없는 문제, 통일 | **동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통일이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사회도 불안해질 거야. 통일이 되지 말고 지금처럼 북한, 남한이 각자 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우경: 너는 평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처럼 전쟁이 날까 봐 불안해하는 사회가 좋아? 이산가족은 어떻게 하고?
 하니: 통일이 되면 우선 나라가 커지고, 인구도 많아질 거야. 또,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해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더 잘살 수 있어. 물론 이산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먼저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평화와 화합, 이산가족의 만남, 국가 발전 등을 먼저 떠올린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분단을 극복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염원한다.
 한편,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사회 갈등과 혼란, 전쟁, 통일 비용 등을 떠올린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 혼란이나 비용을 걱정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또 통일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염려한다.

출처: 노영준 외(2018), 『중학교 도덕2』, 동아출판, p.118.

출처: 정창우 외(2018), 『중학교 도덕2』, 미래엔, p.128.

[그림 IV-2-10]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4)

중학교 ‘도덕’ 2학년 ‘2-4-2. 통일 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까?’ 단원은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모든 교과서에서 ‘통일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덕적 복지 국가가 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통일 한국’에서 달라질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제시한다. 통일 한국 화폐 만들기(지학사: 120), 통일 한국 속 유망 직업 찾기(천재교과서: 128), 통일 한국에서의 뉴스 제작(미래엔: 135) 등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상상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미래 모습을 강조하는 교과서(미래엔)도 있고, ‘통일 한국’이 미래에 겪을 어려움과 극복 방안을 강조하는 교과서(리베르스쿨)도 있었다(그림 IV-2-11) 참고).

③ 다음 (활동 방법)에 따라 모둠별로 '통일 한국 희망 뉴스'를 만들고 발표해 보자.

활동 방법

- 5개의 모둠을 만들고 15쪽 면화에서 모둠별로 서로 다른 장면을 하나의 코너로.
- 1에서 고른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모둠 모토로 구체화한다.
- 2를 토대로 통일 전망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 대본을 작성한다.
- 모둠에서 만든 통일 한국 희망 뉴스를 모듬장이 대표로 발표한다.

●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휴전선을 허물고 나라 이름을 통일하는 등 외형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내면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도 큰 어려움이다. 남북한은 경제 격차가 심해서 통일 후 일정한 기간은 남한이 더 큰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북이 협력해서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남북한 경제 수준 차이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향후에 발생할 불가피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④의 발표를 들은 후 느낀 점을 써 보자.

④-1. **통일 후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통일 후의 어려움은 휴전선을 허물고 나라 이름을 통일하는 등 외형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내면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④-2. **통일 후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통일 후의 어려움은 휴전선을 허물고 나라 이름을 통일하는 등 외형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내면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④의 발표를 들은 후 느낀 점을 써 보자.

④-3. **통일 후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통일 후의 어려움은 휴전선을 허물고 나라 이름을 통일하는 등 외형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내면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출처: 정창우 외(2018), 『중학교 도덕2』, 미래엔, p.135.

출처: 강성률 외(2018), 『중학교 도덕2』, 리베르스쿨, p.126.

[그림 IV-2-11]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5)

중학교 ‘도덕’ 2학년 ‘2-4-3.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단원은 통일이 세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세계 평화를 위해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데 개인 스스로가 해야 할 노력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천재교과서는 통일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세계 평화 기여와 연관시키고 있지 않아서 단위 성격에 맞게 세계 평화와 통일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학사 교과서와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남북한의 교류가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그림 IV-2-12) 참고).

다음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상호 간의 이익과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간의 이해를 증진하여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갈등의 요소가 비교적 적은 분야부터 시작해 교류와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호를 돕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신뢰를 쌓이게 하고 남북한 간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 남북한 간의 교류는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통일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자 훗날 통일 한국에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출처: 추병완 외(2018), 『중학교 도덕2』, 지학사, p.123.

출처: 강성률 외(2018), 『중학교 도덕2』, 리베르스쿨, p.130.

[그림 IV-2-12] 중학교 도덕 교과서 사례(6)

3) 중학교 역사

중학교 2학년 '역사' 교과서 '근·현대 사회의 전개' 단원은 4중단원의 주제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계열성 강화를 위해 중학교는 전근대사 중심의 역사 서술을,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 서술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근현대사가 1개 단원으로 축소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근현대사 서술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는 중학교 역사 수업을 통한 통일교육이 사실상 6·25 전쟁, 분단,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6종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서술 분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2-39>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평화·통일 교육 관련 서술 분량

구분	소재목(세부 주제) 및 분량(쪽)	총 서술 분량(쪽)
미래엔 (pp. 204-207)	① 6·25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다 (2) ②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2)	4
비상교육 (pp. 204-209)	중단원 열기(1) / 1. 남과 북이 분단되다(2) 2. 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다(3)	6

구분	소재목(세부 주제) 및 분량(쪽)	총 서술 분량(쪽)
동아출판 (pp. 198-203)	1. 분단과 6·25 전쟁(2) / 2. 통일을 위한 노력(2) 정리와 점검, 창의 융합활동(2)	6
천재교육 (pp. 198-201)	01. 남북 분단과 6·25 전쟁(2) 02. 남북한의 통일 노력(2)	4
금성출판사 (pp. 180-183)	주제 9. 분단과 6·25 전쟁(2) 주제 10.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2)	4
지학사 (pp. 202-211)	01. 분단과 전쟁(4) / 02.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노력(4) 주제로 보는 역사 -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를 위한 노력(2)	10

위의 표를 보면, 6종 교과서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서술 분량은 4~10쪽으로 지학사를 제외하면 분량이 거의 비슷하다. 내용 분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분단과 6·25 전쟁에 관한 내용을 1차시로, 통일 관련 내용을 2차시로 제시하고 있다. 4중단원의 제목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다. 소재목이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미래엔 교과서만이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다’로 제시하여 ‘평화’와 ‘통일’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5종의 교과서는 모두 ‘통일’만 제시하고 있다(〈표 IV-2-39〉 참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2-40〉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

출판사 (페이지)	서술 내용
미래엔 (p.182)	38도선 이북에서도 김일성을 수상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어
비상교육 (p.205)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 간의 연합으로 정부가 들어섰다.
동아출판 (p.198)	북한에서는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천재교육 (p.198)	한편, 북한에서도 8월 21일 해주에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어 남한 대표를 선출한 뒤, 9월 초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채택하고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금성출판사 (p.180)	북한도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세웠다(1948.9).
지학사 (p.202)	같은 해 9월 9일 김일성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위의 표를 보면, 6종 교과서 대부분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하여 북한의 건국을 서술하고 있다. 대부분 김일성의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천재교육의 교과서가 남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 헌법 채택,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6종의 교과서 모두 북한 관련 서술은 김일성의 북한 정권 수립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6·25 전쟁 발발과 전개를 서술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다(〈표 IV-2-40〉 참고).

6·25 전쟁 이후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소주제의 학습 목표는 〈표 IV-2-41〉과 다음과 같다.

〈표 IV-2-41〉 2015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평화·통일 관련 학습 목표 비교

구분	서술 내용
미래엔 (p.206)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비상교육 (p.207)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동아출판 (p.200)	남북 간의 대화 과정과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천재교육 (p.200)	남북한의 통일 노력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금성출판사 (p.182)	통일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평화 통일의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지학사 (p.206)	분단 이후 남북 간의 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통일이 평화적·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한다.

위의 표를 보면, 6종 교과서는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한 학습 목표로 1) 평화 통일 실천 방안 모색, 2) 남북한의 통일 노력 시기별 이해, 3)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4) 통일의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1)과 3)의 경우는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 목표이며, 2)의 경우는 남북한의 통일 노력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분석함으로써 통일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 목표이다. 4)는 통일의 평화적·민주적 절차와 관련되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학습 목표이다. 따라서 평화 감수성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 목표는 없다(〈표 IV-2-41〉 참고).

6·25 전쟁과 관련하여 6종의 교과서 모두 전쟁 과정을 나타낸 지도, 전쟁 전개 과정과 관련된 사진, 인명피해 도표를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상교육(206), 천재교육(199), 지학사(203), 동아출판(199)은 전쟁고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지학사와 미래엔은 이산가족 찾기 방송 장면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IV-2-13) 참고).



① 가족들이 몹시 년간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출처: 박근칠 외(2020), 『중학교 역사2』, 지학사, p.202.

출처: 김태웅 외(2020), 『중학교 역사2』, 미래엔, p.205.

[그림 IV-2-13] 중학교 역사 교과서 사례

4) 중학교 사회(지리)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 ‘(11)세계 속의 우리나라’ 단원은 ‘지리’ 교과 영역에 해당하며 ‘통일 이후의 국토 공간’을 다룬다. 통일 이후의 국토 공간 단원은 크게 우리나라 위치의 지리적 장점, 국토 통일의 필요성, 통일 이후의 변화와 같은 세 주제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위치의 지리적 장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유라시아 동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륙과 남쪽으로는 해양과 교류하기에 적합한 ‘반도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 분단으로 인하여 반도국의 지리적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



② 우리나라의 위치적 특징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 양방향으로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에 유리하다.

출처: 김영순 외(2018), 『중학교 사회2』, 동아출판, p.204.

[그림 IV-2-14]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 사례(1)

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반도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국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동아출판 교과서는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제시해 대륙과 해양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IV-2-14) 참고).

둘째, 국토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8종 교과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함에 있어 대체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점’을 강조하며 이를 탐구활동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남한의 우수한 경제력(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결합되면 한반도의 개발 잠재력이 신장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다. 천재교과서는 남한과 북한의 인구, 1인당 국민총소득, 군사비, 쌀 생산량, 철광석 생산량, 석탄 생산량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 협력 방안과 통일의 필요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IV-2-15) 참고).



출처: 박형준 외(2018), 『중학교 사회2』, 천재교과서, p.217.

[그림 IV-2-15]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 사례(2)

셋째, 통일 이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통일이 되면 여행 또는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생각하는 활동, 통일 이후에 나타날 진로·직업을 생각하는 활동, 통일 이후의 국토 공간의 변화 모습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박영사 교과서는 한반도 지도에 북한의 주요 지역을 포함하여 각 지역의 이름을 기록한 ‘통일 주사위 놀이판’을 만들어 한라산에서 출발하여 백두산에 먼저 도착한 모듬이 이기는 주사위 놀이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주요 지역명과 위치를 놀이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IV-2-16) 참고).

지역에 따라 다른 말

우리말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부추'를 예로 들어 보면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의 지역 방언은 크게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동남 방언, 서남 방언, 제주 방언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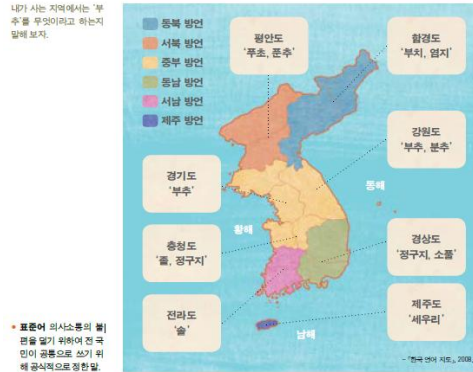
지역 방언은 그 지역만의 정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같은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서로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특정 지역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나도 선생님!

* 다음은 공모전에 낸 학생의 그림이다.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짝과 서로 말해 보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 보자.

설명한 내용과 방법	짝	나
*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를 잘 설명하였나요?	☆☆☆☆☆	☆☆☆☆☆
* 자기 생각을 그림과 연결 지어 잘 설명하였나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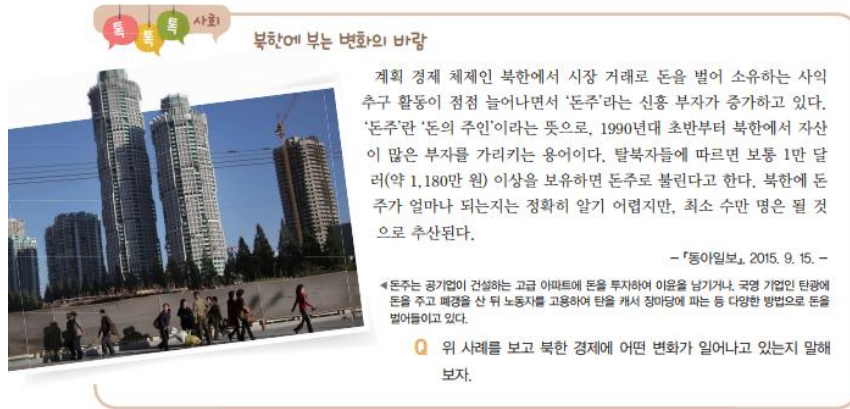
출처: 신유식 외(2020), 『중학교 국어1-1』, 미래엔, p.40.



[그림 IV-2-17] 중학교 국어 교과서 사례(2)

2) 중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천재교육 2학년 교과서의 'Ⅲ. 경제생활과 선택' 단원은 비연계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그런데 천재교육 교과서 56쪽에 제시된 '톡톡톡 사회-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 코너는 북한의 경제 체제를 다루고 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 탐구 역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IV-2-18] 참고).



56 II. 경제생활과 선택

출처: 구정화 외(2018), 『중학교 사회2』, 천재교육, p.56.

[그림 IV-2-18] 중학교 사회 교과서 사례

다.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

본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을 교육과정, 교과서, 교과서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여 시도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분석 대상 교과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있고 해당 교과서도 있는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기술·가정, 정보,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로 설정하였다.

(1) 과목별 교육과정 분석

(가) 국어과: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① 국어

〈표 IV-2-4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국어	듣기·말하기	[10국01-01]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해설] 의사소통의 방법은 개인적 성향뿐 아니라 세대, 성별, 지역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듣기·말하기를 할 때에는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1		
	듣기·말하기	[10국01-02]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한다.		[해설] 내용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이해하게 하여, 대화에서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여 말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								1		
	듣기·말하기	[10국01-03]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해설] 논제에 따라 쟁점을 선정하고 토론의 절차에 따라 논증하며 수준 높은 토론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1	
	듣기·말하기	[10국01-04]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해설] 협상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만족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말한다.									1	
	듣기·말하기	[10국01-05]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해설] 토론과 협상을 수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자기 평가									1	
계					0	0	0	0	0	0	0	5	0	

출처: 교육부(2015b), p. 57.

고등학교 ‘국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듣기·말하기’)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 과목의 총 26개

성취기준 중 5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5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5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0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0국01-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성취기준 해설에서 ‘의사소통의 다양성 이해 및 존중’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국01-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상황과 대상을 고려한 대화’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국01-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수준 높은 토론 능력 향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국01-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국01-05]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토론과 협상을 수행’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국어’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것이 없고 간접 연계된 것들만 있으며 이것들 모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의 ‘토론, 협상, 토의’ 등에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맥락을 추가하여 직접 연계되는 성취기준을 확보하거나,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0국05-03]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의 ‘한국’을 ‘남북한’으로 수정하여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화법과 작문

〈표 IV-2-4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화 법 과 작 문	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2]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 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해설] 화법과 작문을 통해 긍정 적 자기 정체성을 함양하고 타 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 건강한 삶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							1	1
	화법의 원리	[12화작02-02]갈등 상황 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 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		[해설] 대화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처 리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을 배움 으로써 대화 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 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 정							1	
	화법의 원리	[12화작02-03]상대측 입론 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 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해설] 상대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의·응답으로 반대 신문 단계를 운영하면, 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토론이 역 동적으로 전개되고, 토론자 간 생각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져 논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 될 수 있다							1	
	화법의 원리	[12화작02-04]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사용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평가] 상대측 제안을 받아들이 고 수정한 결과뿐 아니라 제인의 교환 과정도 평가하도록 한다.							1	
	작문의 원리	[12화작03-04]타당한 논거 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 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 다.		[해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 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							1	
	작문의 원리	[12화작03-05]사사적인 현 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 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해설]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여 러 관점에서 살펴본 후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문을 쓰도 록 함으로써 경험과 사고를 확 장하고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을 신장하기 위해 설정							1	
	작문의 원리	[12화작03-06]현안을 분석 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 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 다.		[교수·학습] 자신이 쓴 글이 사 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갖추게 한다. 또한 어떤 시안에 대한 해결 방 안을 제시할 때 그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한다.								1
계					0	0	0	0	0	0	6	2

출처: 교육부(2015b), pp. 78-79, p. 82.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의 원리’, ‘작문의 원리’)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법과 작문’ 과목의 총 24개 성취기준 중 7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7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6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2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화작01-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성취기준 해설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공동체의 발전’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화작02-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대화 상황에서의 갈등 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화작02-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상대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 ‘토론의 역동적 전개’, ‘논제에 대한 이해 심화’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화작02-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상대측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정’, ‘제안의 교환 과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화작03-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설득력 높은 글을 쓰는 능력’, ‘설득 전략’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화작03-05]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시사 현안이나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분석’, ‘주장, 견해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글 쓰기’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화작03-06]은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어떤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중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화·통일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가령, 성취기준에서는 토론과 협상 역량을 기른다고만 되어 있을 뿐,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이해를 위한’과 같은 맥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함양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역량(말하기, 쓰기)이 ‘남북한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③ 독서

〈표 IV-2-4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독서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독서	독서의 방법	[12독서02-05]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해설] 여러 글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								1	1
	독서의 분야	[12독서03-05]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평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글을 읽을 때 다양한 문화권의 글에 담겨 있는 인식의 차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문화의 특성을 이해								1	
계					0	0	0	0	0	0	0	2	1

출처: 교육부(2015b), p. 95, 97.

고등학교 ‘독서’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독서의 방법’, ‘독서의 분야’)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 과목의 총 15개 성취기준 중 2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2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독서02-05]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성취기준 해설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 이해’, ‘새로운 대안을 탐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독서03-05]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글에 담겨 있는 인식의 차이 이해’, ‘지역별 문화의 특성을 이해’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독서’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텍스트 속에 담긴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읽어 내는 것, 문제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해보는 것 등은 모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북한 이해, 통일, 분단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직접 연계할 만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예 연결 짓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다. 독서에서의 배움은 결국 어떤 텍스트를 읽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소재의 글이나 활동이 모든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성취기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④ 언어와 매체

〈표 IV-2-4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핵심/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언어 와 매체	언어와 매체의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24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언어와 매체’ 과목이 추구하는 역량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된다(교육부, 2015b: 106).

남북 간 언어 의식 격차가 상당하고 문법 체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봄으로써 통일 이후 국어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2015개정 ‘언어와 매체’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북한 언어 이해 및 사회 문화적 맥락 탐구, 북한 이탈 주민의 국어 생활 및 의사소통 문제 해결, 통일 한국어 모색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일관된 구성이라기보다는 교과서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성취기준에 명시되지 않으면 평화·통일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들을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과서 속에서 일관성 있게 평화·통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에도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⑤ 문학

〈표 IV-2-4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문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문학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4]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교수] 작품을 통해 당대의 사회를 살펴보는 활동,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날의 사회 상황과 비교하거나 작품의 현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평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한국 문학의 발전상 등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한 내용은 토의·토론·읽기·쓰기 등 다양한 언어 활동과 통합하여 평가						1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6]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해설] 국가 단위의 한국 문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문학의 총체로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한편, 분단 이후의 북한 문학과 재외 국민이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을 한민족 문학의 범주에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통일 후 민족 문학의 발전상을 모색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문학에 관한 태도	[12문학04-01]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교수] 작품 감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비교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모둠 활동을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양성 교육의 장으로 활용							1	
	문학에 관한 태도	[12문학04-02]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해설]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1			1
계					0	1	0	0	1	1	1	1

출처: 교육부(2015b), p. 128, 130.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관한 태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 과목의 총 15개 성취기준 중 4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3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0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 통일 실천 역량이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문학03-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성취기준 해설에서 ‘작품을 통해 당대 사회를 살펴보는 활동’,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날의 사회 상황과 비교’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독서03-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분단 이후의 북한 문학’, ‘통일 후 민족 문학의 발전상 모색’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문학04-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작품 감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비교, 소통하는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문학04-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 함양'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문학'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국어과 교육과정 중 유일하게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 문학의 범위에 남한이라는 제약을 두지 않고 한민족 문학으로 확장함으로써 한민족 문학으로서 북한 문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한 점은 평화·통일 교육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북한 문학 작품을 통해 통일 이후 한국 문학의 방향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취기준 [12문학04-01]의 경우 직접 연계이지만 교과서별로 북한 문학을 직접 수록한 양상이 달랐다. 통일 이후의 한국 문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북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북한 문학 작품의 작품성을 직접 느껴보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간접 연계는 되지 않았지만 문학 교과서 분석 과정에서 평화·통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성취기준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형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의 경우 전후 문학을 통해 분단의 비극과 영향 등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전후 문학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평화·통일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사회과: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① 한국사

〈표 IV-2-4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석/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한국사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10한사03-03]3·1 운동 이후 나타난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무장 투쟁, 사회주의 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							1		
		[10한사03-06] 일제의 침략 전쟁에 맞선 민족 운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국가 건설에 대한 구상을 탐구한다.	조선의 용대, 한국광복군, 신국가 건설 구상							1		
	대한민국의 발전	[10한사04-01]8·15 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세계 냉전 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			1						
		[10한사04-02]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5·10 총선,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농지 개혁			1						
		[10한사04-03]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6·25 전쟁, 전후 복구와 생활의 변화, 반공주의와 독재, 원조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			1						
		[10한사04-04]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한·일 협정, 7·4 남북 공동 성명,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교·학]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발표된 자료에 대한 사료 학습과 더불어 다양한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시민의 참여 상황과 민주화 요구를 파악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1		1				
		[10한사04-06]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	6월 민주 항쟁, 시민 사회의 성장	[해설]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과 시민의 참여 상황을 설명하고, 6월 민주 항쟁 이후 정치		1		1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적·제도적 변화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시민 사회의 성장과 참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한다.									
		[10한사04-08] 남북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북한 사회 변화, 평화 통일 노력, 남북 정상 회담,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1		1					
계					0	6	0	3	0	2	0	0	0

출처: 교육부(2018a), p. 149, 151.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주제(‘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 과목의 총 26개 성취기준 중 8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6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6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3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2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0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0한사03-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해설에 ‘다양한 방식의 민족 운동이 전개’, ‘사회주의가 민족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 등을 명시하고 있어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한사03-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일제의 침략 전쟁에 맞선 민족 운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국가 건설에 대한 구상을 탐구’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한사04-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8·15 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세계 냉전 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해'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한사04-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어 남북이 분단되어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분단 상황에서 진행된 식민지 잔재 청산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이해할 수 있기에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한사04-03]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한사04-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4·19 혁명과 그 이후의 정치 변화',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그 의미를 탐구'한다고 명시되어 있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한사04-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 '시민 사회의 성장과 참여'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한사04-08]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남북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현대사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평화·통일교육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북 분단의 영향 및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의 내용 자체가 평화·통일교육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통일 탐구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 탐구 역량 중에서도 북한·분단 이해 요소가 두드러지고 평화·통일 의미 탐구나 미래 탐구 요소는 거의 없다. 앞으로 한국사 과목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은 북한 및 분단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 감수성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통합사회

〈표 IV-2-4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통합 사회	문화와 다양성	[10통사07-04]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문화 사회	[교·학] 브레인스토밍이나 토론 수업, 논술 등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평가]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는 글을 분석하게 한 후, 어떤 관점이 미래 한국 사회의 통합에 가장 바람직한지를 논술한다.								1		
	세계화와 평화	[10통사08-02]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해설] 지구촌 곳곳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의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다루고, 평화의 중요성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여 다룬다.								1	1	1
	세계화와 평화	[10통사08-03]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평화	[해설] 남북 분단의 배경과 통일 의 필요성,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다룬다. 아울러 국제적 위상, 역사적 상황,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제 사회의 평화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1	1	1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10통사09-03]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해설] 미래 지구촌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자신이 지구촌의 구성원이라는 점과 관련지어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1
계					0	1	1	1	0	1	2	2		

출처: 교육부(2018a), p. 134, 136, 138.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단원(‘문화와 다양성’, ‘세계화와 평화’,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사회’ 과목의 총 29개 성취기준 중 4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3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2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2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0통사07-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통사08-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 ‘국제 갈등과 협력’,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 중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성취기준 [10통사08-03]의 경우,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 갈등 상황 분석’,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 방안’,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직접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0통사09-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먼저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성취 기준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이 누락되었다는 점, 글로벌·다문화 시대에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이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10통사04-03]의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을 추가하고, 성취기준 [10통사07-04]의 성취기준 해설에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되 포함하되, 민족 구성원이라는 점을 함께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과 관련된 성취기준에서 사회 구성원 혹은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 미래 지구촌의 문제점(인구, 자원 문제 등)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동적 참여’ 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10통사09-03]의 ‘자신의 미래의 삶의 방향’을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미래의 삶의 방향’로 수정하고, 성취기준에 ‘역량’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사회’의 교육과정에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통사08-02]와 같이 ‘평화’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취기준에 비평화 요소에 대한 민감성과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동아시아사

〈표 IV-2-4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12동사01-01]동아시아 세계의 범위를 파악하고 각국 간의 관계와 교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	[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1		1
	오늘날의 동아시아	[12동사05-01]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알아보고,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심화·해체 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한다.	38도선, 한반도 분단,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닉슨 독트린, 한·중 수교			1						
		[12동사05-02]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발전 모습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주체사상, 3대 세습				1					
		[12동사05-03]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해설] 각국의 노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국제적 차원의 활동 등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여 화해 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도록 한다.						1		1
계					0	2	0	0	0	2	0	2

출처: 교육부(2018a), p. 197, 203.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주제(‘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오늘날의 동아시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사 과목의 총 16개 성취기준 중 4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2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0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2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2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동사01-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동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와 교류의 역사를 이해', 성취기준 해설에 '동아시아의 평화 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동사05-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심화·해체 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이 명시되어 있어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동사05-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동아시아 각국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발전 모습을 비교하여 파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동사05-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각국의 노력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국제적 차원의 활동 ... 화해 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등에 '평화', '협력', '갈등 해결' 등의 용어 및 개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 과목의 목표가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쁨으로써 상호 협력의 전통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등에 ‘통일’을 언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도 한국사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통일 탐구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들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평화 감수성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 세계사

〈표 IV-2-5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세계사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12세사05-02]제1,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 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해설] 세계 대전을 경험한 국제 사회가 전쟁의 재발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을 이해한다. [평가] 전쟁 영화, 전쟁 중 남겨진 개인의 일기를 바탕으로 참전 병사의 가상 편지 또는 가상 일기 쓰기, 평화 UCC 만들기 등의 활동을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하여 반전 평화 의식, 공존 공영의 가치관 형성을 돕는다.					1	1	1	1
	현대 세계의 변화	[12세사06-01]냉전 체제의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에 대해 조사한다.	냉전 체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탈냉전, 세계 질서의 재편	[교·학 냉전 체제를 구성하는 양 진영에 대한 내용을 고루 다룸으로써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한국, 독일, 베트남 등의 사례를 통해 냉전 체제가 각국의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1						
		[12세사06-02]세계화와 과학 기술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현대 사회의 갈등과 분쟁	[해설]세계화·정보화·과학 기술의 발달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한다.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		1
계					0	1	0	0	1	2	1	2

출처: 교육부(2018a), pp. 214-215.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주제('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사 과목의 총 16개 성취기준 중 3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0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2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2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세사05-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평화 의식, 공존공영의 가치관 형성', '제1,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세사06-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한국, 독일, 베트남 등의 사례를 통해 냉전 체제가 각국의 역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세사06-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원인을 규명',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 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등에 '평화', '갈등 해결' 등의 용어 및 개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 세계화, 과학 기술 발달로 인한 문제 등 여러 세계 문제들이 언급되지만 남북의 통일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갖는 세계 차원의 의미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세계사 교육과정에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⑤ 경제

〈표 IV-2-5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경제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과 경제활동												
	국가와 경제활동												
	세계 시장과 교역												
	경제생활과 금융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19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쟁점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8a: 218).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와 같은 성취기준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8a: 220).

⑥ 정치와 법

〈표 IV-2-5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정치 와 법	정치과정과 참여	[12정법03-03]정당, 이익집 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정당, 이익집 단, 시민단체, 언론	[평가]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시민 참여 양상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 하다.							1	1
	국제 관계와 한반도	[12정법06-03]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 제 질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국 제 관계, 한반 도의 국제 질서	[해설]이 성취기준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 를 토대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충 돌하는 국가 주권의 문제를 분 석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국제 관계의 방향을 탐구한다.						1		
계					0	0	0	0	0	1	1	1

출처: 교육부(2018a), p. 235, 240.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정치과정과 참여’, ‘국제 관계와 한반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와 법’ 과목의 총 18개 성취기준 중 2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정법03-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시민 참여’, ‘일상생활에서 실천’, ‘선거 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정법06-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분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정법01-02]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평화·통일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고, 정치의 기본적 속성에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 탐구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교육부, 2018a: 232, 235).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정치와 법’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 ‘분석’과 ‘탐구’를 강조하고 ‘역량’이나 ‘감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12정법01-02]의 ‘헌법의 기본 원리’를 ‘평화’와 ‘통일’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화하고, 성취기준 [12정법03-01]의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에 민주적·평화적 의사소통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8a: 232, 235). 또한 성취기준 [12정법06-03]의 ‘외교적 관점’을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적 관점’으로 수정하고, 성취기준에 ‘역량’이나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⑦ 사회·문화

〈표 IV-2-5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사회·문화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4]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세계시민, 지속가능한 사회	[해설] 이 성취기준을 통해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교·학] 특정한 사회 변동 양상과 관련하여 학습자 자신이 10년쯤 후에 직면하게 될 변화를 예상해 보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1
계					0	0	0	0	0	0	0	0	0	1

출처: 교육부(2018a), p. 252.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현대의 사회 변동’)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 과목의 총 20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

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사문05-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실천이 중요’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다문화 범주에 ‘북한 이탈 주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8a: 249, 252).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사회·문화’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평화·통일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성취기준이 없다는 점, ‘분석’과 ‘탐구’는 강조하되 ‘역량’이나 ‘감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12사문05-03]의 해설에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집단’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명시’하고, 성취기준 [12사문05-04]의 해설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실천’이 ‘평화를 지향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문제를 ‘평화 감수성’ 차원에서 다루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취기준에 ‘역량’이나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⑧ 한국지리

〈표 IV-2-5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한국 지리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12한지07-02]북한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 특성, 북한 개방 지역과 남북 교류의 현황 을 파악하고 통일 국토의 미래 상을 설계한다.	북한의 자연환 경 및 인문환 경, 북한의 개 방 지역과 남 북 교류, 각 지 역의 특성, 통 일 국토의 미 래상	[해설]이전 계통 지리 대단원을 통해 학습한 개념·원리를 적용 하여 북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 하도록 한다. 북한의 개방 지역 과 남북 교류의 현황을 파악하 고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 할 수 있다. [평가]‘남한’ 지역과는 달리 ‘북 한’ 전체를 하나의 등질 지역으 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의미 있는 지역의 지역성에 대 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이 제 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 력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계					0	1	0	0	0	0	0	0	0

출처: 교육부(2018a), p. 170.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지리’ 과목의 총 28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0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한지07-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계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의 이해’, ‘통일 국토의 미래를 상상’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북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 개방 지역과 남북교류 현황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의 이해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지리’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성취 기준에서 ‘통일’이 ‘평화·통일’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 ‘사실 이해’와 ‘통일의 미래’는 강조하나 ‘역량’이나 ‘감수성’,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12한지07-02]의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평화와 통일 국토의 미래상’으로 수정하고, 성취기준에 ‘역량’이나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제시되었듯이 북한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몇 개의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한 지역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평화·통일교육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⑨ 세계지리

〈표 IV-2-5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세계 지리	평화와 공존의 세계	[12세지08-03]세계의 평화 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 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세계의 평화와 정의	[해설]세계화가 더욱 진행되면 서 지구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 서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세계 각 지역 및 국가 의 사람들은 상호 공존과 지구 촌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교·학지구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일들 등에 관한 학습에 있어서는 사실 탐구와 가치 탐 구를 바탕으로 한 소모둠 단위 의 토의·토론 학습이 효과적일 것이다.						1		1	1
계					0	0	0	0	1	0	1	1	

출처: 교육부(2018a), p. 191.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평화와 공존의 세계’)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지리’ 과목의 총 28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0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0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세지08-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평화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 ‘공동체로서 존재’, ‘지구촌의 평화’, ‘토의·토론 학습’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 평화 감수성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성취기준에서 ‘평화’만 언급되고 ‘통일’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교과서에서는 직접 연계로 제시될 부분이 있으나 성취기준 차원에서는 직접 연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12세지08-03]과 그 해설 등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도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① 생활과 윤리

〈표 IV-2-5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생 활 과 윤 리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12생윤01-02]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유교윤리, 불교윤리, 도교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과학적 접근	[해설]윤리 이론들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여 일상적 윤리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1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12생윤01-03]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1		
	사회와 윤리	[12생윤03-03]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제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1	
	문화와 윤리	[12생윤05-03]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특징, 다문화주의 이론, 윤리적 상대주의와 보편윤리, 관용, 종교의 발생,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종교 간 갈등의 유형과 원인, 종교 간 갈등 극복을 위한 자세	[해설]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첫째,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관용의 태도를 지니며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종교를 이해되 종교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 및 차별적 태도의 위험성을 이해하여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1		1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1]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1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 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 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2]동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 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 신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 적·국가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 평화의 가치, 동일 비용과 분단 비용, 남 북한의 갈등, 국제 질서 및 평화, 남북 화 해 및 평화를 위한 실천 방 안, 독일 통일 의 사	[해설]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첫 째, 학생들이 민족의 분단과 갈 등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들을 평화, 인권, 자유 등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민 족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가적, 개 인적 노력에 대해 탐구하고 성 찰해 봄으로써 통일 시대를 준 비하는 미래의 주체로서의 능력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1	1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3]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 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 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 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 에서 정당 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1
계					0	1	1	1	1	1	1	4	3

출처: 교육부(2015c), p. 39, 41, pp. 44-45.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사회와 윤리’, ‘문화와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과 윤리’ 총 18개 성취기준 중 7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6개였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1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4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3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생윤01-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지만 ‘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생윤01-02]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성취기준 [12생윤03-03]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생윤05-03]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과 ‘관용의 태도’, 그리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어 평화 감수성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생윤06-01]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성취기준 [12생윤06-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며,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의 이해,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 설명,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의 구체적 제시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직접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성취기준에서 ‘통일’이 ‘평화·통일’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 평화 감수성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다. 특히, 성취기준 [12생윤06-02]는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평화 민감성이나 평화 성향 내면화, 평화의 가치 공감과 같은 평화 감수성 역량과의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민감성과 공감 능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② 윤리와 사상

〈표 IV-2-5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윤 리 와 사 상	인간과 윤리사상	[12윤사01-01]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해설]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먼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탐구·비교하여 학생들의 인간 이해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1		
	사회사상	[12윤사04-05]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윤리적 문제점들,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들, 바람직한 자본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한 개인윤리, 사회윤리, 세계시민윤리 차원의 노력 등	[해설]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먼저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자유, 권리의 신장에 크게 기여한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탐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1	1	
	사회사상	[12윤사04-06]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세계시민윤리 차원의 노력								1		1
계					0	0	0	0	0	0	1	2	2

출처: 교육부(2015c), p. 54, 5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인간과 윤리사상’, ‘사회사상’)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리와 사상’ 총 22개 성취기준 중 3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3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2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2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윤사01-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지만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등이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되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성취기준 [12윤사04-05]도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으나 ‘우리 사회가 ...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탐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주적· 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윤사04-06]도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지만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 ‘세계시민윤리 차원의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간접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상적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에도 평화 감수성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 과목이 평화의 가치에 대한 사상적 이해라는 평화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넘어 정의적 측면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비평화 요소에 대한 민감성,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 능력 등 평화 감수성 역량을 반영하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수학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① 수학

〈표 IV-2-5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수학	문자와 식												
	기하												
	수와 연산												
	함수												
	확률과 통계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수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41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학은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d: 45). 또한 ‘교수·학습 방법’ 항목의 “모둠 내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참여를 통해 공동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와 같은 안내는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d: 55).

② 수학 I

〈표 IV-2-5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수학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수학 I	해석											
	대수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수학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9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d: 61). 또한 ‘교수·학습 방법’ 항목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둠 내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한다.”와 같은 안내는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d: 67, 69).

③ 수학II

〈표 IV-2-6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수학I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수학 II	해석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수학I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의 총 21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d: 72). 또한 ‘교수·학습 방법’ 항목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둠 내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한다.”와 같은 안내는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d: 78-79).

④ 미적분

〈표 IV-2-6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미적분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미 적 분	해석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미적분’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의 총 27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d: 83). 또한 ‘교수·학습 방법’ 항목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둠 내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한다.”와 같은 안내는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d: 90-91).

⑤ 확률과 통계

〈표 IV-2-6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확률 과 통계	확률과 통계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의 총 17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d: 94). 또한 ‘교수·학습 방법’ 항목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둠 내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한다”와 같은 안내는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d: 100-101).

(마) 과학과: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① 통합과학

〈표 IV-2-6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통합 과학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통합과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3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럼에도 과학과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으로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목표’ 항목에서는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라고 총괄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볼 수 있다(교육부, 2015e: 90).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0통과08-03]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104).

② 과학탐구실험

〈표 IV-2-6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과학 탐구 실험	역사 속의 과학탐구												
	생활 속의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과학탐구											
	첨단 과학탐구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15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0과탐02-04] 분야 간 협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적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116).

③ 물리학 I

〈표 IV-2-6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물리학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물리 학 I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물리학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단원의 총 23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수·학습 방향’ 항목에서 “물리학 및 물리학과 관련된 과학 상식과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료를 읽고, 이를 활용한 과학 글쓰기와 토론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와 같은 지침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131).

④ 화학 I

〈표 IV-2-6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화학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화학 I	화학의 첫걸음												
	원자의 세계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역동적인 화학 반응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화학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단원의 총 23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화학 I 01-01] 화학이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을 ‘화학이 식량 문제, 의류 문제, 주거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면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146).

⑤ 생명과학 I

〈표 IV-2-6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생명과학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생명 과학 I	생명과학의 이해												
	사람의 물질대사												
	항상성과 몸의 조절												
	유전												
	생태계와 상호작용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생명과학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단원의 총 23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생과 I 05-06] 생물 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에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의 사례를 조사하여’ 등을 추가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남북을 잇고 있는 백두대간이나 ‘비무장 지대의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다면 통일 탐구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173).

⑥ 지구과학 I

〈표 IV-2-6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지구과학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지구 과학 I	지권의 변동												
	지구의 역사												
	대기와 해양의 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별과 외계 행성계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지구과학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6개 단원의 총 26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지과 I 04-04]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과 기후 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e: 200).

(바) 기술·가정/정보: 기술·가정, 정보

① 기술·가정

〈표 IV-2-6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기술·가정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 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기술·가정’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3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과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취기준들이 있었다. ‘[12기가02-01] 한식의 우수성과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의 식생활과 접목한 음식을 만들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한다.’, ‘[12기가02-02] 한복의 미적, 기능적 특징과 다른 나라의 의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의복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창의적인 의생활을 제안한다.’, ‘[12기가02-03] 한옥의 가치와 다른 나라의 주거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주거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주거생활을 실천한다.’와 같은 성취기준들이 그것이다(교육부, 2015f: 36). 이러한 성취기준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음식, 의복, 주거 등 북한 생활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함양한다면 통일 탐구 역량을 비롯한 평화·통일 교육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정보

〈표 IV-2-7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정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정보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											
계					0	0	0	0	0	0	0	

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29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정보’ 교과는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과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컴퓨터과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창의·융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네트워크 컴퓨팅 기반 환경의 다양한 지식 공동체, 학습 공동체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 효율적 의사소통, 협업 능력을 함양한다.” 등을 교과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f: 95).

또한 연계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12정보04-09]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협력하여 설계한다.’ 등과 같은 성취기준은 남북의 평화·통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f: 129).

(사) 체육과: 체육, 운동과 건강

① 체육

〈표 IV-2-7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체육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체육’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19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과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연계 가능성을 지닌 성취기준들이 있었다. ‘[12체육03-04] 경쟁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존중 및 배려를 실천하고 반성한다.’, ‘[12체육03-05] 신체 표현 양식과 창작 원리에 따라 느낌이나 생각, 감정 소통을 움직임 표현에 적용하여 신체 문화를 이해하고 탐색한다.’와 같은 성취기준들은 평화 성향 내면화와 관련하여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될 수 있다(교육부, 2015g: 60-61). 공정하고 올바른 경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적 성향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수정·보완한다면 평화 감수성을 비롯한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운동과 건강

〈표 IV-2-7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운동과 건강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운동과 건강	운동과 건강의 관계												
	운동과 건강 관리												
	운동과 안전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운동과 건강’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10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운동과 건강’은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획적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임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5g: 73). 여기서 ‘사회적 건강’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운동과 건강’ 과목은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아) 음악과: 음악

〈표 IV-2-7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핵심/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음악	표현											
	감상											
	생활화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음악’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11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음악과 교육과정은 ‘성격’ 항목에서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음악’ 과목은 평화·통일교육과 연계가 가능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h: 24).

또한 연계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성취기준 ‘[12음02-03]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듣고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지어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는 ‘다양성 이해’와 관련하여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취기준 ‘[12음03-03]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는 ‘남북한 전통 음악의 변화를 이해하고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로 수정한다면, 통일 탐구 역량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h: 27, 28).

(자) 미술과: 미술

〈표 IV-2-7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음악	체험												
	표현												
	감상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미술’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3개 영역의 총 13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인 ‘미술 문화 능력’을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15i: 23).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성격을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 요소의 제시를 통해 평화·통일교육과 연계하여 성취기준에 반영한다면, 평화 감수성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연계 가능성을 지닌 성취기준들이 있었다. ‘[12미01-03] 현대의 사회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미술을 통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와 같이 미술의 사회 참여적 특성을 반영하는 성취기준과 ‘[12미03-01]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다양성 이해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취기준들은 평화·통일, 북한 이해 등의 맥락으로 구체화된다면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i: 26, 28).

(차) 연극: 연극

〈표 IV-2-7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연극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연극	체험	[12연극02-03]주제와 목적 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연습한다.	연극 만들기 과정, 주제, 이 야기, 연출, 연 기, 스태프, 연 습, 공연, 무대 정리, 평가	[해설] 이 성취기준들은 효과적 인 무대 형상화를 위하여 연기 를 수정, 보완하고, 각 분야별 디자인을 이미지로 구현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도록 설정하였다.								1	
계					0	0	0	0	0	0	0	1	0

출처: 교육부(2015o), p. 242.

고등학교 ‘연극’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체험’)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극’ 과목의 총 19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이 0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연극02-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연습한다’, ‘발생하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설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간접 연계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교육부, 2015o: 242).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연극’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구체적인 주제나 대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성취기준 등에 ‘감수성’ 증진과 ‘협력’을 이루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맥락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면 평화 감수성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 영어과: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I

① 영어

〈표 IV-2-7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영어	말하기	[10영02-03]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교수] 찬반 의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짝 활동, 학습자 수준에 맞는 흥미 있는 주제를 정하여 모둠별로 토론하거나 발표하는 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1		
계					0	0	0	0	0	0	1	0	

출처: 교육부(2015j), p. 41.

고등학교 ‘영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말하기’)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과목의 총 21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1개 모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10영02-03]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성취기준 해설에서 ‘찬반 의견이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모둠별 토론’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영어’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의 영역별 지침 부분에서 “모둠 활동과 같은 학습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등 공동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글의 맥락 및 목적에 맞도록 타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등 공동체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영어’ 과목은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된다(교육부, 2015j: 41, 45).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이 중심이 되어 있다. 하지만 핵심 내용 파악, 표현의 유창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평화·통일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역량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평화·통일교육의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갈등 해결의 측면을 강화하여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② 영어회화

〈표 IV-2-7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영어 회화	듣기												
	말하기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영어회화’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0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영어회화’ 과목이 추구하는 역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형식에 맞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국제적 안목을 갖고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된다(교육부, 2015j: 53).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영어회화’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사소통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토론, 협상과 같은 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측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설정한다면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영어 I

〈표 IV-2-7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영어 I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영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2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영어 I’ 과목이 추구하는 역량이 ‘영어 의사소통능력’, ‘협동 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등임을 밝히고 있고, ‘읽기’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영어 I’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된다(교육부, 2015j: 61, 74).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영어 I’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직·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사소통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친숙한 일반적 주제’라는 추상적인 맥락 하에 진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맥락으로 명시함으로써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영어 독해와 작문

〈표 IV-2-7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영어 독해 와 작문	읽기												
	쓰기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은 없었다. 다만 ‘읽기’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태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연계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성취기준 ‘[12영독04-05] 미래의 계획이나 진로 등에 관하여 글을 쓸 수 있다.’는 통일 한반도와 관련된 미래의 계획이나 진로 등에 관한 글을 쓰는 것으로 구체화된다면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교육부, 2015j: 77).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영어 독해와 작문’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과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사소통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진로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및 표현 능력과 같은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친숙한 일반적 주제’, ‘비교적 다양한 주제’라는 추상적인 맥락 하에 진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맥락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⑤ 영어II

〈표 IV-2-8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영어I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영어 II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영어I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23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성취기준은 없었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영어II’ 과목이 추구하는 역량이 ‘창의적 사고력’, ‘바른 인성’,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국제적 안목을 가진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등임을 밝히고 있고, ‘읽기’ 영역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판단된다(교육부, 2015j: 87).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영어II’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평화·통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사소통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관련짓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성취기준이 ‘(비교적) 다양한 주제’라는 추상적인 맥락 하에 진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갈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맥락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타) 제2외국어: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① 독일어 I

〈표 IV-2-8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독일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독일 어 I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독일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6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평가’ 항목에서 “독일어권 문화를 학습하여 문화 간 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른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i: 112).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독 I-05-02] 독일어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12독 I-05-03] 독일어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12독I-05-04] 독일어권 사회문화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에 냉전 체제에서 분단 상황을 겪고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을 비교하는 맥락을 추가한다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직·간접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118).

② 프랑스어 I

〈표 IV-2-8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프랑스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프랑스어 I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프랑스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21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목표’ 항목에서 “프랑스어권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타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159).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프 I-05-01]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낱말이나 표현에 함축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시 활용한다.’, ‘[12프 I-05-02] 프랑스어권의 대표적인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12프 I-05-03] 프랑스어권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12프 I-05-04] 프랑스어권의 대표적인 교육문화, 사회문화, 예술문화, 그 외 특징적인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12프 I-05-05] 프랑스어권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발표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167).

③ 스페인어 I

〈표 IV-2-8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스페인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스페 인어 I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스페인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7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목표’ 항목에서 “스페인어와 스페인어권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I: 201).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스 I -05-03] 스페인어권의 문화에 대해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에 스페인 내전을 6. 25 전쟁과 비교하는 맥락을 명시한다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직·간접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I: 209).

④ 중국어 I

〈표 IV-2-8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중국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중국 어 I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중국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9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목표’ 항목에서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기른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비롯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250).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중 I-05-04] 중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비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와 같은 성취기준도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257).

⑤ 일본어 I

〈표 IV-2-8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일본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일본 어 I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일본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24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목표’ 항목에서 “일본 문화의 이해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른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비롯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294).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일 I- 05-04]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표현한다.’와 같은 성취기준도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304).

⑥ 러시아어 I

〈표 IV-2-8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러시아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러시 어 I	언어적 내용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I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러시아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6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성격’ 항목에서 “러시아가 남북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러시아어는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언어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목표’ 항목에서도 “러시아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어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346).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러 I -05-02]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문화유산(역사, 풍습 등)을 잘 나타내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에 러시아와 연관된 냉전 체제와 사회주의 유산을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하는 맥락이 추가된다면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 직·간접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352).

⑦ 아랍어 I

〈표 IV-2-87〉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아랍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아랍 어 I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아랍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7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목표’ 항목에서 “아랍인의 일상생활과 아랍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포용과

창조의 덕목을 갖춘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389).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아 I-05-05] 아랍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상호 비교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395).

⑧ 베트남어 I

〈표 IV-2-8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베트남어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베트남어 I	언어적 내용												
	문화적 내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베트남어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16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성격’ 항목에서 “베트남은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 교역 국가로 부상하는 등,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이면서 개방개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한 베트남은 남북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있어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443).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베 I-05-01] 베트남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활용한다.’, ‘[12베 I-05-02]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12베 I-05-03] 베트남 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모둠 활동에 참여한다.’, ‘[12베 I-05-04] 베트남 문화에 대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한다.’와 같은 성취기준들에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의 상황과 한반도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북한을 비교하는 맥락 등을 추가한다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직·간접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450).

(Ⅲ) 한문과: 한문 I

〈표 IV-2-8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한문 I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한문 I	한문의 이해												
	한문의 활용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한문 I’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의 총 21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목표’ 항목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m: 3).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한문 I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m: 38).

(하) 교양과: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① 철학

〈표 IV-2-90〉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철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철학	자이론												
	인간론												
	세계론												
	가치론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철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자아론’, ‘인간론’, ‘세계론’ ‘가치론’)의 총 12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철학함을 통하여 청소년은 비판적 능력을 키우고 모든 문제 상황을 자유롭게 탐구하여 올바른 앎을 갖춘 개인으로 성장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된다.”, “고등학교 철학 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비판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논변 역량, 가치 정립 역량, 그리고 타인과의 공감 및 연대 역량 등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목표’ 항목에서 “논증과 토론 등의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합당한 근거와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정립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n: 3, 4, 8).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철학02-02] 자기의 사고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② 논리학

〈표 IV-2-9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논리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논리학	논증의 분석과 유형	[12논리01-02]쟁점이 되는 주장을 결론으로 놓고, 근거를 전제로 삼아 논증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이를 통해 논증인 것과 논증이 아닌 것의 차이를 이해한다.	전제, 결론, 근거, 주장	[해설] 추론은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가 논증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또한 논증을 제시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 주장을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교·학] 학생들이 하여금 논리학의 중요 개념은 우리의 실제 삶과 무관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 결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 비추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논증의 활용	[12논리05-04]토론과 논쟁에서 각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 논증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이렇게 재구성된 논증을 평가한다.	논증의 재구성, 토론과 논쟁의 차이								1	
계					0	0	0	0	0	0	2	0

출처: 교육부(2015n), p. 21, 27.

고등학교 ‘논리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논증의 분석과 유형’, ‘논증의 활용’)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논리학’ 과목의 총 21개 성취기준 중 2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2개 모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12논리01-02]와 [12논리05-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쟁점’, ‘토론과 논쟁’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논리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성취기준에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이해’와 ‘분석’을 강조하고 ‘역량’과 ‘감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해설에 ‘평화·통일이 필요한 논리’ 등 평화·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해 주거나, 성취기준에 ‘역량’이나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③ 심리학

〈표 IV-2-92〉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심리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심리학	사회적 정체성	[12심리03-02]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타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사회 인지 개념을 이해한다.	갈등과 갈등 해소	[해설] 집단 속에서 긍정적 대인 관계와 부정적 대인 관계의 사례를 통해 갈등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게 한다. [교·학] 각 집단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기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대로 인해 갈등 상황이 발생하 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주론할 수 있 도록 한다.									
계					0	0	0	0	0	0	0	1	0

출처: 교육부(2015n), p. 39.

고등학교 ‘심리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사회적 정체성’)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학’ 과목의 총 24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1개 모두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12심리03-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갈등’, ‘문제 상황의 해결’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심리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성취 기준에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이해’와 ‘태도’를 강조하고 ‘역량’이나 ‘감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 ‘분단이 국민 심리에 끼치는 영향’, ‘통일이 국민 심리에 끼칠 영향’, ‘북한 주민과의 심리적 거리’ 등 분단, 평화·통일, 북한이해와 관련된 주제를 제시해 주거나, 성취기준에 ‘역량’이나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④ 교육학

〈표 IV-2-93〉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교육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교육 학	미래 사회와 평생 교육	[12교육04-03]변화하는 미 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 육은 어떠한지 탐구한 다.	사회 변동과 교육, 위험 사 회와 위험 관 리	[교·학 타율적이고 지사적인 교 육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주체적으로 기획, 설계하는 능 력을 갖추도록 한다.						1			
계					0	0	0	0	0	1	0	0	0

출처: 교육부(2015n), p. 54.

고등학교 ‘교육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미래 사회와 평생 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학’ 과목의 총 20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1개 모두 통일 탐구 역량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12교육04-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미래에 적극 대처’, ‘탐구’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교육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성취 기준에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이해’와 ‘태도’를 강조하고 ‘역량’이나 ‘감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취기준 [12교육04-03]의 성취기준 해설에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추가하고, 그 중 하나로 ‘통일된 한반도’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성취기준에 ‘역량’이나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⑤ 종교학

〈표 IV-2-94〉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종교학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종교 학	현대 사회와 종교	[12종교05-02]다종교 사회 에서 상호 공존을 위해 종교 차별 금지, 종교 간 평등 등의 필요성과 함께, 종교 간 대화 의 필요성과 방식을 이해한다.	다종교 사회, 종교 간 갈등 과 대화, 차이 와 차별	[해설] 여러 종교에는 기본적으 로 시대·지역 등의 차이가 담긴 문화가 있다. 이런 차이는 다종 교 사회에서 종종 종교적 신념 에 의해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 다. 그렇지만 상호 공존을 위해 서는 종교 차별 금지, 종교 간 평등 등의 필요성과 함께, 충분 한 상호 이해와 대화, 종교의 차 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학] 다종교·다문화 사회에 서 차이와 차별의 구분, 인권 감 수성, 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1		1	
		[12종교05-03]인권 감수성 의 관점에서 여러 종교의 현실 을 이해한다.	종교와 인권, 종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인권 감 수성	[해설] 현대 사회에는 종종 낙 태,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생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종 교는 이러한 생명과 생태계 문 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법을 제 시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그렇 지만 종교계가 제시한 여러 해 법은 종종 과학적 해법과 마찰 을 빚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세 계의 미래를 위해 생명과 생태 계 문제가 중요한 만큼, 종교계 가 제시하는 해법의 내용, 그리 고 문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의 차이와 연결 고 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개별 종교들의 이해	[12종교06-04]개별 종교가 지향하는 미래의 사회적·문화 적 실천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여러 영향을 이해한다.	종교와 다문화 사회	[해설] 개별 종교는 시민운동의 참여뿐 아니라 복지, 언론, 민간 외교,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 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런 사회적·문화적 활동은 종교 적 이상 세계의 실현을 위한 자 발적 실천이기도 하고, 국가나 지역 사회의 요청을 수용한 결 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사회 적·문화적 실천이 지역 사회나 국가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 어 그 실천의 내용과 영향을 함 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계					0	0	0	0	2	1	1	1	1

출처: 교육부(2015n), pp. 68-69.

고등학교 ‘종교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2개 영역(‘현대 사회와 종교’, ‘개별 종교들의 이해’)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학’ 과목의 총 41개 성취기준 중 3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3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2개, 통일 탐구 역량이 1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1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종교05-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대화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관점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종교05-03]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인권 감수성의 관점’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 감수성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종교06-04]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미래’, 사회적·문화적 실천’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일 탐구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종교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성취 기준에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이해’와 ‘태도’를 강조하고 ‘역량’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인권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을 강조한 성취기준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해설 등에 ‘통일을 위한 각 종교의 노력’을 사회적 실천에 연계하여 서술하고, 성취기준에 ‘역량’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⑥ 진로와 직업

〈표 IV-2-9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진로 와 직업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진로 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4개 영역의 총 38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진로와 직업’ 과목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능(技能, skill)은 사고 기능(thinking skills)으로 예측하기, 추론하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일반화하기, 가정하기, 분석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평가하기 등이 있으며, 사회적 기능(social skills)으로 주의 깊게 듣기, 명료하게 설명하기, 바꾸어 말하기, 격려하기, 타인의 의견 수용하거나 반박하기, 합의 도출하기, 요약하기 등이 있다.”, “‘진로와 직업’은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역량, 진로 탐색 역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역량의 4가지 역량을 설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n: 73-74).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진로01-04] 상황(사적 대화, 발표, 회의 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n: 77).

⑦ 보건

〈표 IV-2-96〉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보건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보건	건강 생활 기술	[12보07-01]흡연·음주, 일탈 등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협상, 거절, 갈등 관리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건강 의사소통 기술(협상, 거절, 갈등 관리), 공동체 건강 의사 결정, 건강 증진 등(국가와	[해설] 의사소통이 관계 및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고, 흡연·음주, 일탈 등 상황별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 거절, 갈등 관리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12보07-02]공동체의 건강 의사 결정 사례를 합리성을 근거로 평가하고, 공동체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 대안 탐색, 조정, 계획 수립, 실천 및 평가 등 의사 결정 방 안을 제시한다	제)	[해설] 공동체의 건강 의사 결정 사례를 합리성을 근거로 평가하 고,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의사 결정 과정에서 건강 정보·자원 등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교·학 건강하고 원만한 인간관 계를 위한 갈등 예방 기술 및 합 리적인 거절·협상 등 의사소통 기술을 역할극, 시나리오 완성 하기를 통하여 연습·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12보07-03]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직면한 건강 문제를 탐색하고, 건강 정보·자원의 활용과 관련지어 건강 증진 옹 호 활동에 참여한다.		[해설]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참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후 변화, 신종 감염병 등 국가, 국 제 수준에서 직면한 건강 문제 와 건강에 유해한 행위와 환경 을 탐색하도록 한다. 건강 증진 옹호 활동과 관련된 인적, 물적, 사회적 정보와 자원을 탐색하여 국가와 세계 수준의 건강 증진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계					0	0	0	0	0	0	0	2	1

출처: 교육부(2015n), p. 119.

고등학교 ‘보건’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건강 생활 기술’)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 과목의 총 35개 성취기준 중 3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3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이 0개, 통일 탐구 역량이 0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이 2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 1개로 나타났다.

성취기준 [12보07-01]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협상, 거절, 갈등 관리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취기준 [12보07-02]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1개 영역(‘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 과목의 총 36개 성취기준 중 1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0개이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의 경우 1개 모두 평화·통일 실천 역량에 해당한다.

성취기준 [12환경04-06]은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간접 연계에 해당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화·통일 실천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환경’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평화’나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해’, ‘방안 제시’를 강조하고 ‘역량’이나 ‘감수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한반도 생태 환경에 미칠 영향’이나 ‘비무장지대가 지니는 생태학적 의미’ 등을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하고, 성취기준에 ‘역량’과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⑨ 실용 경제

〈표 IV-2-98〉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실용 경제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실용 경제	개인과 국가의 경제생활												
	소득과 소비												
	저축과 투자와 보험												
	부채와 신용												
	취업과 창업												
계					0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실용 경제’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15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목표’ 항목에서 “실용 경제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 실천 능력을 길러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n: 147).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실경01-01]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석 등을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등과 관련하여 통일 탐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n: 147).

⑩ 논술

〈표 IV-2-99〉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논술 교육과정 분석

과목	영역/단원/ 주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 기준 해설/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논술	논술과 비판적 사고												
	분석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문제 해결적 글쓰기												
	자료 활용과 학습 윤리												
계					0	0	0	0	0	0	0	0	

고등학교 ‘논술’ 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5개 영역의 총 29개 성취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논술은 다양한 교과 학습 및 독서 활동 등을 통해 학습한 분과 학문적 지식을 통합하여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과 통합적 성격을 지닌다.”, “논술 과목은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정보 처리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의 함양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통일 탐구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5n: 159).

또한 연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12논술01-01] 논술이 합리적 설득 및 지식(정보)의 수용과 전달을 위한 학문적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임을 이해한다.’, ‘[12논술02-07] 글쓰기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을 찾아 논리적 순서로 재배열하는 방법을 익힌다.’, ‘[12논술03-01] 합리적 설득 및 학문적 의사소통에서 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한다.’와 같은 성취기준은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n: 163, 165, 167).

한편 인터넷과 뉴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교과에 반영하여, ‘SNS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해 논리적 글을 쓰고, 서로 소통하며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활동’을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명시한다면,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분석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집필 기준’은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경제), 역사과에만 있고, ‘편찬상의 유의점’은 국어과, 사회과, 역사과, 도덕과, 수학과, 과학과, 영어과에만 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논의와의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평화·통일교육 관련 지침 및 유의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학, 과학, 영어는 생략하여,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국어, 사회, 도덕 교과로 분석 및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가) 고등학교 국어과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100〉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2. 제재 선정 기준

④ 시대, 지역, 사회의 다양성 : 과거에서 현대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 지역이나 사회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 등 언어와 매체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여러 종류의 자료를 선정하되, 학습자의 수용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다.

출처: 교육부(2015q), p.32.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집필 기준’의 ‘제재 선정 기준’ 항목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언어와 매체’ 과목은 연계 성취기준을 보유하지 못한 과목이지만 이와 같이 집필 기준에 통일, 북한 관련 제재를 선정하도록 명시하면 평화·통일교육 관련 제재가 교과서에 포함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101〉 고등학교 문학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3.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가. 내용의 선정

(7) 제재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문학사적 기준과 비평적 안목에 비추어 문학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한다.

(나) 내용과 형식, 표현 면에서 문학의 전범이 되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다) 학습자의 관심 및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작품을 선정한다.

(라)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적 동질감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

출처: 교육부(2015r), p.366.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항목은 제재 선정 시 유의할 사항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과 북의 문화적 동질감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학’ 과목은 연계 성취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과목이기는 하지만, 편찬상의 유의점에 통일, 북한 관련 제재를 선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비연계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단위에서도 통일, 북한 관련 제재가 포함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고등학교 사회과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상 직접 연계 성취기준을 보유한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지리 중 한국사, 한국지리는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이 있으나,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그러한 항목이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10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라. 대한민국의 발전

남한 정부와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 정치와 남북 관계의 변화는 국제 정세의 동향에 유의하면서 설명한다. 민주화 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유념하며 서술한다. …(중략) …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시민 사회의 움직임을 서술한다. …(중략) … 국제 사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의 남북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평화 인착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설명한다.

출처: 교육부(2018b), p.5.

위의 표에서 남한은 ‘정부’, 북한은 ‘정권’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103〉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3. 내용의 선정과 조직

(8)국토 분단, 주변국과의 영역 갈등, 환경 훼손, 지역 격차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문제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출처: 교육부(2015r), p.374.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의 ‘내용의 선정과 조직’ 항목은 국토 분단 문제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파악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분단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한국지리 교과서는 없다. 북한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북한의 개방 지역 등과 같은 사실과 통일 한국의 미래 정도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다) 고등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2-10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용도서 집필 기준 중 평화·통일교육 관련 항목

□ 북한 이해 및 통일교육

- 바람직한 통일은 평화, 인권, 정의, 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 대북지원문제, 북핵문제 등에 관해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집필한다.
- 분단 비용, 통일 비용 등에 대해 기술할 때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민족 내부적 통일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함을 균형 있게 기술한다.
- 통일 한국은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관점을 학생들이 형성하도록 집필한다. 특히 통일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불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점, 한민족의 번영 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다룸으로써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
- 통일 이후 남북한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기술한다.
-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통일 이후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집필한다.

출처: 교육부(2015q), pp. 60-61.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집필 기준’은 통일이 ‘평화’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통일이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 통일 이후에도 상호 이해와 관용 및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필 기준은 대체로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들이지만, 학생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보다는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 ‘한민족의 번영’ 등 민족 중심의 거대 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 한국’이라는 남한 중심의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다.

(3) 교과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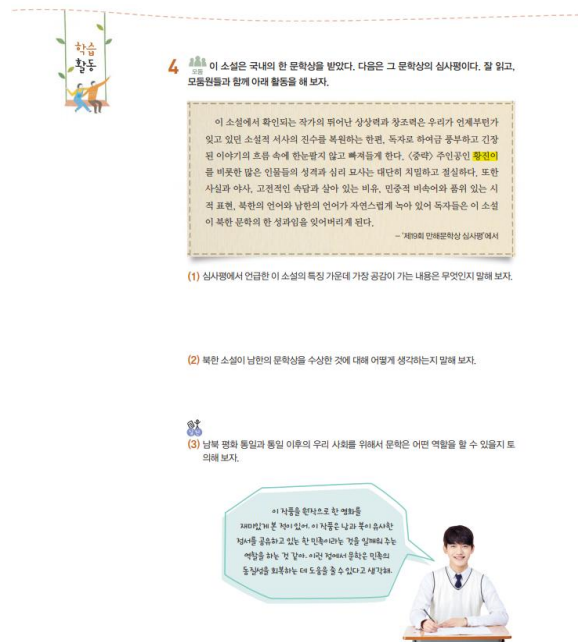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분석에서와 같이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서의 사례와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서의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사례

고등학교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과목)은 국어과(문학), 사회과(통합사회), 역사과(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지리과(한국지리), 도덕과(생활과 윤리) 등이다.

1) 고등학교 국어과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교과서의 ‘4.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3) 한국 문학의 확장발전’ 단원에서는 북한 문학 <황진이>를 통해 학생들이 북한의 문학 작품을 접하고 통일 이후 한민족 문학의 방향, 미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 남북의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우리 사회를 위한 문학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작품만으로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에 대한 종합적 탐구에 한계가 있으나, 남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북한 작품으로서 남한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작품도 우리 민족 문학임을 보여주는 데 제재 선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V-2-19] 참고).



출처: 정호웅 외(2018),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p.306.

[그림 IV-2-19]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사례

2) 고등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IV. 대한민국의 발전 /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원은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권 수립,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농지 개혁 등을 학습 요소로 한다. 미래엔 교과서는 해방 후부터 냉전 체제 속에서 남북한 분단 과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당시 냉전 및 좌우 대립 및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세력과 그 이후 김일성 독재 체제 형성에 관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북한 정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학사 교과서는 남북한 정권의 정치·경제 제도를 비교하는 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그림 IV-2-20] 참고).

구분	남한	북한
정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공화제 • 다당제, 대통령제 • 경쟁적 선거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가 체제 • 노동당 독재, 내각제 • 비경쟁적 선거 제도
경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경제 • 사영·국유·공유 기업의 보장 • 사적·배타적 토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경제 • 주요 산업 국유화 •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

· 자료: 1948년 대한민국 헌법, 1948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1946년 북한 토지 개혁 법령, 1949년 남한 농지 개혁법, 1948년 남한 국회 의원 선거법, 1948년 북한 최고 인민 회의 선거법

출처: 송호정 외(2020),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p.240.

역사 이야기 북한 정권에 참여한 세력



● 김일성



● 김두봉



● 박헌영



● 허가연

오늘날 '3대 세습' 체제를 형성한 북한도 정권 출범 당시에는 몇 개의 정치 세력이 함께하였다. 첫째는 만주의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되어 무장 투쟁을 전개한 항일 유격대 세력이다. 여기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조국 광복회를 조직한 일부 국내 공산주의 세력이 포함되었다. 대표적 인물로 김일성, 김책 등이 있다.

둘째는 중국 화북 지방(연안)을 무대로 활동하던 조선 독립 동맹 계열이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대표적 인물로 김두봉, 김무정(조선 의용군 사령관) 등이 있다.

셋째는 광복 후 재건된 국내의 조선 공산당 세력이다. 이후 남북 공산당이 갈라지면서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을 형성하였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에서는 주도권을 빼앗겼다. 대표적 인물은 박헌영이다.

넷째는 이른바 소련파라 불리는 세력이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출신으로 소련 군정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양성되어 북한에 파견되었으며, 대표적 인물은 허가연이다.

이 중 북한 정권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세력은 대중적 지지와 소련의 강력한 후원을 받은 김일성과 항일 유격대 세력이다. 이들은 6·25 전쟁과 이후의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나머지 세력들을 제거하고, 1960년대에는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를 형성하였다.

출처: 한철호 외(2020),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p.244.

[그림 IV-2-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례

3) 고등학교 사회과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세계화와 평화’ 단원은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단원이다. 특히,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세계 평화 지수’를 활용하여 분단과 평화·통일의 연관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교과서는 남북 분단에 관한 내용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역사 갈등이나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이 남북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스케일에서 평화·통일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그림 IV-2-21) 참고).



출처: 정창우 외(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p.247.

〔그림 IV-2-21〕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사례

4) 고등학교 지리과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Ⅶ. 우리나라의 지역이해’ 단원은 북한의 자연 환경 및 인문 환경의 특성, 북한 개방 지역과 남북 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일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단원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북한에 잡곡 음식 문화의 원인 탐구, 남북 교역액 현황 자료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그림 IV-2-22) 참고).



출처: 박철웅 외(2017), 『고등학교 한국지리』, 미래엔, pp.176-182.

[그림 IV-2-22]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사례

5) 고등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단원은 통일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과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개인적·국가적 노력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과서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성출판사 교과서만이 인권 문제를 남한과 북한 모두 개선이 필요한 주제로 보았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모두 인권 문제를 북한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서술을 보였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인권 개선의 문제를 북한만의 문제로 표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림 IV-2-23] 참고).

생각을 순추게 하는

활동

지도 tip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한 인권적 논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통일이 줄 수 있는 비경제적 혜택인 인권의 보장 측면에서 통일을 검토해 보자.

시사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

세력이나 권력 따위가 늘어나다. 또는 늘어나게 하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측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측면: 북한 주민의 인권의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논의될 만큼 심각하다. 따라서 통일을 통해 사회적 인권 문제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통일은 필요하다.
남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측면	남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측면: 인권 보장은 평화 구축에서 시작될 수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이나, 평화를 구축하여 완전한 인권 보장의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196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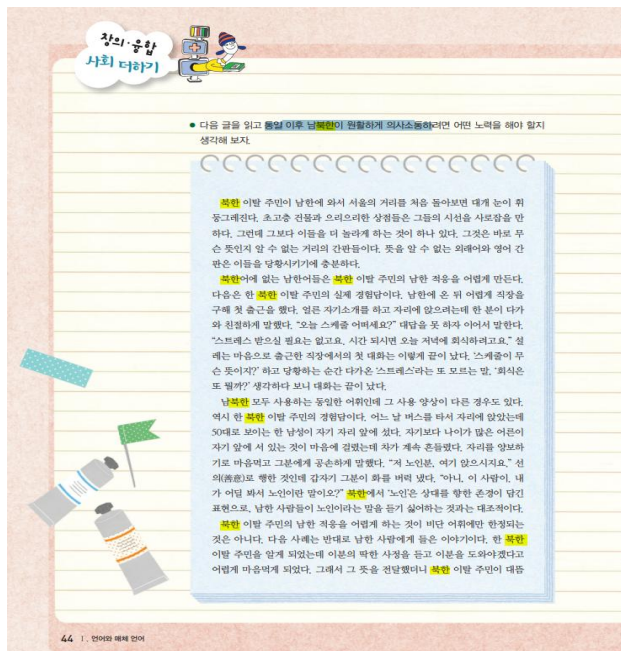
출처: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p.196.

[그림 IV-2-23]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사례

(나)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 사례

고등학교의 경우, 간접 연계 및 비연계 성취기준이 교과서에 직접 연계로 반영된 교과는 국어, 사회 등이다.

고등학교 국어과의 ‘언어와 매체’ 과목에는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없으나 천재교육 교과서의 ‘1. 언어와 매체 언어 / 2. 매체와 매체 언어’ 단원에 마무리 활동으로 제시된 ‘창의·융합 사회 더하기 활동’은 통일 탐구 역량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이 활동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는 활동이다. 제시된 텍스트를 토대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학생들이 모색해봄으로써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이질감을 줄여나갈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는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부족하더라도 교과서에서 분단, 통일, 북한 등과 관련한 제재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그림 IV-2-24) 참고).



출처: 민현식 외(2018),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p.44.

[그림 IV-2-24]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 사례

고등학교 사회과의 '경제' 과목에는 직접 연계 성취기준이 없으나, 지학사 교과서는 분단 비용 및 통일 비용 관련 내용을 'Ⅲ. 국가와 경제활동' 단원의 '법교과 교실' 코너에 '통일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제목의 자료로 수록하고 있다. 남북 분단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전제 하에 분단으로 인한 비용(연도별 국방비 추이)과 통일에 드는 비용(위기관리 비용, SOC 투자 비용, 제도 통합 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에 따른 편익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지하자원의 확보, 육로를 통한 물류 산업 활성화를 들고 있다. 분단된 지 70여 년이 넘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 자료와 같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용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분단으로 인한 비용 중 국방비만 제시된 것은 아쉽다. 분단 비용이 클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방비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비용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통일 이후 우리의 문화 역량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그림 IV-2-25) 참고).



출처: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pp.130-131.

[그림 IV-2-25]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사례

3. 시사점

지금까지 초·중·고 교육과정 현황을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 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그리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의 시사점

〈표 IV-3-1〉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총괄

[단위: 개]

구분	성취 기준 총수	직접 연계 수	간접 연계 수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현
통합교과	81	3	2	1	3	0	2	2	0	1	0
국어	82	0	5	0	0	0	0	0	0	5	0
사회	72	2	7	1	2	0	1	2	0	6	3
도덕	24	2	4	2	2	0	2	4	0	4	1
수학	128	0	0	0	0	0	0	0	0	0	0
과학	113	0	0	0	0	0	0	0	0	0	0
실과	40	0	0	0	0	0	0	0	0	0	0
체육	72	0	0	0	0	0	0	0	0	0	0
음악	22	0	0	0	0	0	0	0	0	0	0
미술	29	0	0	0	0	0	0	0	0	0	0
영어	45	0	0	0	0	0	0	0	0	0	0
안전한 생활	25	0	2	0	0	0	0	0	0	0	2
계	733	7	20	4	7	0	5	8	0	16	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전 교과 총 733개 성취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27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7개,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통일교육 핵심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있는 과목은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사회, 도덕이며,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있는 과목은 통합교과, 국어, 사회, 도덕, 안전한 생활이었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 수가 많은 교과(과목)는 통합교과(3개), 사회(2개), 도덕(2개) 순이었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 수가 많은 교과(과목)는 사회(7개), 국어(5개), 도덕(4개), 통합교과(2개), 안전한 생활(2개)

순이었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들을 4개 핵심 역량으로 분류할 경우, 통일 탐구 역량(7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5개), 평화·감수성 역량(4개) 순이었고,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으로 분류된 성취기준은 없었다. 또한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들을 4개 핵심 역량으로 분류할 경우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16개), 평화 감수성 역량(8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6개) 순이었고, 통일 탐구 역량으로 분류된 성취기준은 없었다.

나.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의 시사점

〈표 IV-3-2〉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 총괄

[단위: 개]

구분	성취 기준 총수	직접 연계 수	간접 연계 수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국어	51	1	4	0	1	0	1	1	0	4	0
지리	38	1	8	0	1	1	0	2	1	3	5
일반사회	36	0	6	0	0	0	0	0	0	3	3
역사	45	1	2	0	1	0	1	0	0	0	2
도덕	23	2	7	1	2	0	1	5	0	5	5
수학	61	0	0	0	0	0	0	0	0	0	0
과학	92	0	0	0	0	0	0	0	0	0	0
기술·가정	54	0	4	0	0	0	0	0	0	1	3
정보	17	0	1	0	0	0	0	0	0	0	1
체육	54	0	6	0	0	0	0	1	0	1	4
음악	11	0	0	0	0	0	0	0	0	0	0
미술	15	0	0	0	0	0	0	0	0	0	0
영어	34	0	0	0	0	0	0	0	0	0	0
계	531	5	38	1	5	1	3	9	1	17	23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 중 선택 교과를 제외한 전 교과 총 531개 성취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43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5개,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통일교육 핵심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있는 과목(영역)은 국어, 사회(지리), 사회(역사), 도덕이며,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있는 과목(영역)은 국어, 사회(지리), 사회(일반 사회), 사회(역사),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이었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 수가 많은 과목(영역)은 도덕으로 2개였고, 국어,

사회(지리), 사회(역사)는 모두 1개였다.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 수가 많은 과목은 사회(지리)(8개), 도덕(7개), 사회(일반 사회)(6개), 체육(6개), 국어(4개), 기술·가정(4개), 사회(역사)(1개), 정보(1개) 순이었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들을 4개 핵심 역량으로 분류할 경우, 통일 탐구 역량(5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3개), 평화·감수성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각 1개) 순이었다. 또한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들을 4개 핵심 역량으로 분류할 경우, 평화·통일 실천 역량(23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17개), 평화 감수성 역량(9개), 통일 탐구 역량(1개) 순이었다.

다.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분석의 시사점

〈표 IV-3-3〉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총괄

[단위: 개]

구분	성취 기준 총수	직접 연계 수	간접 연계 수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국어	26	0	5	0	0	0	0	0	0	5	0
화법과 작문	24	0	7	0	0	0	0	0	0	6	2
독서	15	0	2	0	0	0	0	0	0	2	1
언어와 매체	24	0	0	0	0	0	0	0	0	0	0
문학	15	1	3	0	1	0	0	1	1	1	1
한국사	26	6	2	0	6	0	3	0	2	0	0
통합사회	29	1	3	0	1	1	1	0	1	2	2
동아시아사	16	2	2	0	2	0	0	0	2	0	2
세계사	16	1	2	0	1	0	0	1	2	1	2
경제	19	0	0	0	0	0	0	0	0	0	0
정치와 법	18	0	2	0	0	0	0	0	1	1	1
사회·문화	20	0	1	0	0	0	0	0	0	0	1
한국지리	27	1	0	0	1	0	0	0	0	0	0
세계지리	28	0	1	0	0	0	0	1	0	1	1
생활과 윤리	18	1	6	0	1	1	1	1	1	4	3
윤리와 사상	22	0	3	0	0	0	0	0	1	2	2
수학	41	0	0	0	0	0	0	0	0	0	0
수학Ⅰ	19	0	0	0	0	0	0	0	0	0	0
수학Ⅱ	21	0	0	0	0	0	0	0	0	0	0
미적분	27	0	0	0	0	0	0	0	0	0	0
확률과 통계	17	0	0	0	0	0	0	0	0	0	0
통합과학	32	0	0	0	0	0	0	0	0	0	0
과학탐구실험	15	0	0	0	0	0	0	0	0	0	0

구분	성취 기준 총수	직접 연계 수	간접 연계 수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물리학 I	23	0	0	0	0	0	0	0	0	0	0
화학 I	23	0	0	0	0	0	0	0	0	0	0
생명과학 I	23	0	0	0	0	0	0	0	0	0	0
지구과학 I	26	0	0	0	0	0	0	0	0	0	0
기술 가정	32	0	0	0	0	0	0	0	0	0	0
정보	29	0	0	0	0	0	0	0	0	0	0
체육	19	0	0	0	0	0	0	0	0	0	0
운동과 건강	10	0	0	0	0	0	0	0	0	0	0
음악	11	0	0	0	0	0	0	0	0	0	0
미술	13	0	0	0	0	0	0	0	0	0	0
연극	19	0	1	0	0	0	0	0	0	1	0
영어	21	0	1	0	0	0	0	0	0	1	0
영어회화	10	0	0	0	0	0	0	0	0	0	0
영어 I	22	0	0	0	0	0	0	0	0	0	0
영어독해작문	12	0	0	0	0	0	0	0	0	0	0
영어 II	23	0	0	0	0	0	0	0	0	0	0
독일어 I	16	0	0	0	0	0	0	0	0	0	0
프랑스어 I	21	0	0	0	0	0	0	0	0	0	0
스페인어 I	17	0	0	0	0	0	0	0	0	0	0
중국어 I	19	0	0	0	0	0	0	0	0	0	0
일본어 I	24	0	0	0	0	0	0	0	0	0	0
러시아어 I	16	0	0	0	0	0	0	0	0	0	0
아랍어 I	17	0	0	0	0	0	0	0	0	0	0
베트남어 I	16	0	0	0	0	0	0	0	0	0	0
한문 I	21	0	0	0	0	0	0	0	0	0	0
철학	12	0	0	0	0	0	0	0	0	0	0
논리학	21	0	2	0	0	0	0	0	0	2	0
심리학	24	0	1	0	0	0	0	0	0	1	0
교육학	20	0	1	0	0	0	0	0	1	0	0
종교학	41	0	3	0	0	0	0	2	1	1	1
진로와 직업	38	0	0	0	0	0	0	0	0	0	0
보건	35	0	3	0	0	0	0	0	0	2	1
환경	36	0	1	0	0	0	0	0	0	0	1
실용 경제	15	0	0	0	0	0	0	0	0	0	0
논술	29	0	0	0	0	0	0	0	0	0	0
계	1,269	13	52	0	13	2	5	6	13	33	2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 교과 58개 과목 총 1,270개 성취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65개 성취기준이 평화·통일교육 핵심 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3개,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5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통일교육 핵심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있는 과목은 문학,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등 7개 과목이었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있는 과목은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연극, 영어,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보건, 환경 등 21개 과목이었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 수가 많은 교과(과목)는 한국사(6개), 동아시아사(2개), 문학(1개), 통합사회(1개), 세계사(1개), 한국지리(1개), 생활과 윤리(1개) 순이었고,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 수가 많은 교과(과목)는 화법과 작문(7개), 생활과 윤리(6개), 국어(5개), 문학(3개), 통합사회(3개), 윤리와 사상(3개), 종교학(3개), 보건(3개), 독서(2개), 한국사(2개), 동아시아사(2개), 세계사(2개), 정치와 법(2개), 논리학(2개), 사회·문화(1개), 세계지리(1개), 연극(1개), 영어(1개), 심리학(1개), 교육학(1개), 환경(1개) 순이었다.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들을 4개 핵심 역량으로 분류할 경우, 통일 탐구 역량(13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5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2개) 순이었고, 평화·감수성 역량으로 분류된 성취기준은 없었다. 또한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들을 4개 핵심 역량으로 분류할 경우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33개), 평화·통일 실천 역량(21개), 통일 탐구 역량(13개), 평화 감수성 역량(6개) 순이었다.

〈표 IV-3-4〉 초·중·고 교육과정 분석 총괄

[단위: 개]

구분	성취 기준 총수	직접 연계 수	간접 연계 수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평화 감수성	통일 탐구	민주적 평화적 소통	평화 통일 실천
초등학교	733	7	20	4	7	0	5	8	0	16	6
중 학교	531	5	38	1	5	1	3	9	1	17	23
고등학교	1,270	13	52	0	13	2	5	6	13	33	21
계	2,534	25	110	5	25	3	13	23	14	66	50

〈표 IV-3-4〉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총 2,534개 성취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그중 135개 성취기준(5.33%)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5개(0.99%),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10개(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가 전체 성취기준 중 약

1%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소수의 관련 성취기준이 <표 IV-3-5>와 같이 도덕, 사회(역사, 지리), 국어 등 일부 교과(과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표 IV-3-5> 연계 성취기준 보유 과목 현황

구 분	직접 연계 성취기준 보유 과목	간접 연계 성취기준 보유 과목	연계 성취기준 미보유 과목
초등학교	통합교과, 사회, 도덕	통합교과, 국어, 사회, 도덕, 안전한 생활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 학교	국어, 지리, 역사, 도덕	국어, 지리, 일반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정보, 체육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영어
고등학교	문학,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한국사, 통합사회,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영어,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보건, 환경, 연극	언어와 매체, 경제,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기술·가정, 정보,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영어회화, 영어Ⅰ, 영어독해작문, 영어Ⅱ,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철학, 진로와 직업, 실용 경제, 논술

<표 IV-3-5>에 나타난 학교급 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중→고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화 감수성 역량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일 탐구 역량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경우 학교급을 막론하고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고, 고등학교의 경우 평화 감수성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화 감수성 역량과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경우 초·중·고 통산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가 다른 두 핵심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각각 5개, 3개), 간접 연계 성취기준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다(각각 23개, 66개). 이는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가 부족한 핵심 역량의 경우 간접 연계 성취기준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직접 연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는 초·중·고 학교급

총합 3개인 반면, 간접 연계 성취기준 수는 총합 65개로 나타났다. 이는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 등을 주제로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직접적인 학습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초점이 평화와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조정아 외, 2019: 1), 초·중·고 학교급 공히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V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

1.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교 현장 요구 분석
2.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요구 분석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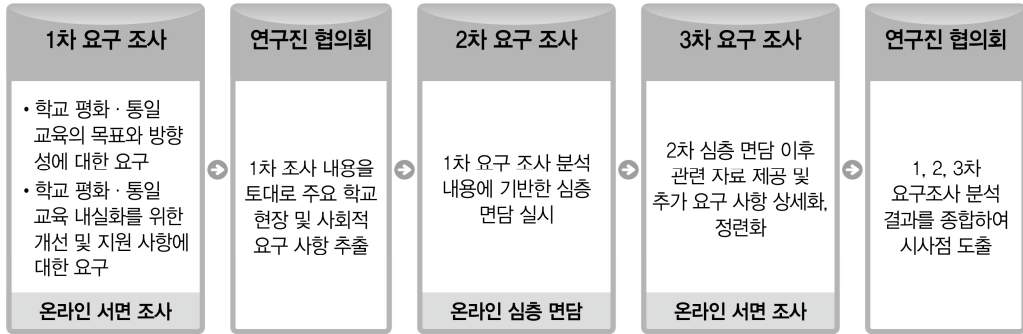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이 실제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변화, 개선, 지원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총 3단계에 걸쳐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서면 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계별 요구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차 요구 조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문제점, 변화해야 할 점, 강조되어야 할 점,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개방형 조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 요구 조사는 1차 요구 조사에서 수합된 개방형 조사지들을 연구진이 종합 분석하여 도출한 범주(개념 및 방향,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자료, 교사 연수, 법과 제도 등)에 기반하여 심층 면담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학교별 및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자료는 녹취 파일의 전사를 통해 문서화하였다.

3차 요구 조사는 1, 2차 요구 조사 내용에 기반하여 심층 면담 시 연구진이 추가 요청한 학교 평화·통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그 문제의식을 더 구체화하거나, 2차 요구 조사에서 개선된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1, 2, 3차에 걸친 요구 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요구 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차에 걸쳐 수합된 자료들은 1차 요구 조사에서 도출한 범주에 기반하여 각 범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 차별화된 시사점이 드러나는 의견에 대한 연구진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진 간 상호 검토를 거친 뒤 각 범주 안에서 수집된 유의미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묶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V-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조사 수행 절차

〈표 V-1〉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파악을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요구 조사의 대상, 방법,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학교 현장의 요구 조사를 위해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6개교(초·중·고 학교급별 2개 학교)와 일반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 담당자 및 기타 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담 대상 학교는 학교급, 학교 규모,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정도(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구 조사를 위해 정부, 학계, 유관 단체, NK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와 교육부 관계자,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학교 평화·통일 관련 연구나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교수), 평화·통일 관련 유관 단체, 초·중·고에 재직 중이면서 탈북학생들을 지원하고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NK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구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1, 3차는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V-1〉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요구 조사 대상, 방법, 기간

구분	1차 요구 조사	2차 요구 조사	3차 요구 조사
조사 대상 (총 36명)	교사 (1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 고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사 (12명) • 초, 중, 고 일반학교 교사 (5명) 	
	정부 관계자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2명) • 교육부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2명) 	
	학계 전문가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교수, 연구원) (3명) • 평화/통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교과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참여한 교수 (5명) 	

구분	1차 요구 조사	2차 요구 조사	3차 요구 조사
	시민 단체 (2명) NK교사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2명) • 대부분 북한에서 교직경력을 가진 탈북교사로, 현재 일선 학교에서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통일전담교육사로 근무하거나 탈북학생을 교육하고 있음. (5명) 	
조사 방법	개방형 조사	심층면담	개방형 조사
유효 표본	총 36표본	총 36표본	총 35표본*
조사 기간	2020년 8월 ~ 9월	2020년 9월	2020년 9월 ~ 10월

* 1차와 2차 조사에는 참여하였으나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1인)하여, 인원 조정이 발생함.

1차와 2차 조사는 학교 현장 요구 분석 대상자 17명, 사회적 요구 분석 대상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심층 면담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심층 면담 시기 및 방법은 <표 V-2>와 같다.

<표 V-2> 심층 면담 대상자 상세 정보

구분	심층 면담 대상	면담 대상자 및 소속기관 배경 정보	면담 인원 및 시기
학교 현장 요구 분석	연구 학교 (초) A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1: 연구학교 주무 담당자, 교과전담(영어·도덕·음악, 4, 5학년) • 교사-2: 연구학교 담당자, 5학년 체육 * 학교 특징: 2년차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대전광역시 소재의 신도심 대단지 아파트 내 위치하며 교육비 지원 대상자 비율이 높은 학교임. 학생 1120명 45학급의 과대 학교, 학급당 학생 수 25명 내외임. 	2명 2020.09.09.
	연구 학교 (초) B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3: 연구학교 주무 담당자, 과학전담. 2020 강원도 남북 교육 교류를 위한 교사협의회 회원 • 교사-4: 연구학교 재직 교사 * 학교 특징: 2년차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강원도 소재의 학교로, 휴전선 접경지역의 6학급 소규모 학교임. 평화·통일교육 관련 인프라와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음. 대부분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음. 인근에 군부대가 많아 군 자녀가 많음. 	2명 2020.09.07.
	연구 학교 (중) A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5: 연구학교 주무 담당자, 국어, 주제선택 국어(통일로 미래로 세계로), 1년 * 학교 특징: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소규모 중학교로, 휴전선 접경 지역에 위치함. 인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비롯하여 평화누리 공원 등이 있고 북한과 거리상 가까운 마을임. 학생들이 평화, 통일, 북한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1명 2020.09.03.
	연구 학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6: 연구학교 주무 담당자, 국어(1,2학년) • 교사-7: 연구학교 담당자, 사회(1,3학년) * 학교 특징: 2년차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2명 2020.09.04.

구분	심층 면담 대상	면담 대상자 및 소속기관 배경 정보	면담 인원 및 시기
	B학교 교사	- 울산과 경주의 경계에 위치한 농어촌 학교이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다문화,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편임. 울산 외곽 지역에 위치하다보니 울산의 도심이나 부 도심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수 년 간 연구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들이 통일 관련 수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2명 2020.09.09.
	연구 학교 (고) A학교 교사	• 교사-8: 연구학교 주무 담당자,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3학년), 2018년부터 부산교육청 통일교육 지원단 소속 교사, 2020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한국교육개발원 평화·통일교육 자료개발 위원으로 활동 • 교사-9: 연구학교 담당자, 수학, 평화·통일 동아리 운영 * 학교 특징: 1년차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부산광역시 소재의 학교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관심과 의지가 높은 편임.	
	연구 학교 (고) B학교 교사	• 교사-10: 연구학교 주무 담당자, 윤리(1학년 통합사회, 2학년 윤리와 사상, 3학년 고전과 윤리) • 교사-11: 전년도 연구학교 주무 담당자, 역사(1학년 한국사, 3학년 사회문제탐구) • 교사-12: 2016년부터 3년간 통일 동아리 선도학교 담당, 이전 학교에서 2012년부터 3년간 통일 연구학교 담당, 국어(3학년) * 학교 특징: 2년차 학교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경상남도 소재의 대규모 학교이며 비평준화지역으로 공립학교 중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비교적 중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모인 학교임. 임시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일반 학교	일반 학교 (초) 교사	• 교사-13: 12년 경력을 가진 교사로 4학년 학년부장을 맡고 있음. • 교사-14: 19년 경력을 가진 교사로 연구부장을 맡고 있음. 통일교육 관련 업무 경력은 3년 이상임. 4학년 담당. * 학교 특징: 경기도에 소재한 공단지역의 혁신학교로 교사 재직 기간이 대체로 길고 젊은 교사가 많음.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임.	2명 2020.09.09.
	일반 학교 (중) A학교 교사	• 교사-15: 도덕(2학년), '통일교육주간'에 페스티벌 참가 및 공모전 진행 * 학교 특징: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공립중학교로, 학생 수 약 480명, 교원 수 40명대의 학교임. 상대적으로 서울 외곽에 있어 교육열이 높지 않은 편이며 가정환경은 다양한 편임.	1명 2020.09.07.
	일반 학교 (중) B학교 교사	• 교사-16: 30년 경력을 가진 교사로 역사 과목과 자유 학년 주제선택 수업을 담당. 통일교육 동아리 선도학교 운영, 평화·통일교육 선도 핵심교원, 2019학년도 통통 평화학교 자문역, 2018학년도 통일교육연구대회 담당(전국2위) * 학교 특징: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학교로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이 많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편임.	1명 2020.09.08.
	일반 학교 (고) 교사	• 교사-17: 도덕·윤리 담당, 1학년 통합사회, 2학년 생활과 윤리, 3학년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탐구 담당 * 학교 특징: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사립 남자고등학교로 학년 별로 8개 학급이 운영 되는 규모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교육청 모의고사 통계 자료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가까움. 학교 소재지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소수 재학 중임.	1명 2020.09.08.
소계		9개교(연구학교 6개교, 일반학교 4개교)	17명

구분	심층 면담 대상	면담 대상자 및 소속기관 배경 정보	면담 인원 및 시기	
사회적 요구 분석	정부	통일부 담당자	• 담당자-1: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1명 2020.09.15.
		통일부 담당자	• 담당자-2: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사이버·뉴미디어 교육 운영 총괄	1명 2020.09.17.
		교육부 담당자	• 담당자-3: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1명 2020.09.14.
		교육부 담당자	• 담당자-4: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후 고등학교 복귀	1명 2020.09.10.
	학계	평화/ 통일 전문가	• 전문가-1: 00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통일한국, 북한인권, 통일외식 분야 등 연구	1명 2020.09.16.
			• 전문가-2: 통일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북한 교육, 북한 사회, 통일교육 분야 등 연구	1명 2020.09.11.
			• 전문가-3: 00대학교 평화학과 교수로, 평화학, 평화교육 분야 연구	1명 2020.09.10.
		교과 교육 전문가	• 전문가-4: 00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통일 시대 국어교육 관련 연구, 거래말근 사전/통일교육지침서/중학교 국어 교과서 남북한 언어 단원 등 집필	1명 2020.09.10.
			• 전문가-5: 00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교육과정 연구, 북한 역사교육 및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등 연구	1명 2020.09.10.
			• 전문가-6: 00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로,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교육과정 등 관련 연구 수행	1명 2020.09.15.
			• 전문가-7: 00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통일교육 연구 및 강의, 통일교육연구센터장 역임	1명 2020.09.10.
			• 전문가-8: 00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민주시민교육, 통일교육, 학교평화교육 관련 연구	1명 2020.09.15.
	유관 단체	• 관련단체-1: 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로, 학교/단체 대상 온/오프라인 탈분단 평화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있음.	1명 2020.09.08.	
		• 관련단체-2: 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로, 학교평화·통일교육, 통일캠프, 평화워크숍 등 평화·통일교육사업 수행, 평화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명 2020.09.10.	
	NK 교사	NK 교사 (초) A학교	• NK교사-1: 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로, 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학부모상담, 방과 후 활동, 지역사회 연계) 및 학교 통일교육 실시 * 학교 특징: 경기도 고양시 소재 초등학교	1명 2020.09.09.
NK 교사 (초) B학교		• NK교사-2: 초등학교 통일전담교육사로, 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학교 통일교육 실시 * 학교 특징: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명 2020.09.04.	
NK 교사 (중)		• NK교사-3: 중학교 통일전담교육사로, 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학교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연구학교(2019), SNU통일학교(2015) 경험. * 학교 특징: 서울특별시 소재한 학교로 200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1명 2020.09.08.	

구분	심층 면담 대상	면담 대상자 및 소속기관 배경 정보	면담 인원 및 시기
	A학교	도심 속 작은 학교로, 학교 위치상 교육복지 대상자가 많고 탈북학생들도 많은 편임.	
	NK 교사 (중) B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K교사-4: 중학교 통일전담교육사, 탈북학생 한국생활 적응 지원 및 학교 통일교육 실시, 한국어지도, 통일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대학원 통일교육 강연 * 학교 특징: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한 공립중학교로 탈북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음. 탈북학생교육 우수사례 공모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음 (2018년). 	1명 2020.09.08.
	NK 교사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K교사-5: : 탈북학생으로서 한국에서 현재 재직 학교 졸업생이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탈북학생 지원과 더불어 통합사회 등 교과교육을 실시, 2016년~2018년 까지 인턴교사, 2019~2020년 현재까지 사회교사, 사회교과 수업(통일교육 포함), 진로수업 및 진로 프로그램, 방과후 수업, 졸업생 관리 등 담당 * 학교 특징: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로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학생 수는 105명으로 중학교 과정(미인가(검정교사) 16명, 고등학교 과정(인가과정) 89명 정도 규모임. 	1명 2020.09.10.
	소계	정부 4명, 학계 8명, 유관 단체 2명, NK교사 5명	19명
전체 합계			36명

1.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교 현장 요구 분석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 요구 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V-1-1>과 같다.

<표 V-1-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교 현장 요구

영역	학교 현장의 요구	세부 요구 사항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1)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	- 평화·통일교육의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와 방향 설정 요청
	(2) 교육의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된 통일교육 필요	-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통일교육 정책 요청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1)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존의 통일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 -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음.
	(2)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	-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전 교과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에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기보다 교사가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지점을 안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됨. -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시간이 주어지기에 인정교과를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는 진로와 진학 위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에 별도 과목 개설은 효용이 없을 것임. 다만 고교학점제가 운영된다면 향후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학생들이 이

영역	학교 현장의 요구	세부 요구 사항
		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연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3) 교과교육과의 연계성 제고	- 평화·통일교육이 일회적 행사 차원이 아닌 연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다양한 교과에 연계될 필요가 있음.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1) 대화 상대로서의 북한 이해를 위한 학습 자료 필요	- 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로서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의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 필요
	(2)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수업 자료 제공	- 북한 이해, 올바르게 알기를 위한 실제적 자료 필요 - 정부 차원의 신뢰도 있는 자료 제공 필요
	(3)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 개발 필요	-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끄는 자료 필요
	(4)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자료 개발 및 보급	- 학교급이 고려되지 않은 유사한 통일교육 자료는 흥미를 반감시킴
	(5) 평화·통일교육 자료 접근성 제고 및 우수 수업 사례 공유	- 통일교육원, 시·도 교육청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개발된 우수 수업 사례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6)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현장 체험 자료 필요 - 통일과 관련된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필요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평화·통일교육 방법의 모색	-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개발
라. 교사 전문성	(1)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연수 운영	-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강사 인력풀이 요구됨
	(2)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 개설	- 평화·통일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무관심, 부정적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연수의 개설이 필요함.
	(3)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의무화	- 학교폭력, 성폭력, 안전, 청렴 등 필수로 지정된 직무연수처럼 평화·통일교육 연수도 의무 연수로서 지정되었으면 함.
	(4)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 제공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구별되는 교사 중심의 연수라면 수업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다루어야 함. - 통일교육을 주로 다루던 도덕, 사회와 같은 교과뿐 아니라 타 교과에서도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연수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도 공유하며 실제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수가 제공되어야 함.
마.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	(1)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장치 마련	-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민원이나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므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교육부 중심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	- 통일부, 교육부가 별도로 학교로 공문이 오는 상황이 혼란스러움, 교육 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 방향성에 부합하면서 학교급별 교육 연계성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학교 평화통일 교육 정책이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음.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학생 진학과 연계	-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평화·통일교육이 학생들의 진학에 실제 도움이 될 때 내실화할 수 있음.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1)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

공식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만큼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 정보와 문서를 배포하고 있으므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으로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일교육, 새로운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고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이전의 통일교육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현장 교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학교에 재직 중인 면담 참여자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1학기 연구학교 보고서를 쓰려고 용어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어느 한 군데에서도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어떤 걸 써야 되지?’ 이게 되게... 불분명하다는 거죠...(중략)... ‘학교 안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것 있잖아요, 한 줄로 된. ‘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중략)...그게 먼저 선생님들께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2020. 9. 3. 연구학교(중) A학교 면담]

연구학교에 재직 중인 다른 면담 참여자 역시 통일교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목적의 추상성 및 모호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학교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교육적 목표와 방향 없이 학교 구성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 가운데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간에도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 건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서로

힘들어하더라고요...(중략)...통일교육을 하면서 서로가 맞춰질 수 있는 관점이라든지 어떤 걸 해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접하는 것에는 어떤 바운더리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선생님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교육을 각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0. 9. 9. 연구학교(초) A학교 면담]

학교 현장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목적과 방향의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평화·통일교육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알고 있어야 학교에서 ‘아 이게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구나’, ‘이게 이런 목적으로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을 볼 때에 교사들이 그것에 대한 일단 반감, 혹은 저런 걸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020. 9. 9. 연구학교(고) A학교 면담]

북한, 통일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나 안보를 중시하던 통일교육에 익숙한 교사들의 경우 평화·통일교육 정책의 등장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현장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면 담당자 입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의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된 통일교육 필요

교사들이 소신 있게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한 가지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들 수 있다. 만약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안보가 강조되는 국면으로 회귀하게 되면 평화나 통일을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져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은 학교 통일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목적과 방향을 토대로 수행될 때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통일교육은 진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2020. 9. 6. 연구학교(중) B학교 1차 요구 조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하기도 소외시키기도 한 전례를 교훈 삼아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 9. 2. 연구학교(초) B학교 1차 요구 조사]

학교 현장에서는 국가에서 평화 통일 정책을 목표로 해서 방향 설정을 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체 맥락이나 흐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후략)

[2020. 9. 7. 연구학교(초) B학교 면담]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방향이 교육 외적 요소에 의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현장 교사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신감 있게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학교 현장에서는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필요,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 교과교육과의 연계성 제고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 문서에서 범교과 주제, 일부 교과목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삽입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업에의 적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요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실현에 대한 학교 현장의 고민을 가장 잘 담아낸 목소리라 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필요

통일과 관련한 교육의 강조점은 계속 변화해 왔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지속되어 온 통일교육의 패러다임과의 차이가 현장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시기상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없었기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기존의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방향 관점. 거기서 보면 통일교육 백서나 북한 이해 백서 같은 것을 보면...(중략)...위계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동등한 대북 파트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데 지금 교과서에 있는 서술은 그래서 북한 주민을 이해하자고 해놓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2020. 9. 8. 일반학교(고) 면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처럼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통일의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근거도 수업의 주제에 따라 달라지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교육을 할 때는 강조되던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논리가 다문화교육에서는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 진행에 대한 판단은 교사에게 남겨지게 된다.

통일교육 할 때에는 민족 논리를 강조하고, 다문화교육 할 때에는 민족 논리를 약화시켜야 하고, 이걸 사실 같은 단원 내에 있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논리는 더 이상 무용하다. 이 논리는 이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2020. 9. 8. 일반학교(고) 면담]

기존의 통일교육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긍정적인 상태’로 표현해 온 당위적 지향에도 해당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의 성취기준 중 하나인 “[9도03-07] 보편적 가치 추구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알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는 등 통일윤리의식을 정립할 수 있다.”에서처럼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을 전제하고 있는 당위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돕는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도덕 시간에는 아무래도 당위적인 서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서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통일 문제를 저는 그렇게 당위적으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중략)... 도덕과에서는 성취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편적 가치 추구랑 평화 실현을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통일 국가 형성에 필요한 태도를 길러야 된다.’, ‘올바른 통일 윤리 의식을 정립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성취 기준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암묵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상적으로 간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0. 9. 7. 일반학교(중) A학교 면담]

통일에 대한 균형적 관점은 학교 전반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연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면담 참여자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받아 온 성인들에게는 통일교육의 정치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통일에 대한 균형적 접근, 일상적 차원의 접근이 통일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접근이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는 작년에 교무부장으로 교육과정 설문 같은 것을 했었거든요. 해보면 통일교육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통일교육을 어찌면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들은 성인들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깐 통일교육을 하는 게 연구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느냐는 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지역적으로나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하는 요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통일교육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게 통일이라는 개념 안에는 아이들이 민주적인 것을 경험하면서 통일을 이끌어가는 것도 같이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접근했을 때는 반감도 없고 선생님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요즘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합의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적 감수성이라든지 생활 태도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라든지 소소하게 접근해 가는 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들한테도 더 용이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2020. 9. 9. 연구학교(초) A학교 면담]

평화·통일교육으로 명칭은 바뀌었으나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통일에 대한 접근이 기존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데서 오는 혼란에 대한 해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에서 필요한 변화로서 강조되고 있었다. 교육과정 문서를 기반으로 두고, 국정 및 검정 심의를 거친 뒤 출판된 교육과정의 물리적 실행태로서의 교과서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교사들이 공식적인 목표로 인식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2)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통일과 관련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된다. 해당 내용을 다루는 교과에서뿐 아니라 통일교육주간과 같이 특정한 시기가 되면 계기 교육으로라도 관련된 내용을 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각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단편적인 내용들을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는 각 학교급 학생들의 발달 상황 및 학교급마다의 중점 요구들을 반영하는 데서 시작된다. 초등학교급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 간 융합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각 교과에 녹일 수 있는 지점을 안내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희는 전 교과를 다 가르치고 있고 담임교사마다 여러 개의 과목들을 가르치잖아요. ...(중략)... 교과에 녹여있는 게 초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특히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도덕 교과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역사가 나오면서 근현대사 쪽에 살짝 연계가 되어 있긴 한데. 시수가 많은 교과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초등은 주지적으로 가르치고 통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독서라든지, 저도 그 설문지에 썼거든요. 국어 교과처럼 독서 단원이 많이 나오니까 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초등은 훨씬 낫지 않을까.

[2020. 9. 9. 일반학교(초) 면담]

반면 고등학교급은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중학교처럼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통일과 관련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양 과목으로 고등학생 용 통일시민 교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과목으로 교양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고등학교급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양 수업시간 보다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율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업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는 보니까, 자유학년제 혹은 교양 수업으로 이런 통일 시민 교과서를 쓰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2020. 9. 4. 연구학교(고) B학교 면담]

다만 향후 고교학점제 도입을 고려할 때, 생활, 교양 영역에 ‘평화·통일’이라는 과목이 신설된다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적 산출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학생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등의 경우 교육과정 안에 교양 과목으로 ‘평화·통일’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과 영역에 기초 교과군/탐구/체육, 미술/생활, 교양/으로 구분되는데 그중에서 생활, 교양 영역에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등학생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평화·통일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여 성적 산출은 P로 한다면 부담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듯합니다.

[2020. 9. 2. 연구학교(고) B학교 1차 요구 조사]

특히 고등학교급에서는 진로, 진학에 대한 관심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다수 나타났다.

학생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일단 없거든요. 참여해봐야 생각도 달라지고 할 건데. 참여율을 늘리기 위해서 상장을 주는 활동, 수상 기록에 들어가거나, 수상 기록에 들어가면 또 활동에는 안 적혀요. 활동 못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을 주지 않더라도 활동을 적을 수 있는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경을 쓰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연구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교육 시수를 법적 시수만

참고하고 형식적으로 영상 틀고 끝나는 상태일 거거든요.

[2020. 9. 4. 연구학교(고) B학교 면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설계에서 학교급이라는 변인을 고려하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의 상황과 학생들의 발달 및 관심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평화·통일교육은 담당 교사에 따라 달리 해석된 내용으로 운영되어 인식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유사한 내용들을 12년에 걸쳐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학교급 간 차이가 반영된 목표와 내용이 제시될 때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3) 교과 교육과의 연계성 제고

면담 참여자 중 학교 현장 교사의 대부분은 현재의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일부 교과에 국한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교과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미 배정된 교과 시수 외의 시간을 배당하여 운영할 여유가 없기에 교과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운영에서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이나 양성 평등 교육 같은 경우는 교과 속으로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육도 그런 식으로 교과 속에 좀 녹아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안전한 생활'처럼 단독 교과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교육 자체가... 교사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해주시는 분들이 교과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2020. 9. 7. 연구학교(초) B학교 면담]

이처럼 교과교육과의 연계성이 제고되면 학교급, 학년별 위계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반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만약 각 과목의 교육과정으로 통일교육이 들어가게 된다면 굳이 위계화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이미 위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자기 교과와 교수학습 안에 넣으면 굳이 통일교육의 위계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창·체 활동으로 갖다 쓰려다보니까 초등학교 것도, 중학교 것도, 고등학교 것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활동들이 거기서 다 거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활동을 하려다보니까 ‘선생님, 저 그거 초등학교 때 다 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2020. 9. 3. 연구학교(중) A학교 면담]

창의적 체험활동처럼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사한 내용들이 분절적인 시간의 반복적 누적일 뿐이었다는 지적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교육적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과교육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 요소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등과 관련된 교육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통일교육을 잘못하면 오히려 뭐랄까. 반통일교육, 반평화교육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것을 내용으로 집어넣으려면 교육 과정 속에서는 이 내용 요소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잘 짜여진 상태에서 이걸 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통일교육해라, 라고 한다면 안보 교육 하죠.

[2020. 9. 8. 일반학교(중) B학교 면담]

교과교육과의 연계는 단순히 통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계하여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계로 인해 어떠한 역량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선 항에서 언급한 학교급 간 차이를 반영한 목표와 내용의 제시는 교과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교사들은 이를 활용하여 각 교과에서 어느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1) 대화 상대로서의 북한 이해를 위한 학습 자료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역량에는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이해, 상호 이해와 존중, 민주적·평화적 소통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북한에 대한 오래된 정보,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면담 참여자들은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북한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된 오늘날의 북한 사회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 전의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쨌든 새로운 지금 현재의 북한 모습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0. 9. 8. 일반학교(중) B학교 면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교육과정 논리상 그들은 우리가 대화해 보아야 할 주민이다, 같이 테이블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중략)...그 사람들 이야기의 포인트는 남한과 북한이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2020. 9. 8. 일반학교(고) 면담]

(2)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수업 자료 제공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재의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북한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교적 최근의 북한을 실제로 경험한 NK교사나 연구학교 교사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북한이나 통일과 거리가 있는 일반 학교 교사들의 경우 그러한 자료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학교에 재직하는 면담 참여자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정보를 얻기도 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제공하는 자료는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수익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도와 신뢰도 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중학교급 연구학교에 재직 중인 면담 참여자는 이러한 영상 자료들이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북한에 대해 자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튜브 영상 중에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인터넷 방송 BJ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중략)... 북한에서도 경험을 했고, 탈북한 경험도 있고 어떤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남북한 생활의 실상 같은 것들. 본인이 경험하신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2020. 9. 8. 일반학교(고) 면담]

아이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또 어떤 영상을 통해 개인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중략)...어떤 영상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2020. 9. 4. 연구학교(중) B학교 면담]

현실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때는 일정 수준으로 가공하여 수업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오늘날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업을 만드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현장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연구가 된 정선된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감가해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전문적인 통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연구사님이나 통일교육 관련된 기관하고 구성을 해서 통일교육의 정선된 예시안을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그것을 가감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 9. 9. 연구학교(초) A학교 면담]

교사들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주로 자료를 얻는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러한 자료들이 수업에 곧바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교과별 연계점을 찾고 이를 가공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실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예시안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 개발 필요

분단과 통일은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일상과 유리된 주제로 여겨지기에 분단으로 인한 고통,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한, 통일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학생들의 관심사가 아닌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은 평화·통일교육을 자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며 흥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제 또는 내용 요소의 일부로서 평화·통일을 다루고, 일상적인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면담 참여자들은 북한의 동요를 활용한 북한의 문화 체험,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 중심의 수업 진행 등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문제는 학생들의 현재 및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다. 따라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을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이 평화·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북한 동요 같은... 저학년 같은 경우는 뽀뽀송이라든지 '대흥단 감자'라든지, 자기들이 영상을 보는 거죠.

[2020. 9. 7. 연구학교(초) B학교 면담]

국어 비판적 사고에는 남북의 통일정책 에 대한 토론, 과학에는 DMZ 동식물의 한살이, 음악은 남북한이 함께 부르는 노래, 사회 국제교류와 통일, 실과에서는 남북의 음식문화 등으로 전교과에 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합니다.

[2020. 9. 2. 연구학교(초) A학교 1차 요구 조사]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덜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를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중략)...그래서 교과서나 경제 시간이나 그런 것에서 통일 비용이 분명히 크지만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0. 9. 7. 일반학교(중) A학교 면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자료를 학생들이 수업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일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관광을 개발할 수 있고, 어떠한 교통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애들이 상상을 해보게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중략)...북한 관련 되어서 저희가 많이 알아보자 하는 취지로 퀴즈도 많이 진행을 하고 퍼즐 같은 것도 진행을 해봤는데, 그게 아이들의 흥미를 고취시키는 걸로는 정말 좋았어요.

[2020. 9. 7. 일반학교(중) A학교 면담]

또 하나는 코인 노래방? 북한 동요나 이런 것들을 불러 볼 수 있는? 흥내내 본다든지 뭐 이런 스타일로? 왜냐하면 내 삶과 연관이 있어야지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2020. 9. 7. 연구학교(초) B학교 면담]

면담 참여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 퀴즈와 퍼즐 같은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일상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노래를 활용하는 것 역시 평화·통일교육이 삶과 동떨어진 이념만을 다루는 교육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자료 개발 및 보급

통일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수행되어 왔지만 체계적인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범교과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대부분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다보니 교육 자료 자체가 한정적이고 유사한 자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분단과 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해당 주제를 이해하는 수준도 학교급별로 다르기에 평화·통일교육의 범위, 수준, 활동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원과 UNITV의 콘텐츠가 거의 매일 업데이트 되며 새로운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일영상은 아이들에게 효과적 교육을 위해 유용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영상은 많지 않습니다. 통일교육의 내용의 특성상 저학년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정선된 영상이 필요합니다.

[2020. 9. 2. 연구학교(초) A학교 1차 요구 조사]

흔히 통일은 광복 이후부터의 남북 관계, 이후 남북 대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흔적, 현재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 정도에 콘텐츠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필수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콘텐츠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매년 똑같은 자료로 통일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반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통일이 '나의 일'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현재의 초중고 학생들이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학교에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 9. 2. 연구학교(중) B학교 1차 요구 조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은 전국의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제외하고는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통일교육원을 통해 창제 자료를 구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수준의 영상, 활동 자료들입니다.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이 선행되어야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포함시켰을 때 현장에서 혼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 9. 2. 연구학교(고) B학교 1차 요구 조사]

면담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급별 위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중고에서 유사한 내용의 자료, 혹은 한정된 콘텐츠로 통일교육이 실시되다 보니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어렵고 심지어는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통일교육 자료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교급별 위계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내에서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세분화된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 평화·통일교육 자료 접근성 제고 및 우수 수업 사례 공유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개발된 수업 자료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 연구학교의 담당자거나 특별히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를 제외하고는 통일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주도적으로 접속하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 기 개발된 통일교육 자료를 현장 교사들에게 쉽고 빠르게 공유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친숙한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평화·통일교육 자료가 탑재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되는 배너를 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의 본인의 확고한 의지나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중략)...저희가 접하는 교원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치색이라고 하기보단 가치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2020. 9. 17. 정책 업무 담당자(통일부) 면담]

많은 교사들이 평화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미 개발된 자료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중략)...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상에 관련 콘텐츠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배너 등을 게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관련 교과 내용이 포함된 교과의 교사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정보를 찾아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우연히' 통일교육 관련 콘텐츠를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0. 9. 2. 연구학교(중) B학교 1차 요구 조사

기준에 제공되고 있는 수업 자료들을 학교급과 여러 교과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여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며,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우수 수업 사례를 여러 학교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평화·통일교육 자료들을 교사들이 활용가능한

수업의 형태로 구성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면 교사들이 해당 수업을 활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교과와 성격과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되어 공유된다면 (일종의 ‘밈(meme)’과 같이) 평화·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중략)...현재 학교 평화·통일교육 우수 사례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대회 수상작을 찾아보거나, 따로 보도자료를 찾아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하거나 혹은 통일교육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학교로 보급해준다면 꼭 통일교육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우수 사례들을 종합·가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 9. 2. 연구학교(중) B학교 1차 요구 조사]

평화·통일교육에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사람, 또는 집단마다 다른 방법과 맥락을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가 다르므로 평화·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감정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 다양한 교육 자료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9. 4. 연구학교(고) B학교 면담]

위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들의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수업 자료의 재구성과 공유, 개선 과정에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요구된다.

(6)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현장 체험 교육은 학생들의 호응도 좋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원, 경기 북부와 같은 접경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 학생들의 경우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체험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과 통일문제의 거리감을 크게 느끼게 되며, 분단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관련 체험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접경 지역이나 특정 사건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도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도 있다.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충청 지역에도 통일과 관련된 인물들의 유적지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들을 평화·통일교육의 현장 체험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물리적인 거리가 머니까, 이제 심리적인 거리도 멀고. 평화·통일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체감도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를 잘 못 느끼고, 그것이 일상이 되니까 이제 naturalize 된 것이죠. 자연화된 것이죠. 당장의 내 일상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2020. 9. 9. 연구학교(고) A학교 면담]

체험중심 활동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학생과 부산 지역의 학생이 평화·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중심 활동 프로그램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부산에서 DMZ나 판문점, 통일전망대 등을 체험하기에는 시간적, 제도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조건들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2020. 9. 2. 연구학교(고) A학교 1차 요구 조사]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가장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고 효과적인 교육은 현장체험 방식이었습니다.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중략)... 제주도 수학여행의 평화·통일과 연결하기, 창체 동아리 시간에 인근 평화·통일역사 유적지 탐방하기, 북한 음식 체험하기 등 체험과 소통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시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위한 지역별 여행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현장체험 교육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권역별, 지역별 현장 체험학습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2020. 9. 2. 연구학교(고) B학교 1차 요구 조사]

의외로 대전과 충청 지역에도 통일이나 독립과 관련된 여러 역사 유적지가 있는데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주 마곡사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명상터라든지 아니면 단재 신채호 생가가 있기는 한데...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해서 그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2020. 9. 9. 연구학교(초) A학교 면담]

평화·통일교육 체험 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접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만이 아니라 접경 지역의 면담 참여자에게도 나타났다.

평화·통일교육 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험시설이 부족합니다. 평화·통일교육과 같이 가치나 규범이 내재되어 있는 주제일수록 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리 주위에 안보시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체험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2020. 9. 2. 연구학교(초) B학교 1차 요구 조사]

위와 같이 다양한 체험 자원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강원도 지역의 교사도 평화·통일교육 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험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강조되어 온 반공이나 안보 교육이 아니라 평화·통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탐색과 개발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다.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평화·통일교육 방법의 모색

온라인 평화·통일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방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현장 체험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평화·통일 체험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AR, VR 기술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교육이나 온라인 미팅,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비대면 방식의 교육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통일체험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 9. 2. 연구학교(초) A학교 1차 요구 조사]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면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통일교육도 온라인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LMS)과 온라인 기반 수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학생의 평화 감수성과 통일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교육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온라인 평화·통일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현재의 온라인 기반 사업과 콜라보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0. 9. 2. 연구학교(고) A학교 1차 요구 조사]

라. 교사 전문성

교사 전문성에의 요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에의 요구로 구체화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연수 제공,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 개설,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 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연수 제공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교육과의 차이점, 평화·통일교육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담 참여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 강의에서 기존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말은 평화·통일교육이면서 콘텐츠 상으로 평화에 대한 부분은 강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통일교육 강사가 반공교육에 치우쳐 강의를 진행하는 일도 있다. 통일이 평화와 연계되는 일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 9. 2. 연구학교(중) B학교 1차 요구 조사]

이러한 문제는 평화·통일교육과 연계한 학습이 가능한 체험 장소의 강사들에게도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방향과 거리감이 있는 내용의 전달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아이들이랑 같이 수학여행 갔을 때에도 전쟁기념관 큐레이터 분이랑 같이 가다 보면, 말씀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 남침 북침에 꽂히셔서 아이들이 역사 공부라기보다는 역사 협박을 받고 오는 수준으로 안보 교육을 받고 온 거죠. 사실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문제인데 그분들한테는 겪은 일이고 너무나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게 날 서 있는 방향이니깐. 아이들은 부드럽게 배우고 싶은데 뭔가 들이 안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맥락을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는 느낌? 그래서 간극 차가 컸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2020. 9. 9. 일반학교(초) 면담]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연수 제공을 통해 교사 및 강사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기존과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다. 평화·통일교육과 기존 통일교육 간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지점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가 담긴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 개설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다. 평화·통일교육의 안착의 요건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연수의 범주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의 구성원마다의 필요와 요구를 상세하게 반영한 연수 개설로 구체화된다. 우선, 학교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핵심교원 연수를 들 수 있다.

통일교육이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개인의 역량이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리더 교사가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연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 9. 9. 일반학교(초) 면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그간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온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이 핵심교원 연수를 받는다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현장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평화·통일교육이 수업에 구현될 때 바람직한 방향과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와 같은 학교 현장의 궁금증들을 핵심교원 연수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접경 지역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경우는 접경 지역 및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의 방문을 통한 체험이 유의미할 수 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갖고 계시지만 경기도나 다른 인접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가 통일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의미 부여가 됐던 것이 접경지역 연수를 갔다운 것이거든요. 단둥도 가보고 백두산도 보면서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면이 굉장히 많아서요. 선생님들께도 이런 연수의 기회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0. 9. 9. 연구학교(초) A학교 면담]

그 외의 의견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과 의지,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는 학교 현장의 관리자와 교사 연수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평화·통일교육과 교과교육을 함께 고민해보는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비교원 양성과정에서 자신의 교과와 통일교육을 융합시키는 교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교사들의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 현장에서도 통일교육의 바람이 불 수 있다.

[2020. 9. 4. 연구학교(고) B학교 면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의 시행은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평화·통일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왜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연수, 다양한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의 개설이 필요한 것이다.

(3)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의무화

통일교육 연구학교에 재직 중인 면담 참여자들은 평화·통일교육 교육 연수도 의무 연수, 필수 연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보편적인 인식은 ‘부담감’으로 표현될 수 있다. 관리자를 포함한 교사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둘러싼 이념적, 정치적 부담감과 당위성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부담감과 피로감을 고려할 때, 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토대로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연수가 요구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관리자 분들이 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략)...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교육의 주체들이신데. 그런데 평화·통일 관련된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할까요. 서로 조심한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중략)... 평화·통일교육을 볼 때에 교사들이 그것에 대한 일단 반감, 혹은 저런 걸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학생들도 당연히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혹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연수가 필수로 필요한 게 아닌가.

[2020. 9. 9. 연구학교(고) A학교 면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연수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당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나타났다. 안전 연수나 청렴 연수처럼 1~3년 중 필수 이수해야 하는 연수로 지정된다면 교사들이 평화·통일교육에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과 평화·통일교육을 연계시키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교사들에게는 학교폭력, 성폭력, 안전, 청렴 등 각종 분야의 직무연수가 '필수 연수'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수는 필수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업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 잘 듣지 않는다. 만약 학교 평화·통일 연수를 필수 직무연수로 지정한다면 (처음에는 반발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은 후 교육과정 내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과 평화·통일교육을 연계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

[2020. 9. 2. 연구학교(중) B학교 1차 요구 조사]

평화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긍정적 합의와 통일 역량이 먼저 함양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조차 통일 문제에 관심 없는 교사들이 많고 또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교사들도 있다. 또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추진 과제들이 주어진다고 한들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긍정적 통일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교원을 양성하고 관리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사실 학교로의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중략)... 교사들의 직무연수도 안전 연수나 청렴 연수처럼 1~3년 중 필수 이수해야 하는 연수로 바뀌지 않는 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수를 듣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20. 9. 2. 연구학교(고) B학교 1차 요구 조사]

이처럼 연수의 의무화는 학교 교육과정과 일부 교과에서 평화·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연수의 의무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존재하였다. 연수 의무화와 관련한 논의가 주로 연구학교에 재직 중인 면담 참여자나 NK교사에게서 제시되었다면, 일반학교 교사나 학계 전문가의 경우 연수의 의무화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연수가 이미 많으며, 평화·통일 외에도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육적 주제들이 많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는 연수를 의무화 하여 교사들이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는 것보다는,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10. 27. 일반학교(중) A학교 3차 요구 조사]

연수의 의무화는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통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할 수도 있으나,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를 수적으로 확대할 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 제공

학교 현장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평화·통일교육과 연계되는 교과의 부분을 알 수 있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일 때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교사들은 그런 연수보다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써먹을 수 있는. 내가 이 연수를 듣고 '아, 내가 이 부분에 이런 것을 따서 수업에 이용을 하거나, 교육과정에, 나의 수업 자료에 이런 것을 넣으면 창의적인 교수학습안이 나오겠다.'라는 이런 거는...(중략)... 보통 연수 같은 것을 들으면 국어과에서 '국어과 수업의 사례 연수'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통일교육원의 연수를 보면, 일반인을 위한 통일교육 연수가 따로 있고... 배너가 따로 있고. 교사들을 위한 배너 연수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특별히 교사들을 위한 연수지?' 라고 생각할 만큼 별로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교사들에게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2020. 9. 3. 연구학교(중) A학교 면담]

교과나 실제 수업에의 활용성과 거리가 먼 연수의 경우 단편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화·통일교육을 운영하는 데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구별되는 교사 중심의 연수라면 수업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주로 다루던 교과뿐 아니라 타 교과에서도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연수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연수의 제공이 필요하다.

마.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

(1)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장치 마련

우선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운영할 때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민원을 염려해야 함. 교사의 통일교육의 방향성 또는 내용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가 항상 있어서 교사가 사실과 양심에 의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자기 검열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2020. 9. 2. 일반학교(중) B학교 1차 요구 조사]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교육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검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일선 교사들에게 평화·통일과 관련된 주제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은 정치적,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교육부 중심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부와 교육부 양 축에서 다양한 채널로 통일교육 관련 정책이 운영되고 지침이 전달되는 것에 혼란스러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통일부든 교육부든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일이라면 일어난 곳에서 통일감있게 현장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전달이 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평화·통일을 주제로 모두 함께 간다면 내용을 일관성있게 정리해서 체계성있게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0. 9. 4. 연구학교(고) B학교 면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부와 시·도 교육청이 예산 지침이 달라 혼란스러운 부분을 겪거나, 창체 시간의 이벤트 행사 등으로 통일교육이 국한되는 측면이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에서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속 교육청의 예산 지침하고 통일부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 집행지침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올해 한 해 예산 집행을 하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을 따라야 할 것 인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중략) 통일부는 상한선을 주고 상한선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쓰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상한선이라기보다는 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생 체험 활동에 있어서도 통일부는 나가서 하는 체험활동의 경우에 간식비라든가 체험비가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체험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할 때 체험비를 전혀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산이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주무로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시에 맞게끔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고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창체 시간에 하기에는 이벤트밖에 안 돼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0. 9. 4. 연구학교(고) B학교 면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통일부가 주관하기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가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주관하고 일원화된 주체로 기능하였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통일부네요, 통일 의식을 학교에 항상 담아주시고 싶어하시긴 하는데 ...(중략)... 교육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초중고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략)...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교육부가 초중고가 체계적으로 교육활동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져서 나가야지.....

[2020. 9. 4. 연구학교(고) B학교 면담]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학생 진학과 연계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고등학교급의 면담 참여자들에게서 다수 제시되었다.

이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학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로 수렴된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고,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조금만 이따가 하겠다’, ‘대학생이 되어서 하겠다’, ‘지금은 제가 대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뤄두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그것보다는 지금 대학 입시가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큰데. 평화·통일교육이 분명히 학생들의 어떤 진로 진학이라든지 학생들의 이해관계. 자기 이해와 분명히 관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측면, 학생들의 자기 이익과 관련된 측면, 자기 일상과 관련된 측면과 연결을 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학생들에게 하나 하나 프로그램 할 때마다. 보고서라든지 소감문의 형태로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사실 학생들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평화·통일교육을 싫어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결과물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느끼고 배우고 느끼고 성장한 부분들이 학생부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에 다 기재가 될 때 사실 학생들은 ‘아, 내가 보니까 이거 2학년 때 이걸 했는데 생기부에 이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내가 내 진로하고 관련되어서 충분히 도움을 받겠구나’ 할 때에 이게 진짜 내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 9. 9. 연구학교(고) A학교 면담]

제시된 의견과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 평화·통일교육 활동과 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학생들의 대입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냐의 여부가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생 진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요구 분석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 조사 주요 결과는 <표 V-2-1>와 같다.

<표 V-2-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요구

영역	사회적 요구	세부 요구 사항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1) 학교 현장과의 평화·통일교육 목표 및 방향 공유	- 국가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도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2)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일관성 유지 요청	- 시대적 분위기나 환경, 정권 등에 따라 변하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함.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1)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수업	- 당위적으로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학교급별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점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학생들이 나의 현재와 미래에 통일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교과에서만 관련 내용을 다루기보다 북한, 통일 등의 내용을 관련 있는 교과들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1) 북한의 오늘날을 보여주는 자료 제공 필요	- 반공, 안보를 강조하던 시절의 자료가 아직도 제공되고 있음. -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북한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북한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수업 자료 요청	- 북한의 언어, 문화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함.
	(3)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평화·통일교육 요청	-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일상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자료 개발 및 제공
라. 교사 전문성	(1)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연수 개설	- 시·도 교육청으로 연수가 이관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연수 개설이 요구됨.
	(2) 네트워킹 마련과 체험의 기회로서의 연수 제공	- 현장성 있는 이야기를 체험 위주의 연수를 통해 접하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념의 전달이 아닌 실제 수업과 연계하여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로 연수를 활용해야 함.
	(3)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	- 임용 후 평화·통일과 관련한 수업을 운영하고 탈북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음. 예비교사들이 자신들이 학생이었을 때 배운 통일 관련 교육 내용에 의존하여 기존의 통일교육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영역	사회적 요구	세부 요구 사항
마. 법적, 제도적 환경	(1)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 실질적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고발 조항의 삭제에 대한 의견이 특히 많이 제기됨.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 교육의 지방 자치분권화 상황에서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정부와 시·도,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통일부-교육부-시·도 교육청 간 거버넌스가 체계적,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함. - 통일부, 보훈처, 국방부, 교육부와 같이 정부 부처에 따라 학교에 전달되는 통일교육 관련 지침의 관점 및 강조점 차이가 있음.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내실화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1) 학교 현장과의 평화·통일교육 목표 및 방향 공유

국가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도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이전에 실시되던 통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이 혼재되어 있다.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통일교육으로 목표와 방향은 설정되었지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예전의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안보가 강조되던 시기에서 북한 이해와 소통, 협력을 강조하는 시기로 변화했지만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던 시기의 관점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으면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달라진 북한의 모습들도 보여줘야 해요. 북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쁜 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극구, 자꾸 안 좋은 교육만 하는지. 평화·통일교육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실시되지는 않아요.

[2020. 9. 4. NK교사(초) B학교 면담]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범교과 주제와 몇몇 과목의 일부 영역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설정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교육 내용) 4학년, 6학년에 나오거든요. 잘 안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는 선택 교과니까 안 한다고 해요. 사회에 중단원으로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덕 교과에서도 잘 다루지 않지, 양이 적지, 나머지는 도덕 빼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회 선생님이나, 수학, 과학 선생님 제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이야기를 하지..

[2020. 9. 10. 학계 전문가(윤리교육 전문가) 면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지향과 관련해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우선, 평화·통일교육은 특정한 형태의 고정적인 평화나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평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 역시 한 가지 방향과 목표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범위를 일정 부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확장되기 쉬운 평화보다는 통일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통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북한을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통일의 하나고, 지역 단체와 저쪽의 지역 단체가 협력하는 것도 통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층적 수준의, 여러 층위가 다르지만 통일이라고 봐야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도 아주 정형화된 평화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야는 이런 평화. 인권 관련해서는 이런 평화.

[2020. 9. 16.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면담]

통일교육도 넓어져가지고 다양성과 관련된 온갖 이런 거를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평화까지 붙이니까 더 커져버려서, 그러면 결국 하나만 해도 될 교육을 맨날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여러 개 다 하고 그러는데...(중략)...평화·통일교육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담당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죠...(중략)...평화 통일교육이 뭐냐고 할 때, 한 마디로 정의를 못 해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못 해요.

[2020. 9. 15. 학계 전문가(사회교육 전문가) 면담]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은 남북한 교육자들이 합의 가능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는 동안 시간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한반도의 남쪽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략)...현재 또는 미래에 실시할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남쪽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에서 수용 가능하여야 하며, 현재에만 타당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미래에도 타당한 통일교육이어야 하며, 중국, 미국, 브라질, 케냐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이 가능해야 할 정도로 보편적인 영역의 교육이어야 한다.

[2020. 9. 2. 학계 전문가(윤리교육전문가) 1차 요구 조사]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되, 평화와 통일을 특정한 개념이나 틀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교육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갖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일관성 유지 요청

시대적 분위기나 환경, 정권 등에 따라 변화되는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대한 문제 제기과, 정부와 교육과정 간 통일교육 방향성의 불일치 문제 등도 제기되었다.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은 통일 정책의 종속변수로 작동한 경향이 있는데,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교육 내부의 차원에서 보면 정권의 통일정책 방향과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불일치함에 따라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성과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방향성이 상이한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통일교육이 상황에 따라 지향을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시기의 통일교육을 받은 학생들 사이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내실 있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정치적이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평화, 통일분야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북한 상황, 남북 관계, 정치 성향, 정치 상황 등의 문제는 평화·통일교육을 다소 정치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성향과 상황 속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일정해야 하고 고정적이다. 이러한 핵심을 잘 지키는 학교·평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관계, 정치구조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을 설계해야한다.

[2020. 9. 2. 정책 업무 담당자(통일부) 1차 요구 조사]

국내 및 한반도 주변 상황 전개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이었던 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거나 정부의 대북 관계가 유화적일 때는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위축되고 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사적인 이슈이므로 주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일정한 시공간이나 내용, 방식 등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2020. 9. 2. 학계 전문가(사회교육 전문가) 1차 요구 조사]

이렇게 시대마다 계속 달라지면 시대별로 배우는 애들이 시대별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배운 애들하고, 그 전에 배운 애들, 그 후로 배운 애들이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서로 다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 어떻게 하나로 생각을 맞춰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저 자체도 점점 어려워지고.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생각이 확확 들더라고요.

[2020. 9. 8. NK교사(중) A학교 면담]

교사들은 정권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 교육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음. 또한 교육과정 개정 시기가 정권교체 시기와 맞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특히 통일부)가 권장하는 통일교육 방향성과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방향성이 상이함.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이런 정치적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권장하기보다는 꺼려하게 되고, 교사들도 북한문제를 다루는 통일교육이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임.

[2020. 9. 2.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1차 요구 조사]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관점의 통일교육에서 ‘교육적’ 관점의 통일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와 통일정책이 바뀌어도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적 방향성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성찰과 통일교육에서의 ‘교육적 원칙’에 대한 교육자들의 합의 등을 통해 통일교육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회적 요구 조사에서 나온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의 논의들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큰 흐름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였다. 직접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학교 현장의 요구가 운영 차원의 구체적 의견(‘평화·통일 교육으로의 변화 반영’,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 ‘교과교육과의 연계성 제고에 대한 요구’)을 담았다면, 사회적 요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반영’,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과 같이 그동안의 통일교육에서 아쉬웠던 점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궁극적 지향에 대한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수업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의 사회적 요구 조사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반공, 안보, 통일을 거쳐 평화·통일교육으로 중점을 두는 영역이 바뀌어 왔지만 북한, 분단,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 조사를 위한 면담에서 유관 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회성이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메시지들을 접해 온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오히려 반발심을 갖거나 강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내용이 하도 반공 교육에서 안보 교육으로, 안보 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 통일교육에서 평화적 통일교육으로 바뀌어오긴 했지만 사실 고정된 것들은 존재하거든요. 북한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분단을 폐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방향성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이 달라진 게 없는 것을 학생분들은 매년 교육을 받았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학생분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입받거든요. 학생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주입받아서 강사가 또는 교사가 통일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받았던 교육들의 메시지가 쭉 있어요. (중략) 통일의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도 굉장히 비판적 검토해볼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으로써 반복해서 주입됐을 때 오히려 반발을 낳는 것 같아요.

[2020. 9. 8.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면담]

학생들은 유사한 통일교육의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통일로 인한 효용을 근거로 들어 통일의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마무리라는 것을 익히게 된다. 그렇다보니 통일의 효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통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수업을 끝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저희가 아무리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타이틀을 이야기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통일해야 된다’, 라는 활동지를 빨리 쓰고 마무리하려는. 고학년으로 가면, 저희는 사실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2020. 9. 10.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면담]

이때 통일의 효용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경제적 효용이다. 통일과 번영이 하나의 단어처럼 제시되어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한 근거까지도 고정된 범주 안에서 배우는 상황에서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은 성립되기 어렵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에서 축소된 학습자의 역할을 회복하고 풍부한 논의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당위적으로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학교급별 발달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점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북한과 통일 문제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상급 학교로 가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분단 문제와 평화·통일에 대해 성찰하고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너무 ‘통일, 통일’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북한의 친구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북한 친구도 우리랑 생김새도 똑같고 다양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조금씩 접해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통일되면 대화도 할 수 있고,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여기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2020. 9. 8. NK교사(중) B학교 면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요구 조사에서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분단, 통일, 평화 등에 대해 여러 견해를 접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시야를 확대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주주의 국가, 다원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통일부에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민 사회의 영역인 학교에 있어서는 여러 견해들을... 평화에 대한 관점, 통일에 대한 관점,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 대해서조차도 다양한 견해를 소개할 필요가 있고. 이걸 민주 시민 교육의 핵심적인 전제이기도 하죠. 논쟁 가능성을 벌이는 차원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죠.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적대를, 혐오를 극복하는 것. 그게 평화 교육의 요체라고 보는 거죠.

[2020. 9. 10.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면담]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넌 나와 다른 편, 이분법적인 성격. 그래서 이분법적인 성격을 피하려면 ‘unifications, peaces.’ 이런 복수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을, 평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고 갈등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평화 교육이고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2020. 9. 16.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면담]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은 갈등을 야기하는 이질적 목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조건일 수 있다.

(2)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일회적인 계기 수업으로 통일교육주간이나 통일, 분단과 연관이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사회적 요구 조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연속성 없는 교육과정 운영이 개선되어야 학생들이 평화·통일과 관련한 내용이나 삶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지나치게 계기성 교육으로 받아들이시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 의뢰를 받는 것 자체가 6월 25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해주세요, 혹은 통일교육 주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5월에. 딱 이 주간에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는 하는데. 사실 분단의 폐해나 분단의 문제점,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려는 그런 문제는 1년 내내 상존하는데. 내내 상존한다는 생각 자체를 선생님들도 잘 못하신다고. 물론 워낙 다른 업무들이 많으셔서 그러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6월 25일 날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4월 27일, 6월 15일 이런 식으로 특정 정상회담이 있었던. 결국은 계기성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좋은 의도에서 하는 교육이지만 틀 안에 가두는 교육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20. 9. 10.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면담]

학생들이 처한 분단의 상황으로 인한 문제들은 삶에 상존한다. 그러나 특정한 시기에 일회적으로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함으로써 분단의 문제가 일상과 동떨어진 이벤트인 것처럼 느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나의 현재와 미래에 통일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 학교마다 통일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안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1학기에 10시간이면 10시간,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교과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북한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것도 어릴 때부터 알고 차곡차곡 올라가면...

[2020. 9. 8. NK교사(중) B학교 면담]

또한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교과에서만 관련 내용을 다루기보다 북한, 통일 등의 내용을 관련 있는 교과들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너무 많은, 방대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도덕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도덕과에서 대단원으로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국어에서도 가져가고, 북한하고 언어 비교하고, 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헌법, 사회에서도 많이 가고...(중략)...음악이나 노래나 북한의 소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감상하면서 공통된 거를 찾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접근을 가까이 할 수 있지, 말로 하면..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을 예체능 쪽에서도, 놀이 같은 거를 하면서 마음을 끌 수도 있고..

[2020. 9. 15. 학계 전문가(사회교육 전문가) 면담]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의 사회적 요구는 기존의 운영 방식 변화와 관련되었다. 그동안 통일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의 변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었던 학생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1) 북한의 오늘날을 보여주는 자료 활용 필요

교수·학습 자료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로는 평화·통일교육으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자료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제 상황,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북한을 묘사하는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면담 참여자들은 오늘날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적절하게 제공될 때 북한에 대한 균형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금 제가 떠난 지도 15년 정도 되는데, 저희 북경에서 시시각각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전에 북한이 아니에요. ...(중략)... 아주 십여 년 전에 와서 고난의 행군 시기 배경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랑 아주 달라요, 선생님. 그게 아주 달랐던 그런 모습, 달라진 북한의 모습들도 보여줘야 해요.

[2020. 9. 4. NK교사(초) B학교 면담]

그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바로 나오는 게, 깜짝 놀랐던 게 아오지 탄광을 모르는 애가 없어요.

[2020. 9. 8. NK교사(중) B학교 면담]

북한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북한과 관련한 뉴스들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도 많고 미디어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시기적으로 오래되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료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기관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중략)... 일부인데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근데 그런 거를 북한 실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죠 교사와 학생들이. 그래서 잘못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중략)... 좀 신뢰성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0. 9. 10.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면담]

언어의 차이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정제되고 정확한 자료. 정확한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중략)... ‘이 단어를 북한 사람들이 진짜 사용한다, 보편적으로.’ 라는 검증을 해줘야 하는데,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 대부분 함경도 출신의 비전문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검증을 받는데, 그 검증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겨레말에서는 남북에서 서로 1년에 네 번씩 실제로 만나서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이게 2015년 이후로 거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중략)... ‘북한에서 햄버거를 고기겹빵이라고 한다. 남한의 햄버거는 북한의 고기겹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도 최근에는 햄버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은 솔직히 남한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2020. 9. 10. 학계 전문가(국어교육 전문가) 면담]

그러나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단순히 정부 기관에서 나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부족, 북한과의 교류 축소 등으로 인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2) 북한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수업 자료 요청

오늘날 학생들은 북한이나 통일 관련 문제가 자신의 삶과 크게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북한을 자신들의 삶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북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도... 사실 그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세계 아동 만화 영화 축제에서도 1등을 했던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한 편씩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참 재미있어하고 좋아해요.

[2020. 9. 8. NK교사(중) B학교 면담]

국어 교과서에서 이걸(방언을) 다 넣어서 북한 함경도에서는 이렇고, 평양에서는 이렇고. 이렇게 같이 녹여 내려가면 그게 따로 도덕이나 윤리 교과에서처럼 딱딱하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의 그냥 교과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지 않을까.

[2020. 9. 8. NK교사(중) A학교 면담]

학생들에게 북한의 좋은 것을 당연히 이야기해야겠지만, 그걸 우리의 문제와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북측의 교통을 어떻게, 길거리에서는 어떻게, 길거리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교통안전 생활을 할 때 한 꼭지씩을 넣는 거죠. 한 10분짜리. '북측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2020. 9. 16.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면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로는 북한의 애니메이션, 최신 사용 언어 등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삶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연결된 자료를 활용할 때 북한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평화·통일교육 요청

통일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접하게 될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나 교육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수업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그들의 삶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통일 편익 쪽으로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교육 부분, 예를 들어 경제, 경제라기보다 저는 직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직업을 쪽 설명하면서. 그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편익을 이야기할 때, 숫자적인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것,

[2020. 9. 4. NK교사(초) B학교 면담]

또한 북한의 정치, 경제와 같은 제도적 이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어, 교육, 문화, 사회, 예술, 영화 등 학습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의 현실적 실체를 인정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북한의 정치, 경제와 같은 제도적 이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어, 교육, 문화, 사회, 예술, 영화 등 학습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중략)...학습자들이 특히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언어문화, 학교문화, 일상문화, 예술문화 등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주는 내용이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

[2020. 9. 10. 학계 전문가(국어교육 전문가) 면담]

평화·통일교육은 북한의 현실적 실체를 인정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략)...북한을 적대국으로만 생각하는 사고의 한계를 인지하고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평화·통일관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우리 교육과정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하고, 다양한 주제에 걸쳐 북한을 사례로 한 내용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예: 북한 행정구역의 변화 인지하기, 원격탐사를 통해 북한의 삼림훼손 분석하기,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이해하기 등).

[2020. 9. 2. 학계 전문가(지리교육 전문가) 1차 요구 조사]

북한의 행정 구역, 지리, 언어, 문화와 같은 내용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제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 ‘북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교사 전문성

사회적 요구 조사의 참여자들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차원의 요구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연수 개설’, ‘네트워킹 마련과 체험의 기회로서의 연수 제공’,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을 언급하였다.

(1)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연수 개설

최근 들어 평화·통일교육 연수는 각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 관련 연수의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운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유관 기관으로, 평화·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연수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연수 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엔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일단은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라는 얘기에는 도교육청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2020. 9. 10.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면담]

또한 시·도에 이관되어 개설되는 연수들은 일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반 조건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연수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정책 담당자 연수, 정책 연수, 지역적으로 자율 기획 연수, 시·도 장학사들 워크숍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데...(중략)...인프라의 문제들은 지역별로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얘기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는 대학도 많고 정부 기관도 많고.

[2020. 9. 14.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면담]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지역 이관은 그동안 통일교육의 문제로 주로 지적되어 온 하향식 전달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핵심적 방향과 가치는 공유하되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며 연수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2) 네트워킹 마련과 체험의 기회로서의 연수 제공

통일 관련 연수들이 교사들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 성취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교사 연수에 대한 기획 경험이 많은 유관 단체 관계자들은 연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참여와 체험 중심으로 연수를 구성하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생님들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론은 많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이론은 되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론은 많이 아시니까, 조금 더 현장성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걸 제가 선생님들께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달 드리는 거니까요.

[2020. 9. 10.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면담]

연수의 내용 체계보다 그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무리 연수가 잘 설계되었어도 이후에 현장에 돌아가서 실천하실 때의 고민과 느끼는 점이 훨씬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체계화하는지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서 저희가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킹과 자료 체계설정에도 조금 더 힘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0. 9. 8.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면담]

현장성 있는 이야기를 체험 위주의 연수를 통해 접하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념의 전달이 아닌 실제 수업과 연계하여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로서 연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수를 듣고 난 이후 학교에서 교사들이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네트워킹의 활용은 발전적 조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3)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은 사대와 교대 학생들이 임용 후 마주치게 될 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안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교사들. 사대·교대 학생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강좌를 꼭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직에 나가게 되면 탈북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관련해서 통일교육을 또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죠, 학교에서.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계화된 교육이 안 되고. 그나마 사회과나 도덕과, 역사과 이런 데는 전공과목으로써 남북통일 이쪽 전공과목들이 있으니, 이 분들은 조금이나마 배우지만 그 이외에 비사회과 과목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없고. 사회과나 도덕과도 다 교과나 내용 기반으로 배우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큰 것처럼 통일 관련된 교과에서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가 앞으로 많아지게 되면,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만남이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교사들은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교직에 서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2020. 9. 10. 학계 전문가(국어교육 전문가) 면담]

그러나 이러한 강좌 개설은 국가 차원에서 강제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 필요에 의해 학교 차원에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시되었다.

이거를 자꾸 필수로 넣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컨대 교사양성과정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과목이 의무로 꼽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고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대학에서 관련 교수들이랄까, 아니면 학생이 필요해서 대학 차원에서 필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라, 이런 접근은 지금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 9. 10. 학계 전문가(역사교육 전문가) 면담]

마. 법적, 제도적 환경

(1)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법적, 제도적 환경 관련 사회적 요구로는 통일교육지원법이 실질적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을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구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제11조(고발) 조항²⁰⁾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소신에 따라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교사의 자유로운 평화·통일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전반적, 장기적 방향성을 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책임지고, 학교통일교육은 교육부, 교육청이 총괄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020. 9. 11.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면담]

선생님들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항은 맞지가 않다고 ...(중략)... 저희가 생각을 해도 현 시점과 상황에 맞지를 않으니 고발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누가, 어떤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하겠냐고.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해야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2020. 9. 15. 정책 업무 담당자(통일부) 면담]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할 시, 통일부 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20)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에서는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http://www.law.go.kr/법령/통일교육지원법>, 검색일: 2020. 10. 25.).

있다는 조항은 교원들의 자유로운 평화·통일교육을 저해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교원연수, 프로그램, 평가의 더하기가 아닌 법제도의 독소 조항에 대한 빼기가 필요

[2020.9.2.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1차 요구 조사]

통일교육은 남남갈등과 같이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정치적인 성향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보를 강조하거나 평화를 강조하거나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도 국가보안법, 통일교육지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각종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우려 속에서 자기검열을 지나치게 하기도 하고 내적 혼란을 겪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령보완, 매뉴얼 및 지침 등의 지원이 되면 좋을듯합니다.

[2020. 9.2.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1차 요구 조사]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건, 두 개념 다 굉장히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데 분단 이후의 상황에서 통일이 해석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대한 국가 차원에서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석되는 것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게 사회구조에,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성찰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 틈이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고 할까요?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교실에서 다룰 수 없음은 명백히 낡은 개념이고, 폭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뒤에서 지원하겠다,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0. 9. 8.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면담]

위와 같이 고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 업무 담당자 및 유관 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법 위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나친 자기 검열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 담당 주체들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시·도 교육청 및 유관 기관(민간 기관, 대학 등)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일교육은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주도하고 있음. 교육부는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예산 조직, 인력 면에서 많이 부족한 형편임. 통일부의 경우 교육생태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보다 시·도 교육청, 유관기관과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콘텐츠, 교원연수, 학생 공감대 확산 등에 대해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 필요, 기획, 중간, 활용 단계에서 기관 간 의사 소통 및 협력 필요.

[2020. 9. 2.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1차 요구 조사]

통일교육에 대한 통일부의 영향에 대한 재고려, 불필요한 영향이 있는지 검토, 교육부와 통일부의 독립 또는 협력의 범위 설정.

[2020. 9. 2. 학계 전문가(윤리교육 전문가) 1차 요구 조사]

더불어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주체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공문이 학교에 전달될 때도 교육부, 도교육청에서 탈북 분야와 통일교육 분야가 달라 예산을 신청할 때도 별도로 신청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나 관련 연구회 활동은 통일교육과 탈북학생 관련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업무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다르다보니 통일교육 예산과 탈북학생 지원 관련 예산을 따로 신청하고 결과보고서도 따로 내야 하는거죠. 통일교육과 탈북 관련 활동과 예산 지원이 합쳐지면 예산도 한번에 신청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통일과 탈북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거든요.

[2020. 10. 27.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3차 요구 조사]

교육부에서도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 탈북학생교육지원

업무는 교육기획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탈북학생, 통일교육, 남북교육교류와 같은 업무가 각기 다른 담당자들에게 배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업무 담당 주체들 간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의 역할 명료화, 중복 사업 정리, 사업 계획에서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3. 시사점

〈표 V-3-1〉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

영역	학교 현장의 요구	사회적 요구	주요 시사점
가. 평화·통일 교육 개념 및 방향	(1)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 (2) 교육의 외부 요인에 좌우 되지 않는 일관된 통일교육	(1) 학교 현장과의 평화·통일 교육의 목표 및 방향 공유 (2)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일관성 유지 요청	-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료집 제공, 교사 연수 등 필요 - 외부 환경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수준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1)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필요 (2)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 (3) 교과교육과의 연계성 제고	(1)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루는 수업 (2)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 교육과정과 교과서상 서술에서 평화·통일로의 변화를 반영 - 학교급 간 차이, 교과 간 연계를 고려한 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 -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운영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1) 대화 상대로서의 북한 이해를 위한 학습 자료 필요 (2)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수업 자료 제공 (3)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 개발 필요 (4)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자료 개발 및 보급 (5) 평화·통일교육 자료 접근성 제고 및 우수 수업 사례 공유 (6)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	(1) 북한의 오늘날을 보여주는 자료 제공 필요 (2) 북한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수업 자료 요청 (3)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평화·통일교육 요청	- 관련 부처(통일부/교육부)에서 통일교육 교사와 연구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회를 구성하고 관련 교과별 통일교육의 정선된 예시안 보급 - 타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연구회 등 발간자료를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부 통일교육원 자료 홍보 -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당위성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학습 자료 제공

영역	학교 현장의 요구	사회적 요구	주요 시사점
라. 교사 전문성	면 평화·통일교육 방법의 모색 (1)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연수 운영 (2)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 개설 (3)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의무화 (4)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 제공	(1)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연수 개설 (2) 네트워킹 마련과 체험의 기회로서의 연수 제공 (3)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	-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반영된 연수 운영 - 교육 공동체 각 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강좌의 개설 -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다루며 네트워킹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체험형 연수의 제공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이해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마. 법적, 제도적 환경	(1)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장치 마련 (2) 교육부 중심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학생 진학과 연계	(1)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촉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 조항 개정 -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적 관점에서 운영 - 통일부-교육부-시·도-유관 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 - 학교 통일교육이 정부 부처 간 협의 및 소통을 통해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가. 평화·통일교육 개념 및 방향

첫째,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현장과의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되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지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되, 통일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자는 의견,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하므로 평화·통일교육 또한 한 가지 방향과 목표로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정 부분 상충하는 주장으로 보이지만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구체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있다. 이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명확성,

일관성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에 근거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러한 목표와 방향에 근거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학교 현장에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은 이를 둘러싼 주체들과 현장 교사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명해질 수 있으므로, 현장 교사들과 통일교육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현장과 사회 모두 교육을 둘러싼 외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평화·통일교육이 요구된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통일 정책의 목표와 강조점이 바뀌고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도 변화되면서 현장 교사들은 소신을 가지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과 관련된 이슈의 특성상 정치와 안보 환경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적인 교육이나 일회성 연수가 아닌 학교 교육으로서 평화·통일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으로 수행가능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구체적인 학교 수업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 문서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관련된 현장 교사들과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평화·통일교육으로 변화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이 평화·통일교육으로 변화하기 전에 개정된 것이기에 평화·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이전의 통일교육과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지속되는 지점에서 현장 교사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안정적인 평화·통일교육의 운영을 위해 실제 수업에 참조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급 간 차이를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계해야 하며 교과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급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일회적 행사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달 상황과 해당 학년에 대한 학교 및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재구성한다면 통일과 관련된 주제들이 중심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여러 교과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다루어지는 수업이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을 반복하는 수업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분단 및 통일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교육의 교육적 의미가 제고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와 관련해서는 첫째, 대화 상대로서의 북한 이해를 위한 학습 자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수업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알고 통일, 평화와 관련된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북한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자료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예전의 자료나 신뢰도가 부족한 자료가 아닌 공신력 있는 실제적 자료들이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사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자료와 방법이 중요하다. 분단, 북한, 통일 등의 문제와 비교적 거리가 먼 오늘날의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해당 주제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과 경험에 근거한 통일교육 자료가 제시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은 초·중·고 학급별로 차별화된 학습 자료 개발, 평화·통일교육 우수 사례 공유 활성화, 체험 공간 확대 및 시설 확충,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평화·통일 수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수준에 맞는 자료가 활용되고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이 실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평가가 좋았던 수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수업 자료들이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유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홍보 및 배포하고,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교과별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정선된 예시안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나 시설을 늘려 학생들 스스로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북한 접경 지역과 같이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생동감 넘치는 간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VR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삶에 가까운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앞서 제시한 북한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자료 개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 제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균형 있게 파악하고 평화·통일 주제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것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현실화, 실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 자료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지원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당위성과 거대 담론 중심의 교육 자료가 아닌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 교사 전문성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평화·통일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현실화,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장 교사들은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연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연수 역시 평화·통일교육 이전의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목표 등을 중심으로 이전의 통일교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의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수업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와 관련된 연수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 중심의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 대상의 연수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통일 연수와 차별화되는 교육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에서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과 연계한 풍부한 평화·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고민과 자료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이해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확산은 내실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기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교사에게 강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 법적, 제도적 환경

첫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일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평화·통일교육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자유로운 평화·통일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11조(고발) 조항을 포함하여 통일교육지원법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요구된다.

둘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통일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유관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장·단기적인 목표 설정 및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되,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 기관들의 경우 기관 간 독립과 협업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전체적인 목표 설정,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 요소 및 환경 조성 등에 집중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기관 내에서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 교사 연수, 각종 사업 실행 등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VI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
1.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
 2.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본 장에서는 IV장에서 수행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V장에서 수행한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을 고려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1.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

VI장 1절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으로 분석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현황은 다음의 <표 VI-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VI-1-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현황

세부 항목	현황 및 문제점
교육 이념	총론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은 그 주요 특징인 인본주의와 평화주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교육 목적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핵심역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함.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핵심역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함.
핵심역량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함.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강조를 찾아보기 어려움.
학교급별 교육 목표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음.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관성 불분명,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권장 사항에 미달 - 범교과 학습 주제: '통일 교육'이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로, 평화·통일교육의 관점 미반영 - 계기 교육: 정치 중립성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적극적 교육 활동 위축할 수 있고,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음.

<표 VI-1-1>에서 보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구성 요소들의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총론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은 평화·통일 및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사상적 근거로서 적합한 이념이지만 그 주요 특징인 인본주의와 평화주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의 경우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핵심역량과의 간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하다. 총론의 '핵심역량'의 경우에도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직결되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있어서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강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학교급별 교육 목표’ 중에서도 평화·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기본 사항 중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며, 실제로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권장 사항만큼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 항목에는 ‘통일 교육’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만,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하나일 뿐이며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계기 교육’의 경우에는 정치 중립성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자칫 적극적 교육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단기적 개선(안)’과 ‘장기적 개선(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 중인 현 시점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대체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틀 안에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표 VI-1-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단기적 개선(안))

세부 항목	개선 방향	개선 방안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 ‘공동체 의식’의 지향점을 밝힘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을 반영함. - 범교과 학습 주제 : ‘통일 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용어 수정하고, 총론 해설에 범교과 학습 주제 간의 연관성 및 통합 교육 사례를 제시함. - 계기 교육 : 지침 적용이 교사의 수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총론 해설에 계기 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함양하는 교육이 되도록 안내함. 	<p>사.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다.</p> <p>아.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p> <p>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평화·통일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p> <p>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단, 계기 교육 지침의 적용이 교사의 적극적 수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p>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단기 개선(안)으로 본 연구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지향점을 밝힘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는 ‘통일 교육’ 용어를 ‘평화·통일교육’으로 수정하고, 총론 해설의 “통일 교육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 학습하게 하고, 범교과적으로 국가 상징, 한국문화사 교육, 호국보훈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6: 61)라는 설명을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적 관점에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 상호 이해, 존중, 공존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교과 학습 주제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총론 해설에 범교과 학습 주제 간의 연관성 및 통합 교육 사례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²¹⁾

셋째, ‘계기 교육’에서는 지침 적용이 교사의 수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총론 해설에 계기 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함양하는 교육이 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²²⁾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을 교육과정에 최대한 강조하여 반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1) 현행 총론 및 교과 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범교과 학습 주제의 명칭만 총론에 나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필요한 교과를 선정하여 교과 ‘성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음악과, 미술과 등 평화 감수성 및 통일 탐구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의 교과 교육과정 ‘성격’ 항목에 평화·통일교육 등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루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2) 오기성(2019)은 학습자의 호기심이나 관련자들로부터 주목 받기 위한 ‘이벤트성 통일교육’에 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 하면서, 진정한 교육적 취지와 목표, 학습자 문화, 접근 방식 등을 숙고하여 운영한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의 ‘뚜벅뚜벅 한반도의 가을을 걷다’ 프로그램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오기성, 2019: 127).

〈표 VI-1-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선 방향(장기적 개선(안))

세부 항목	개선 방향	개선 방안
교육 이념	총론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 의 이념의 주요 특징이 인본주의와 평화주의 임을 명시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위상을 강화함.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본과 평화의 사상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
교육 목적	'민주 국가'를 '통일된 민주 국가'로 수정하거나 '민주 국가의 발전'을 '한반도의 평화'로 수정하고 '인류 공영'을 '인류의 공존공영'으로 수정하여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 공존의 관점을 반영함.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역량) 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 공영(→ 인류 공존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	평화를 실천하는 민주 시민상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함.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평화와 배려, 나눔을 실천) 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핵심역량	총론의 핵심역량 이외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도 학교 교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총론 해설 등을 통해 밝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제고함.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전반에서 이 핵심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이외에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역량은 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교과 학습 주제인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이 있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을 추가함.	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한다. ... (중략) ...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사. 평화·통일교육 등 법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교과 간 융합 및 연계를 강화한다.
학교급별 교육 목표	평화를 실천하는 민주 시민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 등과 같은 국가주의적 표현을 완화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을 반영함.	초등학교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일상의 삶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평화를 실천하는 역량을) 기른다. 중학교 3) ... 우리나라(→ 한반도)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세부 항목	개선 방향	개선 방안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 서로 소통하고 존중함으로써 평화를 실천하는 민주 시민의 역량)을 기른다. 고등학교 4) 국가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 평화와 배려,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민주 시민의 역량)을 기른다.

첫째, ‘교육 이념’ 항목의 ‘홍익인간’에 그 주요 특징인 인본주의와 평화주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홍익인간’에 ‘인본과 평화의 사상인’(또는 ‘인본주의와 평화주의를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구절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 이념이 ‘평화의 사상’임을 밝히는 것은 학교 교육 전반에서 ‘평화’가 강조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목적’ 항목에서는 타고난 소질이라는 의미가 강한 ‘자질’을 ‘역량’으로 수정하고,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의 관점을 반영하여 ‘민주 국가의 발전’을 ‘한반도의 평화’로 수정(또는 ‘민주 국가’를 ‘통일된 민주 국가’로 수정)하며, ‘평화 공존’의 관점을 반영하여 ‘인류 공영’을 ‘인류 공존공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구하는 인간상’ 항목의 ‘더불어 사는 사람’의 특징에 평화를 실천하는 민주 시민상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을 ‘평화와 배려, 나눔을 실천’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핵심역량’ 항목에는 총론의 핵심역량 이외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등도 학교 교육에 필요하다는 점을 총론 해설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총론의 ‘핵심역량’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총론 해설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이외에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역량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범교과 학습 주제인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으로 평화 감수성 역량, 통일 탐구 역량,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 평화·통일 실천 역량 등이 있다.’ 등을 추가하고 총론의 ‘핵심역량’과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과의 관련성을 표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항목에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강조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교과 학습에 대한 교과 간 융합 및 연계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통일교육 등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교과 간 융합 및 연계를 강화한다.’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학교급별 교육 목표’ 항목에서는 평화를 실천하는 민주 시민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 등과 같은 국가주의적 표현을 완화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목표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을 ‘일상의 삶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며 평화를 실천하는 역량’으로 수정하고, 중학교 목표에서는 ‘우리나라’를 ‘한반도’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서로 소통하고 존중함으로써 평화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으로 수정하며, 고등학교 목표에서는 ‘국가 공동체’를 ‘공동체’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을 ‘평화와 배려, 나눔을 실천’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민주 시민의 역량’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별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가. 평화·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 확보와 교과 확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평화·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의 적정 수를 확보하고 이러한 성취기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수업을 하는 교과(과목)이 확대되어야 한다.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이 총 7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통합교과, 사회, 도덕 등 일부 교과에 집중되어 있다. 이 일부 교과에서 시수 부족, 수업 부담 등으로 인해 관련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초등 국어 교과가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며,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에서는 간접 연계되는 성취기준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는 각 교과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 항목에서 평화·통일교육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 사회 교과에 비해 정치나 이념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 남북 간 학문 및 문화 교류 차원에서도 평화·통일교육과의 연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교과들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항목에는 통일교육 같은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15a: 8).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초등학교 국어 교과 등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성취기준이 전 교과에 걸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반영

(1)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 공존의 관점 반영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아직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에 내재되어 있는 고착화된 이분법적 북한 이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육에서는 과거 체제 경쟁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 고정적이고 이원화된 접근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북한 체제는 문제점이 있고 낙후되었으며 북한 주민은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식의 부정적이며 이분법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부합하는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 공존’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덕과, 사회과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에 등장하는 ‘통일 한국’이라는 표현, 통일교육을 ‘무궁화’를 상징으로 하는 ‘나라 사랑’ 교육과 연계시키는 것 등에는 남한 중심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초등학교 ‘겨울’ 교과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생활 모습을 이분법적으로 대조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접근을 보여주거나 통일된 한반도 지도의 경계를 무궁화로 그린 자료 등도 이러한 사례이다.

(2)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강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강화

현행 교육과정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을 근거로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일상 속에서 평화·통일의 의미를 묻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뿐만 아니라 통일부, 교육부 등이 제시하고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와도 부합한다.

그런데 중학교 도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를 본질적인 인간다운 삶에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로 확장해나갈 수 있다는 평화의 철학에 근거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어 모든 도덕 교과서가 통일을 당위적 목표로 제시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교육부, 2015q: 55). 따라서 통일의 당위성을 다루더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전제’로 다루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다각도로 토론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추상적 거대 담론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 일상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반영

현행 교육과정은 통일을 민족사적 당위나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추상적인 거대 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지적 호기심을 일깨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 교육과정은 일상의 갈등이나 폭력적 문화가 분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였다. 평화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 평화로워 보이는 분단의 상황도 사실은 구조적·문화적 측면에서 폭력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사와 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은 학생 개인의 일상적 삶의 관점에서 분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이 자신, 가족, 학교, 사회,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에 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I

요약 및 정책 제언

-
1. 요약
 2. 정책 제언

1. 요약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분단 체제에서 평화와 공존의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통일교육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현황 및 요구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평화·통일교육이 전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실질적·종합적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부와 교육부 등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의 공식 명칭으로 바꾸면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학교 현장에 제시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선언적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고, 연구자 및 주체별로 서로 다른 개념 정의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의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평화화 및 평화교육 연구, 평화·통일교육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연구 등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방법으로 총 3회의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 협의회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대상은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경험이 있는 초·중·고 교사,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 및 시·도 교육청 장학사,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등 총 20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와 같이 관련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본 연구는 합의도 및 내용 타당성, 가독성이 높은 학교 평화·통일 개념, 핵심역량, 그리고 총괄 및 학교급별 목표를 도출·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기준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가 부족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 계기 교육 등은 형식적 일회성 교육 및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중·고 전 교과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분석한 결과, 총 2,530개 성취기준 중 불과 27개 성취기준만이 평화·통일교육과 직접 연계되어 있고, 이 소수의 성취기준마저도 도덕, 사회, 국어 등 일부 교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평화적·민주적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과서와 교과서 집필기준도 과거 통일·안보교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변화, 개선,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 조사는 1, 3차는 온라인 서면 조사, 2차는 화상 면담 방식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연구학교 6개교, 일반학교 4개교의 초·중·고 교사,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유관 단체, NK교사 등 총 36명 내외의 평화·통일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요구 분석 결과, 학교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교사 전문성,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부문에서 수렴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과 평화·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자료집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업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교급 간 차이, 교과 간 연계를 고려한 교육 목표와 내용의 설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셋째, ‘교수·학습 및 자료’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흥미롭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학생들의 체험이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일상적

삶과 연계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넷째, ‘교사 전문성’에서는 평화·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연수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 공동체 각 구성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고,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섯째,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주체들의 활발한 협의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앞서 수행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현황 분석과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현황에 대한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 교육과정 개선 방향으로는 크게 평화·통일교육 관련 성취기준 확보 및 관련 교과의 확대,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반영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반영을 위해서는 첫째, 남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 공존의 관점을 반영해야 하고, 둘째,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강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추상적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일상의 삶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현황 분석과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 수준, 시·도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장·단기 정책 구상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정립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적 변화에 좌우되는 통일교육이 아닌, 일관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평화·통일교육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되고 있는 연수에 대한 산발적인 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각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시 연수의 실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과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교육 방향성에 맞게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확대 구축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현황 분석과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 분석,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을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 수준, 시·도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장·단기 정책 구상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정책 구상의 체계적 구현을 위해 정책 제언을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교사 전문성, 교수·학습 자료, 법적·제도적 환경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 전략 및 세부 방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의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시기	수준	정책 제언	추진 전략	세부 방안
단기	국가	제언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설정 및 공유	추진전략 1 학교 현장에 적합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방향성 설정 및 공유 추진전략 2 일관된 교육적 관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가치 설정	현장에 적합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업 및 현장 교사 의견 수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교사, 학계 전문가, 평화·통일교육 유관 기관 등의 협업
	교육부 교육청	제언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추진전략 1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정보의 체계적 안내 시스템 마련 추진전략 2 연수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추진전략 3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실용성 제고	교육부, 통일부 통일교육원,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되는 연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장학사, 관리자, 일반교사, 예비교사와 같은 구분 및 교직 경력과 학교급 등에 따른 차별화된 연수 제공 체험형 연수의 확대,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네트워킹 마련, 교과 수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연수의 실용성 제고
중기	교육청 학교	제언 3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공	추진전략 1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 신뢰도 높은 학습 자료 제공 추진전략 2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추진전략 3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추진전략 4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과 시설 확충	교육부, 통일부, 시·도 교육청 주도의 실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 개발 및 보급 학교 현장 교사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지원, 수업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의 삶과 연계 가능한 통일 관련 자료 제공 통일 관련 체험 공간과 시설의 관리, 확충 및 접근성 강화, 평화·통일교육 목표에 맞도록 기존의 체험 공간 재구성, 가상 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	제언 4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	추진전략 1 평화·통일교육 방향성에 맞도록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추진전략 2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추진전략 3 고등학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 제3조, 제2조의 개정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 가치 설정을 위한 교사, 학계 전문가, 평화·통일교육 유관 기관 등의 협업 세부 방안 : 고등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대입과의 연계

[그림 VII-2-1]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개요

제언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설정 및 공유



추진 전략

- 학교 현장에 적합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방향성 설정 및 공유
- 일관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평화·통일교육 설정

추진 전략 1 학교 현장에 적합한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방향성 설정 및 공유

통일부에서 기존의 통일교육 지침서를 대체하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행하고, 교육부에서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통일교육과는 다른 평화·통일교육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될 것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에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성에 혼란을 겪고 있어 통일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유관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심층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방향이 평화·통일교육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평화·통일교육이 이전의 통일교육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점들을 수업에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언적이고 추상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기존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평화·통일교육은 그러한 교육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가 요구된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 후에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평화·통일교육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고, 평화·통일교육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 관련 정부 기관과 교육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설정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학교 현장에 널리 잘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 연수,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변화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알리되,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는 상호작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보다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정책과 교육 현장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다.

추진 전략 2 일관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평화·통일교육 설정 및 추진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일정책이 바뀌고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변화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내·외적인 정치적 역학 관계나 상황에 따라 통일정책이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기는 어려우며, 반대로 평화적인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으로 남북한을 둘러싼 문제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현실과 배치되는 교육을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 외적 요인의 변화로 인한 통일정책의 변화가 곧바로 학교 통일교육의 변화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현장 교사들의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일시적이고 언제든 변화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심층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교사들은 통일교육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라는 외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관적인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통일정책 변화는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변화가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에서 평화와 상호 이해, 대화와 타협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들은 흔들림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정책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핵심 가치가 아닌 평화·통일과 관련된 관계의 변화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에서 어떤 내용들이 보편적인 영역이고 외적 요인과 상관없이 학습되어야 하는 고정적 내용 요소인지는 통일교육 관련 정부 기관과 학계 전문가, 그리고 학교 현장 교사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다. 특히 통일정책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통일부, 교육부 등 통일교육 유관 기관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제언 2 평화·통일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추진 전략

-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정보의 체계적 안내 시스템 마련
- 교사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실용성 제고

추진 전략 1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정보의 체계적 안내 시스템 마련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정보의 체계적 안내 시스템 마련은 연수 운영의 효율화와 연관된다. 현재 평화·통일교육 연수는 교육부, 통일부 통일교육원,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과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하여 개설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세부 과정 현황과 계획의 대강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통일교육 운영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일부 개설 주체들(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 계획 중인 통일교육과정의 과정명, 대상 인원, 일정, 연수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연수의 세부 내용

및 신청 방법과 같이 연수 이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는 얻을 수가 없으며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연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자신에게 필요한 연수가 무엇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일정에 따라 수강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연수 개설 정보의 체계적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수 개설 정보 안내가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공고되는 연수 개설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연수 정보들이 한 플랫폼에서 개설 주체, 목적, 대상, 개설 시기에 따라 분류되어 제공된다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실제 수강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는 이 교육이 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담당 교과의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연수라서 수강할 수도 있고,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변화된 통일교육의 방향이 궁금하여 연수를 수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필요를 손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연수 개설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한다면 평화·통일교육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연수를 수강하고 관심을 유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추진 전략 2 교사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

교사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 개설은 연수 대상의 상세화를 통한 연수의 범주 확대와 연관된다. 학교 현장과 관계된 교육 공동체는 단일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대상자도 장학사, 관리자, 일반교사, 예비교사와 같은 구분뿐 아니라 교직 경력, 학교급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통일부의 연수들도 정책지도자, 전문강사, 공직자, 유·초·중등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는 보다 상세한 수준까지 분화되어 있다. 이처럼 세분화된 대상에 따라 개설되는 연수들도 각 대상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책 이해와 관련한 연수가 주가 되지만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수의 담당자라면 연수 기획과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연수가 요구된다. 연수 운영에 있어서도 정시 퇴근이 어렵고 방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 연수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이더라도 내용의 측면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교수·학습 방법을 다루는 연수, 교과 내용에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의 학습을 깊이 있게 진행하기 위한 연수와 같이 각자의 필요에 따른 강좌가 개설될 수 있다. 또한 연구학교 소속 여부, 교직 경력, 학교급, 담당 교과에 따른 각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연수들이 개설될 수 있다. 동일한 학교에 재직 중이더라도 각자 접했던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교과목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개설해야 한다.

추진 전략 3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실용성 제고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실용성 제고는 연수 내용의 조직과 연관된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 학교 현장에서 연수를 진행해 온 유관 단체 관계자들은 체험형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론에 대한 압도 중요하지만 참여자의 경험과 느낌을 연수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내 일상과 거리가 있다고 여겼던 평화·통일에 대해 성찰해 볼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체험형 연수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평화·통일교육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접경 지역 연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접경 지역과 거리가 먼 시·도의 경우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편이므로 접경 지역 연수를 통한 인식 개선과 동기 부여의 기회가 필요하다. 접경 지역과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도 접경 지역 체험을 통해 비일상적인 사건으로 여기던 분단을 현재 우리가 처한 일상으로 느낌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접경 지역 체험은 인식 개선뿐 아니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교사학습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가 실현되는 연수여야 한다.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업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는 경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평화·통일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한 발언의 부담과 같은 고충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데 학습 공동체로서의 네트워킹은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체험형 연수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연수의 수업 활용성 제고로 이어진다. 체험형 연수로 인해 신장된 역량은 실제 수업에의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도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은 수업에 직접 활용 가능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에서부터 수업에서 다룰 자료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직접 수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의 경우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도 개설된 바 없고 현직 교사들에게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 연수의 내용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교과 중심의 연수를 개설하여 교사들이 지닌 교과 전문성과의 결합을 꾀해야 한다. 초등학교급에는 교과 구분이 없지만 교사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교과가 있을 수 있으며 평화·통일교육과 연계를 시도하고 싶은 교과가 있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급에서는 자신의 교과에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평화·통일교육을 접목하여 새로운 수업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수 수강의 유인이 될 수 있다.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만을 다룰 경우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현장 교사들에게는 해당 연수를 들을 만한 동기가 적기 때문에 이처럼 교과 중심의 연수를 개설하는 것은 유의미한 효과를 의도할 수 있다. 평화·통일에 대해 자주 다루오지 않은 교과이더라도 자신의 교과의 내용 중 평화·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접목할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시도가 교과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향후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이어서 수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평화·통일교육 관련 정규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상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교과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에 교과 중심 연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평화·통일 관련 내용을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의 선정과 활용에 대한 연수가 개설되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이 현장에 적용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제 자체의 부담감은 자료 선정과 활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진다.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여도 그러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경로도 알기 쉽지 않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통일교육원

통일·북한자료센터와 같은 곳은 서울에 위치하기에 지방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며 자료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교육 장면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인지, 과장이나 왜곡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 연수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 방법과 활용법 등을 다룬다면 이미 제작된 기존의 수업지도안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과는 차별화된 수업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언 3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공



추진 전략

-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 신뢰도 높은 학습 자료 제공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과 시설 확충

추진 전략 1 북한에 대한 실제적이고 신뢰도 높은 학습 자료 제공

현장 교사들은 북한의 오늘날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오면서 축적되어 온 자료들은 북한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연구학교, 일반학교, NK교사 포함)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방송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또한 안보를 강조하던 시절의 적대적인 북한의 분위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의 이야기, 외부에 전혀 개방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학생들의 학교 이야기, 일반적인 경제 및 사회생활 이야기 등을 들려주면서 북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돕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체의 특성상 신뢰도 면에서 한계가 있어 평화·통일교육에 적합한 교육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개인 방송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한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면 교사들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일반 교사들보다는 통일교육 유관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교육이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현장에서 자리잡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진 북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복합적인 인식과 관점은 혼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한 교육 자료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한반도 주변 환경과 정치적 관계에 따라 강조점이 바뀌기는 했지만 평화·통일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에 근거한 사실 중심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정부에서 개발 및 배포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선택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수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진 전략 2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북한이나 통일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나 통일연구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일반 학교에서는 통일교육 자체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특정 교과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부 교사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없는 편이다. 따라서 학교 평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학생들은 분단, 북한, 통일 등과 거리가 멀고, 북한과 통일 문제를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기존에 실시했던 민족과 당위성 중심의 내용 전달식 통일교육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학교 현장 요구 조사를 위한 면담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도덕과 교사가 통일의 편익과 비용 측면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 이유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평화·통일교육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 자료와 교수·학습 방법 개발은 학교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학생들이 통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평화·통일교육에 어떻게 답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육 관련 정부 기관은 교사들이 평화·통일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되는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을 토대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우수 사례를 시기별로 발굴하고, 학교 현장에 공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추진 전략 3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과 정치적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반공과 안보를 중시하던 시절의 분위기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등한 대상으로서의 북한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통일과 관련된 이슈는 그들의 일상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 면담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통일문제와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학생들도 현재 또는 미래에 북한 및 통일이 관련된 문제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통일문제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과 사회적 요구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통일에 대한

당위적 접근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특히 평화·통일교육 개념이 등장하면서 평화라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의 일상으로부터 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역량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는 추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상에서의 평화라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통일교육에 비해 학생들의 삶과 경험에 더욱 밀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일상성을 가지는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면담 내용에서도 제시된 것과 같이 북한의 언어, 학생들의 학교생활, 도로 교통 등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고, 통일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취업 등과 같은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 자료를 북한의 일상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자료와 이러한 자료를 학생들의 삶과 연관 지어 적절하게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통일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 그리고 학계와 학교 현장 전문가들의 공동 협업이 요구된다.

추진 전략 4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과 시설 확충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흥미를 가지고 일상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분단, 북한, 통일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효하다. 특히 통일 문제와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현장 그 자체가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것은 평화·통일교육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DMZ나 통일전망대 등을 활용한 체험 시설은 활용되고 있지만, 평화·통일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적합하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체험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나 문제를 보여주는 공간이나 시설의 경우 그러한 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 유관 정부 기관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체험 공간이나 시설이 교육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방 지역이나 분단, 통일과 관련된 특별한 지역이 아닌 곳의 학생들이 평화·통일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 공간적 거리의 문제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상현실(VR) 및 가상현실에 기반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닌 현실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언 4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



추진 전략

- 평화통일교육 방향성에 맞도록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 고등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전략 1 평화·통일교육 방향성에 맞도록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통일교육은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헌법 전문과 제4조는 통일교육지원법의 토대이기도 하다. 헌법 전문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선언하고, 헌법 제4조는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두면서 동시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부, 교육부 등의 지침 및 정책 문서의 법적 근거인 통일교육지원법 중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11조 고발’ 등은 학교 평화통일 방향성과 충돌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개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V장의 사회적 요구 조사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제안된 부분이다(소성규, 2019; 조정아 외, 2019; 함규진 외, 2019; 김병연, 2018a; 김창환, 2003). 평화·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시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중략)...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이하 생략)...

제1장 총강...(중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검색일: 2020. 10. 2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일교육지원법의 대표적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지원법이 입법 목적에 충실하게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발 조항(제11조)’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지원법 제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이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항들을 규정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굳이 고발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표 VIII-2-1>에서 보듯 기존 법에 비해 현행법에서 ‘시정 요구’를 추가하는 등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11조(고발 등)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학교 통일교육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점이 본 연구의 사회적 요구 및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다(김병연, 2018a; 김창환, 2003; 소성규, 2019; 조정아 외, 2019 등).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통일교육지원법에 실제 학교 현장 교사들이 자유롭게 통일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해당 법의 입법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의 방안으로는 “제11조(시정 요구 등) 통일부 장관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방안, 더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수준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VII-2-1〉 통일교육지원법 제11조 조항의 변화 내용 및 본 연구의 수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수정(안)
기존 [시행 2008. 2. 29]	기존 [시행 2014. 2. 14]	현행 [시행 2018. 9. 14]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삭제

출처: <http://www.law.go.kr/법령/통일교육지원법>. 검색일: 2020.10. 25.

둘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다루는 제3조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제3조에서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1항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와 ‘평화적 통일 지향’으로 명시된 것으로, 〈표VII-2-2〉에서 보듯 이 점은 해당 조항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본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에 일견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육 관점에서 볼 때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은 통일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읽힐 수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 또한 통일의 과정과 결과로서 중요하다라는 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평화적 통일’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확장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검토가 필요하다.

〈표 VII-2-2〉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의 변화 내용 및 본 연구의 수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수정(안)
기존 [시행 2008. 2. 29]	현행 [시행 2018. 9. 14]	
<p>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p> <p>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p>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p> <p>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p>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p> <p>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출처: <http://www.law.go.kr/법령/통일교육지원법>. 검색일: 2020. 10. 25.

셋째, 시대적 변화와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통일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는 통일교육 개념의 재정립이 요청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관점에서 보자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의 수정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개념’도 새롭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표 VII-2-3〉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 시행된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긴 했지만 약간의 표현 제시 방식의 변화만 있었을 뿐, 개념 정의의 본질적인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도 국민을 길러내는 교육에서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변화해 온 만큼 새로운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면 좋을 것이다. 20여 년간의 사회적 변화를 담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평화, 민주주의, 시민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의식은 현재 규정된 통일교육 개념 안에서는 제대로 담기 어렵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관점에서 제안한 통일교육지원법의 통일교육 개념 수정(안)은 〈표 VII-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현행 법 조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는 표현은 제3조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서 다시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굳이 반복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등 선형적이고 당위적이면서 또 학문적, 사회적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의가 진행되는 표현들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며, 좁은 의미의 국가 안보를 넘어 보다 넓은 의미의 ‘인간 안보’ 차원에서 안보관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표현은 통일교육의

보편타당한 개념 정의에 포함되기에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참여 및 실천을 통해 지역, 국가, 동북아, 세계 수준의 공동체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가치관과 태도를 넘어 실제적 맥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 등의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VII-2-3〉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조항의 주요 변화 내역 및 본 연구의 수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수정(안)
기존 [시행 1999. 8. 6]	기존 [시행 2005. 7. 28]	현행 [시행 2018. 9. 14]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통일교육”이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 태도,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p>

출처: <http://www.law.go.kr/법령/통일교육지원법>. 검색일: 2020.10. 25.

요컨대, 지금까지 논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표 VII-2-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이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보다 제약하거나 충분히 구현해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사항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약간의 문구 변화를 거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20여 년간 해당 조항들은 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해당 조항들의 법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제11조 고발 조항의 경우는 사회적 요구 조사에서도 합의도가 높아 비교적 단기간에 개정이 추진될 수 있겠지만, 제2조와 제3조의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통해 통일교육의 개념과 기본 원칙이 마련되어야만 그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표 VII-2-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제11조 고발 조항 삭제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삭제〉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 수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 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 하여야 한다.
제2조 통일교육 정의 수정	제2조(정의)...(중략)...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중략)... 1. “통일교육”이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 태도,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통일교육지원법>. 검색일: 2020. 10. 25.

추진 전략 2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체계성,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주도의, 중앙 정부 중심, 통일부 중심의 통일교육 추진을 탈피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조정과 협력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성격상 국가(정부, 특히 통일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통일교육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따르면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법령/통일교육지원법>. 검색일: 2020. 10. 25.). 그러나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초·중등학교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직접적으로 통일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교육부-시·도 교육청-학교 현장에 좀 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 공공기관, 시·도 및 교육청, 시민사회, 학교 구성원, 다양한 분야의 학계,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의 토대를 강화하여 실제 수용가능하고 힘 있는 통일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우선 종적인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학교 통일교육정책의 주요 주체들인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의 역할 명료화 및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통일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주 담당자를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총체적인 교육적 관점 속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통일교육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 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또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이 통일교육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부와 교육부 등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에서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권한과 책임을 좀 더 이양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다만 시·도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협력적 네트워킹과 소통을 통해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 지역 시민단체, 지자체 중심의 지역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둘째, 횡적인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 정부 부처 내에서도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보훈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국방부 등 중앙부처 간의 협업 또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통일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 부처 내에서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특징과 방향성, 유의점 등을 공유하여 각 기관별로 학교 현장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학교 통일교육이 반공, 안보교육 중심이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는 부처 간 중점 사업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주적인지 상호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할 대상인지,

나라사랑, 호국보훈, 통일, 국가안보와 평화·통일교육의 접점과 차별점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정부 부처 간 지속적이고 협력적 네트워킹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개념, 방향성,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숙의 및 합의,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과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에는 독일이 그러했듯, 우리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한국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주체와 교육계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논쟁하여 도출된 사회적 숙의와 합의의 산물로 보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와 쟁점을 다루는 교육적 원칙을 도출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추진 전략 3 | 고등학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앞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총체적인 교육적 관점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학교 현장 요구 조사를 통해 고등학교는 대입을 앞둔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은 대입과 연계될 때,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제는 현재의 통일부 주도(주관)의 평화·통일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그림 VII-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경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경우는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학교장이 승인한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된다. 이때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한다. 그 외 외부기관(시민단체 포함)이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신청을 받아 학교장 승인 후 참가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현재 통일부(통일교육원)에서 주로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 안내되는데, 통일부(통일교육원)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사항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책 소비자에게 실제 닿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한다(봉사활동 제외).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위 1), 2), 3)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기재 가능함.
-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참고자료 5]를 참조함.

- 학교교육계획 입력 조건(모두 충족):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타학교 및 교육관련기관 입력 조건(모두 충족): ① 학교장 승인 ② 타학교(동일학교급) 및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예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활동으로 장소가 교외인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 입력할 수 있음.
- 〈예시〉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활동 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나, 학교장이 승인하여 타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입력할 수 있음.
- 〈예시〉 외부기관(시민단체 포함)이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신청을 받아 학교장 승인 후 참가하는 경우 입력할 수 없음.

- 4) 학교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청소년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은 입력할 수 없다.
- 5)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출처: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91.

[그림 Ⅶ-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지침(일부)

이와 같이 통일부 주도의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서도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평화·통일교육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통일부가 주관하더라도, 그 중 학교 평화·통일교육정책의 수행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도록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아닌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등 학생부 기재요령에 적시된 ‘교육관련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고등학생들이 의미 있게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교육관련기관’으로 제한된 학생부 기재요령을 수정함으로써 통일부 주최/주관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 즉 현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한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승인하여 통일부 등 중앙정부부처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요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VII-2-1>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중앙정부부처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I-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정(안)

현행*	수정안
<p>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p> <p>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p> <p>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p> <p>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p> <p>※ 복수의 기관이...</p> <p>※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소속기관: ... ▪ 시·도교육청 및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 입력 조건(모두 충족): ... ▪ 타학교 및 교육관련기관 입력 조건(모두 충족): ① 학교장 승인 ② 타학교(동일학교급) 및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p><예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p> <p><예시> 중학교 학생이...</p> <p><예시> 외부기관(시민단체 포함)이...</p> </div> <p>4) 학교장 승인을 받았더라도...</p> <p>5)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p>	<p>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p> <p>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p> <p>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p> <p>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p> <p>4) 학교장이 승인한 중앙정부부처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신설]</p> <p>※ 복수의 기관이...</p> <p>※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소속기관: ... ▪ 시·도교육청 및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 입력 조건(모두 충족): ... ▪ 타학교 및 교육관련기관 입력 조건(모두 충족): ① 학교장 승인 ② 타학교(동일학교급), 교육관련기관, 중앙정부부처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p><예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p> <p><예시> 중학교 학생이...</p> <p><예시> 외부기관(시민단체 포함)이...</p> </div> <p>5) 학교장 승인을 받았더라도...</p> <p>6)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p>

출처: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91.

셋째, 더 나아가 평화·통일교육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정책의 연계도를 높이는 정책적 고려를 통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학과, 외교학과 등 통일 정책 연구와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유의미하게 실질적으로 참조하여 선발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 실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1997). 한국 평화교육의 성격과 실제. **한일 평화교육**(제1회 한일평화교육 심포지엄자료).
- 강순원(2000).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 고병헌, 임정아, 김찬호, 정지석, 강정숙(2007). **평화교육의 개념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통일부 용역보고서.
- 교육부(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
- 교육부(2015b).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교육부(2015c).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 교육부(2015d).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8].
- 교육부(2015e).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9].
- 교육부(2015f).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
- 교육부(2015g).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1].
- 교육부(2015h).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2].
- 교육부(2015i).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3].
- 교육부(2015j).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 교육부(2015k).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초등통합)**.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5].
- 교육부(2015l).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6].
- 교육부(2015m).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7].
- 교육부(2015n).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9].
- 교육부(2015o).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보통 교과 선택 과목 연극 포함)**.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22].
- 교육부(2015p).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42].
- 교육부(2015q).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기준(국어, 도덕, 경제, 역사)**(2015.12.).
- 교육부(2015r).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집필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기준**(2015.11.).
-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188-01.

- 교육부(2018a).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 교육부(2018b).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2018.07.31.).
- 교육부(2018c).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2018.11.28.).
- 교육부(2019). **2020년 학교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세종: 교육부.
- 김광린(2006). 평화통일의 이념과 홍익인간사상. **평화학논총**, 1(1), 53-81.
- 김국현, 변종현, 이인재, 박보람, 문경호, 최선(2018). **통일교육 관련 초·중·고 교육과정 개선방안 검토**. 한국교원대학교.
- 김병연(2018a). 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정방안 연구: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8, 115-135.
- 김병연(2018b).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1, 1-2.
- 김병연(2019).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4, 29-60.
- 김상무(2015). 고등학교 평화교육내용의 현실과 과제. 한국통일교육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한국학연구센터. **해방 70년, 남남갈등 치유를 위한 평화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 김상범, 김현미, 이상아, 김태환(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정립**.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이슈페이퍼 ORM 2020-40-8.
- 김선자, 주우철(2019). 평화·통일교육과 감수성. **한국동북아논총**, 24(2), 187-206.
- 김영주(1996). 유아기 평화교육을 위한 이론적 탐색.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23-43.
- 김진숙, 조보경, 김현수, 이민형, 김창환, 이인정(2018). **통일·평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8-2.
- 김창환(2003). 통일교육지원법 개선 방안 연구. **통일교육연구**, 3, 47-69.
- 박금해(2016). 통일사상으로서의 홍익인간사상-적합성 및 주요특징과 내용. **평화학논총**, 6(1), 5-29.
- 박보영(2009). 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의 탐색. **교육사상연구**, 23(1), 1-16.
- 박성춘,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파주: 집문당.
- 서보근(2014). 한민족의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의식 강화와 세계평화 증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28차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213-217.
- 소성규(2019).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법과 정책연구**, 19(3), 287-328.
- 심성보, 류시관(2004). 통일교육의 평화교육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16, 5-38.
- 안승대(2013).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연구**, 10, 44-54.
- 여현철(2019). 한반도 통일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7(3), 161-182.
- 오기성(2017). 남북한 통일을 위한 평화교육. 한반도의 갈등 구조와 평화 담론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한국 초등 도덕 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오기성(2019). 통일환경 및 통일인식 변화에 따른 교육의 과제: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중심 접근. **제7회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북**. 통일부·교육부.
- 이경태(2005). 평화교육에 관한 서설적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2(3), 79-99.
- 이대훈(2019). 평화 역량과 평화교육의 적용. **제7회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북**. 통일부·교육부.
- 이동기, 송영훈(2014).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슬기(2019).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탈분단 담론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5, 83-102.
- 이인정(2019).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2, 1-24.
- 이인정(2020). 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교육 성과와 과제. **2020년 한반도 평화·통일 연구와 교육의 전망과 과제**. 2020년 서울교육대학교 통일·평화·시민교육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143-159.
- 이항재(2002). 유아기의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러셀의 평화교육. **열린유아교육학회 2002년 봄 학술대회 논문집**.
- 정영수(1993). 평화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 31(5), 173-193.
- 정영철(2010).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14(2), 189-214.
- 정현백, 김정수(200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조정아, 박주화, 김지수, 정용민, 김병연(2019). **학교 평화·통일교육 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세종: 교육부.
- 최민수(2012). 유아교육에서의 평화교육 이해와 적용. **동아시아 평화와 통일 교육의**

- 만남(2012년도 한국통일교육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추병완(200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2016). **2016 통일교육 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2019a).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2019b). **2020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2019c).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부(2019).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도자료**(2019.03.05.).
- 한만길(2019).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통일정책연구**, 28(1), 135-157.
- 황인표(2006). **도덕교육과 통일교육**. 서울: 울력.
- 황인표, 박찬석, 정용민, 이소영(2007). **평화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황인표(2014).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론**. 서울: 울력.
- Balasoorya, A.S.(2001). *Learning the way of peace: A teacher's guide to peace education*. New Delhi, Indi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Barosa, R. B.(2007). *Leitfaden zum Konfliktmanagement*. GTZ.
- Bonacker, T. & Imbusch, P.(2006). Zentrale Begriffe de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In: Imbusch, P. & Zoll, R. (Hg.), *Friedens-und Konfliktforschung, Eine Einfuhrung*, 4. Aufl, Wiesbaden.
- Burns, R. J. & R. Aspeslagh(2005). *Three decades of peace education around the world : an anthology*. 장원석·강근형·김진호·박종필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현실**. 서울: 각.
- Dencik, L.(1972). *Plädoyer für eine revolutionäre Konfliktforschung*. In: Senghass. D. (Hg.).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 Suhrkamp.

- Deutsch, K. W. et al.(1957).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Dewey, J.(2008). *Democracy and Education/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김성숙, 이귀학 역. **민주주의와 교육/ 철학의 개조**. 서울: 동서문화사.
- Etzioni, A.(1965).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Galtung, J.(2000). *Peace by peaceful means :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Basic Books.
- Ginsberg, A.(2001). *Educating for peace and Democracy*. 2001 KEDI International Seminar.
- Gugel, G.(2008). *Was ist Friedenserziehung?* In: Grasse. R., Gruber, B. & Gugel, G., *Friedenspädagogik*. Reinbek: Rowohlt.
- Gugel, G. & Jäger, U.(2007). *Frieden gemeinsam üben*. Tübingen: Institut für Friedenspädagogik; Weltfriedensdienst.
- Harris, I. M.(1988). *Peace Educati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New York. Inc.
- Harris, I. M.(2007). Peace education theory. *Journal of Peace Education*, 1(1), 5-20.
- Hauenstein, A. D.(2004). *(A)Conceptual framework for educational objectives*. 김인식 외 역. **신 교육목표분류학**. 서울: 교육과학사.
- Hicks, D.(ed.)(1988). *Education for Peace: Issues,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Classroo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icks, D.(1990). *Peace Education, The New Social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cks, D.(1993). *Education for peace*. 고병현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 Hutchinson, F. P.(1996). *Education beyond Violent Futures*. Routledge.
- Montessori, M.(1966). *The Secret of Childhood*. New York: Ballantine Books.
- Reardon, B. A.(1995). *Educating for Human Dignity-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enn Pre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pencer, L. M. & S. M. Spencer.(1998). *Competence at Work*. 민병모 외 역. **핵심역량모델의 개발과 활용**. 서울: 피에스아이컨설팅.
- Windmueller, E., K. Wayne & J. Botes.(2009). Core Competencies: The Challenge for Graduate Peace and Conflict Studies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5(2/3), 285-301.
- Wintersteiner, W.(2002). *The EURED Teacher Training Programm Curriculum of a European Peace Education Course*. Klagenfurt.
- Wulf, Ch.(1994). *Friedenserziehung*. In: Lenzen, D. (Hg.), *Padagogische Grundbegriffe*, Bd. 1. Reinbek: Rowohl.

〈시·도 교육청 자료 목록〉

- 강원도교육청(2020).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 실현을 위한 2020 평화·통일 교육 기본 계획**. 춘천: 강원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2020). **경기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원: 경기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2020). **평화·통일 감수성 향상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20 경남 평화·통일교육 계획**. 창원: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2020). **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안동: 경상북도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2020년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2020).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을 위한 2020년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2020). **2020학년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2020). **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2020 평화·통일교육 기본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2020년 평화·통일교육 추진계획**.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2020학년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2020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0). **학생 중심,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2020). **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시행 계획**. 무안: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2020). **학생 중심, 평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계획**. 전주: 전라북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2020). **2020학년도 평화·통일교육 추진 계획**. 홍성: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2020). **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 청주: 충청북도교육청.

〈교과서 목록〉

- 강성률, 박정수, 나윤숙, 최경미, 박기호, 이형식, 남대호, 최광철, 박소연, 김경섭, 박선미, 김경석, 허유리, 송진아(2018). **중학교 도덕 교과서(중학교 도덕2)**. 리베르스쿨.
- 교육부(2020a). **초등학교 통합교과서(겨울①-2)**. 교육부.
- 교육부(2020b).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사회⑤-2)**. 교육부.
- 교육부(2020c).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사회⑥-2)**. 교육부.
- 구정화, 한진수, 정필운, 설규주, 장준현, 정석민, 박정애, 엄정훈, 허은경, 김동환, 김민수, 옹진환(2018). **중학교 사회 교과서(중학교 사회2)**. 천재교육.
- 김덕수, 조영현, 방대광, 박상필, 강진원, 강현태, 정동연, 최윤제, 윤미리, 전영훈, 고은경, 이은영, 김슬기(2020). **중학교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2)**. 천재교육.
- 김영순, 박선미, 황규덕, 조수진, 김부현, 신현각, 이은상, 김세배, 박찬정, 이금란, 김용걸, 김웅, 정지만, 이수연(2018). **중학교 사회 교과서(중학교 사회2)**. 동아출판.
- 김태웅, 윤선태, 박진빈, 서각수, 안정희, 이종대, 한성욱, 심원섭, 이수정, 송치중(2020). **중학교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2)**. 미래엔.
- 김형종, 장문석, 박범희, 고재연, 고진아, 김현성, 우정애, 이대희, 우현진, 맹수용(2020). **중학교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3)**. 금성출판사.
- 노대환, 김인호, 서인원, 강승호, 최태선, 김형종, 이은령, 이재욱, 한유섭, 조예슬, 최푸름(2020). **중학교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2)**. 동아출판.

- 노영준, 고영옥, 김권환, 정상조, 조기식, 조성태, 조항민, 임춘희, 허정탁(2018). **중학교 도덕 교과서(중학교 도덕2)**. 동아출판.
- 민현식, 신명선, 오현아, 이지은, 안장호, 조진수, 박진희(2018).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박근칠, 채희숙, 김재홍, 최재영, 최병택, 정요근, 김지연, 노경덕, 박정순, 조미영, 박재욱, 이원준, 정선아, 최숙희, 이주현, 이학운(2020). **중학교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2)**. 지학사.
- 박병기, 류지환, 김국현, 신승현, 이인화, 안혜초, 이윤주, 이동욱, 남현, 최동훈, 김형남, 이연수, 김은미, 박지혜(2020). **중학교 도덕 교과서(중학교 도덕2)**. 비상교육.
- 박철용, 김진수, 조성호, 강은희, 이강준, 김지현, 백승진, 최재희(2017).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고등학교 한국지리)**. 미래엔.
- 박형준, 서현진, 신정엽, 김현철, 이봉민, 이정식, 김봉수, 조영매, 이해란, 박복순, 고인석, 신정아, 김찬미(2018). **중학교 사회 교과서(중학교 사회2)**. 천재교과서.
- 변순용, 김남준, 윤영돈, 임상수, 장승구, 손은정, 오은석, 윤기용, 이성희, 정선희, 차승한, 홍정근(2018). **중학교 도덕 교과서(중학교 도덕2)**. 천재교과서.
- 송호정, 전현수, 강석화, 박대훈, 문경호, 김종준, 김종민, 김희영, 서명원, 김민정(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 신유식, 정미선, 이필규, 김영찬, 전경원, 윤인희, 박선주, 김정희, 이은화, 나단비(2020). **중학교 국어 교과서(중학교 국어1-1)**. 미래엔.
- 이도영, 강경일, 강애라, 김미영, 김수란, 김영석, 김외곤, 김태은, 박승환, 양은희, 오윤주, 이지영, 이진경, 한명숙(2020). **중학교 국어 교과서(중학교 국어1-1)**. 창비.
- 이민부, 조영달, 김왕근, 김기남, 김도영, 김태환, 박서구, 박찬선, 박철용, 이병인, 정명섭, 최종현 (2018). **중학교 사회 교과서(중학교 사회2)**. 박영사.
- 이병인, 임승휘, 이종서, 이건홍, 최태성, 신승원, 권효신, 안선미, 이지은, 김원일, 최효성, 김중환(2020). **중학교 역사 교과서(중학교 역사2)**. 비상교육.
- 이은영, 박순영, 박정호, 권가웅, 박성희, 이재찬, 허단비(2020). **중학교 국어 교과서(중학교 국어3-2)**. 동아출판.

- 정창우, 노영란, 정희태, 박성춘, 문일호, 김성관, 김정민, 정병석, 김성태, 이수빈, 이주은, 이지연, 정나나(2018). **중학교 도덕 교과서(중학교 도덕2)**. 미래엔.
- 정창우, 최원희, 김진영, 문일호, 박홍인, 박정윤, 박용우, 전정재, 신종섭, 한경화, 박재현, 이주은, 김윤정(2020).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 정호웅, 우완, 김수학, 윤대석, 송지연, 정지민(2018).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 차우규, 이재현, 권윤호, 안인선, 이진희, 윤인철(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 추병완, 정탁준, 김신아, 조성민, 이정렬, 조주현, 박윤희, 박혜영, 박학래, 추정완, 유성주(2018). **중학교 도덕 교과서(중학교 도덕2)**. 지학사.
- 한철호, 강승호, 권나리, 김기승, 박지숙, 임선일, 조왕호, 조용래(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 허수미, 송민구, 신민하, 양현서, 박광원, 김지혜, 김건태(2019).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 허정미, 천은영, 최춘지, 김민하(2017).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음악4)**. 지학사.

〈인터넷 사이트〉

- <http://www.law.go.kr/법령/통일교육지원법>(검색일: 2020. 10. 25.).
-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검색일: 2020. 10. 25.).
-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lanStory/>(검색일: 2020. 10. 25.).
- <http://tongil.moe.go.kr>(검색일: 2020. 10. 25.).

〈 관련 자료 목록 〉

- 면담조사: 1차 요구 조사 자료 목록
1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2.)

1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6.)

□ 면담조사: 2차 요구 조사 자료 목록(학교명은 참여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기호화함)

연구학교(중) A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3.)

연구학교(고) B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4.)

연구학교(중) B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4.)

NK교사(초) B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4.)

일반학교(중) A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7.)

연구학교(초) B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7.)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8.)

일반학교(고)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8.)

일반학교(중) B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8.)

NK교사(중) A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8.)

NK교사(중) B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8.)

연구학교(고) A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9.)

연구학교(초) A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9.)

일반학교(초)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9.)

NK교사(초) A학교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9.)

유관 단체(평화/통일 관련 비영리단체)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0.)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0.)

학계 전문가(국어교육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0.)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0.)

학계 전문가(역사교육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0.)

학계 전문가(윤리교육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0.)

NK교사(고)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0.)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1.)

정책 업무 담당자(교육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4.)

정책 업무 담당자(통일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5.)

학계 전문가(사회교육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5.)

학계 전문가(지리교육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5.)
 학계 전문가(평화/통일 전문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6.)
 정책 업무 담당자(통일부) 2차 요구 조사 자료(2020. 9. 17.)

□ 면담조사: 3차 요구 조사 자료 목록

3차 요구 조사 자료(2020. 10. 27.)

□ 전문가 협의회 목록

전문가 협의회(2020. 1. 30.).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1. 31.).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2. 14.). 평화·통일교육 관련 개념 및 방향 탐색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2. 21.). 평화·통일개념 정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4. 17.). 평화·통일교육 델파이 2차 조사지 작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4. 22a.). 평화·통일교육 델파이 2차 조사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4. 22b.). 평화·통일교육 목표 관련 델파이 조사지 작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5. 7.). 델파이 2차 조사지 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5. 12.). 평화적 소통 개념의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5. 15.).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5. 22.). 학교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5. 25a.). 학교 평화·통일교육 현황 및 개선점 분석 방안 탐색을 위한 온라인 자문.
 전문가 협의회(2020. 5. 25b.).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온라인 자문.
 전문가 협의회(2020. 5. 27a.).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역량, 목표(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5. 27b.).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과서 분석을 위한 온라인 자문.
- 전문가 협의회(2020. 6. 2.). 델파이 결과 통계 분석을 위한 온라인 자문.
- 전문가 협의회(2020. 6. 5.). 학교 평화·통일교육 분석 기준 적용 관련 논의(국어과)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6. 16.).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시사점 도출 관련 온라인 자문.
- 전문가 협의회(2020. 6. 19.).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6. 29.). 중간보고서 심사의견 반영 및 수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6a.).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6b.).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조사 계획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11.). 평화·통일교육 관련 심층면담 분석틀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14.).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1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19.).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20.).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2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2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1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27.).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1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28a.).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3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8. 28b.).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 요구 분석 관련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1.).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2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2.).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심층면담 워킹그룹 1차 온라인 자문.
- 전문가 협의회(2020. 9. 3a.). 학교 평화·통일교육 현장 실태 파악 및 요구 사항 수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3b.).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2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4a.). 학교 평화·통일교육 현장 실태 파악 및 요구 사항 수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4b.)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6.).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1차) 온라인 자문.
- 전문가 협의회(2020. 9. 7.).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8a.). 평화·통일교육 관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3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8b.).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8c.)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10a.).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10b.). 평화·통일교육 관련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3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전문가 협의회(2020. 9. 10c.).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0d.).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1a.).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결과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1b.).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4.).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5a.).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5b.).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6.).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9. 17.).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심층면담(2차)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2020. 10. 27.). 학교 평화·통일교육 현장 실태 파악 및 요구 사항 수렴을 위한 3차 온라인 자문.

ABSTRACT

Exploring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Curriculum for the Substantialization of School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Kim Sang Bum
Kim Hyun-Mi
Lee Sang Ah
Kim Tae Hwan
Lee In Jung

◆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s (hereafter referred to as PUE) and, in turn, to develop its core competency and set the goals that will enable clarific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needs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It is designed to produc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policies for systematic and sustainable instruction by shaping the global school curriculum rather than focusing on specific subjects.

◆ Examining the Trend in PUE

The historic summit held in Korea in 2018 led to a shift from conflict and confrontation to peace and coexistence. Subsequent to this, government administration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Education, offered a new direction for unification, but they have not shared their understanding of PUE at the school level, causing school administrators and front-line teachers to be confused about this new dire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notion of PUE, its purpose and its core competencies.

◆ Conceptualizing PUE and Advancing the Core Competency

This study involves Delphi methods conducted three times and an investigation by a 20-member panel of people from various disciplines, including teachers, practitioners, administrator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Education Offices, resear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The diverse perspectives about PUE from the data collected allowed us to formulate a unified concept of PUE and its core competency.

◆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PUE

This research project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refinement of the curriculum by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alysis of the 2015 curriculum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definition of PUE and its core competency. Further, it reveals the need to have more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topics across subjects, and moment education. The curriculum, textbooks, standards for writing textbooks, and considerations in publishing textbooks were all examined. The findings show that only 27 out of 2,530 achievement standards are closely tied to PUE. Even this small number of standards concentrates on just a few subjects such as ethics, social studies, and Korean. Furthermore, it is noticeable that these categories do not successfully address communicative competence fostering peaceful and democratic discussion. Also, th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adjust textbooks and the criteria for textbooks to the current perspectives of PUE.

◆ Analyzing the School and Social Needs to Internalize PUE

This study investigated front-line schools and social needs to identify

necessary changes, revisions, and resources. The needs analysis involved three stages: online written surveys were conducted in the first and third stages, while a video conferencing approach was used in the second stage. The participants included teachers from K-12 levels of education at six research schools, four non-research schools, and experts from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related organizations, and NK teachers. The findings reveal the social need for a well-defined concept and direction for PUE, including curriculums and textbooks, instructional materials, training of teachers with expertise, and improve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his analysis has fi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UE.

First, to ensure the consistency of PUE, we suggest providing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s and resources. Second,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shift in PUE informs curriculums and textbooks and integrates diverse perceptions about unification in classes. Third,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it is critical to develop instructional materials that are engaging, reliable, and relevant to students' daily lives. These learning materials will bring students' experience into the center of learning. Fourth, to cultivate teachers with specialized expertise, the evolving concept of PUE needs to be reflected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In connection with this, it is vital that diverse workshops be held to fulfill the needs of educational community stakeholders, offering resources that can be readily applicable in classes. Finally,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it is necessary to revise certain regulation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nd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activ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agents of relevant constituencies.

◆ Mapping Out the Direction to Achieve Meaningful PUE

To advance PUE, it is important to secure achievement standards, expand relevant curriculums, and refine these curriculums based on the renewed

direction of PUE.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a South Korean-centered thinking. Instead, we need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omoting peace and coexistence. Then, rather than forcing an acceptance of the rationale for reunification, we need to highlight democratic and peaceful communication, educating students to become democratic citizens. Lastly, educators and decision-makers should attempt to refrain from engaging with abstract master discourses. Instead, they should prioritize how PUE affects learners' lives.

◆ Recommendations

In addition to the suggestions made above, specific recommendations based on this research project's findings can be made. To further develop educational expertise, it is crucial to construct systematic frameworks by accessing a wide range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designed by various communities. It is then necessary to accommodate diverse groups of teachers for teacher training by differentiating PUE programs for educators. Likewise, to develop more meaningful instructional resource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lives, more infrastructure such as spaces for experiential learning need to be constructed. Finally, refining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nd building participant consensus at all levels in the PUE governance will make these recommendations possible.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부록

[부록 1] 델파이 조사지
[부록 2] 면담 조사 질문지

[부록 1] 델파이 조사지²³⁾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역량, 목표 설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역량, 목표를 학교 차원에서 정립하여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가 아닌 전 교과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학교급 간 계열성 및 교과 간 연계성을 갖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비롯한 정세 변화 속에서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일교육도 ‘평화·통일교육’으로 명칭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이 학교 교육 현장에 구체적 실천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직관적인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화·통일교육의 정의(개념, 역량, 목표)에 대한 논의는 시기별, 주체별(연구자 및 기관별)로 관점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각 학교급별 평화·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역량, 학교급별 목표를 정립하여, 이후 진행될 평화·통일교육 현황 분석(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운영 사례 등) 및 요구 분석(학교 현장 및 관련자 면담 등)의 구성 틀과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준거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3~5월에 걸쳐서 총 3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지 응답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 연구진 드림

23) 델파이 조사지는 1차 조사지만 제시하였음.

1. 학교 평화통일교육 개념

※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의입니다.

연구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김국현 외(2018)	갈등과 폭력의 일상문화를 버리고 평화를 삶의 원리로 습관화하고 삶의 자연스러운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김선자·주우철(2019)	평화에 기반을 두어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
오기성(2019)	분단이라는 조건 하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구축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한만길(2019)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증진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의지와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함규진 외(2019)	북한과 공동체의 회복 및 확산을 모색하고, 분단 체제 하에서의 비평화적 문화요소와 구조를 인식하고 해소, 제거하려는 실천적 목표를 고려하는 교육

1. 위 자료를 참고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화·통일교육에서 강조해야 하는 역량과 그 의미입니다.

연구자	평화·통일교육의 역량	역량의 의미
오기성 (2019)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폭력을 인지할 수 있는 민감함과 평화에 반하는 구조와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는 예민함, 그리고 폭력의 상태를 극복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
	평화문화 형성 역량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실천하는 한편, 사회 내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삶의 양식을 만드는 능력
	북한·통일 탐구 역량	분단 이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의지와 당연하다고 여겨온 사실에 대한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북한 읽기 능력
	통일평화 구축 역량	통일이 평화적으로 성취되고, 그 결과가 대립과 갈등, 폭력을 종식하고 협력과 화합을 가져오는 '통일평화'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대훈 (2019)	비판적 사고력	삶과 세계에서 해침과 해치지 않음, 나와 타자와 공동체의 상호작용 및 불의와 억압에 관한 소통과 분석 및 대안 추구와 비전 형성 능력
	상호의존능력	대화와 공감, 자기조절을 통해 다양한 당사자의 니즈와 이슈 및 정체성들을 알아차리면서 이에 대한 민주적이고 평화적 관점과 태도를 갖는 것
	관계 맺기 능력	평화적 대화, 평화감수성, 긍정적 사고, 자기조절과 공감, 갈등전환, 팀워크 형성, 팀 실천을 수행하는 능력
	민주적·평화적 소통 능력	인권, 다양성, 상호존중, 서로 힘주기(mutual empowerment)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갈등 분석과 조정 능력	구체적 갈등의 분석과 평화적 전환, 갈등 속 불의와 억압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의 포용과 참여를 높이고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능력
	평화구축 능력	한반도에서 분단과 대립이 야기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갈등 분석, 평화적 변화의 기획, 갈등 전환, 평화를 위한 실천, 모니터링과 평가, 제도와 가치에서 평화지향성을 높이는 실천 능력
함규진 외 (2019)	평화 지향 역량	일상에 존재하는 비평화적 요소와 폭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불편해하며, 관용이나 인정, 공감, 연민 등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지향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려는 역량
	시민적 소통 역량	시민으로서의 주체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문제를 대화, 토론, 타협, 협력 등으로 해결하려 하며, 갈등의 편재성은 인정하면서 관리와 전환을 모색하여 공동체의 회복과 확장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 탐구 역량	분단 과정과 상황, 남북한의 현황, 통일국가의 사회상 등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글로벌적 차원에서, 또한 인문·사회·자연·예술 등 전학문적 차원에서 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2. 위 자료를 참고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과 그 의미를 아래 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의 개수는 제한 없음)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핵심역량	핵심역량의 의미

Ⅲ.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 다음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시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 평화의식 함양
- 민주시민의식 고양

※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교급별 교육 목표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교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교급별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위 자료를 참고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총괄 목표 및 학교급별 목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총괄 목표		
학교급별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Ⅳ. 기타 의견

4.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 강조해야 할 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면담 조사 질문지(학교 현장 요구 조사용)²⁴⁾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조사를 위한 심층면담 사전 질문지【학교 현장 요구 조사용】

면담 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학교 차원에서 정립하고,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학교 현장의 요구 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의 사전 조사를 목적으로 하오니,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귀하의 문제의식 및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면담의 배경 맥락

참여자 정보	<p>참여자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간략히 제시해 주십시오. (직위, 교직 경력, 소속 학교 재직 기간, 담당 교과 및 학년, 통일교육 관련 업무 경력 등)</p>
소속 학교 현황	<p>소속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간략히 제시해 주십시오. (학교 구성원의 특성, 지역의 특성 등에 대한 간략 정보)</p>

24) 참조 자료를 제외한 질문 문항만을 제시하였음.

※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에 제시된【자료1】~【자료3】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2.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문제점, 변화해야 할 점, 강조되어야 할 점, 필요한 지원 등)

•
•
•
•

[부록 3] 면담 조사 질문지(사회적 요구 조사용)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요구 조사를 위한
심층면담 사전 질문지【사회적 요구 조사용】**

면담 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학교 차원에서 정립하고,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학교 현장 및 사회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사회적 요구 조사를 위한 심층면담의 사전 조사를 목적으로 하오니, 학교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귀하의 문제의식 및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면담의 배경 맥락

참여자 정보	참여자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간략히 제시해 주십시오. (직위, 소속 기관 재직 기간, 담당 업무, 통일교육 관련 연구(업무) 경력 등)
소속 학교 현황	소속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간략히 제시해 주십시오. (기관 목표, 조직, 주요 사업, 통일교육 관련성 등에 대한 간략한 정보 등)

※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에 제시된【자료1】~【자료3】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2.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문제점, 변화해야 할 점, 강조되어야 할 점, 필요한 지원 등)

•
•
•
•